



북정·태평 마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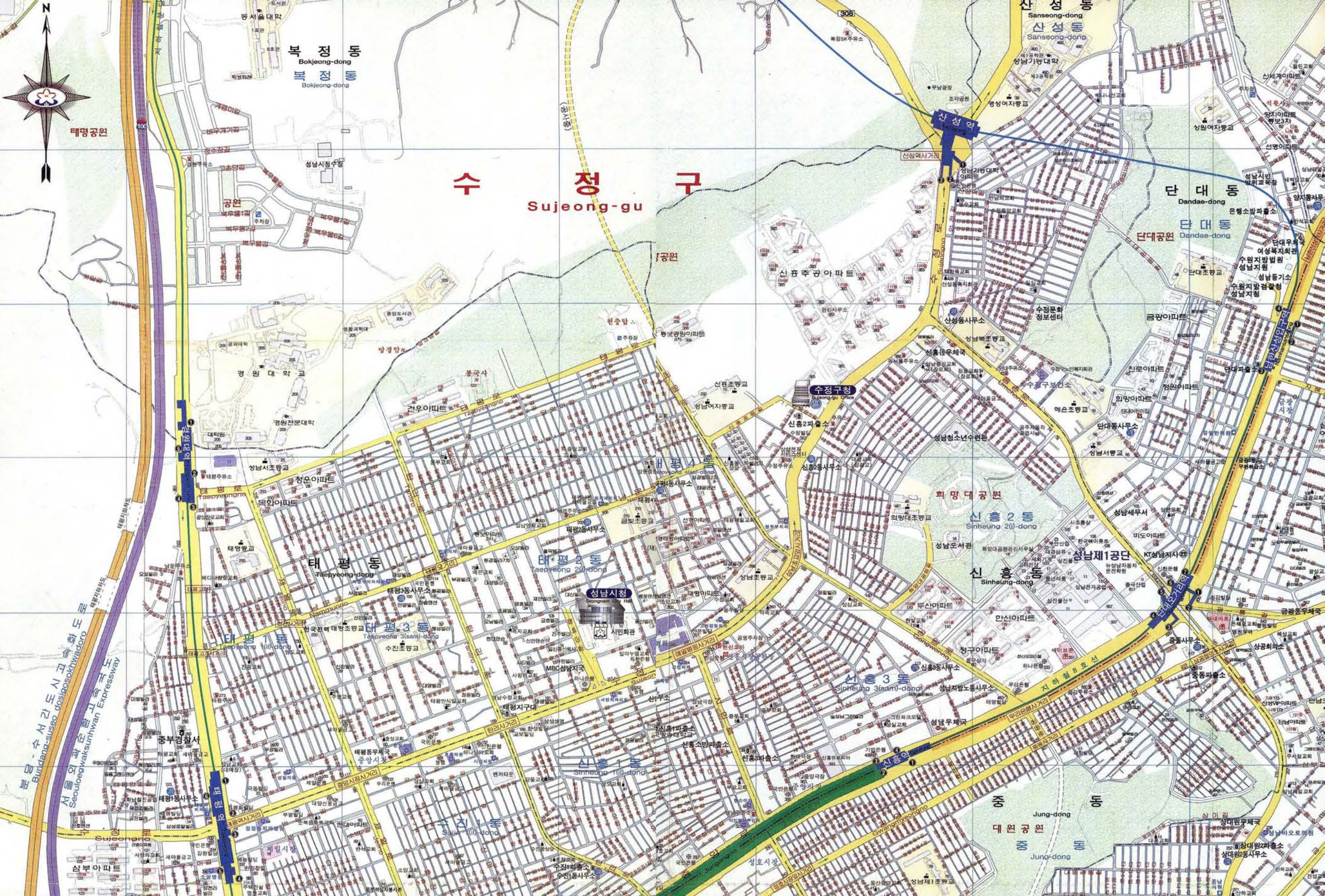
성남문화원

북정·태평 마을지

성남문화원



수정구 Sujeong-gu





📍 경원대에서 바라본 북정동



📍 안골 전경



가마절골 전경



청말 전경



매치기 전경



중부경찰서에서 바라본 태평동

▶ 허옥희씨 남편이 남한산국민학교 졸업 때의 모습. 사진에는 소화20년이라고 쓰여 있다. 당시에는 성남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인근에서는 남한산성 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





▲ 조학년씨 댁 부엌 뒤에 있는 장독대와 텃밭



▲ 함진득씨 대문 위에 걸어놓은 으나무



▲ 조사자에게 세시풍속을 말해주고 있는 창말의 노인정에서 만난 아주머니들



▲ 창말 어느 주택에 걸어놓은 약쑥



◀ 2004년 대보름에 탄천가에서 성남지역 문화패들이 모여 달집태우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 행사는 '숫대'를 비롯한 지역문화패들이 몇 년전부터 매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성남지역의 달맞이 풍속과는 차이가 있다. 멀리서 대나무를 구입하여 만들어놓은 달집은 남부지역에서 행하는 것을 모방한 것이다.



♣ 허옥희씨 손녀 돌잔치(1983, 남자아이는 친구임)



♣ 청말 마을공터에서 행해진 노인잔치(1960년대 중반)



♣ 허옥희씨 친정아버지의 회갑잔치(6.25전쟁 때이나 양재동은 전쟁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한다)



성남문화원장 남 선 우



발간사

우리나라는 지방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문화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다채롭습니다.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각 지방에서는 자기 지역의 문화를 기록하고 발굴하며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문화적인 격변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마을지를 통해 각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잘 기록하는 일은 창조적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일이며 이 책자가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연차적으로 실시한 마을지 편찬은 판교와 대왕을 거쳐 이제 복정동과 태평동 지역을 하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책자를 발간하기까지 조사와 집필에 전념해 주신 집필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 12. 20



1. 이 책은 북정동과 창곡동, 태평동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조사와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현지조사 내용은 2005년에 집중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그 이전에 조사된 것도 있으나 그런 것은 가능하면 조사한 시기를 각주에서 밝혀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지의 사정은 변할 수 있다.
2. 조사를 위해 인터뷰한 제보자들은 이곳이 고향인 토박이 주민들이나 이곳의 사정에 밝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술사'가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제보자의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틀릴 수 있는 여지도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각주를 통해 일일이 밝혀 두었다(단, 제2장의 경우에는 집필자의 사정상 제보자를 밝히지 못했다).
3. 목차별 집필자는 아래와 같다.

목차	집필자
제1장. 마을의 자연·인문환경	박지윤
제2장. 마을의 역사	한동익
제3장. 마을의 문화유적	이상규
제4장. 마을의 정치, 경제, 사회 Ⅰ. 마을의 정치와 사회 Ⅱ. 마을의 주요기관과 시설 Ⅲ. 마을의 생업과 경제	천은복 " 이상균
제5장. 마을의 생활과 문화 Ⅰ. 의식주 생활 Ⅱ. 세시풍속 Ⅲ. 일생의례 출산, 혼례 회갑, 상례, 제례 Ⅳ. 민간신앙 Ⅴ. 놀이와 여가생활	양미경 김덕목 " 박지윤 김덕목 홍순철



차 례

발간사 (성남문화원장 남선우)	9
일러두기	10
제1장. 마을의 자연·인문환경	17
I. 북정동	18
1. 자연환경	18
1) 위치	18
2) 지형과 풍수	19
2. 인문환경	19
1) 행정구역의 변화	19
2) 마을전경	20
3) 주요도로	22
4) 1970년대 개발 전의 모습	23
II. 창곡동	24
III. 태평동	29
제2장. 마을의 역사	37
I. 북정동	37
1. 마을내력	37
2. 세거성씨	39
3. 지명	44
II. 창곡동	50
III. 태평동	57
제3장. 마을의 문화유적	73
I. 북정동	73
1. 망경암	73
2. 해평 윤씨 묘역 및 모덕재	75
3. 유계문과 문화 윤씨 묘역	77

4. 망실된 정입의 묘	79
5. 이희의 묘	80
6. 진주 강씨 묘역 및 강위의 행적	81
7. 남양 홍씨 묘역	86
8. 안골 느티나무	88
9. 망경암 느티나무	88
II. 창곡동	88
1. 창원 황씨 묘역	88
2. 광산 김씨 선산 및 김필의 묘	90
3. 전주 이씨 계양군 후손 묘	94
4. 해주 오씨 묘역	95
5. 간이골 느티나무	95
III. 태평동	96
1. 봉국사	96
2. 의령 남씨 묘역	98
3. 영창대군 묘지석	101
4. 탄리사지 동종	103
5. 정부인 성씨 묘	104
제4장. 마을의 정치·경제·사회	109
I. 마을의 정치와 사회	109
1. 조직과 자치회	109
1) 마을조직과 회의 및 안전처리	110
2) 청년회	110
3) 부녀회	111
4) 노인회	112
2. 단체	114
1) 친목단체	114
2) 동호회	115
3) 시민단체	116
4) 종교단체	117

Ⅱ. 마을의 주요기관과 시설	125
1. 행정 및 복지기관	125
1) 동사무소	125
2) 경찰서	126
3) 우체국	128
4) 성남시청	129
5) 복지회관	131
2. 교육기관	133
1) 유아교육기관	133
2) 초·중등교육기관	138
3) 대학교	144
4) 기타 전문교육기관	146
3. 문화예술기관	148
1) 성남시민회관	148
4. 기타 시설	149
1) 성남하수처리장	149
2)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	149
3) 복정정수장	150
4) 공원	150
Ⅲ. 마을의 생업과 경제	154
1. 지역의 물리적 성장과정	154
1) 도로망과 지형	154
2) 지역 장시의 발달	156
2. 일상의 경제활동	159
1) 창곡동 사례	159
2) 복정동 사례	163
3) 태평동 사례	165
4) 중앙시장의 지역경제 활동	170
제5장. 마을의 생활과 문화	175
I. 의식주생활	175

1. 주생활	175
2. 식생활	183
3. 의생활	191
II. 세시풍속	195
1. 창말의 세시풍속	197
2. 탄리의 세시풍속	210
III. 일생의례	218
1. 출산	218
2. 혼례	222
3. 회갑	237
4. 상례	239
5. 제례	252
IV. 민간신앙	259
1. 마을신앙	259
2. 가신신앙	261
V. 놀이와 여가생활	265
1. 놀이	265
1) 도시화 전의 남자아이놀이	266
2) 도시화 전의 여자아이놀이	272
3) 도시화 전의 어른놀이	273
2. 현대의 여가생활	276
1) 아동 및 청소년	276
2) 성인	277
3) 노인	278
3. 마을잔치 및 야유회	279



제 1 장 마을의 자연 · 인문환경

여 백

제 1 장

마을의 자연·인문환경

북정동, 창곡동, 태평동은 성남시의 북쪽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수정구에 속한다. 북정동과 창곡동은 영장산 북쪽에 위치하여 서울과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남한산성의 서쪽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고 수년 전까지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의 옛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해 온 자연마을이 많은 곳이면서 도시의 현대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묻어나는 마을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태평동은 영장산 남쪽의 산비탈을 따라 바둑판처럼 조성된 인위적인 마을로 1973년 성남시의 승격과 더불어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현재 4개동으로 분할되어 있다.

마을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오랜 세월을 걸쳐 그 지역의 자연조건과 주민들의 가치관·생활양식 그리고 사회제도 등이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물로서, 나름의 고유한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의 접근이 필요한데, 촌락지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은 촌락을 입지, 형태, 구조, 기능 등의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을의 입지조건은 일반적으로 자연조건과 인문조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자연조건은 지질, 지형, 기후, 식생 등으로 인문조건은 정치, 경제, 교통, 사회조건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결합하여 마을의 입지선정에 작용하므로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구분하여 살펴보는 데는 무리¹⁾가 있기 때문에 본 마을지에서는 편의상 위의 분류기준에 의거해 입지조건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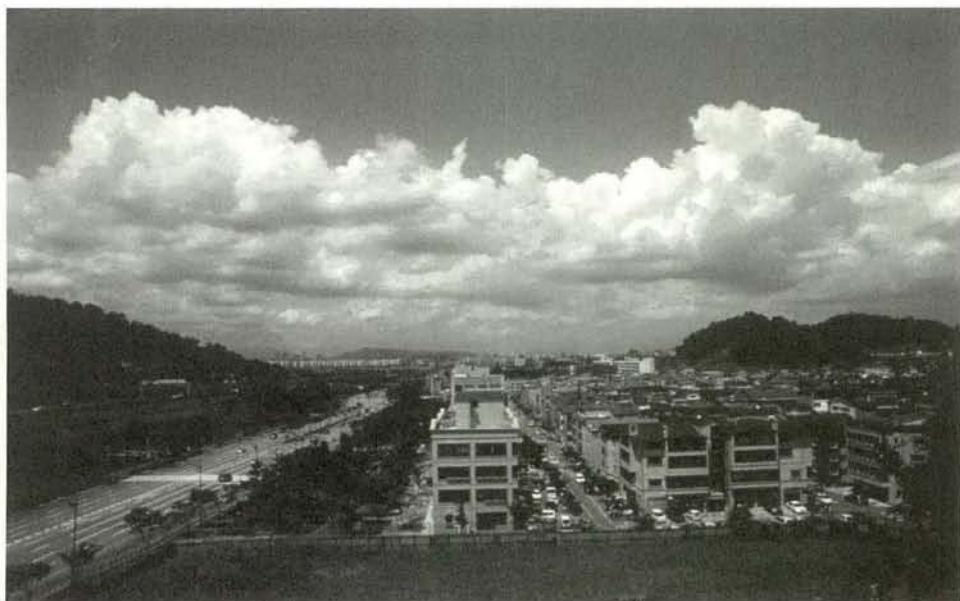
1) 정치영, 「지리산지 촌락의 입지와 형태」, 『우리 국토에 새겨진 문화와 역사』,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3, 335~352쪽.

I. 복정동(福井洞)

1. 자연환경

(1) 위 치

복정동은 수정구 북단에 위치한 마을로 서울과 인접한 성남지역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이곳은 광주군 중부면에 속했으며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지만 1973년 성남시로 승격되면서 시작된 도시건설 계획에 따라 넓은 길이 놓이고, 교육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시로 변모한 곳이다. 마을의 주봉인 영장산에서 서쪽 자락을 따라 완만하게 뺨은 내린 비탈면에는 복정동의 기원설화를 전해주는 '복우물' 마을이 있고, 더 아래쪽 평지로 내려오면 '기와골' 마을이 탄천을 바라보며 자리하고 있다. 또한 복정역사거리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우남로를 따라 가다가 우측을 보면 산기슭에 작은 산능선을 경계로 '안골'과 '가마절'이 있다. 복정동은 동쪽으로는 창곡동, 서쪽으로는 신촌동과 맞닿아 있으며, 남쪽에는 태평동, 북쪽에는 서울시 강남구 및 송파구와 접해있다. 행정동인 복정동은 법정동인 복정동과 창곡동 두 개의 자연마을을 관할하고 있다.



↑ 경원대에서 바라본 복정동

(2) 지형과 풍수

성남시의 쉼터이며, 북정동 마을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영장산(靈長山)은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청량산 자락이 탄천을 향해 일직선으로 내려오다 마지막 안간힘을 쓰듯 도드라진 산으로 높이는 193.38m이다.²⁾ 산비탈에는 조선시대에 요절한 현종의 공주 明惠(명혜)와 明善(명선)의 명복을 빌기 위해 중창하였다는 봉국사가 있으며, 그 주위로 조성된 산길을 따라가면 약수터와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한 갖가지 운동기구를 볼 수 있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쉼터이자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장산에서 멀리 탄천을 향해 뻗어 내린 능선 아래 완만한 경사지에 북정동이 있다. 북정동은 영장산 서쪽과 북쪽 기슭에 형성된 마을이다. 먼저 ‘북우물’은 북정동의 기원설화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 곳으로 영장산 서쪽 자락을 뒤로하고 탄천을 보고 있는 배산임수형의 마을이며 경원대와 동서울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성남대로와 연결되어 북정역사거리 우측에 ‘기와골’이 평지에 자리하고 있다. 근래 이 지역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들이 신축되어 새로운 주택지를 이루고 있다. ‘안골’과 ‘가마절’은 영장산 북쪽 기슭에서 청량산을 마주보고 있는 형세인데, 안골은 조선시대 성종 임금의 자녀 16남 1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희(李禧)의 묘소가 있으며 입구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산으로 감싸 안은 아늑한 곳에 위치하며 산세도 수려한데 현재 마을 앞 야산을 관통하는 영장산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마을의 경관이 손상되어 아쉬움을 더해 준다.

2. 인문환경

(1) 행정구역의 변화³⁾

북정동은 정부의 행정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으로 있다가 1913년 12월 29일 총독부령 제111호로 공포된 『도의 관할구역』에 의해 광주군 군내면 소속의 7개리(산성, 검북, 불당, 오전, 광지원, 용미, 상산곡리)와 세촌면의 7개리 중 6개리(단대, 상대원, 수진, 북정, 창곡, 탄리)가 통합되어 중부면이 신설되었다. 이어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가마골(부곡[釜谷]), 기와골(와골[瓦谷]), 안골, 응달말 등을 병합하여 북정리라는 이름으로 중부면(中部面)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71년 9월 13일 도조례 제470호에 따라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2)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1』, 2004, 62쪽.

3) 성남문화원, 『우리 사는 성남』, 1999, 15쪽과 『성남시사1』, 2004, 281쪽.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성남시 북정동(福井洞)으로 개칭되고, 1975년 3월 17일 시조례 제133호에 따라 창곡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 후 1989년 5월 1일 시조례 제931호에 따라 수정구에 편입되었으며, 성남시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수정구 북정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본현황							
면적	법정동	개통	개반	가구수	인구수	남	여
6.79km ²	2	13	114	5,653	10,603	5,683	4,920

〈북정동사무소 총무담당, 「관내 동별 현황」자료(2005.7.31 현재)〉

(2) 마을전경

북우물 마을은 현재 다세대 신축건물들이 반듯하게 구획되어 들어선 마을로 근래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경원대 주변은 2002년에 1차로 개발되었고 북정초교 주변은 2003년도에 2차로 개발되었으며, 서울국제학교 주변은 2005년도에 3차로 개발되었다. 주택들은 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 건물로 지어졌으며 1가구당 1대씩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태평동 등지에 있는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주택에 비하면 현대식이라 할 수 있다. 방의 구조는 원룸이 7~8평, 투룸은 15~20평, 쓰리룸은 25~40평으로 된 주택들로 특히 원룸과 투룸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북우물 마을의 주택 가격은 평당 천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한 건물의 시세는 10억에서 25억



↑ 동서울대학에서 바라본 북정동

사이를 호가한다고 한다.⁴⁾

기와골이 있던 북정역사거리 주변에는 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는 북정역과 환승주차장, 그리고 성남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우남로와 성남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도시고속화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교통량이 많아 혼잡하다. 과거에 이 지역은 인력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근래에는 상가가 드물고 주로 주택가가 있어 인적이 많지 않게 되었다. 북우물과 기와골의 앞 대로는 성남과 서울을 연결하며 성남시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편도 5차선의 넓은 도로이다. 북정역 주변 대로는 화훼단지, 목재창고, 벽돌창고, 부동산점포, 수석판매상가 등이 늘어서 있으며, 신축건물들 사이로 언제 헐리게 될지 모르는 몇 채의 옛 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있다. 현재 북정동에는 성남시 상수도관리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학, 동서울대학, 서울국제학교, 북정초등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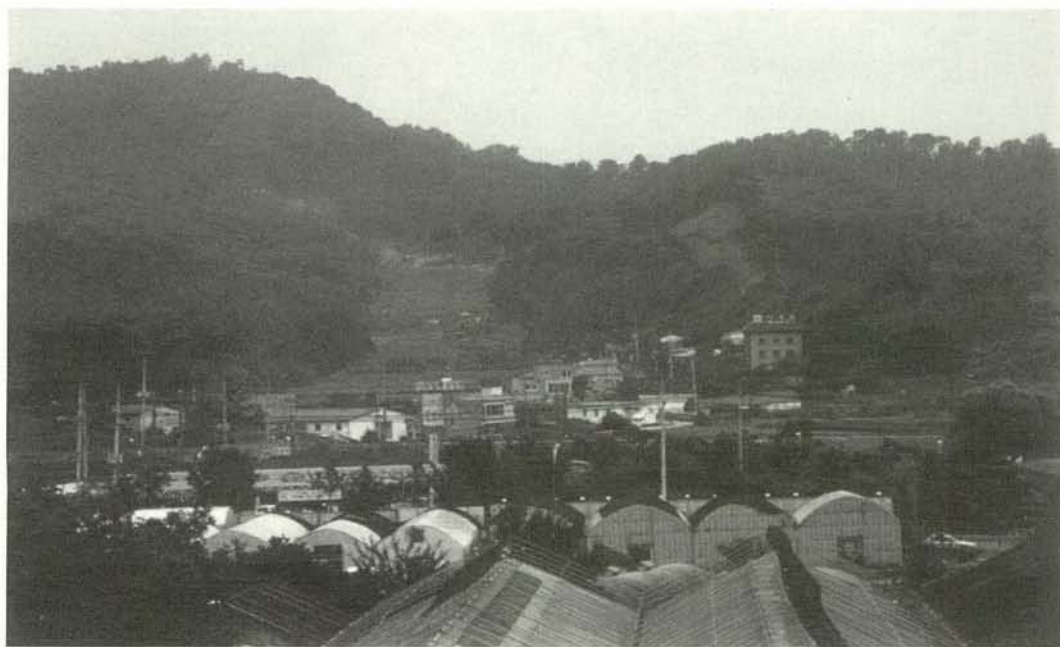
↑ 안골 표지석



↑ 안골 전경

또한 북정역사거리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연결되는 우남로 또는 약진로를 따라 1km 정도 달리면 오른쪽에 '안골마을'이라고 쓰인 표지석이 서 있다. 조사하던 날인 2005년 7월의 이곳 풍경은 잘 포장된 마을길을 따라 들어서면 좌우에 고추, 호박, 파 등이 자라 풀내가 물씬 나는 밭들이 보이고, 채소를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있어 아직도 논밭을 가꾸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농촌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입구를 100여 미터 들어서면 농산물 창고가 눈에 들어오며, 그 뒤로 깔끔하게 새로 지은 고급주택과 옛 농가가 섞여 있다. 마을의 전체 가구는 20여 호 정도로 보이는 작은 마을이다. 과거 농사만 알고 살아오던 토박이 주민들은 이 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땅부자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의 농가를 헐고 최근에는 고급주택을 짓고 여유롭게 살고 있다.

4) 제보자 : 기와말에 있는 '강남부동산'의 중개사



↑ 가마절골 전경

마을 안쪽에 성남시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있으며 그곳에서 10m 정도 좌측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근래에 건립한 신도비와 그 위에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 묘소는 조선 성종 임금의 16남 1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희(李禧)의 묘이며 신도비는 양원군파 총회에서 2000년 9월에 세운 '정해공 양원군신도비(貞惠公楊原君神道碑)'이다.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득한 명당자리로 보이나 현재 우남로에서 영장산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로 포크레인이 시끄럽게 소음을 내며 전방의 야산을 헐고 있었다.

안골 앞에서 우남로를 따라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는 산성역 방향으로 조금 가다가 우측을 보면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기와를 굽던 가마가 있는 마을로 알려진 '가마절' 마을이 있다. 지금은 음식점과 창고 등이 들어서 있고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는 철길이 산성역으로 향하고 있다.

(3) 주요도로

북정동을 지나는 주요도로는 탄천변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가 성남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란사거리에서 북정역사거리까지 편도 5차선의 넓은 도로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고, 북정역사거리에서 산성역으로 편도 2차선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북정역은 지하

철 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이 교차하여 갈아탈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4) 1970년대 개발 전의 모습

과거 북정동에는 가마절(釜谷), 구석말, 기와말(瓦谷), 복우물, 사거리, 심박골, 안골, 양짓말, 윗말, 까치골 등의 자연마을⁵⁾이 있었다고 하나 토박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성남시가 개발되기 전인 1970년에는 복우물, 기와골, 안골, 가마절이 있었다 한다. 전자가 몇 집 떨어져 있는 점촌까지 전부 말한 것이라면 후자는 마을이라 부를 만한 20여 호 이상 되는 곳을 거론한 것이라 사려된다. 북정동의 자연마을은 과거 농촌지역으로 상하수도, 농지정리, 전기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교통사정이 불편했던 고장이었으며, 서울과 인접했으나 개발 이전의 형편은 좋지 않았다. 정부수립 후 1960년대 초까지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농업을 위주로 한 한적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사방에는 들판이 펼쳐져 있고 마을 앞과 뒤는 산으로 둘러싸인 어느 시골 마을과 다를 바 없었으며, 농민들의 순박한 인정이 오갔던 고장이었다 한다.⁶⁾

‘복우물’ 마을은 현재 정원대 밑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건너편까지 70여 가구가 살았는데 성남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의해 마을이 완전히 양분되었으며 수년 전부터 신축건물이 대거 들어섰다. ‘기와골’ 마을은 현재 성남대로에 있는 북정사거리 우측에서 북정초교 지역까지 40여 가구가 있었는데 현재 토박이는 10여 호가 있으며 수년 전부터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신축건물들 사이에 있는 몇 집 남은 과거의 주택들은 곧 철거될 예정이다. ‘안골’ 마을은 북정사거리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조금 가다보면 도로 우측에 있는 마을이다. 과거에는 40여 가구가 살았는데 현재는 원주민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가마절’ 마을은 북정사거리에서 안골 입구를 지나 백여 미터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면 있는 마을인데 과거에는 20여 가구가 살았으나 현재는 원주민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5)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1』, 2004, 361~363쪽.

6) 천화숙, 「성남지역에서의 근대화운동과 민족운동」, 『성남의 역사와 문화』, 성남문화원, 1998, 116쪽~121쪽.

II. 창곡동(倉谷洞)

1. 자연환경

(1) 위치

창곡동은 영장산 북쪽 산기슭 아래에 자리 잡은 복정동의 '가마절' 마을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남한산성의 서쪽 산기슭에는 '창말'이 있고 그 앞에는 지금도 논이 펼쳐져 있으며 논과 군부대 사이에 '매착리' 마을이 있다. 창말과 매착리 우측으로는 종합행정 학교, 문무대, 상무대, 군인아파트가 있다. 우남로삼거리와 창말 사이에는 간이골이 있다.

창곡동 동쪽에는 수정구 양지동이, 남쪽에는 복정동, 산성동, 단대동과 맞닿아 있으며, 서쪽과 북쪽에는 서울시 강남구 및 송파구 일대와 하남시 감북동(학암동)과 접해 있다. 창곡동은 행정상 복정동에 속해 있어 모든 행정업무는 복정동사무소에서 처리한다.

(2) 지형과 풍수

창곡동은 남한산성 서쪽 비탈면을 따라 형성된 계곡사이의 평지에 형성된 마을로 현재 4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상 1통과 3통으로 구분된 창말은 남한산성 서쪽 산사면 아래에, 2통의 매착리는 논농사와 밭농사가 가능한 평지에, 4통의 군인아파트는 창말 옆에, 5통의 간이골 마을은 창말과 우남로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예로부터 창말이 본동(本洞)이었다.

창곡동은 남한산성 아래에 위치하여 병자호란을 겪은 마을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가 장기간 머물렀던 숙영지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포병부대가 주둔하여 군사지역으로 활용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육군교도소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근래에도 군부대가 여전히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창곡동은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약 300여 년 동안 군사시설과 깊은 인연을 맺어 온 마을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초기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마을의 유래와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주민들의 생업은 과거에는 주로 농사를 지어 생활하였으며 한 때 수확한 농작물을 인근 군부대에 납품하기도 했다. 주민 중 일부는 서울과 성남 도심으로 이주하였거나, 분가한 자녀를 둔 부모들만 거주하는 경우도 많으며,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한 후 음식점을 경영하며 상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식품창고, 목재창고, 농작물창고 및 화훼단

지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들도 있다. 주민들 중 일부는 현재 군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성대 골프장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한다.

2. 인문환경

(1) 행정구역의 변화⁷⁾

창곡동은 조선시대에 광주군 서부면에 속한 '창말'이었는데, 1914년 부령 제111호에 의거하여 광주군 세촌면의 세곡동을 병합하여 '창곡리'라 하면서 중부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71년 9월 13일 도조례 제470호에 따라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고,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성남시에 편입되면서 1975년 3월 북정동의 관할이 되었다. 그 후 1989년 5월 지조례 제931호에 의거하여 성남시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창곡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본현황							
면적	법정동	개통	개반	가구수	인구수	남	여
2.96km ²	1	5	24	1,088	2,690	1,438	1,252

〈북정동 동사무소 총무담당, 「관내 통별 현황」자료(2005. 07.31현재)〉

(2) 마을전경

북정역과 산성역을 잇는 우남로를 가다가 우남로 삼거리에서 종합행정학교 방향으로 100여 미터 더 들어가면 우측에 '간이골'이라 쓰인 표지석이 있다. 이 마을의 집들은 70평 정도의 대지에 2층 양옥으로 된 전원주택으로 가득한데 마을길은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잘 구획되어 있고 8m정도의 넓은 포장길로 되어 있어 집집마다 주차하기가 편리하다.

이곳은 과거 몇 가구가 있었을 뿐 논과 밭이었는데 현재와 같이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된 것은 서울공항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성남시에서 마련한 부지로 이주해 집을 짓고 살면서부터이다. 성남시에서는 주민들에게 3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 간이골 표지석

7)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1』, 2004, 283쪽.

조건으로 704만원을 대여해 주거나 70평 정도의 60여 가구를 분양해 주었다고 한다. 그 후에 10여 가구가 새로 지어진 후 현재에는 70여 가구가 있다 한다.⁸⁾ 초창기에 마을을 만들며 가꾸었던 원주민은 집을 팔고 서울이나 주변지역으로 이주하여 현재 원주민은 20여 가구가 남아 있으며, 나머지 50여 가구는 서울 인근지역이나 성남에서 이주해 온 외지인들인 셈이다.

마을입구를 들어서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창곡동 '세촌2경로당'이 있어 함께 건물을 사용한다. 마을회관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1시간 간격으로 다니는 550번 마을버스와 분당 테크노파크~창곡동을 오가는 50번 버스가 있다. 그리고 마을입구 주변에는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등의 시설이 있어 어린이와 어른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간이골에서 창곡길을 따라 500여 미터 가면 오른쪽에 50여 년 된 창곡교회가 있고 그 너머 '창말'이라고 새긴 표지석과 함께 마을이 나온다.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소이다. 이곳은 예전에 그린벨트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건물을 고치거나 농토를 변경할 때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근래 그린벨트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서울과 인접하고 남한산성을 둘러싼 청량산의 자연경관이 좋아 외지인들의 토지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의 토지 대부분은 벌써 외지인들의 소유가 되었으며, 원주민의 토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한다.⁹⁾ 또한 마을입구에는 음식점과 슈퍼 등의 일반상가와 철강회사와 식품회사의 자제창고가 있으며, 그 뒤로 3통 경로당이 있다.



↑ 창말 표지석



↑ 창말 전경

8) 간이골 내력에 대해서는 통장님과 대담하였다.

9) 제보자 : 창말부동산 중개업자

3통 경로당 앞에는 슬레이트 지붕과 돌기와 지붕으로 된 주택이 서 있어 창말마을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고,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현대식으로 지은 4, 5층의 다가구 주택과 신축한 양옥집도 몇 채 있어 옛 농가와 현대식 주택이 '한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수년 후면 옛 농가의 건물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뒤로는 남한산성의 청량산이 한 폭의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아늑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으나 마을 우측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군인아파트의 모습은 마을이 도심 변두리에 있음을 상기하게 만든다.

매착리는 창말 100여 미터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아직은 개발 전에 있는 마을 앞의 넓은 논과 밭을 볼 수 있다. 마을 뒤로는 군부대의 담장과 맞대고 있고 앞으로는 우남로까지 평지작업으로 다져진 빈터와 농토가 있으며, 멀리 북정동을 감싸고 있는 영장산이 바라보인다. 또한 창말 마을 뒤로 보이는 청량산의 우뚝한 봉우리도 볼 수 있다. 마을 주택들은 주로 2층 양옥집과 단층의 농가 그리고 농산물 창고로 쓰이는 건물들이 군부대 담장을 경계로 늘어서 있다.

창말 입구에서 남성대 군인아파트로 빠져 올라나가는 길은 왕복 2차선의 좁은 길이지만,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지나면서 왕복 4차선의 넓은 도로가 된다.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남성대골프장까지 확 트인 도로주변에는 육군체육부대(상무대), 학생중앙군사학교(문무대) 등의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남성대 골프장은 논과 밭을 지어 생활하던 주민들의 새로운 생활터전이자 일터가 되고 있다.

문화재로는 간이골 입구 도로 맞은편의 나즈막한 구릉 말단에 정남향하여 배증정부인전의이씨와 합장한 황운보(黃雲甫)의 묘가 있다.



↑ 매치기 전경



↑ 문무대 표지석

(3) 주요도로

북정역에서 산성역으로 연결되는 왕복 4차선 우남로와 창말 입구의 좁은 도로에서 출발하여 군인아파트를 지나면서 북정사거리로 연결되는 왕복 4차선 넓은 도로는 마을의 주요도로이다.

(4) 1970년대 개발 전의 모습

창곡동(倉谷洞)은 1970년 개발 전에는 행정구역상 광주군 서부면에 속한 '창곡리'였으며, 매착리와 간이골, 창리라는 마을로 구성된 마을이었다. 1통과 3통의 창리는 원래 '창말' 또는 '창동'으로 불리었던 마을로 주민들에 의하면, 과거 병자호란 때 마을 뒤쪽 산골에 군량미를 보관한 창고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창말'이라 불리었다 한다. 창곡동에는 현재 상무대, 행정학교, 문무대 등 여러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데 일제시대에는 이곳에 일본군 포병부대가 있었고 현재 육군종합행정학교 취사장이 있는 곳은 병자호란 때 진을 친 곳이라 하여 '진터별'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촌로들은 동네가 병자호란 이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창말은 1970년대에는 인근에서 가장 큰 마을로 100여 호가 살고 있었으며 한 때 200여 호가 된 적도 있었다는 말이 있다.

2통의 매착리는 원래 주민들이 '매치기'로 불렀던 마을로 과거나 현재 비슷하게 20여 호가 거주하며 위치도 과거와 동일하다.

5통의 외곡동은 '간이골'이라고 불리었던 마을로 1970년대에는 7가구가 드문드문 있었다. 1970년대에 이 지역은 주로 논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던 정승화가 한때 땅을 소유하였는데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그 땅을 몰수하여 성남시에 귀속시켜 1990년대부터 대거 주택들이 신축되면서 현재와 같은 주택가가 생기게 되었다. 간이골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서울공항 주변에 있는 주택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이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공항 주변에서 생활하다가 정부에서 마련해준 일명 '딱지'를 받고 논과 밭뿐이던 마을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 60여 가구를 이루며 살았다 한다. 그 후 10여 가구가 새로 정착하면서 현재 7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III. 태평동(太平洞)

1. 자연환경

(1) 위치

태평동은 수정구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탄천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장산 남쪽 산비탈에 위치해 비교적 지대가 높고 지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고지대는 주거지이며 도로와 접한 저지대에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북쪽은 북정동, 서쪽은 신촌동과 접해 있으며, 남쪽 및 동쪽은 수진동 및 신흥동에 둘러싸여 있다.

(2) 지형과 풍수

태평동의 현재 모습은 영장산 남쪽의 가파른 산비탈을 도시계획에 따라 주택을 지어 놓은 형태다. 태평1동 지역은 과거 수진리가 있던 자리로 한때 성남시청이 위치하였다. 과거 수진동에 있던 성남시청 앞길은 독정천이 흘러 탄천으로 유입되었는데, 비오는 날이면 영장산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린 토사가 독정천을 가득 채워 많은 불편을 주었다고 한다. 성남시가 승격되면서 도시개발에 따라 독정천이 복개되어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이 동에는 '숯골'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영장산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에 형성된 이곳 계곡에는 울창한 나무를 이용하여 '숯을 굽는 마을'이 형성되어 이 일대를 '탄리' 또는 '탄동'(태평1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태평1동을 포함하여 수정구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탄천(炭川)과 독정천(讀亭川)을 들 수 있는데, 탄천은 용인시 마성면 청덕리의 법화산(385.2m)에서 발원한 구성천과 마북면 상마곡리에서 시작된 마북천이 합류한 것과 용인시 수지읍 광교산에서 발원한 정평천과 형제봉에서 시작된 성북천이 합류한 것이 용인 죽전지구 남단에서 합류된 다음을 지칭하는 한강의 지류이다. 그 지류의 흐름은 용인 죽전지구와 성남의 구미동, 금곡동을 지나는 동안은 굴곡이 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직선에 가깝도록 북쪽으로 흐르다가 약간 서쪽으로 휘어져서 한강에 유입되는데 종연장 32.55km, 최대하폭 515m, 유역면적 30.307ha로 제법 큰 지방하천이다.¹⁰⁾ 그리고 이 탄천의 주변에는 높이 100m 내외의 야산들이 솟아 있고,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고북저형(南高北低形)을 이루고 있으므로, 탄천 역시 남출북류형(南出北流形)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¹¹⁾

10)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1』, 2004, 64쪽.



↑ 탄천 물놀이장

현재 탄천가에는 자전거도로 및 체육시설, 물놀이 수영장 등이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의 체력 단련과 여가 활동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는 탄천의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탄천의 수질이 좋지 않아 아쉬운 감이 있다. 그리고 태평1동 탄천가 주변에는 성남시 하수처리장과 폐기물종합처리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및 녹지관리 부산물처리장이 있다.

독정천(讀亭川)¹²⁾은 창곡중학교 뒤에서 시작되어 기능대학, 신흥주공아파트단지 앞, 수정구청, 예일병원, 성남시청 입구, 태평전철역, 삼부아파트단지, 태평동 새터말 앞을 지나 탄천에 유입되는 총연장 3,820m, 최대하폭 30m에 이르는 중천이다. 개발 전은 물론이고 시제가 실시된 1973년까지도 붕어 등 담수어종이 다양하게 살았으나 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도로확충의 일환으로 1985년에 복개되어 지금은 하천이 아닌 수정로(壽井路) 길이 되었다. 복개 후 한때 '대봉로'(大峰路)라 부르기도 하였다.

11) 성남문화원 홈페이지 '성남의 역사'

12)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1』, 2004, 69~70쪽.

2. 인문환경

(1) 행정구역의 변화

태평1동은 과거 광주군 세촌면에 속한 탄동지역으로 1914년 부령 제111호에 의거한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남씨편과 독정리(讀亭里)를 병합하여 '탄리'(炭里)라 칭하고 중부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71년 9월 13일 도조례 제470호에 따라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성남시로 승격될 때 성남출장소 수진지소와 탄리 일부를 병합하여 '태평동'(太平洞)이라 개칭하였다. 성남시 승격 당시 태평동은 현재 태평1동사무소 지역에서부터 동쪽으로 현재 시민로까지 포함하는 지역이었으나, 1975년 10월 태평3파출소 앞의 탄리로를 경계로 서편은 태평1동, 동편은 태평2동으로 분동되었고, 1980년 9월 태평1동을 다시 태평1동과 태평3동으로 분할 개편하였다. 1989년 5월에는 수정구에 편입되었고 1990년 태평2동은 다시 성남시청 뒤편 지금의 '만송6길~영장길'로 이어지는 도로를 경계로 하여 동편이 태평2동, 서편이 태평4동으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본현황(2004. 5.30) ¹³⁾							
법정동	면적	통	반	가구수	인구수	남	여
태평1동	1.42km ²	19	113	8,422	19,744	10,036	9,708
태평2동	0.45km ²	23	136	8,917	23,358	11,904	11,454
태평3동	0.34km ²	20	134	6,872	18,173	9,288	8,885
태평4동	0.37km ²	18	112	7,641	19,857	9,999	9,858
합 계	2.58km ²	80	495	31,852	81,132	41,227	39,905

(2) 마을전경

태평역 부근에는 모란에서 서울로 나아가는 차들과 성남시내로 연결되는 수정로를 따라 들어오는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하여 혼잡하다. 태평역 1번 출구에서 태평1동사무소로 연결되는 도로주변과 태평역 2번 출구에서 시청 방면으로 중앙시장 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주변 및 태평역 6번 출구에서 중부경찰서로 연결되는 주변도로에는 주택복합상가와 은행, 병원, 음식점들이 밀집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다. 이에 반해 독정교 일대를 비롯하여 태평1동사무소와 태평중학교 주변으로는 아파트와 빌라 및 단독주택들이 영장산 비탈을 따라 구획 지어져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13)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3』, 491~4쪽



↑ 중부경찰서에서 바라본 태평동



↑ 봉국사에서 바라본 태평동

태평3동은 중앙시장사거리에서 시작되는 제일로와 탄리사거리에서 시작되는 탄리로를 따라 영장산까지 연결되는 태평로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관내에 동사무소와 수진초교, 그리고 태평초교, 성남서초교가 있다. 태평2동과 3동의 경계인 탄리로 주변에는 음식점, 노래방, 약국, 슈퍼, 학원 등의 상가가 즐비하고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주택지는 바둑판처럼 붙어있는 집들이 많다.

태평2동에는 성남시청과 시민회관이 들어서 있으며, 그 뒤로 태평2동사무소가 있다. 태평오거리에서 태평2동사무소를 지나 남문로 길을 경계로 상하의 마을경관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남문로 길 아래에 성남시청 주변의 주택들은 대부분 빌라와 맨션, 다가구주택 등이 모여 있고 골목길도 비교적 넓지만, 남문로 위의 주택지역은 주로 3층의 다가구주택들이 좁은 골목

을 사이에 두고 밀집되어 있으며 차후 재개발이 예정되고 있다. 또한 봉국사 부근에 있는 건우아파트는 '신일전수학교'가 있던 자리로 현재 재건축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태평4동은 성남시청 뒤 지금의 '만송6길'에서 '영장길'에 이르는 도로를 경계로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예일병원에서 성남초교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영장산 기슭에는 현충탑이 있으며 그 아래쪽으로 금빛초교와 태평4동사무소가 있다. 이 지역은 금빛초등학교를 경계로 좌우에 아파트와 빌라가 들어서 있다.

(3) 주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장지간 도시고속화도로, 성남대로는 남북으로 관통하고 태평로, 남문로, 수정로가 횡단하고 있으며, 지하철 분당선 경원대역 및 태평역이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4) 1970년대 개발 전의 모습

태평동은 1960년대 말 서울시가 도시를 정비하면서 청계천 주변 및 기타 개발지역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이주시킨 '빈민촌'이라는 태동의 아픔을 간직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말, 서울시는 무허가 건물의 심각성만을 고려하여 부지 정지작업도 하기 전에 철거민을 먼저 성남으로 입주시켰다. 생활편의 시설 기반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철거민들을 무작정 허허벌판에 실어다 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천막촌 생활이 시작되었다. 거리는 온통 복덕방과 술집으로 뒤덮였다. 주민들은 술 마시고 노름하면서 밤낮없이 싸움판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시피 했다. 철거민의 분양증을 사서 전입한 외지인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몰려와 주택과 상가 건설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일자리가 생겨났고, 광주대단지는 서서히 활기를 띠게 되었다.¹⁴⁾

영장산의 남쪽 산사면에 위치한 태평동이 지금이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성남시의 도시개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성남시는 시승격 이전에 광주대단지 철거민 가수용 시기(1968.5~1969.6)에 이주한 천막촌이 단대촌을 사이에 두고 현재의 신흥동 일대와 중동일대에 걸쳐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광주대단지 철거민 이주계획 이전에는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형 자연부락이 군데군데 형성되어 있었다.((지도1,2) 참조.) 1971년 7월 19일 건설부가 성남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녹지 42.55km², 광주 대단지 12.00km²에 대해 용도지역을 지정하였고, 1972년 1월 경기도가 성남지역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광주대단지 초기 도시계획은 독정천을 중심으로 격자형 가로망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남의 시가화 구역은 당시 성남출장소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었다.((지도3) 참조.)¹⁵⁾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태평동은 성남시의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안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20평 미만의 주택이 산비탈에 바둑판과 같이 구획되어져 형성¹⁶⁾될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성남개발 이전의 태평동 지역은 당시 광주군 중부면 탄리¹⁷⁾와 수진리가 있던 지역이

14) 성남문화원, 『내고장 성남』, 2003, 18쪽.

15) 소진광, 「성남지역에서의 근대화운동과 민족운동」 『성남의 역사와 문화』, 성남문화원, 1998, 142~143쪽.

16) 한춘섭, 「전통과 역사가 있는 우리 삶의 터전」, 『내고장 성남』, 성남문화원, 2003, 84쪽.

다. 탄리에는 독정마을과 남씨편, 건너말이라는 3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당시 '독정(讀亭, 현재 신흥동에 속함)'마을은 현재 수정구청에서 성남초등학교까지의 지역에 15가구 정도가 있었으며 주민들의 성씨는 남씨, 정씨 등 각성받이었다. '남씨편(南氏便)'마을은 현재 시청후문에서 영장산 기슭까지 세로로 길게 위치하였으며 15가구 정도가 거주하였는데 주로 남씨들이 살았다. '건너말'(윗숯골)은 현재 태평오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자리에서 중앙파출소가 있는 탄리사거리까지 세로로 위치하였는데 현재 탄리로 좌측에 마을이 위치하였으며 탄리로 우측에서 성남시청이 있는 곳까지는 농토였다. 건너말은 탄리 중에서 가장 큰 마을로 개발되기 전 60여 가구가 살았다. 지금도 당시의 원주민들이 10여 가구 이곳에 살고 있다. 당시 이곳은 조씨가 10여 가구 있었으나 각성받이 마을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박아무개씨의 경우, 조상대대로 이곳에서 살았는데 현재도 선대로부터 살아왔던 터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대로 살고 있다.

과거 수진리¹⁸⁾에는 새탐말, 앞말, 뒷궁말, 새오개라는 4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새탐말'(아래숯골)은 현재 태평역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방향으로 수정로를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과거 30~40여 가구가 살았는데 그중 전주 이씨(全州李氏)가 30여 호되었다. 현재도 대다수의 토박이 주민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개발전과 비교하면 5가구 정도가 이사를 가고 나머지 주민들은 대부분 과거의 집터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전세를 놓아 집세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앞말'은 태평역 2번 출구 뒤쪽으로 20집이 있었다. '뒷궁말'은 현재 성남경찰서에서 보면 성남대로 건너편에 6집이 있었다. '새오개'는 현재 경원대역 부근인 성남서초등학교 주위에 12집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17) 제보자 : 박○○(남, 78세, 태평3동 거주). 관련내용은 김덕목이 조사했음

18) 제보자 : 박규녀(여, 71세, 태평1동 거주).



제2장 마을의 역사

여 백

제 2 장

마을의 역사

I. 복정동

1. 마을내력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광주군(廣州郡) 세촌면(細村面) 지역이었는데 일제치하(日帝治下)인 1914년 조선 행정구역 개편 때 복우물(福井), 가마절(釜谷), 기와골(瓦谷), 안골(內谷), 응달말을 병합(併合)하여 복정리(福井里)라고 칭(稱)하고 중부면(中部面)에 편입하였다. 1933년에 중부면(中部面) 성남출장소(城南出張所)에 편입(編入)되었다. 1973년 7월 1일 성남시(城南市)로 승격(昇格) 당시(當時) 복정동(福井洞)으로 개칭(改稱) 되었으며 1989년에 수정구(壽井區)에 편입(編入)되었다.

- 복우물 마을 : 복(福)우물은 윗말, 씌(심)박골, 건너말, 구석말 일대의 마을을 통칭



↑ 복우물 유래와 전설의 비

(通稱)하여 '복우물'로 불렸다. 복우물은 정수장(淨水場) 내에 있었던 우물인데 구전(口傳)에 의하면 정수장 뒤 밭에 연일 정씨(延日鄭氏)의 큰 기와집이 있었다. 큰 부자(富者)이며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의 집이라 금(金)으로 만든 베틀과 은(銀)으로 만든 베틀이 있었는데 언제인가 전란(戰亂) 때에 그 베틀을 우물 속에 감추고 피난(避難)을 갔는데 집 주인(主人)은 생사불명(生死不明)이 되었고 그 집의 하인(下人)이 금(金), 은(銀)베틀을 꺼내려고 하니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쳐서 지금까지 꺼내지 못하였다 한다. 1950년 초까지도 몇몇 사람들이 금속탐지기(金屬探知機)로 금, 은 베틀의 발굴(發掘)을 시도(試圖)했다 한다.

- 구석말 : 현 정수장(淨水場)과 경원대(景源大) 사이에 534번지 일대 구석진 곳에 있었다는 마을인데 장연 노씨(長淵盧氏)와 남양 홍씨(南陽洪氏)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 윗말 : 경원대(景園大) 건너 서쪽에 있는 570~575번지 일대의 해평 윤씨(海平尹氏) 세거마을이다.
- 씌(심)박골 : 윗말에서 동남쪽에 있는 산 67번지 일대의 마을인데 문화 유씨(文化柳氏) 유계문(柳啓文)의 후손들이 두어 집 살고 있다.
- 건너말 : 윗말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전 지번으로 555번지 일대의 남양 홍씨 세거지 마을을 '건너말'이라고 하였으며, 555번지 일대의 마을과 구석마을에서는 윗말 아래에 있는 마을을 '건너말'이라고 불렀다.
- 안골 : 안골마을은 가마절과 응달말을 포함하여 '안골'이라고 불렀다. 130~150번지 일대에 있는 '마옥(磨玉)리'라고도 하였던 마을인데 진주 강씨(晉州姜氏)와 원주 원씨(原州元氏)가 살았다.
- 가마절 : '두곡말' 또는 '두둑말' 이라고도 하는 44~52번지 일대의 마을인데 웅기를 굽던 가마가 있었던 마을이라고 한다
- 응달말 : 가마절 남동쪽에 있는 75~90번지 일대의 마을이다. 그 외에 까치골 등이 있다.
- 기와말 : 기와말은 사거리를 포함하여 통칭 '기와말'로 불렸다. 산 61~239번지 현 국제학교 일대로 옛날에 기와를 굽던 가마가 있던 곳이라서 '기와말'이라고 하는데 김해 김씨(金海 金氏)와 의령 남씨(宜寧南氏)가 살고 있다.
- 사거리 : 지금 지하철 분당선(盆唐線)과 8호선이 만나는 복정역 조금 못가서 있는 149~261번지 일대의 옛 산성로(山城路) 입구에 있는 마을인데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살고 있었다.

2. 세거성씨¹⁹⁾

(1) 장연 노씨(長淵盧氏)

- 노효공(盧孝恭) : 고양현감(高陽縣監). 성종(成宗) 25년 2월 9일 법성포(法城浦) 만호(萬戶). 한성판윤(漢城判尹).
- 노자용(1487-1543) : 장사랑(將士郎).

(2) 전주 이씨(全州李氏)

- 이갑선(18?-19?)

(3) 원주 원씨(原州元氏)

- 원맹강(?) : 한림감찰(翰林監察). 성종(成宗) 6년 9월 4일 이천현감(利川縣監).
- 원윤중(?) : 생원(生員). 증(贈) 이조참판(吏曹參判).
- 원집(?) : 영안부사(永安府使).
- 원진(?) : 동몽교관(童蒙敎官).

(4) 진주 강씨(晉州姜氏)

- 강천명(姜天命) : 정헌대부(正憲大夫) 예의판서(禮儀判書) 겸(兼) 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 묘(墓)는 금광리(金光里)에 있었으나 도시개발로 인(因)하여 복정동 안골로 이장(移葬)하였다.
- 강은(姜隱) : 태조(太祖) 7년 3월 7일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학사(學士). 세종(世宗) 15년 진주호장(晉州戶長) 양광도(楊廣都) 관찰사(觀察使).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겸(兼) 수문전학사(脩文殿學士). 묘(墓)는 안골 유좌(酉坐).
- 강해(姜諧) : 독서당(讀書堂)을 명(命)받은 문신(文臣)이다. 관지(官止) 통훈대부(通訓大夫) 종부사(宗簿寺) 소윤(小尹). 묘(墓)는 안골 상동(上同) 유좌(酉坐).
- 강노(姜老, 1438-1474) : 세종 29년(1447) 문과에 급제하고 문종(文宗) 2년 문종실록편수관(文宗實錄編修官). 세조(世祖) 6년 10월 11일, 황주진(黃州陳) 첨절제사(僉節制司). 세조 7년 10월 9일 황주목사(黃州牧使). 세조 10년 9월 2일 수원부사(水原

19) 마을의 세거성씨를 살펴봄에 있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과거에 살았다가 다른 이주자들이 들어와서 세거성씨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각성반이 마을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어떤 성씨가 살았다 해도 후대에 그 후손들이 모두 타지로 흩어지고 그곳에는 묘소와 비석이 남아 있어 그 흔적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마을의 세거성씨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묘소나 비석, 문헌 등의 기록을 통해 과거 이 지역에서 살았던 세거성씨와 유명 인사들을 살펴본다.

府使). 세조 10년 9월 8일 경기(京畿), 충청(忠淸) 군적부사(軍籍副使). 세조 10년 10월 15일 전라도(全羅道) 군적사(軍籍使). 세조 14년 1월 13일 종묘당상관집례(宗廟 堂上官 集禮). 예종(睿宗) 1년 3월 10일 참의(參議). 예종(睿宗) 1년 3월 11일 행호분위(行護奮尉) 대호군(大護軍). 성종(成宗) 1년 9월 8일에 판결사(判決事). 성종 1년 3월 11일 종묘(宗廟) 당상관집례(堂上官集禮). 성종 45년 3월 22일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성종 45년 4월 5일 통정대부(通政大夫)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제수(除授) 받았다. 묘(墓)는 안골 상동(上同) 유좌(酉坐).

- **강숙희(姜叔淮)** :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남원부사(南原府使)를 거쳐 통훈대부(通訓大夫) 제용감정(濟用監正)을 지냈다. 묘(墓)는 안골 상동(上同) 건좌합평(乾坐合平).
- **강희신(姜熙臣, 1504-1524)** : 철원도호부사(鐵原都護府使) 기묘사화(己卯士禍) 피척(被斥). “증”(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조참의(吏曹參議). 묘(墓)는 안골 상동(上同) 유좌(酉坐).
- **강빈(姜濱)** : 성균진사(成均進士). 통훈대부(通訓大夫) 강음현감(江陰縣監) 겸(兼) 해주진관병마동첨절제도위(海州鎭管兵馬同僉節制都尉). 묘(墓)는 안골 상동(上同) 건좌(乾坐).
- **강백령(姜栢齡)** : 성균진사(成均進士)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전설사(典設司) 별제(別提). 묘(墓)는 안골 상동(上同).
- **강정준(姜廷俊)** : 음보(蔭補)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묘(墓)는 안골 상동(上同) 후곡(後谷) 유좌(酉坐).
- **강형(姜訢)** : 음보(蔭補) 통정대부(通政大夫)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 성주(星州)로 피난(避難)을 갔다가 난(亂)이 평환(平還)되자 다시 안골로 돌아와 살았다. 문장(文章)과 덕행이 뛰어났다. 묘(墓)는 안골 상동(上同).
- **강석망(姜碩望, 1643-1699)** : 문장(文章)이 고세(高世)하고 학덕(學德)으로 신망(信望)을 받았으나 유림(儒林)을 폐(廢)하는데 분개(憤慨)하여 자진(自進)해 선향(先鄉)으로 내려와 은둔생활(隱遁生活)을 하며 마을이름을 마옥동(磨玉洞)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묘(墓)는 안골에 배(配). 밀양 박씨(密陽朴氏)와는 가후(家後) 건좌(乾坐) 합평(合平)이고 배(配). 남양 홍씨(南陽洪氏)의 묘(墓)는 미우(尾隅)에 간좌(艮坐)이다.
- **강헌(姜榘, 1674-1713)** : 벼슬은 없으며 젊은 나이에 요절(夭折)하였다. 묘(墓)는 안골 상동(上同) 축좌(丑坐)이다.

- **강학**(姜樛, 1684-1713) : “증”(贈)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사정(司僕寺正), 형과 같은 해에 젊은 나이로 요절(夭折)하였다. 묘(墓)는 후곡(後谷) 계방현(桂芳峴) 유좌(酉坐) 쌍분(雙墳).
- **강성익**(姜聖益, 1706-1758) : “증”(贈)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묘(墓)는 양원군(楊原君)의 후손(後孫)인 이윤협(李允協)과의 송사(訟事)로 금광리(金光里) 임좌(壬坐)에 있다가 1972년에 안골 유좌(酉坐)로 이장(移葬)하면서 합장(合葬)하였다.
- **강주현**(姜周炫, 1735-1805) :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학식(學識)이 고매하여 학덕(學德)으로 명성(名聲)이 있었고 양원군(楊原君) 후손(後孫)과의 송사를 마무리 지은 뒤에도 벼슬을 사양하고 은둔하였다. 묘(墓)는 내곡(內谷) 가후(家後) 건좌(乾坐) 합폄(合窆)이다(북정동내의 안골 일대에는 진주 강씨(晉州姜氏)의 선대 묘소(先代墓所)가 많이 산재(散在)하여 있으나 이만 줄인다.)

(5) 문화 유씨

- **유계문**(1388-1445) : 정승(政丞) 유관(柳寬)의 세 아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며 태종 8년 무자 식년시(式年試)에 진사과(進士科)에 급제(及第) 하였으며 세종(世宗) 5년 8월 17일 겸지형조사(兼知刑曹使), 동년 9월 21일 판사(判事), 세종(世宗) 6년 1월 17일 판사재감사(判史才監司), 동년 2월 16일 우사간(右司諫), 동년 4월 7일에 파면(罷免)되었다가 동년 6월 28일에 함길도선위사(咸吉道宣慰使)가 되고 동년 7월 25일에는 좌사간(左司諫)이 되었으며 동년 8월 21일에는 경차선위사(京遮宣慰使)가 되었다. 세종 7년 7월 25일에는 예조참의(禮曹參議), 세종 8년 4월 16일에는 충청감사(忠淸監司)로 나갔다가 세종 9년 10월 27일에는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었다. 세종 10년 4월 19일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고, 동년 10월 12일 경기감사(京畿監司)가 되었다가 세종 11년 2월 3일 다시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었다. 세종 12년 2월 2일에는 선위사(宣慰使), 동년 10월 9일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세종 17년 6월 29일에 강원도(江原道) 관찰사(觀察使)가 되었다. 세종 19년 6월 30일에 한성부윤(漢城府尹)이 되었고 세종 20년 3월 5일에는 정조(正朝使)사가 되어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동년 6월 29일에 공조참판(工曹參判)이 되고 동년 7월 30일에 황해도(黃海道) 관찰사(觀察使), 세종 21년 6월 29일에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거쳐 동년 10월 1일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었는데 세종 22년 1월 14일 상피(相避)의 원칙(原則)을 지키지 않았다고 파면(罷免)되면서 모든 직첩(職帖)인 고신(告身)을 반납(返

納)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종 23년 2월 1일 고신이 회복(回復) 되었고 동년 3월 27 일에는 인순부윤(仁順府尹)이 되었다. 동년 9월 17일에는 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인 한성판윤(漢城判尹)이 되고 동년 11월 14일에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었다. 세종 25년 1월 11일부터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로 있다가 세종 27년 1월 2일 졸(卒)하였다.

(6) 남양 홍씨

- **홍휘**(洪煒, 1600-1670) : 1600년에 현감(縣監)을 지낸 홍사립(洪思立)과 숙인(淑人) 광주 노씨(光州 盧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출사(出仕)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 중추 부첨지사(中樞府僉知事)를 지냈으며, 남양 홍씨(南陽洪氏)의 북정동(福井洞) 입향조(入鄉祖)이다. 1670년 9월 14일 졸(卒)하였다. 배(配) 숙부인(淑夫人) 진주 소씨(晉州 蘇氏)와 합폄(合窆)으로 북정동(福井洞) 산 47번지에 안장(安葬)되었다. 그러나 북정동(福井洞)에 정수장(淨水場)이 신설(新設)되어 부득이 1994년 12월 4일, 북정동(福井洞) 산 62번지 1호로 천장(遷葬) 되었다. 좌향(坐向)은 을좌(乙坐)이다. 묘(墓)는 산 62-1호(號).
- **홍우석**(洪禹錫, 1627-?) : 홍휘(洪煒)의 큰아들이다. 배(配) 경주 이씨(慶州李氏). 배(配) 순흥 안씨(順興安氏).
- **홍성석**(洪聖錫, 1630-1689) : 홍휘(洪煒)의 둘째 아들. 배(配) 장연 노씨(長淵盧氏)와 산62-1에 을좌(乙坐) 신향(辛向)으로 합폄(合窆).
- **홍무석**(洪武錫) : 홍휘(洪煒)의 셋째 아들. 배(配) 파평 윤씨(坡平尹氏).
- **홍속**(洪速, 1663-1717) : 성석(聖錫)의 큰아들이다. 배(配) 온양 정씨(溫陽鄭氏)와 산62-1에 합폄(合窆). 을좌(乙坐) 신향(辛向).
- **홍직**(洪湜, 1673-1708) : 성석(聖錫)의 넷째 아들. 북정동 산 60번지 임좌(壬坐).

(7) 해평 윤씨

- **윤경지**(尹敬之, 1604-1659) : 선조 때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문정공(文靖公)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의 손자(孫子)로 공조참판 정립(鄭立)의 무남독녀(無男獨女)의 사위로 해평 윤씨(海平尹氏)의 북정동(福井洞) 입향조(入鄉祖)이다. 최종(最終) 벼슬은 홍천현감(洪川縣監)을 하였다. 묘(墓)는 북정동 산 71번지 해좌(亥坐).
- **윤세원**(尹世元, 1652-1700) : 성균관진사(成均館進士). 묘(墓)는 북정동 산 71번지 신좌(辛坐).
- **윤형동**(尹衡東, 1749-1816) :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산부사(茂山府使). 묘(墓)는 북

정동산 71번지 자좌(子坐). 후손(後孫)들이 농업(農業)에 종사(從事)하며 학문(學問)에 전념(專念)하고 고향(故鄕)에서 선대(先代)의 유덕(遺德)을 지키면서 14대(代)를 살고 있다.

(8) 연일 정씨(延日鄭氏)

- 정호(鄭灝, 생몰미상) : 안주목사(安州牧使). 산 48번지.
- 정세경(鄭世卿, 생몰미상) :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상동(上同).
- 정원(鄭沅, 생몰미상) :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상동(上同).
- 정경순(鄭景淳, 생몰미상) : 돈령부주부(敦寧府主簿). 상동(上同).
- 정립(鄭立. 1574-1629) : 자(字)는 여수(汝秀)이고 선조(宣祖) 33년 경자(庚子, 1600년)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及第)하였다. 예문관검열을 거쳐 1610년 4월 6일에 부교리(副校理)를 거쳐 동년 5월 2일 이조정랑(吏曹正郎). 7월 3일 응교(應敎), 9월 17일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11월 4일 종부시정(宗府寺正), 11월 17일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1611년 2월 12일 다시 사헌부집의가 되었다. 4월 17일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옮겼다가, 12월 17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겸문학(兼文學) 때까지 사간(司諫) 4번과 집의(執義) 4번을 역임(歷任) 하였다. 1612년 1월 18일에는 어사(御使)가 되었고, 2월 12일에는 겸보덕을 거쳐 3월 19일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과 5월 9일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9월 22일부터 다시 홍문관 전한으로 있다가 1613년 1월 19일 병조참지(兵曹參知), 6월 3일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 1615년 7월 9일 형조참의(刑曹參議)와 11월 4일에는 좌부승지(左副承旨)를 거쳐 1617년 3월 26일 부승지(副承旨)와 4월 28일에 병조참지(兵曹參知)를 지냈다. 1618년 9월 28일에 강원감사(江原監司)로 나갔다가 1621년 2월 8일 황연감사(黃延監司)가 되었다. 1622년 승지(承旨)로 있을 적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났다. 1624년 3월 25일 일본국(日本國) 회답사(回答使)로 임명되어 5월 11일 사신(使臣)으로 일본(日本)으로 건너갔다가 잠시 귀국(歸國)하여 인조(仁祖)에게 일본국(日本國)의 일을 탐지(探知)하여 오라는 명(命)을 받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1625년 3월 13일에 일본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 146명을 데리고 부산(釜山)으로 귀국(歸國)하였다. 이는 정립(鄭立)의 외교수완(外交手腕)이 대단(大段)하였던 것을 간접적(間接的)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년(同年) 9월 16일에 사직상소(辭職上疏)를 올렸으나 인조(仁祖)의 허락(許諾)을 받지 못하였다. 1626년에는 문안사(問安使)로서의 책무(責務)를 다하고 동년(同

年) 6월 5일 공조참판(工曹參判)에서 체직(遞職)된 후 졸(卒)할 때까지 환로(宦路)에 나가지 않았다.

정립(鄭立)은 후손(後孫)이 없어 무남독녀(無男獨女)인 딸의 사위(壻) 윤경지(尹敬之)의 후손들이 외손(外孫)으로 봉제사(奉祭祀)를 하였다고 전(傳)한다. 묘(墓)는 산 48번지에 있었다. 1980년대까지는 도굴된 묘소(墓所)를 볼 수 있었으나 비석(碑石), 상석(床石), 망부석(望夫石), 문관석(文官石) 등 석물(石物)까지 모두 도난(盜難)되었고, 수도국정수장(水道局淨水場)에 수용(收容)되어 지금은 흔적(痕迹)도 없어졌다.

(9) 김해 김씨

- 김대희 : 통정대부.

3. 지명

- 영장산(靈長山) : 북정동(福井洞) 산 2-4번지와 태평동(太平洞) 산 47-1번지와 47-3번지에 걸쳐있는 산이다. 조선사찰전서(朝鮮寺刹全書) 상권(上卷) 513쪽에 쓰여 있는 '봉국사(奉國寺) 신창기'를 보면 봉국사(奉國寺)의 위치(位置)는 광주치지서 칠리성부산지하야(廣州治之西七里星浮山之下也) 시(時) 갑인(甲寅) 중추일(中秋日) 겸(兼) 팔도선교십육종(八道禪敎十六宗) 도총섭(都摠攝) 신(臣) 승(僧) 허능(許能) 배(拜) 수기(手記)라고 적혀 있으므로 원래(原來) 이름이 성부산(星浮山)임을 알 수 있는데 고종(高宗)을 위한 예찬비석(禮讚碑石)을 망경암(望京庵)에 세울 때(1885)와 황제(皇帝) 등극(登極)과 황태자(皇太子)의 탄생(誕生)을 경하(慶賀)하는 비석(1897)을 세울 때 비문에 광주(廣州) 영장산(靈長山)이라고 썼으므로 그 때부터 영장산(靈長山)으로 표기(表記)하고 있으나 바로 잡아야 한다. 또 한 가지의 일설은 진주 강씨(晉州姜氏) 선대 중에 홍진화(洪鎭華)라는 분이 정조(正祖) 10년(1786)에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고 절충장군(折衝將軍)을 거쳐 순조(純祖) 26년(1826)에 통정대부(通政大夫) 고원군수(高原郡守) 겸(兼) 영흥진관(永興鎭管)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를 지내고 순조(純祖) 28년(1828)에는 공청감영(公淸監營)의 우영장(右營將)을 지냈는데 그가 북정동(福井洞) 일대의 산(山)을 많이 사들였는데, 그가 사놓은 산을 영장택(營將宅)의 산(山)이라고 부르다가 영장산(營將山)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진주 강씨(晉州姜氏) 문중(門中)에서 전(傳)해 오고 있다. 고종 원년(1864)에 졸(卒)하였으며 묘(墓)는 익산(益山)에 있다. 광주부읍지(廣州府邑誌)와 광주부지도

(廣州府地圖)에는 고개 령(嶺)자의 령장산(嶺長山)으로 표기(表記)되어 있다.

- 화리산(한이산) : 성부산(星浮山) 낙맥(落脈)이나 옷말 뒤에 있는 71-1번지에서 태평동(太平洞) 산 1번지 일대로 수진리(壽進里) 앞산이며 신흥동(新興洞)의 의령 남씨(宜寧南氏) 종중산(宗中山)까지의 산 능선이다.
- 가마절고개 : 안골에서 가마절로 넘어 다니던 산 16-17번지 일대의 고개.
- 독정(쟁)이고개 : 가마절과 독정(讀亭)이(현 신흥주공아파트)쪽으로 왕래(往來)하던 산 2-1번지 일대의 고개.
- 복고개 : 산 32번지 일대로 기와골에서 약진로(躍進路)로 왕래하던 고개.
- 새우(세)고개 : 산 66-2번지 일대에 있던 옛날 길로 수진리(壽進里) 경계(境界)에 있던 고개인데 새우등처럼 휘어져 있는 고개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독골 : 정원대학교가 있는 산 61-64번지 일대인데 현(現) 주유소(注油所) 앞 대로(大路)까지의 골짜기이다.
- 안골우물 : 안골마을 중간에 있던 우물로 지금은 폐정(廢井) 되었다.
- 까치우물 : 까치골 김완익의 집 앞 20m지점에 있는 우물.
- 한창부 : 449번지와 524번지 일대인 동서울대학 입구에서 정수장까지의 들판이다
- 고춘당 : 정수장에서 신정골프연습장 일대인 526-529번지와 산 59-1번지 일대를 '고춘당'이라고 부른다.
- 바우(위)백이 : 현 정수장인 515번지의 논인데 옛날부터 논 한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어 '바우(위)백이'라고 부른다.
- 복우물 : 현 정수장 뒤에서 안골로 가는 길 위에 506번지 일대에 있던 우물이다. 전설에 따르면 복정리(福井里)에 세거(世居)하였던 연일 정씨(延日鄭氏)의 선대 중에 평안도(平安道) 안주목사(安州牧使)를 지낸 정호(鄭顥)라는 분이 1490년경에 이곳으로 정주(定住)하였는데, 그 아들은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정세경(鄭世卿)이고 손자(孫子)는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를 지낸 정원(鄭沅)이었고, 증손자(曾孫子)는 돈녕부주부(敦寧府主簿)를 지내며 세거(世居)하였다.

주부(主簿)의 아들 정립(鄭翌)은 1600년 경자(庚子)별시문과(別試文科)의 병과(丙科)로 급제(及第)하여 승승장구(乘勝長驅)하여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이르렀다. 목사(牧使) 이하 5대(代)를 내려오면서 높은 벼슬과 유복(有福)하고 부자(富者)로 살았으므로 그의 집안에 있던 우물을 복(福)이 많은 사람 집 우물이라고 '복우물(福井)'로 부르게 되었다.

공조참판(工曹參判) 정립(鄭翌)의 부인인 정부인(貞夫人) 남양 홍씨(南陽洪氏)는



↑ 북우물 및 기념비

길쌈에 명인(名人)이요 달인(達人)이었으나 슬하(膝下)에 무남독녀(無男獨女) 만이 있었다. 정부인(貞夫人) 홍(洪)씨는 아들이 없어 후사(後嗣)를 이어가지 못하는 시름을 달래고자, 하인(下人)을 시켜 뽕(桑)나무를 심고 누에를 쳄고 틈만 나면 고치에서 명주실을 뽑아 비단을 짜는 일에만 전념(專念) 하여 부인이 짠 비단은 최상품(最上品)의 비단이었다. 참판(參判)은 동료(同僚)와 대신(大臣)들에게 비단을 선물(贈物)하기를 좋아하였고 비단을 받은 동료나 대신들은 비단에 얹힌 사연(辭緣)을 듣고 부인의 노고(勞苦)에 대한 보답(報答)으로 뜻을 모아 아담한 장식용(裝飾用) 금(金) 베틀과 은(銀) 베틀 한 쌍(雙)을 만들어 선물하였다. 부부는 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집안의 행사(行事)가 있을 때에는 손님들에게 내보이고 자랑하였으며 이 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구전되는 동안 베틀의 크기가 부풀려져 실물 크기로 바뀌어 전해오고 있다. 외동딸을 해평 윤씨(海平尹氏)의 북정리 입향조인 홍천 현감(洪川縣監)을 지낸 윤경지(尹敬之)에게 출가(出嫁)시켜 딸과 사위와 북정리에 함께 살다가 정립은 1629년에 향년(享年) 56세의 일기(日記)로 생(生)을 마감(磨勘)하였다. 그 뒤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서울이 청태종(淸太宗)에게 함락(陷落)되고 인조(仁祖)는 강화(江華)로 몽진 하려던 계획(計劃)을 철회(撤回)하고 긴급(緊急)히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避難)하게 되자 산성주변의 모든 마을은 싸움터로 변(變)했다. 이에 산성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급히 피난(避難)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연일 정씨(延日鄭氏) 일가(一家)는 늙은 홍씨(洪氏)만이 금(金)베틀과 은

(銀)베를 우물 속에 묻고 하인(下人)들과 함께 피난(避難)길을 떠났다. 피난(避難)의 와중(渦中)에서 정부인(貞夫人) 홍(洪)씨는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어 귀향(歸鄉)하지 못하자 수종(隨從)하던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집을 지키고 있던 하인(下人)이 베를 파내어 가지려다가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진동(震動)하므로 뜻을 이루지 못 하였는데, 이 사실이 퍼져 구전된 것이 북정동의 금베를 은베를의 전설이며 1950년대 초까지도 이 전설의 보물을 찾으려고 탐색(探索)이 이루어졌었다.

- **터골** : 산 52번지와 53, 54-1번지 일대의 골짜기인데 옛날에 집터가 있던 곳이라 한다.
- **군주(君呪)터** : 망경암 아래와 텃골 위에 있는 산 53번지에서 54-1과 산 55-1번지 일대를 '군주터'라고 부른다.
- **사당(祠堂)밭** : 산 62번지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평편한 산인데 옛날 남양 홍씨 선대의 사당이 있던 터라고 전한다.
- **향(香)나무우물** : 안골의 대동(大洞)우물로 수질이 좋아서 문정동(文井洞) 사람들도 떠갔다고 한다. 우물 주위에 두 그루의 향(香)나무가 있다. 현재 식수(食水)로는 불가(不可)하다.
- **망경암** : 봉국사(奉國寺)에 속(屬)한 사암(寺庵)으로서 고종(高宗)이 조선왕(朝鮮王)일 때와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皇帝)로 등극(登極)한 후의 비석(碑石)이 구비(舊碑)와 신비(新碑) 두 개가 있으며 마애여래좌상(磨崖如來坐像)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었다.
- **마루들** : 복(福)우물 앞에 있는 270-367번지 일대의 넓은 들인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下水終末處理場)이 들어 왔다.
- **범의굴** : 가마절 약수(藥水)터 위 산 31번지에 있는 바위굴로 호랑이의 서식처(棲息處)였다. 일제(日帝) 때 마을사람이 호랑이 새끼 네 마리를 마을로 가져 왔다가 호랑이의 난동(亂動)으로 마을 전체(全體)가 혼(魂)이 났었다고 한다.
- **군용지다리** : 북정동 사거리에서 세곡동(細谷洞)으로 가는 탄천(炭川) 위에 있는 다리로 일제(日帝)가 15일 만에 놓은 다리라는 전설이 있다. 일명 '대왕교'(大旺橋)라고도 불리던 다리이다.
- **북정교** : 258번지와 259번지를 이어주는 다리인데, 창곡동에서 발원(發源)하여 숲 내로 유입(流入)되는 굴원내 개울에 있는 다리이다.
- **사거리** : 북정동 261번지, 266번지, 239번지, 267번지가 나뉘어서 네거리를 이루

는 곳으로 옛날에는 탄천교(炭川橋)로 하여서 헌인릉(獻仁陵)으로 가는 길과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분당(盆唐)과 서울로 가는 길이 있는 사거리이다.

- **굴원내개울** : 창곡동(倉谷洞) 위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발원(發源)하여 창곡동을 경유(經遊)하여 북정동(福井洞)으로 해서 숲내로 흘러들어가는 시내이다.
- **쇠뜨기벌** : 현재(現在) 가스충전소(充塡所) 일대에서 장지동(長旨洞)에 숲 냇가 일대를 부르는 통칭(統稱)이다.
- **일산(日傘)버드나무터** : 259번지 부근인 굴원내 개울가에 큰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정조(正祖)가 여주(驪州) 영릉(英陵)과 녕릉(寧陵)에 성묘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서 쉬었는데, 강주현(姜周炫)의 손자인 강진화(姜鎭華)라는 소년(당시 8세)이 쇠를 두드리어 임금을 뵈옵게 되자, 양원군(楊原君)의 후손(後孫)인 이윤협(李允協)이라는 사람과 홍억(洪億)이라는 사람이 짜고서 할아버지를 무고(誣告)하여 옥(獄)살이를 하게 하였다고 청원(請願)하자 정조(正祖)가 이를 가상(嘉祥)히 여겨 할아버지를 방면(放免)하게 하고 양원군(楊原君)의 묘역(墓域) 외에는 진주 강씨(晉州姜氏)의 소유(所有)라고 극명(克明)하여 송사(訟事)를 마치게 하였다는 실화(實話)가 전해 오고 있다 한다.
- **새니골** : 571번지와 573-574번지 일대로 현재의 절이 있는 골짜기를 '새니골'이라고 부른다.
- **고자골** : 산 71-1번지 서쪽자락 탄천(炭川) 가까운 곳에 옛날 궁중(宮中)에서 환관(宦官)을 하던 내시(內侍)들이 살았다고 하는 골짜기이다. 내시(內侍)는 궁중(宮中)에서 임금을 보필(輔弼)하는 역할(役割)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업무(業務)의 특성상 남성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내시(內侍)들의 무덤이라는 고총(古冢)이 있었는데 상석(床石)과 망두석(望頭石) 등이 6.25동란(動亂) 이후까지 있었으나 상석(床石)과 망두석(望頭石)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
- **시새벌** : 329-349번지 일대의 가루 같은 모래인 시새가 많았던 들이름.
- **까치골** : 웃말 북쪽에 455번지 일대의 작은 골짜기로 김완억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주(移住)하였으나 지금은 도로확장(道路擴張)으로 집이 헐려 몇 가구(家口)가 살고 있다.
- **까치물** : 마루들을 가로지르는 개천이 있는데 그곳으로 까치들이 많이 날아와서 물을 먹고 서식(棲息)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 **서낭당** : 구석말에서 독골로 넘어 가는 산 55-7번지와 산 62-1번지 사이에서 숲골

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었는데 경원대(景元大)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흔적(痕迹)만 남아 있다.

- 터골 : 정수장(淨水場) 동남쪽에 옛날 정립(鄭立)의 고조부부터 정립 때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집터자리 기와 파편(破片)이 출토(出土) 되었다.
- 진터벌 : 북정동에서 창곡동(倉谷洞) 행정학교(行政學校)와 국군체육부대까지의 넓은 벌판을 '진터벌'이라고 한다. 그러나 송파(松波)벌 일대와 분당(盆唐)까지의 옛날 정금원(鄭金院)들(堡) 전체(全體)를 통 털어 부르는 지명(地名)이다.
- 뒷골 : 안골(內谷)에서 북정국교(福井國校)로 넘어오는 골짜기 일대이다.
- 어재미 : 190번지에서 195번지 일대와 산 26번지 산 아래를 어재미라고 부른다.
- 계방재 : 392번지에서 398번지 일대와 산 35-1과 산 38-1번지로 해서 뒷골(後谷)로 넘어 다니던 고개를 '계방재'라고 부른다.
- 유계문신도비 : 산 22번지 길옆에 있는데, 청백리(清白吏)이며 명재상(名宰相)인 유관(柳寬)의 아들로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낸 유계문(柳啓文)의 신도비(神道碑)를 후손(後孫)들이 새로 만들어 세웠다.
- 북고개 : 국제학교(國際學校) 뒷길인 산 32-24번지에서 산 32-1번지 일대에 있는 고개 길을 '북(福)고개'라고 부른다.
- 산수유나무(山茱萸) : 산 31번지(신388-4번지)에 있는데, 수령은 500년 되었다는 산수유나무에 대한 단비가 세워져 있다. 비문의 내용은 수령은 약 500년으로 추산됨. 휘(諱) 빈(濱)자이신 5대 조부는 현 북정동 현소(現所)에 분가(分家)하시어 자손 번성의 상징(象徵)으로 후정에 식수하셨다고 전해짐. 휘(諱) 형(澗)자이신 12대조 때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시 성주(星州)에서 십수년을 피난 후 귀향하니 가대를 알아볼 수 없자 산수유나무를 보고 재복구하여 15대를 동고동락해 옴. 종손이 가대를 매도하여 산수유나무가 타인수중에 있어 매입(買入者는 강호석(姜鎬奭)이라 함)하여 현장에 이식. 2003년 7월 10일 이근석(李根奭)이라고 쓰여 있다. 산수유나무는 네 개의 큰 가지였으나 가지 두 개는 고사하였다.

II. 창곡동

1. 마을유래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광주군(廣州郡) 서부면(西部面) 창리(倉里)였으나, 1914년 광주군(廣州郡) 세촌면(細村面)의 세곡리(細谷里)를 병합(併合)하여 창곡리(倉谷里)라고 하였으며 중부면(中部面)에 편입(編入)되었다. 1971년 성남출장소(城南出張所)에 편입(編入)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 성남시(城南市) 창곡동(倉谷洞)이 되었다. 행정관할(行政官轄)은 북정동사무소에서 한다. 1989년 5월 수정구(壽井區)에 편입(編入)되었다.

- **창말** : 백제(百濟) 시조(始祖) 온조왕(溫祚王)이 기원전 6년에 하남위례성으로 이도(移都) 한 후에 군사들을 훈련(訓練)하던 곳이 지금의 송파(松波)에서 분당(盆唐)의 궁내동(宮內洞)까지였는데 여기에 창고(倉庫)를 짓고 군량미(軍糧米)와 병장기와 부속군수품(附屬軍需品)을 보관(保管)하였었다는 구전(口傳)과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대열(大閱)의 장소(場所)가 한강변에서부터 분당 일대까지였다. 대열에 동원(動員)되는 군사(軍士)의 수효(數爻)가 정병(精兵) 3만(萬)여 명과 솔종(率從)이 8, 9만이므로 11만~12만여 명의 군사(軍士)가 10여 일간 훈련(訓練)한 기록(記錄)이 많은데 이 때에 이 곳에 창고(倉庫)를 지어 군량미와 병장기와 부속군수품을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창(倉)말, 창(倉)골, 창(倉)동으로 불리는 마을이다. 137번지~270번지까지 동, 서로 길게 꾸며진 마을인데 창(倉)터에서는 얼마 전(前)까지만 해도 주춧돌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이 남았고 창고터에서 기와파편이 출토(出土)되고 있다.
- **간이골** : 약진로(躍進路)의 개설(開設)로 남북으로 나뉜 440~459번지 일대(一帶)의 마을이다. 전주 이씨(全州李氏)와 광산 김씨(光山金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등이 세거하였던 마을이다.
- **매착리(매장리)**
- **외곡동** : 414번지에서 425번지 일대의 골짜기 마을이다. 일명 '매장리'(梅庄里)라고 부르던 59번지에서 86번지 일대의 마을인데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출생비사(出生秘事)인 매화낙지혈(梅花落地穴)의 명당(明堂)을 지니고 있다는 마을인데 임경업 장군의 선대(先代) 묘(墓)가 외곡동(外谷洞)에 없으므로 믿기 어려운 실정(實情)이다.

2. 세거성씨

(1) 광산 김씨

- 김순성(金淳成, 1429-1481) : 김 췌의 아들로 세조(世祖) 11년 12월 27일 정조사, 서장관(正朝使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갔다 온 후에 그간의 잘못이 드러나 고신을 거두었고 외방으로 귀양을 갔다 와서 예종(睿宗) 원년 9월 9일에는 태상왕(太上王) 장례(葬禮)에 판관(判官)의 신분(身分)으로 낭관(郎官)이 된 후 병조정랑(兵曹正郎) 한성부(漢城府) 서윤(庶尹)을 거쳐 평양부(平壤府) 서윤(庶尹) 겸 평양(平壤)진(陳)병마(兵馬)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를 지내는 등 환로(宦路)를 순탄(順坦)하게 지내다가 성종(成宗) 3년 9월 15일 평창군수(平昌郡守)에 임명(任命) 되었으나 처(妻)의 병(病)을 핑계로 부임(赴任)하지 않아 파직(罷職) 되었다.

(2) 함양 박씨

- 박종원(朴宗元, 1672-?) : 참판공(諱, 充良)의 증손자(曾孫子)로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지내고 졸(卒)하였다. 창곡동 산 83번지에 묘(墓)를 쓴 이후에 종사랑(從仕郎)을 지낸 아들 대방(大方), 손자 태망(泰望), 증손 진룡(震龍), 고손 사광(思光)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11대째 살고 있으나 종사랑 이후에는 벼슬은 하지 않고 학문과 농사에만 전념하며 살았다.
- 박대방(朴大方) : 종사랑(從事郎).
- 박태망(朴太望) : 농사(農事)에 힘쓰고 학문(學文)을 익혀 주변사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信望)을 받았다.

(3) 김해 김씨

김현정(?)

(4) 양근 함씨

함석호(?)

(5) 경주 배씨

배한손(1564-1645) : 건원능참봉

3. 지명

- 배산 : 창곡(倉谷)3동 앞산인 산 70-2번지와 73번지 일대의 산이 배처럼 생겼다고 부쳐진 이름이다.
- 병풍산 : 1통 뒷산으로 매착(梅着)리까지 능선(稜線)을 따라 뻗어 있는 산 3-1, 22-1 등의 산과 46, 59, 87, 92, 137번지 일대인데 산 모습이 병풍(屏風)을 두른 듯이 보인다고 하여 '병풍산'(屏風山)이라고 한다.
- 안산 : 창말과 세자골 사이에 있는 산 50번지에서 59번지 일대의 산인데 마을 앞에 있어 앞산이라고도 한다.
- 서낭당고개 : 약진로(躍進路)에서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가는 길과 산성동으로 갈라지는 산 1-1번지 일대의 고개로 옛날 서낭당이 있었다.
- 천행이고개 : 옛날 매착(梅着)리를 지나자면 마을에서 매를 맞고 가곤 하였는데 매를 맞지 않고 간단하여 붙여진 92번지에서 112번지 일대의 고개이다.
- 넓은골 : 긴골과 좁은골 중간(中間)에 있는 골짜기로 약진로(躍進路) 옆 산 33번지의 일부분으로 지하철 터널 위에 조씨(趙氏)의 종산(宗山)이다.
- 긴골 : 넓은골 좌측(左側)에 있는 골짜기.
- 좁은골 : 넓은골 우측(右側)에 있는 골짜기.
- 땡골 : 창(倉)말에서 외곡동으로 가는 길 위 317번지에서 36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세자골 : 백제시대에는 간이골에 세자궁(世子宮)이 있었다고 하여 '세자골'이라고 한다. 세자골 세자궁(世子宮)터에서 백제(百濟) 기와(瓦) 파편(破片)이 출토(出土)되었다. 세자궁설(說)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광주군지(廣州郡誌) 1장(章) 연혁(沿革) 47쪽 하단(下端)에 개로왕(蓋鹵王)이 장수왕(長壽王)에게 패퇴(敗退)하여 남한산성 남문(南門) 밖인 영장산(靈長山) 쪽으로 도망(逃亡)하다가 잡혀죽었다는 기록(記錄)이 있다. 또 하나의 확증(確證)이 가는 기록(記錄)은 온조왕(溫祚王) 28년 봄 2월에 다루(多婁)를 태자(太子)로 삼고 중앙(中央)과 지방(地方)의 군사 업무(軍事業務)를 맡겼다는 기록(記錄)인데 태자(太子)로 하여금 군대(軍隊)를 직접 통솔(直接統率)하게 한 점은 장병(將兵)들을 직접 지휘하며 장병(將兵) 개개인의 능력(能力)을 확실(確實)히 평가하고 장병들과 친숙하여 짐으로서 장병들이 다투어 충성(忠誠)을 맹약(盟約)하면 후일(後日)에 왕이 되었을 때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능력(能力)에 따라 인재(人材)를 등용(登用)함으로서 군대(軍隊)의 통솔(統率)이 원만(圓滿)하고 군대(軍隊)의 사기진작(士氣振作)이 손쉬울 것을 예견(豫見)한 선견지

명(先見之明)이 돋보이는 처사(處事)였던 것이다. 이러한 백제시조(百濟始祖) 온조왕(溫祚王)부터의 전통(傳統)이 계승(繼承)되었기에, 문주왕(文周王)도 개로왕(蓋鹵王)때부터 왕세자(王世子)인 태자시절에는 장병(將兵)들을 직접 통솔(統率)하였을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군부대(軍部隊)가 있던 창곡리(倉谷里)에 있었다던 세자궁(世子宮)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이후에 개로왕(蓋鹵王) 21년(475)때 장수왕(長壽王)이 군대(軍隊)를 이끌고 백제(百濟)를 침략(侵略)한 사실(史實)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삼국사기 개로왕(蓋鹵王) 21년 기록(記錄)에는 고구려(高句麗)의 대로(大老)인 제우(齊于)와 재증걸루(再曾桀婁), 고이만년(高二萬年)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성(北漢山城)을 공격(攻擊)하여 7일 만에 함락(陷落)시키고 남성(南漢山城)으로 옮겨 공격(攻擊)하였다. 성안은 위태(危殆)롭고 두려움에 떨었다. 왕(王)이 성(城)을 나가 도망(逃亡)가자 고구려의 장수(將帥) 걸루(桀婁) 등은 왕(王)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왕(王)의 얼굴을 향(向)하여 3번 침을 뱉고 그 죄(罪)를 꾸짖었다. 그리고 왕을 포박(捕縛)하여 아차성(阿且城) 아래로 보내 죽였다는 기록(記錄)이 있다. 개로왕(蓋鹵王)이 아들 문주(文周)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간사(奸邪)한 사람의 말을 믿고 썼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百姓)은 쇠잔(衰殘)하고 군사(軍士)는 약(弱)하니 비록 위태(危殆)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하여 힘껏 싸우겠는가. 나는 마땅히 사직(社稷)을 위하여 죽겠지만 네가 이곳에서 함께 죽는 것은 유익(有益)함이 없다. 어찌 난(亂)을 피(避)하여 나라의 계통(繼統)을 잊지 않겠는가? 문주(文周)는 이에 목협만치(木狹滿致)와 조미걸취(祖彌桀取)(목협(木狹)과 조미(祖彌)는 모두 복성(復姓)이었음. 수서(隋書)에는 목협(木狹)을 두개의 성(姓)으로 하였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음)와 남쪽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제26호 백제본기(百濟本記) 제4의 기록은 문주왕(文周王)은 개로왕(蓋鹵王)의 아들이다. 처음 비유왕(毗有王)이 죽고 개로(蓋鹵)가 왕위(王位)를 잇자 문주(文周)는 그를 보필(輔弼)하여 상좌평(上佐平)에 이르렀다. 개로(蓋鹵)가 즉위한지 21년에 고구려(高句麗)가 쳐들어와서 한성(漢城)을 에워쌌다. 개로(蓋鹵)는 성문(城門)을 닫고 스스로 굳게 지키면서 문주(文周)로 하여금 신라(新羅)에 구원(救援)을 요청(要請)하게 하였다. 문주(文周)가 군사(軍士) 1만명을 얻어 돌아오니 고구려군사(高句麗軍士)는 비록 물러갔지만 성은 파괴되고 왕은 죽었으므로 왕위(王位)에 올랐다.

성품(性品)은 부드럽고 결단력(決斷力)은 없었으나 백성(百姓)을 사랑하였으므로

백성(百姓)들도 그를 사랑하였다. 겨울 10월에 서울(都)을 웅진(熊津)으로 옮겼다는 기록(記錄)으로 보아 문주(文周)는 그냥 도망(逃亡)친 것이 아니고 왕명(王命)을 받아 신라(新羅)로 구원병(救援兵)을 요청(要請)하러 떠난 사이에 개로왕(蓋鹵王)은 잡혀죽고 뒤늦게 구원병(救援兵)을 이끌고 돌아온 문주(文周)는 한성(漢城)에서 선왕(先王)의 뒤를 이어 왕위(王位)에 올랐고, 초(初)겨울인 10월에 웅진(熊津)으로 도읍(都邑)을 옮긴 사실(事實)이 입증(立證)된다.

그러나 광주군지(廣州郡誌)의 기록(記錄)은 당시(當時) 왕세자(王世子)였던 그의 아들 문주왕(文周王)은 도망쳐 살아남아서 웅진(現, 公州)으로가 웅진(熊津)을 수도(首都)로 정하고 왕(王)으로 등극한 것으로 적고 있다. 어찌 되었던 간에 또 하나의 방증(傍證)은 수정구(壽井區) 고등동(高登洞)에서 금토동(金土洞)으로 넘어가는 '세자골고개'라는 고개와 세자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세자골은 고등동(高登洞) 537번지 일대이고 세자골고개는 고등동(高登洞)산 41번지와 산 42번지 일대를 넘어 가는 고개이다. 아마도 왕명을 받고 남문을 빠져 온 세자가 청계산(淸溪山)을 넘어 빨리 남쪽인 신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등동(高登洞)의 세자골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推定)할 수 있다. 개로왕(蓋鹵王)도 세자궁으로 피신(避身)하려고 도망(逃亡)쳐 나오다가 잡혀 죽은 것으로 추정(推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백제군부대(百濟軍部隊)인 훈련소(訓練所)가 주둔(駐屯)하였다는 방증(傍證)으로 구수왕(仇首王) 8년(221)에 한수(漢水)의 서쪽에서 크게 사열(査閱)하였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記錄)과 근초고왕(近肖古王) 24년 한수의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였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으로 보아 이곳이 구전(口傳)에 의(依)한 백제(百濟)의 군주둔지(軍駐屯地)가 아니고, 확실(確實)히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실려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한편 세 집이 살아서 '세집골'이었다가 세자골로 변하였다고도 한다. 세집설은 신빙성(信憑性)이 없는 것이 세 집이 살았던 곳은 거의 가 '세집메'라고 불려온 곳이 많기 때문에 세집설(說)은 아니다. 또 하나의 일설은 인조(仁祖) 14년에 청나라가 쳐들어 온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 세자(世子)가 살았던 곳이라는 설(說)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병자호란 당시에는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奉琳大君) 등이 모두 강화도(江華島)로 피난(避難)갔다가 강화도(江華島)가 함락(陷落)되는 바람에 모두 불모(不毛)로 잡혀 있었는데 소현세자가 이곳 세자(世子)골에서 살았다는 것은 낭설(浪說)이다. 세자(世子)골의 위치(位置)는 281번지에서 295번지 일대이고 뒷산은 전주 이씨(全州李氏) 종중산(宗中山)이었다.

- **풀무골** : 창(倉)말 동쪽 257번지에서 270번지 일대로 광산 김씨(光山金氏) 묘막(墓幕)이 있었다.
- **석양들** : 창(倉)말에서 외곡(外谷)동으로 가는 길 아래에 있는 80번지에서 300번지에 이르는 들판으로 해가 지는 석양(夕陽)에나 햇빛이 비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 **성남로(우남로)** : 약진로(躍進路)를 거쳐 산성삼거리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의 호(號)를 따서 우남(于南)로라고도 부른다.
- **숲평(수살매기)** : 창(倉)말 아래 156, 157, 158, 307, 312, 313번지 일대의 개천가에 개천 독에 오리나무를 방풍림으로 심어 나무가 크게 자라서 마을을 감추어 주는 숲으로 성장(成長)하였는데 이곳을 '숲평'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先祖)들은 풍수지리(風水地理)에 입각(立脚)하여 마을 안위(安危)에 문제(問題)가 있거나 마을의 기(氣)가 빠져나갈 위험(危險)이 있는 곳에는 나무를 심거나 제방(堤防)을 막아서 천기(天氣)를 감싸 안은 흔적(痕迹)이 많이 발굴(發掘)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살(煞)막이, 액(厄)막이 등으로 부르는데, 변음으로 인하여 살(煞)매기 또는 액(厄)매기로 불린다.
- **숲안** : 숲평 위에 167번지 일대에서 176번지까지의 논, 밭 일대를 부르는 지명인데 창(倉)말 전체(全體)가 숲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약진로** : 복정동(福井洞) 사거리에서 산성동으로 가는 6차선 대로 길인데 옛날에는 복정사거리에서부터 남한산성까지의 길을 '산성로'라고 불렀다.
- **진터벌** : 육군행정학교(陸軍行政學校)와 상무체육관(尙武體育館)자리 일대인데 옛날 백제(百濟) 시조 온조왕(溫祚王)이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으로 이도(移都)한 뒤부터 군사훈련장과 주둔(駐屯)군대(軍隊)가 있었다고 전(傳)하여 온다. 삼국사기에 보면 다루왕(多婁王) 6년 남쪽 주군(州郡)에 영(令)을 내려 처음으로 논(稻田)을 만들게 하였다는 기록(記錄)과 구수왕(仇首王) 8년(221)에 한수(漢水) 서쪽에서 크게 사열(査閱)하였다는 기록과 근초고왕(近肖古王) 24년 겨울 11월에 한수 남쪽에서 크게 사열(査閱)하였다는 기록은 모두 남한산성 일대에서 군대를 훈련시켰고 그 능력(能力)을 시험(試驗)하는 대사열(大査閱)을 실시(實施)하였던 것으로 확인(確認)되는 바, 이 지역(地域)에는 백제(百濟)의 군사훈련장(軍事訓練場)이 있었다는 전설(傳說)이 확실하다고 본다. 또, 조선초기에는 대열시 동군(東軍, 일명좌군)의 사령탑(司令塔)이 세워져 있는 진지였다고 전해 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청 태종도 이곳에 진을 쳤다고 하는 곳이다. 그러나 청 태종(淸太宗)은 이곳에 있었다는 기록(記錄)이 전혀 없으므로 일제(日帝)가 지어낸 날조(捏造)된 낭설(浪說)로 보는 견해(見解)가

많다. 여지도(輿地圖)에 교장(敎場)으로 표기(表記) 되어 있어 이곳이 훈련장(訓練場)이 있었던 곳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성남 일대(城南一帶)인 궁내동(宮內洞)에서 송파 일대의 옛날 대열(大閱)을 하던 진(陳)터인 정금원(鄭今院) 등이 모두 진(陳)터라고 전해 온다.

- **창위** : 창(倉)말에 있던 창고(倉庫)터 위쪽인 244번지에서 251번지 일대의 전답(田畓)을 지칭(指稱)하는 말이다.
- **창터** : 백제(百濟) 때부터 병장기(兵仗器)와 군량(軍糧)의 창고(倉庫)가 있었다는 산 32번지 일대의 땅인데, 영조(英祖) 때 만들었다는 광주군고도(廣州郡古圖)에는 울목창(栗木倉)으로 기재되어 있고, 광주부지도(廣州府地圖)와 광주전도(廣州全圖), 여지도(輿地圖)에는 동본창(東本倉)과 수어둔(守禦屯)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곳에 군량창고와 병기창고(兵器倉庫) 등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證明)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백제초기부터 훈련장(訓練場)이었다고 전해 오는 교장(敎場)이 있던 곳이라서 훈련장의 부속막사인 창고(倉庫)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곳이다. 교장(敎場)터는 지금의 육군행정학교와 상무체육부대의 넓은 터가 교장(敎場)이었다고 전해오며, 광주군고도(廣州郡古圖)나 여지도(輿地圖), 광주부지도(廣州府地圖), 광주전도(廣州全圖) 등에서도 확인(確認)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군부대 주변(周邊)에는 언제나 훈련장(訓練場)과 각종 창고(各種倉庫)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 **술래(순라)길** : 창곡동 236번지와 239번지 사이로 산 31번지를 넘어가는 고개인데 교장(敎場)이 있을 때 군인(軍人)들 중 계급(階級)이 높은 장군(將軍)들이 순라(巡邏)를 돌 때 다녔다는 길이다. 계급(階級)이 높은 장교(將校)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급병사들의 군생활이 충실(充實)한지, 경계근무를 잘 수행(遂行)하고 있는지를 점검(點檢)하기 위하여 수시(隨時)로 순라(巡邏)를 돌았는데 이 길이 높은 계급(階級)의 장교(將校)들이 순라(巡邏)를 돌던 길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바람재고개** : 산 33번지를 가로질러 논골이나 음촌(蔭村)쪽이나 산성(山城)으로 가는 고개 길이 있던 고개이다. 언제나 바람이 물어서 바람고개라는 뜻으로 '바람재'라고 하였다 한다.
- **앞고개** : 산 50-59번지까지의 안산을 넘는 고개길이 있는 고개이름이다. 마을 앞에 있는 고개라서 '앞고개'라고도 했다 한다.
- **가마터** : 9번지 일대의 땅인데 현재 상무체육관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날에 남한산성에서 건물을 지을 때나 건물을 수리(修理)할 때에 필요한 기와를 구워서

산성(山城)으로 보내주던 가마터가 있는 터이다.

- **잣골** : 산 33번지 일대와 옛 지명(地名)인 학암리(鶴岩里)와 경계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로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올라 다니기도 하였다. 잣나무(松柏)가 많아서 '잣골'이라고 했다가 잣골로 변화되었다 한다.
- **논골** : 논과 밭이 있으며 10여 채의 집이 있었던 골짜기이다.
- **큰길** : 창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인데, 150번지에서 250번지까지의 길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마차(馬車)길이었다.
- **상무체육관** : 산 1번지에서 산 3-1번지 일대와 5번지에서 59번지 일대로 국군체육부대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곳은 백제시대(百濟時代)부터 조선시대(朝鮮時代)까지 군대훈련소(軍隊訓練所)였다고 전해오는 곳이다.
- **문무대** : 산 3-1번지 일부와 92번지 일대의 군부대로 이곳도 백제(百濟)와 조선시대(朝鮮時代) 때의 군대훈련소였던 곳이라고 전해온다.
- **육군종합행정학교** : 산 15-1번지에서 산 22-1번지 일대, 130번지, 137번지 일대에서 223번지까지의 광활한 면적의 육군종합행정학교이다. 이곳도 백제(百濟)와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군대훈련소(軍隊訓練所)와 수어둔(守禦屯) 등의 창고(倉庫)가 산재(散在)하였던 곳이라고 전해온다.
- **양지말** : 창곡동 447번지에서 464번지 일대의 마을을 안골사람들은 '양지말'이라고 부른다.

III. 태평동

1. 마을유래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광주군(廣州郡) 세촌면(細村面) 탄리(炭里)와 독정리(讀亭里)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統廢合) 당시 독정리(讀亭里)를 통합(統合)하여 탄리가 되어 중부면(中部面)에 편입(編入)되었다. 1933년 중부면 성남출장소(城南出張所)의 관할이 되었다. 1971년에는 성남출장소에 편입(編入)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 성남출장소 수진지소(壽進支所)와 탄리 일부를 병합(併合)하여 근심걱정 없이 태평성대를 구가(謳歌)하는 지역을 만들자는 뜻으로 태평동(太平洞)이라고 동명을 지었다. 1975년 10월

태평1동과 2동으로 분동(分洞)이 되었으며 1980년 태평1동을 나누어 태평(太平)1동과 태평3동을 만들었다. 1989년 수정구에 편입되고 1990년 1월에는 태평2동을 나누어 태평2동과 태평4동으로 분동하였다.

- 탄리(炭里) : 탄리의 어원(語源)에 대하여 솥을 보관하는 솥 창고가 있었다는 설과 솥을 굽는 솥가마가 있어서 '탄리'라는 설(說)이 있는데 성남시사 등에는 의령 남씨(宜寧南氏) 선대(先代) 중에 남연(南淵, 1650~1728)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호(號)가 탄수(炭叟)인지라 '탄수(炭叟)'가 사는 골짜기'라고 탄골로 불리었고, 솥골로 부르다가 탄리가 되었다는 등 각종 설(說)이 난무(亂舞)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기록들이다. 그것은 탄수보다 이백년 전인 성종 6년(1475) 9월 29일 실록(實錄)에 탄동(炭洞)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록에 보면, 탄동사장(炭洞射場)에 이르러 노루, 사슴, 잡수(雜獸) 22마리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탄수보다 솥골에 묻히신 선대들의 묘지명에 탄동이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이다. 예조참판과 이조참판을 지낸 남세준(南世準, 1498~1533)의 옛 묘지명이 탄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관상감정(觀象監正)을 지낸 남응년(南應年, 생몰미상)과 상운도 찰방(祥雲道察訪)을 지내다가 임진왜란 때 홍노에게 주살된 남정유(南挺有, 1537年生)와 기로(耆老)에 들어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낸 남정화(南挺華, 1543~1615)의 묘지명에 탄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작고 한 후에 탄수 남연의 호를 따서 마을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통(正統)한 구전(口傳)은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세금(稅金)으로 받은 솥을 보관(保管)하는 솥 창고(倉庫)가 있어서 '솥골'로 불렸다는 것이 정설(定說)이다.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의 제도(制度)를 상고(詳考)하고 지역적(地域的) 특성을 살펴보면 답(答)이 나온다. 조선시대의 세제(稅制)를 살펴보면 현금(現金) 이외에 금은보화(金銀寶貨)나 각종(各種) 곡물류(穀物類)와 소금(鹽), 명주나 무명 등 피륙과 솥이나 장작 등도 세금(稅金)으로 받았던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솥이 없으면 안 되던 시절이라서 삼국시대 이전에도 모든 국가가 솥을 세금으로 받아들였다. 솥이 부족하면 군대를 동원하여 솥을 구운 기록들도 있다. 특히 조선중기 이후에는 솥을 주로 사용하는 행궁(行宮)이 있는 남한산성에서 솥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을 것이다. 지역적(地域的)으로는 남한산성내에 광주부 관아가 있었으므로 광주부 관내의 사람들에게서 받은 세금(稅金) 중 양곡(糧穀) 등은 창곡동에 있는 '동본창'(東本倉)에 보관(保管)하고 장작이나 솥처럼 인화성(引火性)이 강한 물품(物品)은 '솥골'에 보관하였기에 솥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지역 반가(班家)에서 전

해오는 구전(口傳)의 정설이다.

- **독정리** : 독정리(讀亭里)는 동래 정씨(東萊鄭氏) 선대(先代) 중에 어느 분 때문지는 확실(確實)하지 않아도 넓고 큼직하게 정자(亭子)를 지어놓고 처음에는 집안의 자손(子孫)들을 가르치다가 차츰 이웃에 아이들도 함께 가르치기 시작 하였는데 소문(所聞)이 자자하여 이웃 고을에서도 선비들이 많이 모여들어 가르치는 것을 중단(中斷)하고 선비들과 시회(詩會)를 열거나 학동(學童)들을 위해 백일장을 여는 등 학문을 숭상(崇尚)하는 사람들의 요람(搖籃)으로 변(變)하였다. 그러다가 변란(變亂)이 일어나 불타 없어진 것을 동래 정씨(東萊鄭氏)와 의령 남씨(宜寧南氏)가 함께 정자(亭子)를 재건(再建)하고 학동(學童)들에게 백일장을 열어주어 학문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게 하였고, 선비들은 시회(詩會)를 하며 고담준론(高談峻論)으로 이 지역(地域)을 학문(學問)의 요람(搖籃)으로 만들었다.

2. 세거성씨

(1) 의령 남씨(宜寧南氏).

의령 남씨는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남재(南在, 1351-1419)의 아들인 남경문(南景文)이 숯골에 살기 시작(始作)하면서 후손(後孫)들이 수십여 대(代)에 걸쳐 세거(世居)하여 살고 있다.

- **남경문**(南景文, 생몰연대는 미상이며 6월 16일에 작고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됨) : 병조의랑(兵曹議郎, 정4품), “증(贈)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
- **남칭**(南僞, 생몰연대는 미상이며 6월 13일에 작고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됨) : 세조(世祖) 8년 4월 17일에 좌랑(佐郎)을 거쳐 세조(世祖) 13년 12월 17일에 형조정랑(刑曹正郎)을 지내고 성종(成宗) 5년 6월 22일에 의빈부경력(儀賓府經歷). 성종(成宗) 6년 1월 25일에 선농단(先農壇)에서 지낸 선농제(先農祭)에서 알자(謁者)를 맡았고, 의빈부경력(儀賓府經歷)으로 있다가 성종(成宗) 9년 12월 22일에는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지냈다. 족보(族譜)에는 내섬시부정(內贍寺副正), “증” 호조참의(贈, 戶曹參議)로 되어있다. 묘(墓)는 세촌면(細村面) 음촌(陰村) 임좌(壬坐)에 상하장(上下葬)으로 있었으나 광주시 광주읍(廣州市廣州邑) 직리(直里)로 이장(移葬)하였다.
- **남변**(南忭, 1454-149) : 성종(成宗) 11년(1480) 진사(進士). 삭령군수(朔寧郡守). “증(贈) 병조참판(兵曹參判). 묘(墓)는 상동(上同) 건좌합장(乾坐合葬)이었는데, 광주읍(廣州邑) 직리(直里)로 이장(移葬)하였다.

- 남세웅(南世雄, 생몰미상) : 중종 8년(1513) 계유(癸酉)문과(文科). 중종(中宗) 15년 3월 3일 지평(持平)을 중종(中宗) 20년 2월 16일 경차관(敬差官)에 임명(任命)되었다가 동 2월 16일 어사(御使)로 임명(任命)받고 돌아와서는 중종(中宗) 21년 6월 16일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동 8월 11일에는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거쳐 중종(中宗) 23년 3월 5일 동부승지(同副承旨)와 동 8월 12일 좌승지(左承旨)를 지내고 중종(中宗) 24년 6월 28일에 대사간(大司諫)을 중종 25년 3월 14일 우승지(右承旨)와 동 4월 5일에는 좌승지를 중종(中宗) 26년 6월 18일 형조참판(刑曹參判)과 동 7월 6일에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지내고 중종(中宗) 28년 2월 9일에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중종(中宗) 29년 2월 6일 전라도관찰사와 30년 6월 27일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변방(邊方)으로 나갔다가 중종(中宗) 31년 7월 16일에 형조참의(刑曹參議)로 중종(中宗) 32년 8월 23일에 공조참의(工曹參議)로 임명(任命)되어 근무(勤務) 중이던 동 10월 28일에 진하사(進賀使)로 명(明)에 다녀오고 중종(中宗) 35년 1월 18일 호조참판과 동 7월 25일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지냈다. 족보(族譜)에는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기록되어 있다. 묘(墓)는 세촌면(細村面) 모과동(木瓜洞) 묘좌(卯坐) 쌍분(雙墳)이었으나 용인(龍仁)군 남사면(南四面) 완장상리(完庄上里)로 이장(移葬)하였다.
- 남세형(南世衡) : 중종(中宗) 31년 12월 24일 실록(實錄)에 풍덕군수(豐德郡守)로 기록되어 있다. 족보(族譜)에는 부사(府使)로 기록되었다. 묘(墓)는 세촌면(細村面)에 있었으나 광주읍(廣州邑) 직리(直里)로 이장했다.
- 남세평(南世枰) : 중종(中宗)실록(實錄)에 용인현령(龍仁縣令)을 지낸 것으로 기록(記錄)이 있다. 족보(族譜)에는 안성군수(安城郡守) “증”(贈) 이조판서(吏曹判書)로 기록되어 있다. 묘(墓)는 세촌면(細村面) 임좌(壬坐)에 있었으나 공주(公州)시 반포면(反浦面) 하곡리(夏谷里)로 이장(移葬)하였다.
- 남세준(南世準, 1478-1533) : 연산(燕山) 10년(1504) 진사(進士). 중종(中宗) 5년 문과급제(文科及第). 중종 5년 11월 16일 기사관(記事官)을 거쳐 중종(中宗) 7년 5월 29일 주서(主書) 중종 8년 12월 11일 정언(正言), 중종 11년 9월 3일 지평(持平), 중종 13년 6월 28일 장령(掌令), 중종 14년 11월 25일 사간, 중종(中宗) 15년 1월 19일에는 조광조(趙光祖)를 탄핵(彈劾)하는 상소(上疏)를 올렸고, 동 7월 14일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지내고 중종(中宗) 16년 7월 12일 선공감정(膳工監正)을, 중종(中宗) 20년 4월 1일 우부승지(右副承旨)와 동 7월 15일 대사간(大司諫)을 거쳐 중종 21년 12월 26일 호조참의(戶曹參議)와 중종 22년 2월 28일 우승지(右承旨)를

지냈다. 중종 23년 1월 13일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고 동 11월 3일에 황해도관찰사로 외직(外職)에 나갔다가 중종 24년 8월 11일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돌아왔고 동 11월 30일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중종(中宗) 25년 5월 6일 경기관찰사를 지낸 후에 중종(中宗) 26년 5월 20일 예조참판과 동 11월 29일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냈다. 중종 28년 1월 16일에 졸(卒)하였다. 묘는 세촌면(細村面) 탄동(炭洞) 합장(合葬)이었으나, 화성(華城) 매송면(梅松面) 송라리(松羅里)로 이장되었다.

- 남세척(南世則) : 병절교위(秉節校尉). 묘는 세촌면(細村面) 울하리(蔚何里) 오좌(午坐)에 있었으나, 광주(廣州) 오포면(五浦面) 능평리(陵坪里)로 이장하였다.
- 남세건(南世健, 1484-1552) : 중종(中宗) 2년(1507) 진사(進士). 중종 19년(1524) 문과급제(文科及第)하여 중종 21년 12월 15일 시강원(侍講院) 중종 24년 2월 3일 지평(持平)과 동 4월 7일 부수찬(副修撰)을 거쳐 동 7월 5일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와 동 8월 26일에 경연시독관(經筵試讀官)을 하고, 중종 25년 2월 23일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지내고 동 2월 26일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 전보(轉補)되었다가 동 11월 14일 부응교(副應教), 중종 26년 5월 6일 응교(應教) 중종 26년 11월 21일 전직(典籍), 전한(典翰), 28년 1월 29일 직제학(直提學)을 거친 후에 동 12월 22일 대사간(大司諫)이 되었고, 29년 9월 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와 중종 29년 9월 30일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거쳐 중종 30년 11월 19일 우승지(右承旨)에 올랐다. 중종 31년 8월 5일 예조참판(禮曹參判)과 동 9월 3일에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지내고 동 9월 19일 충청도관찰사를 지냈다. 중종 32년 7월 27일 형조참판(刑曹參判)과 동 9월 4일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역임(歷任)하고 동 9월 12일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38년에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거쳐 중종실록편수관(中宗實錄編修官)으로 참여하고, 다음 해에는 인종실록편수관(仁宗實錄編修官)을 역임하였다. 명종(明宗) 1년 9월 9일부터 형조참판(刑曹參判)이었다가 명종(明宗) 3년 8월 2일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나갔다. 명종 4년 9월 4일 공조참판(工曹參判)이 되고 명종 5년 3월 28일에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 되었다가 동 7월 13일에는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옮기고 명종 8년 6월 2일 졸(卒)하였다. 족보(族譜)에는 동경연(同經筵)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적혀있다. 묘는 세촌면(細村面) 울하리(蔚何里) 간좌(艮坐)였으나, 광주읍(廣州邑) 직리(直里)로 이장하였다.
- 남세언(南世彦, 1487-?) : 중종 23년 검찰(檢察)을 거쳐 35년 충훈부경력(忠勳府經歷)을 지낸 기록인데, 족보(族譜)에는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인천부사(仁川府使)로 되어있다. 묘는 세촌면에서 수원시 울전(栗田) 사곡(寺谷) 81번지 경좌(庚坐)에

이장(移葬)되었다.

- 남홍경(南弘慶) : 음보(蔭補). 첨사(僉使). 묘는 세촌면(細村面) 모과동(木瓜洞) 묘좌(卯坐)였으나 용인시 남사면(南四面) 완장상리(完庄上里). 간좌(艮坐) 유 표석(有表石).
- 남연경(南延慶. 1513-?) : 명종 3년(1548) 문과급제(文科及第) 후 명종 4년 5월 23일 승정원(承政院) 가주서(假主書)와 동 8월 19일 기사관(記事官)을 지냈다. 명종 8년 12월 22일 승정원주서(承政院主書)와 명종 9년 3월 27일 해남현감(海南縣監)을 지냈다. 족보에는 한림(翰林), 좌랑(佐郎)으로 되어 있다. “증”(贈)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 묘는 세촌면(細村面)에 있었으나 공주시 반포면(反浦面) 하곡리(夏谷里) 신좌(辛坐)로 이장.
- 남응로(南應老. 1509-1558) : 중종 4년에 태어나 명종(明宗) 원년(元年) 11월 12일에 사재감주부(司宰監主簿)와 사재감관(司宰監官)을 거쳤다. 족보에는 군수(郡守)를 지냈다고 적혀 있다. 묘(墓)는 세촌면(細村面) 탄동(炭洞)에 있었으나, 화성(華城) 매송면(梅松面) 송라리(松羅里)로 이장(移葬)되었다.
- 남응정(南應井. 1522-1577) : 선조(宣祖) 32년 3월 12일 실록(實錄)에 의하면 영동현감을 지냈다. 족보(族譜)에는 부사직(副司直)으로 되어 있다. 묘는 세촌면(細村面) 울하리(蔚何里)에서 광주(廣州) 오포면(五浦面) 능평리(陵坪里)로 이장되었다.
- 남응운(南應雲. 1509-1587) : 중종 26년(1531) 진사(進士) 중종 30년(1535) 문과급제(文科及第) 후 중종 32년 10월 24일에 검열(檢閱) 동 10월 27일 기사관(記事官), 중종 33년 4월 19일에 승정원주서(承政院主書)를 거쳐, 중종 39년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으로 중종실록편수관(中宗實錄編修官)에 참여하고, 명종 1년 12월 30일에 장령(掌令), 명종 3년 5월 2일에 통정대부(通政大夫) 길주목사(吉州牧使), 명종 6년 4월 2일 장예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를, 명종 6년 9월 12일에는 우부승지(右副承旨)와 동 9월 28일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을 거쳐, 명종 7년 2월 4일에는 좌부승지(左副承旨)를 하고 명종 9년 12월 3일에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외지(外地)로 갔다가 명종 12년 4월 8일 병조참의(兵曹參議) 명종 14년 2월 6일에 우승지(右承旨)와 동 3월 8일에는 함길도절도사(咸吉道節度使)를 지내고 명종 16년 8월 2일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와 명종 19년 10월 27일 경기관찰사를, 명종 20년 9월 5일에는 경상관찰사를 지내고 명종 21년 9월 27일에는 장예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를 거쳐 선조(宣祖) 3년 7월 17일에는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이었다가 명종 20년 8월 5일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졸(卒)하였다. 족보(族譜)에는 예조참판(禮曹參判),

남병(南兵使)로 되어있다. 묘는 세촌면(細村面) 독정리(讀亭里) 신좌(申坐)였다가, 대전(大田) 대덕구(大德區) 구척대동(九則垵洞)으로 이장되었다.

- **남응룡(南應龍, 1514-1553)** : 중종 30년(1535) 문과급제(文科及第) 중종 31년 9월 19일 승문원저작 중종 33년 10월 27일 봉상시직장(奉嘗寺直長), 중종 37년 7월 13일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과 헌납(獻納)을 지내다가 중종실록편수관(中宗實錄編修官)이 되고 인종(仁宗) 원년(元年) 5월 25일에는 명(明)나라로 가는 사신(使臣)의 종사관(從事官)이 되고, 명종(明宗) 원년(元年) 8월 30일에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와 명종 1년 1월 6일에는 부교리(副校理)를, 명종 1년 2월 15일에는 장령(掌令)과 동 10월 3일에는 선위사(宣慰使)를 역임(歷任)하고 동 11월 20일에는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거쳐 명종 3년 9월 10일에 부응교(副應敎), 명종 4년 2월 3일에는 응교(應敎)와 동 3월 14일에 전한(典翰)을 지내고 직제학(直提學)을 거쳐 명종 7년 5월 17일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올랐다. 묘는 세촌면(細村面) 법륜사동(法輪寺洞) 임좌(壬坐)에 있다가 당진(唐津) 대호지면(大湖芝面) 도리리(桃李里) 선산(先山)으로 이장되었다.
- **남응년(南應年)** : 일관(日官)인 관상감정(觀象監正)을 지내고, “증”(贈) 호조참의(戶曹參議). 묘는 세촌면(細村面) 탄동(炭洞)에서 이천(利川) 설성면(雪星面) 분죽동(分竹洞) 묘우봉안(廟宇奉安).
- **남응식(南應植, 1516-?)** : 가선대부(嘉善大夫) 관찰사(觀察使) 겸(兼) 순찰사(巡察使). 묘는 세촌면(細村面) 탄동(炭洞)에서 수원시 울전(栗田)동 사곡(寺谷) 81번지 경좌(庚坐)로 이장하였다.
- **남대우(南大佑)** : “증”(贈)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의흥부원군(宜興府院君). 묘는 세촌면(細村面) 임좌(壬坐)에서 공주(公州) 반포면(反浦面) 하곡리(夏谷里)로 이장하였다.
- **남정유(南挺莪, 1537-임란)** : 선조(宣祖) 9년(1576) 진사(進士). 임진왜란(壬辰倭亂) 시 선조 25년 10월 21일 상운도 찰방(祥雲道察訪)을 지내다가 우연히 왜적(倭賊)을 만나 굴(屈)하지 않고 싸우다 죽었다. 동년(同年) 10월 25일에 “증”(贈)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겸(兼)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을 제수(除授)받았다. 후(後)에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묘는 세촌면(細村面) 탄동(炭洞)에 있다가 화성(華城) 매송면(梅松面) 송라리(松羅里)로 이장되었다.
- **남정화(南挺華, 1543-1615)** : 정조 22년 4월 27일 실록(實錄)에 신령현감(新寧縣監)과 정조 23년 6월 1일 용천군수(龍川郡守)로 관직(官職)은 통정대부(通政大夫)였으

나 기년(耆年)에 들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가자(加資)되었다. 묘는 세촌면 탄동(炭洞)에서 김포(金浦) 노장리(盧長里)로 이장되었다.

- 남관(南瑄, 1536-1576) : 관지(官止)판관(判官). 묘는 세촌면 독정리(讀亭里) 간좌(艮坐)에서 대전시 대덕구(大德區) 구척대동(九則垵洞)으로 이장하였다.
- 남침(南琛, 1539-1596) : 선조(宣祖) 3년(1570) 생원(生員)시에 합격하고, 통천군수(通川郡守)를 지냈다. 묘는 세촌면(細村面) 독정리에서 광주읍(廣州邑) 직리(直里)로 이장되었다.
- 남위(南瑋, 1546-1581) :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 묘는 세촌면 독정리(讀亭里) 해좌(亥坐)에서 광주읍(廣州邑) 직리(直里)로 옮겼다가 다시 부여(夫餘) 장암면(場岩面) 지토리(紙土里)로 이장되었다.
- 남항(南璜) : 조봉대부(朝奉大夫) 사축서(司畜署) 별제(別提). 묘는 탄리(炭里) 사곡(寺谷)에서 당진(唐津)으로 이장하였다가 다시 전남(全南) 신안(新安) 장자면(莊子面) 대기리(大機里) 망산(望山) 계좌(癸坐) 쌍분(雙墳)으로 안장(安葬)되었다.
- 남유(南瑜, 1552-1598) : 선조 12년(1579)에 무과급제(武科及第)하고 선조 21년 7월 29일에 서천군수(舒川郡守)와 선조 27년 12월 23일에 용천군수(龍川郡守)를 지내고 나주목사(羅州牧使)이던 선조 30년(1597)에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전사(戰死)하였다. “증”(贈) 좌의정(左議政)과 의천부원군(宜川府院君)을 봉군(封君)받고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묘는 세촌면 법륜사동(法輪寺洞)에서 부친(應龍) 묘역인 당진(唐津) 대호지면(大湖芝面) 도리리(桃李里) 충장사(忠壯祠) 옆 임좌(壬坐)에 합봉(合封)으로 모셨다.
- 남이흥(南以興, 1576-1627) : 선조(宣祖) 35년(1602년) 무과급제(武科及第)하고, 선조 37년 9월 29일 장연현감(長淵縣監)과 광해(光海) 3년 10월 12일에는 부령부사(富嶺府使)를 거쳐 광해 8년 9월 9일에 공홍병사(公洪兵使)를 지내고 광해 9년 3월 27일에 경상병사(慶尙兵使)와 광해 11년 12월 26일에 구성부사(丘城府使)를 거쳐 광해 14년 7월 29일 안주목사(安州牧使)로 전보(轉補)되어 신명(身命)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 관계(關係)로 가자(加資)되었다. 인조(仁祖) 1년 4월 24일에 별장(別將)을 거쳐 인조 2년 2월 24일 연안부사(延安府使)를 지낼 때에 이괄(李适)의 난(亂)이 발발(勃發)하자 부원수(副元帥)로서 큰 공(功)을 세워 인조 2년 3월 8일 평정진무공신(平定振武功臣) 1등(等)에 책록(冊錄)되고 의춘군(宜春君)을 봉군(封君)받았으며,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세 품계(品階)를 뛰어오른 가자(加資)를 받았다. 인조 2년 12월 15일에 평안병사(平安兵使)로 전보(轉補)되어 인조 5년 정묘호란(丁卯胡亂)시에는

평안(平安)수군병마절도사(水軍兵馬節度使) 겸(兼) 양서순변사(兩西巡邊使)로서 인조 5년 1월 21일 안주성(安州城)에서 장렬하게 자폭순국(自爆殉國)하였다. 실록(實錄)에는 상세(詳細)한 기록(記錄)이 없고, “김기빈(金冀彬)이 1월 25일에 안주(安州)가 함락(陷落)되자 남이흥(南二興)은 약간명(若干名)의 제장(諸將)을 거느리고 중영(中營)에 모여 화약(火藥)으로 스스로 분신(焚身)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들으니 침통(沈痛)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라고 치계(致啓)한 내용만 있다. 인조대왕(仁祖大王)이 어의(御衣)를 내려 예장(禮葬)하고 “증”(贈)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의정(左議政) 의춘부원군(宜春府院君)의 작위(爵位)를 내리고 현종(顯宗) 4년 3월 27일에는 시호(諡號)를 충장(忠壯)이라 하고 충신정려(忠臣旌閭)를 내려 불천위사(不遷位祠)하였다. 묘는 광주(廣州) 음촌(陰村) 묘좌(卯坐)에 쌍봉(雙封)이었으나 당진(唐津) 대호지면(大湖芝面) 도리리(桃李里) 남이흥(南以興)의 사우(祠宇)인 충장사(忠壯祠) 옆 임좌(壬坐)에 합봉(合封)하였다

- 남두극(南斗極. 1601-1665) : 선조(宣祖) 34년(1601)에 충장공(忠壯公)의 아들로 태어나 특음(特蔭)으로 용안현감(龍安縣監)을 지내고, 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을 지냈다. “증”(贈) 사복시정(司僕寺正) 의풍군(宜豐君)의 작호를 받았다. 묘는 세촌면(細村面) 음촌(陰村)에 있었으나 당진(唐津) 대호지면(大湖芝面) 도리리(桃李里) 관창산(觀滄山)에 병좌(丙坐) 합봉(合封)으로 썼다가 유곡(幽谷)에 증조부(曾祖父)인 이요당(二樂堂) 응룡(應龍) 묘하(墓下) 건좌(乾坐) 합봉(合封)으로 이장하였다.
- 남영(南泳. 1632-1696) : 충장공(忠壯公)의 손자(孫子)로 통훈대부(通訓大夫) 직장(直長)을 지내고, “증”(贈)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제수받았다. 묘는 광주(廣州) 음촌(陰村)에서 당진(唐津) 대호지면(大湖芝面) 도리리(桃李里) 이요당(二樂堂) 묘하(墓下)에 건좌(乾坐) 합봉(合封)으로 이장하였다.
- 남대(南岱. 1648-1714) : 숙종(肅宗) 2년(1676) 무과급제(武科及第) 후에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냈다. “증”(贈) 호조참판(戶曹參判) 의림군(宜林君)의 작호(爵號)를 받았다. 묘는 세촌면(細村面) 음촌(陰村)에서 선묘영역(先墓靈域)인 도리리(桃李里) 이요당(二樂堂) 묘하(墓下) 건좌(乾坐)로 이장하였다.
- 남익화(南益華. 1667-1733) : 숙종 33년(1707) 무과급제(武科及第)하여 경종(景宗) 3년 6월 14일 철원군수(鐵原郡守)와 4년 황해수사(黃海水使)를 지냈다. 칠곡부사(漆谷府使) 때에 충장공(忠壯公) 유사(遺事)를 판간(板刊)하였다. 수사(水使)를 지내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總府副總官)을 지낸 후에 의안군(宜安君)의 작호(爵號)를 받았다.

※ 남이흥(南以興) 장군(將軍) 이하(以下) 5대(代)를 계속 기록하였으나 의령 남씨(宜寧南氏)는 숯골(炭里)에 묘를 썼다가 이장(移葬)한 분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만 소개한다.

(2) 동래 정씨(東萊鄭氏)

(3) 온양 방씨(溫陽方氏)

- 방순 : 觀察使

3. 지명

- 숯골 : 숯 창고(倉庫)가 있었다고 전(傳)하는 3309번지인 성남국교에서부터 신흥동 30번지 일대의 골짜기에 있던 마을인데 옛날에는 의령 남씨와 동래 정씨가 여러 집 살았다.
- 독정(쟁)이고개 : 북정동과 창곡동으로 넘어 다니던 신흥동 산 40-1번지와 북정동 산 2-1번지와 산 7번지 일대의 고개이다.
- 독정(쟁)이 : 옛날 탄리 맨 위쪽에 있던 신흥동 30번지 일대의 마을인데 10여 호가 살았다.
- 절골 : 법륜사가 있던 골짜기인데 남씨편 북쪽에 위치하고 봉국사 남쪽으로 있던 지금의 태평동 1000-1200번지 일대의 작은 골짜기이다.
- 쇠주골 : 성남초등학교에서 독쟁이 사이 태평동 3309-676번지와 신흥동 90-120번지 일대에 있던 작은 골짜기이다.
- 쇠낙골 : 태평아파트와 선경태평아파트 사이인 태평동 3309-261번지에서 3309-369 일대의 골짜기이다.
- 남씨편 : 3309-425번지인 현 성남시청 일대에 있던 의령 남씨 선대 묘역이 있던 곳을 '남씨편'이라고 부른다.
- 음촌 : 3309-425번지인 성남시청 일대에서 신흥동 일부와 산성로 일대의 산성동 일부를 '음촌'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온다.
- 건너말 : 수진초등학교와 시청 중간지점인 중앙파출소 뒤편으로 3400번지 일대에 있던 마을이다.
- 세터말 : 성남경찰서 뒤편인 7183번지 일대의 마을로 '새탄말'이라고도 불렀고 '아래 탄리'라고도 불렀다.

- 작은능(陵) : 남경문의 능침이 있는 산 3-1번지와 산 3-8번지 일대를 '작은능'이라고 부른다. 조선초기에는 군호를 받은 사람의 묘를 능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 새우(세)고개 : 경원대역이 있는 7137번지와 5115번지 사이에 고개이다. 고개가 새우등처럼 굽어있다고 부쳐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설(說)은 작은 봉우리를 세 개를 넘는다고 하여 '세고개'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 안말 : 태평역 동북쪽인 6490번지 일대에서 6499번지 일대에 있던 작은 마을이다.
- 영창대군 묘지석 출토지(永昌大君墓誌石出土址) : 영창대군(永昌大君)은 선조의 14남(男)중에 유일(唯一)한 적자(嫡子)인데 이름은 의(毅)이고 어머니는 인목왕후(仁穆王后)이다. 현재 태평동(太平洞) 4911번지 일대에 묘(墓)가 있었다가 성남도시건설(城南都市建設)로 안성시(安城市) 일죽면(一竹面) 고은리로 이장되었다.
- 작은능골 : 남경문의 능침이 있는 7140번지 일대의 작은 골짜기를 '작은능골'이라고 한다.
- 봉국사 : 봉국사(奉國寺)의 사액(寺額)은 영장산(靈長山)으로 표기(標記)하고 있으나, 현종(顯宗) 때에 봉국사를 최초로 창사(創寺)하였다는 축존대사(竺尊大師) 때에 도총섭(都摠攝) 허능(許能)대사(大師)의 신창기(新創記)에는 광주치(廣州治) 성부산(星浮山) 하(下)로 봉국사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봉국사의 일체의 기록을 소개한다. 조선사찰전서(朝鮮寺刹全書)에 기록된 봉국사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在 京城府 鐘路區 三清洞 白岳山 東麓 昭和 七年 壬申 李春成
 재 경성부 종로구 삼청동 백악산 동록 소화 칠년 임신 이춘성
 創始 金靑山 讓受, 又 未畢 同 八年 癸酉 十月 沈慧雲 讓受
 창시 김청산 양수, 우 미필 동 팔년 계유 십월 심혜운 양수
 十四年 己酉 十一月 廣州 星浮山 所在 奉恩寺 名義移轉
 십사년 기유 십일월 광주 성부산 소재 봉은사 명의이전
 爲 大本山 奉恩寺 末寺.
 위 대본산 봉은사 말사.

이것을 풀이하면, 봉국사는 경성부 종로구 삼청동 백악산 동쪽 언덕에 있었는데, 소화 7년(1932) 임신에 창시자인 이춘성에게서 김청산이 양수하려 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동(소화 8년 1933) 계유 10월 심혜운이 양수하여 소화 14년(1939)

기묘 11월에 광주 성부산으로 이전하여 소재를 옮기고 봉은사의 명의로 이전하니 대본산인 봉은사의 말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봉국사의 이어진 기록(紀錄)의 전문(全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在京畿道 廣州郡 星浮山 明惠公主 明善公主 兩墓 外 數里
 재 경기도 광주군 성부산 명혜공주 명선공주 양묘 외 수리
 朝鮮 顯廟朝 勅建 凡字考. ○在州 南 十五里 伽藍考. ○在廣州郡
 조선 현묘조 창건 범우고. ○재주 남 십오리 가람고. ○재광주군
 中部面 南漢山 大本山 奉恩寺末寺 ○朝宗顯宗 十五年 甲寅
 중부면 남한산 대본산 봉은사말사○조종현종 십오년 갑인
 朝家 命 竺尊大師 勅寺 於 星浮山麓 額 曰 奉國 爲資 明善明
 조가 명 축존대사 창사 어 성부산록 액 알 봉국 위자 명선명
 惠公主 冥福 也. 大正 十三年 甲子 住持 權斗晶 得 信金 重修
 혜공주 명복 야. 대정 십삼년 갑자 주지 권두정 득 신금 중수
 昭和七年 壬申 春 李春城 卜地 於 三清洞 白岳山 東麓 勅建
 소화칠년 임신 춘 이춘성 복지 어 삼청동 백악산 동록 창건
 法堂 十四年 己卯 十一月 移轉 于 三清洞 奉恩寺 末寺.
 법당 십사년 기묘 십일월 이전 우 삼청동 봉은사 말사.

윗글의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봉은사가 있는 곳은 광주군 성부산인데 명혜공주와 명선공주 두 분의 묘 몇 리 밖에 있으며 조선 현종 조에 창건되었다(범종각에서 살펴보자). ○봉국사가 있는 곳은 광주군 중부면 남한산이고 대본산인 봉은사의 말사이다. ○조선의 임금 중 현종 15년 갑인에 나라의 명을 받은 축존대사가 지은 절인데 성부산 언덕에 있으며 절 이름은 '봉국사'라 하고 명선, 명혜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다.

1924년인 갑자년에 주지 권두정이 돈을 구하여 증건한 절이다. 1932년 봄에 이춘성이 삼청동 백악산 동쪽에다 법당을 창건하였는데 1939년 12월에 삼청동으로부터 이전하니 봉은사의 말사가 되었다.

봉국사 신창기(奉國寺 新勅記)

惟我 主上殿下 (顯宗)卽祚 以來 儲嗣 外 有女 若帝堯之 皇英者
 유아 주상전하(현종)즉조 이래 저사 외 유녀 약제요지 황영자
 二 長 曰 明善 公主 次 曰 明惠 公主 總議 伉儷未及 于 飛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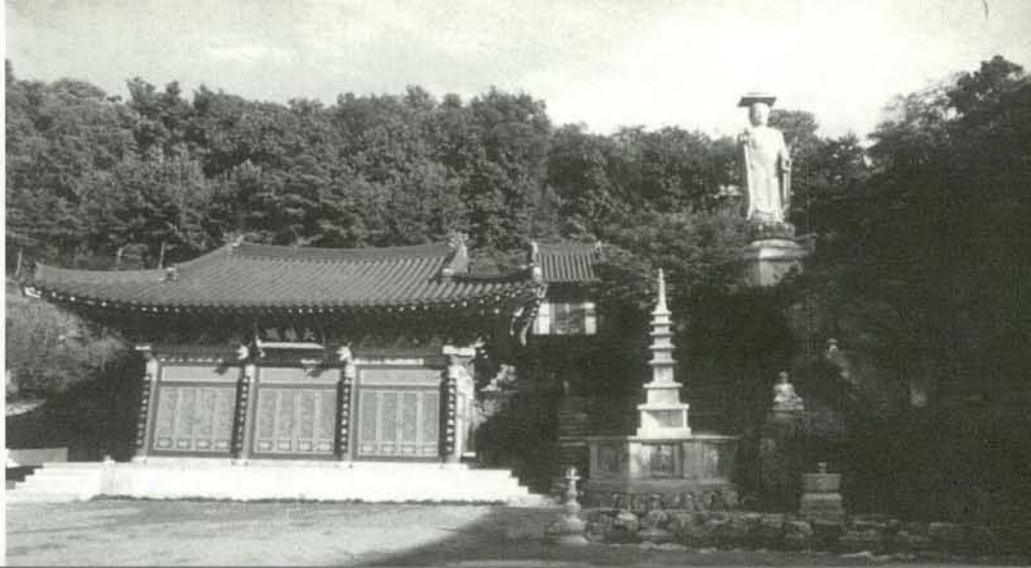
이 장 알 명선 공주 차 알 명혜 공주 재의 항려미급 우 비이
 一年之間 相繼 而亡 上痛悼之 慈殿 尤 哀傷 不已 思所以資
 일년 기간 상계 이망 상통도지 자전 우 애상 불기 사소이자
 福於 冥路 者 莫如 佛氏 古葬畢之 明年 慈殿 命 金剛山 僧
 복어 명로 자 막여 불씨 고장필지 명년 자전 명 금강산 승
 曰 竺尊者 勸寺 於 雙墳 之 外里 許 而 遣中使而 督 成額
 알 축존자 창사 어 쌍분 지 외리 허 이 유증사이 독 성액
 曰 奉國寺 以供 香火 卽 廣州治之 西 十里 星浮山 之下也 時
 알 봉국사 이공 향화 즉 광주치지 서 십리 성부산 지하야 시
 甲寅 中秋日 兼 八道禪教十六宗 都摠攝 臣 僧 許能 拜 手記.
 갑인 중추일 겸 팔도선교십육종 도총섭 신 승 허능 배 수기.

이것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주상전하(현종)께서 즉위하신 이래 대를 이을 왕세자 외에 두 따님을 두셨는데, 아름답기가 효 나라의 공주 '아황'과 '여영'과 같았다. 큰 따님 명선공주와 작은 따님 명혜공주는 좋은 배필을 찾아 성혼을 이루지 못하고, 1년 사이에 모두 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상께서는 서글픔과 비통함이 비길 데 없으시며, 자전이신 중전께서도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두 공주의 명복을 빌어줄 장소를 생각하시다가, 부처님을 모시기로 하고 두 공주의 장례를 치룬 다음해에 중전마마의 명으로 금강산의 중 축존대사에게 절을 세우게 하시니, 중전마마의 뜻을 받들어 궁중의 사람으로 감독하게 하여 두 공주의 묘역 밖에 절을 짓고 '봉국사'라 부르며 향화를 받들게 되었다. 곧 광주관아의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성부산 아래이다. 때는 갑인년 중추일(8월 15일)에 겸 팔도선교 십육 종 도총섭 신, 승 허능 은 사은숙배하고 삼가 이 글을 적는다. 이상(以上)의 글을 상고해 보면 봉국사는 명선, 명혜 공주의 원혼(冤魂)을 달래주고 왕생극락(往生極樂)을 빌기 위하여 현종(顯宗) 임금의 중전(中殿)의 명(命)으로 세웠는데 삼청동(三清洞)에서 이전(移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에 입각(立脚)하여 영장산 봉국사(靈長山奉國寺)로 되어 있는 사액(寺額)을 성부산 봉국사(星浮山奉國寺)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뒷궁말 : 현재 지번으로 태평동 5820번지에서 5890번지 일대에 있던 작은 마을이다.

여 백



제 3 장 마을의 문화유적

여 백

제3장 마을의 문화유적

I. 북정동

1. 망경암(望京菴)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영장산에 위치하였다하여 '망경암'이라 불린다. 고려말 조선초에는 임금이 망경암에서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하였으며, 세종의 일곱째아들인 평원대군(平原大君, 1427~1445)과 예종의 둘째아들로 평원대군의 양자였던 제안대군(齊安大君, 1466~1525)의 명복을 비는 칠성재를 망경암에서 지내면서 '칠성대'(七星臺)라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고종 때에는 이규승(李圭承)이 이곳에 '관음상'을 새기고 불사(佛事)를 일으켰다.²⁰⁾



↑ 망경암

20) 성남문화원,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1.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 2004. 성남시, 『성남분당지구 문화유적 제7집』, 1989.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0.

(1) 망경암 마애여래좌상(望京庵磨崖如來坐像)

망경암에 있는 조선말기 마애불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102호이다. 광무 원년(1897)에 이규승(李奎承)이 불사(佛事)를 일으켜 건립한 것으로 마애불 주변에 파놓은 감실 안에는 '대황제폐하만만세(大皇帝陛下萬萬歲)'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

자연 암벽에 장방형의 감실을 만들고 그 안에 높이 1.2m, 너비 0.75m의 부처를 새겨놓았다. 머리는 별다른 장식이 없는 소발(素髮)이고, 얼굴은 마모가 심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어렵다. 법의는 양 어깨에 걸친 통견(通肩)으로 두텁고 거칠게 표현되어 있다. 수인은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으로 땅끝을 가리키고 있어 항마촉지인을 연상시키며, 다리는 결과 부좌인데 평면적인 얼굴과는 달리 양감있게 표현되었다. 각법이 거칠고 엉성하며 마모가 심하나 건립 연대가 확실하며 주변의 14군데에 명문을 새기고 있어 조선말기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 마애여래좌상

(2) 망경암 소비

망경암에 있는 조선말기의 비(碑)로 마애여래좌상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평원대군(平原大君), 제안대군(齊安大君)의 봉사손(奉祀孫)이자 종묘서령(宗廟署令)이었던 이규승(李奎承)이 고종 11년인 1874년에 건립하였다. 비는 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크기는 높이 87cm, 너비 42.5cm, 두께 11.5cm이다. 3면에 걸쳐 이규승이 지은 비문이 새겨져있는데, 조선 왕실의 안녕과 수복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수비

(3) 망경암 칠성대 중수비

망경암에 있는 조선말기 비(碑)로 소비(小碑)와 나란히 세워져 있다. 소비와 마찬가지로 이규승이 광무 2년인 1898년에 건립하였으며, 소비와 구분하

여 '망경암칠성대중수비(望京庵七星臺重修碑)'라고 부른다. 회백색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그 크기는 높이 136cm, 너비 상 53cm, 하 47cm, 두께 14cm이다. '대한민국광주영장산망경암칠성대중수서(大韓民國廣州靈長山望京庵七星臺重修序)'라는 제목 하에 4면에 걸쳐 비문을 새겨놓았다. 비문에는 망경암과 칠성대의 유래와 중수를 차례로 적고, 고종 황제의 등극과 황세자의 탄생을 축하하며 대한제국 황실의 번영을 영장산(靈長山) 신령과 법륜아미(法輪阿彌), 봉국세존(奉國世尊), 망경약사(望京藥師), 칠성대 성신(星神) 등에게 기원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고종11년인 1874년에 세워진 소비에는 고종을 '조선 국왕'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24년 후인 1898년에는 고종이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 한 이 후이므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2. 해평 윤씨 묘역 및 모덕재

북정동 71-1번지에 위치한 해평 윤씨 묘역에는 모두 3인의 묘와 1기의 묘갈이 있고 가장 윗대인 윤경지를 모시는 모덕재(慕德齋)가 위치해 있다.²¹⁾ 모덕재는 1992년에 건립되었다. 이곳은 분당-수서간 도로가 통과하는 바로 산자락에 있는 윗말에 있다.

이 묘역에서 가장 윗대 인물인 윤경지(尹敬之, 1604~1659)는 자가 유일(惟一)이며 관직은 강원도 홍천(洪川) 현감이었다.²²⁾ 경지의 부는 형조판서인 윤휘(尹暉)이며 조부는 선조대 영의정을 지낸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이며 증조부는 군자감 정(正) 윤변(尹忭)이다. 부인은 공조참판 정입(鄭立, 1574~1629)의 무남독녀로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다. 아래에서 광주부 세촌면 북정리에 정착한 윤경지의 가계도를 통해서 피장자들의 연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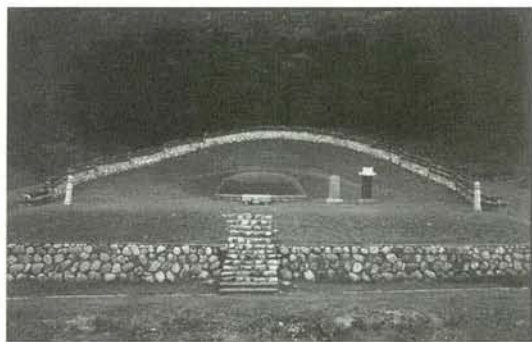
↑ 모덕재



↑ 윤두수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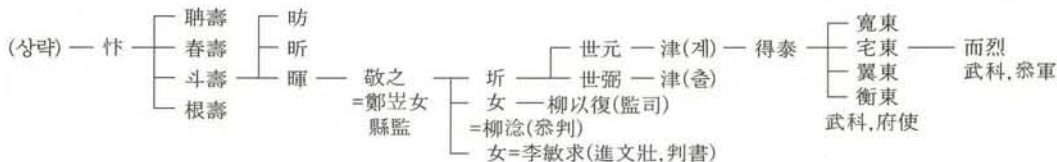
21) 《성남향토전자대전-윤경지, 윤경지 묘갈》,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22) 『海平尹氏世譜』,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史部(2-1811), MF002164~002165.



↑ 윤경지 묘

[해평윤씨 가계 약도]



당시의 풍속인 외손봉사에 따라 처부, 정입의 제사는 윤경지의 아들 윤기(尹圻)로 내려가게 되었다. 따라서 윤경지의 묘는 자신의 윗대인 장단군 오음리(梧陰里)가 아니라 처가의 세거지였던 광주부 세촌면 북정리로 옮겨오게 되었다. 윤경지의 묘갈은 경지의 자형(姊兄)이면서 문장가로 이름난 참판 이민구(李敏求)가 짓고 글씨는 경지의 3번째 사위인 참판 유심(柳滄)의 아들 강원감사 유이복(柳以復)이 써서²³⁾ 1700년(숙종26)에 건립되었다.

윤경지 이하로 이 집안은 4대 동안 별다른 관직을 내지 못하였다. 경지의 아들 윤기(1629~1695)는 은진 송씨 송지승(宋之承)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기의 묘는 안골에 있는 윤경지 이하의 묘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있다. 경지의 손자 윤세원(尹世元, 1652~1700)의 부인은 증참의 이상기(李相夔, 전주인)의 딸이다. 세원의 묘도 산등성이 너머에 있다.

윤경지의 증손인 윤진(尹津, 1677~1707)은 생부가 윤세필(尹世弼, 1657~1701)이고 나중에 백부 윤세원(尹世元)의 양자가 되었다. 부인은 김석(金碩)의 딸이다. 경지의 현손 윤득태(尹得泰, 1702~1759)의 묘도 산등성이 너머에 있다. 득태의 첫째 부인은 안동 권씨이고 둘째 부인은 풍양 조씨이다.

23) 李敏求 著, 「洪川縣監尹君墓碣銘」(『東洲集』,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94, 민족문화추진회 web-site).

윤경지의 현손인 윤형동(尹衡東, 1749~1816)과 5대손인 윤이열에 이르러서 무과를 배출하는 경사를 보였다. 윤득태의 4남인 윤형동은 자가 성평(聖平)이고 무과에 등제하여 함경도 무산(茂山)부사를 지냈다.²⁴⁾ 형동을 포함한 4형제의 묘는 산등성이 너머에 있다.

윤경지의 5대손인 윤이열(尹而烈, 1785~1821)은 자가 위로(渭老)이고 1800년(정조24)에 무과에 등제하여 동도참군(東道叅軍)을 지냈다. 이열의 부는 윤익동(尹翼東)이며 어머니는 전주 이씨이다. 부인은 전주 이씨, 인동 장씨, 안동 권씨 3명을 맞이하여 그 사이에서 2자를 두었다.

북정동 해평 윤씨는 입향조 윤경지가 공조참판 정입의 사위로 들어오면서 광주에 정착하였다. 윤경지가 정입의 사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조대의 서인 명문가의 후광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사돈가는 선조 말년의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의 증손인 유심이었으며 당대의 문장가 이민구(李敏求) 집안이었다. 윤경지의 후손들은 사환이 없으면서도 비교적 집안을 잘 유지해온 듯하며 근년에 윤경지의 5대손인 윤관동 형제대에는 지파의 후손 묘를 따로 한 군데로 모아서 제사를 함께 지내고 후손들 간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3. 유계문(柳季聞)과 문화 유씨 묘역

북정동 산 20번지에 있는 문화 유씨 묘역에 조선 세종조에 형조판서를 지낸 유계문(柳季聞, 1383~1445)과 그의 후손들의 묘 6기가 모여 있다. 묘역은 북정정수장 뒤편에 두 곳과 정수장에서 '안골'로 내려가는 언덕에 1곳으로 모두 3곳이다. 묘의 주인공을 아래의 가계도에서 제시하였다.



↑ 유계문 묘

24) 《성남향토전자대전》-尹衡東, 2004년.

譬)의 딸이다.

유계문의 6자인 유조(柳眺)와 부인 신씨의 묘 2기도 안숙공의 신도비 위쪽에 있다. 유조(1444~1485)는 자가 공망(公望)이고 자세한 관직 경력은 알 수 없고 최종관직이 사헌부 감찰이다. 부인은 신흥생(辛鴻生, 영산인)의 딸이다. 1999년 3월 29일에 안숙공종 친회에서 다시 세운 묘표에 따르면, 1485년(성종16) 12월에 광주 북정촌에 장사지냈다고 적혀 있다.

유권의 아들 유종선(柳終善)과 부인 전주 이씨의 합장묘는 정수장의 동북방으로 있고 바로 밑에는 밭이 있다. 유종선은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지냈고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부인은 송림부정(松林副正) 이효창(李孝昌)의 딸이다. 또 유종선의 묘 아래에 아들 유오(柳塢)와 부인 안동 권씨의 합장묘가 있다. 유오는 군기감 첨정(僉正)을 지냈다.

유계문의 묘가 옛 광주부 세촌면(細村面)에 자리잡게 된 이유는 부친 개국공신 유관(柳寬)과 유계문의 형제들, 아들대의 사환에 따르는 경제적 기반이 축적된 것과 연관이 있어 생각해야 할 것 같다. 3대에 걸친 정승, 판서, 참판을 배출하여 훈구가문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유계문의 후손들은 북정리를 비롯한 광주의 여러 곳에 선산을 형성하였다.

이밖에 유계문의 증손서인 양원군 부부의 묘와 양원군의 아들 함녕군 부인의 묘는 양원군 편에서 기술할 것이다.

4. 망실된 정립(鄭立)의 묘

정립(鄭立, 1574~1629)은 본관은 연일(延日)이고 자는 여수(汝秀)이다. 증조부는 함창현감을 지낸 정세경(鄭世卿)이고 조는 정원(鄭沅)이며 부는 돈녕부주부 정경순(鄭景淳)이고 어머니는 청풍(淸風) 김희경(金僖卿)의 딸이다.²⁹⁾ 1600년(선조33)에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 주서, 헌납, 전한을 거쳐 통정계로 당상관으로 진입하였다. 1624년(인조2) 8월에 형조참의로서 회담검쇄환사의 부사에 임명되어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듬해 3월에 귀국하여 이후 관직이 가선대부 공조참판까지 승진하였다. 부인은 별좌(別坐) 남양 홍곤(洪坤)의 딸이다. 정립은 아들 없이 딸 하나만을 두어 당시 풍속에 따라 외손봉사를 쫓도록 하였다. 그의 외동딸은 해평 윤경지(尹敬之)에게 시집가서 1자3녀를 낳았다.

묘는 북정동 산 48번지에 있었으나³⁰⁾ 관리가 소홀해져 1983년 도굴당하여 원형을

29) 任相元 著, 「嘉善大夫工曹叅判鄭公墓誌銘」(『恬軒集』, 문집총간 148집, 민족문화추진회 web-site).

30) 『南陽洪氏 福井世譜(증보판)』(南陽洪氏 福井宗會, 2002년)의 183쪽.

필자가 10월 하순에 현지 조사를 하던 중 남양 홍씨의 묘역을 알게 되어 洪錫弼 선생을 면담하고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홍석필 선생의 후의에 감사한다.

있었고 그 후 도굴된 형상마저도 묘가 북정동 수도정수장으로 포함되는 바람에 흔적도 없어졌다고 한다.³¹⁾ 묘갈명은 좌참찬 임상원(任相元)이 짓고 글씨는 사위 윤경지의 외손인 유이복(柳以復)이 썼다.³²⁾ 참고로 유이복의 아버지인 강화부사 유심(柳諄)은 송설체에 조예가 있던 서예가였다.³³⁾

이 집안의 윗대는 태종~세종조의 정연(鄭淵)과 그의 아들 정자제(鄭自濟) 때에 현달하여 파주와 고양에 묘를 썼다가, 정입의 4대조 정호(鄭灝)대에 이르러 광주에 세력기반을 두고 묘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³⁴⁾ 정호의 광주 정착은 정호의 부 정유(鄭濡)가 형조판서 유계문(柳季聞)의 사위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가능해졌다. 유계문의 사위 정유의 묘는 부 경기도 고양에 있고 아들대에 와서 외가가 세거한 광주로 선산을 잡았다. 정립 이전에는 별다른 사환을 보이지 못하다가 비로소 입이 가선대부 공조참판에 오름으로써 3대가 추증될 수 있었다.

5. 이희(李禧)의 묘

양원군과 배위 2인의 묘는 전술하였듯이 북정동 산 20번지 안골에 있는 문화 유씨 유계문의 묘 밑에 자리해 있다. 그리고 유계문의 묘 위에 양원군의 맏아들 함녕군(咸寧君)의 배 현부인(縣夫人) 파평 윤씨의 묘가 있다.

양원군 이희(李禧, 1492~1551)는 성종의 16남 1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숙의 남양 홍씨 동지중추부사 홍일동(洪逸童)의 딸이다.³⁵⁾ 성종이 승하하는 해에 양원군(楊原君)에 봉해졌고 15살의 나이에 종실로 중종반정에 추대되어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에 봉해졌다. 평양 조씨 조정(趙經)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으나 1517년(중종12)에 죽고³⁶⁾ 유종선(柳終善:문화인)의 딸을 둘째 부인으로 취했다.³⁷⁾ 자녀는 두 부인 사이에서 함영군(咸寧君) 이수선(李壽璿), 연성부정(連城副正) 이수옥(李壽玉), 화녕군(花寧君)

31) 같은 책, 한동익 선생 원고에 의함.

필자는 『延日鄭氏世譜』(鄭淵파, 1981년)을 참고했는데 거기에는 도굴 이전 鄭씨의 고조부 鄭灝 이하의 묘가 짧게 廣州에 있다고 적혀 있다. 1983년에 도굴당한 정입을 포함한 연일정씨 묘역은 외손인 해평 윤씨가 돌보아 왔으나 현대에 와서 관리의 손이 닿지 않아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해평 윤씨 후손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했으나 정립의 부인 남양 홍씨의 친정 조카인 洪緯의 13세손인 洪錫弼씨(72세, 『南陽洪氏福井世譜』의 발행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되었다.

32) 《성남향토전자대전》-鄭諄

33) 吳世昌 著, 東洋古典學會 번역, 『국역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하), 시공사, 559쪽.

34) 『延日鄭氏世譜』:鄭淵파, 1981년 회상사 발행, 鄭求福 교수 제공

35) 《성남향토전자대전》-李禧묘

36) 『국역중종실록』권31 12년 12월 18일(己未).

37) 위의 『文化柳氏世譜』

모두 4남 8녀이다.

양원군 이희는 1535년(중종30)에 본가에 들렀다가 궁으로 돌아오는 내인(內人)을 범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축첩(蓄妾)으로 만들려고 한 사건이 발각되어 오랫동안 조정에서 엄벌을 요구한 일이 있었으나 막내 동생을 애호하는 중종의 배려로 종부시(宗簿寺)에서 추고(推考)하는 것에 그칠 수 있었다.³⁸⁾



↑ 이희 묘



↑ 이희 신도비

이희는 유계문(柳季聞)의 사위가 되어 처가의 선산이 있는 광주부 세촌면 북정리에 묻히게 되었다. 시호는 정혜공(貞惠公)이다. 묘는 처음 1571년(선조4)에 광주부 남면 음촌으로 정해졌고 1799년(정조23)에 피장자의 9대손 전사간원 정언 이윤행(李允行)이 묘표를 세웠다. 첫째 부인 문천군부인(文川君夫人) 평양 조씨는 명철방(明哲坊)덕에서 몰하여 묘가 서울 중랑구 신내 3동에 있다가 주택건설로 인해 1993년 북정동으로 이전하였고, 둘째부인 양근군부인(楊根君夫人) 문화 유씨의 묘도 본래 안골 너머에 있다가 북정정수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현재의 위치로 이장해서 부인 2명을 합장하였다. 양원군의 신도비는 2000년 9월에 13대손 송암(松庵) 이근계(李根桂)가 글을 짓고 15세손 관산(冠山) 이창현(李昌炫)이 글을 써서 양원군과 종회의 이름으로 건립하였다.

양원군의 첫째 아들 함녕군(咸寧君)의 배 현부인(縣夫人) 파평 윤씨의 묘는 유계문의 묘 위에 있다. 현부인은 황해도 인산(麟山)침사 윤현(尹僊)의 딸이다. 양원군과 함녕군 종회에서 묘표를 건립하였다.

6. 진주 강씨 묘역 및 강위(姜瑋)의 행적

앞서 언급한 문화 유씨의 묘역이 있는 반대편에는 고려 말로부터 광주에 정착한 진주 강씨의 묘가 10여기 있다. 이곳은 북정동~남한산성 도로에서 안골로 들어오면 수령

38) 『국역중종실록』82권 31년 6월 4일(丁亥).

80년의 느티나무를 지나서 오른쪽의 얇은 산자락에 묘가 분포해 있다.

진주 강씨가 광주에 정착한 시기는 고려 말의 강천명(姜天命) 때이다. 『진양강씨세보(晉陽姜氏世譜)』에 따르면, 고려조에 정헌대부(正憲大夫) 예의판서겸진현관대제학(禮義判書兼進賢館大提學)을 지낸 강천명이란 인물이 광주로 들어왔고 묘는 금광리(金光里)에 있다고 하였다.³⁹⁾ 현재 강천명의 묘는 복정동 안골에 있다.⁴⁰⁾

강천명의 아들 강은(姜隱)은 자가 지현(之顯), 호는 격재(格齋)이며 고려말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문인이다. 그는 생원, 진사를 거쳐서 양광도(楊廣道) 관찰사를 지냈고 동지밀직사사겸수문전학사(同知密直司事兼修文殿學士)에 오른 인물이다. 강은(姜隱)의 묘가 족보에 '세춘면 내곡'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곡이 1918년 조선총독부 지도에 나오는 금광리 아랫편에 있던 안골인지 오늘날 복정동에 있는 안골인지 단정할 수 없다.

아들 강해(姜諧)는 통훈대부 종부시소윤(宗簿寺少尹)을 지낸 인물이다. 묘는 아버지 강은과 같은 자리로 적혀 있으나 안골 묘역에서 찾지 못했다. 해의 부인은 평해 황씨 선공감(繕工監) 정(正)을 지낸 황길원(黃吉源)의 딸이다.

아래에서 광주부 세춘면 복정리에 세거한 진주 강씨의 가계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묘자리에 유의해서 가계도를 작성하였으며, 묘자리 이동이 있고 나서 다음 대의 인물에 별다른 주기 사항이 없는 것은 묘자리가 같은 것을 뜻한다.

[진주강씨 가계도]



광주 세춘면에 진주 강씨의 묘가 자리잡은 시기는 강해(姜諧)의 증손대까지 이어진다. 먼저 해의 아들 강노(姜老, ?~1474)는 1438년(세종20)에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1447년(세종29)에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수원부사, 성균관대사성을 역임하였다. 부인

39) 『晉陽姜氏世譜』(국립중앙도서관 한-58-가4-3, 한국학중앙연구원 복제MF 003782).

金光里는 1918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지도에도 자연 지명으로 등장한다. 광주군 中部面에 속해서 위로는 丹塗里가 있고 앞으로 酒幕里가 있고 뒤로는 沙器洞 사이에 있던 범위에 위치하였다.

40) 필자는 현대에 나온 족보를 보지 못하고 일제시대에 나온 舊譜에만 의존했는데 금광리에서 복정리로 姜天命의 묘를 이장한 시점이라든지 현 안골 답사에서 遷葬의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은 감찰 최중(崔中, 수원인)의 딸 숙부인 최씨이다. 묘는 안골에 있으며, 10세손이 세운 묘표가 있다.

강노의 아들 강숙희(姜叔淮)는 진사시에 입격하여 남원부사, 제용감(濟用監) 정(正)을 지낸 인물이다. 부인은 성주 이씨와 여주 이씨 2명이다. 묘는 역시 안골에 있다.

강숙희의 아들 강희신(姜熙臣, 1474~1524)은 자가 사광(士光)이고 호는 묵암(默菴)으로 진사시에 입격하여 증중조에 현량과로 천거된 인물이다. 이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다. 부인은 언양 김씨 목사 김극장(金克鏘)의 딸이다. 철원(鐵原)부사 강희신의 묘와 숙부인 언양 김씨와의 묘가 안골에 있다. 별묘이다. 희신의 아우 강희경(姜熙卿)의 묘도 안골에 있다. 묘표에 현신교위(顯信校尉) 강희경과 배 공부인(恭夫人) 전주 최씨와 공인(恭人) 순창 설씨라고 적혀 있다.

강희신(姜熙臣) 이후로 이 가문은 문관 벼슬과는 길이 멀어졌고 무과 출신이 많아졌다.⁴¹⁾ 강희신의 아들 강빈(姜濱)은 생원시에 입격하여 황해도 강음(江陰)현감을 지냈다. 빈의 아들 강백령(姜栢齡)은 진사시에 입격하여 전설사(典設司) 별제를 지냈다.

백령의 손자 강경(姜諱)은 묘가 광주부 세촌면 북정리로 옮겨졌다가 경의 증손인 강성익(姜聖益)은 다시 선대의 묘역이 있는 세촌면 금광리(金光里)⁴²⁾로 이동한다.

가계도에서 강석망(姜碩望)의 장자 강현(姜櫛)계열과 차자 강학(姜樛) 계열로 안골의 묘 분포가 갈린다. 강현의 손자인 강주환(姜周煥)과 배 연안 이씨와의 묘는 북정동 안골에 있다. 주환의 아들 강형圭(姜衡圭)와 전주 이씨, 남양 홍씨의 묘도 안골에 있다. 형圭의 손자 강문헌(姜文獻)과 부인 전주 이씨의 묘도 안골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 계열의 가장 최근의 인물인 강영식(姜永植, 1914~1959)과 부인의 묘가 안골에 있다.

차자 강학 계열에서 강주현(姜周炫)~강현圭(姜獻圭) 부자는 별다른 관직을 지내지 못했고 다만 현圭의 묘지는 금광리 내곡 동봉(筒峰)으로 옮겨진다. 강현圭의 아들 강진화(姜鎭華)는 무과에 합격하여 공주 중군(中軍), 함경도 고원(高原) 군수, 공주 영장(營將)을 지냈다. 강진화의 특이 사향은 선산이 위치한 광주와는 별개의 지역인 경상도 울산(蔚山)에 묘자리가 위치했다는 점이다. 진화의 큰 아들 강문기(姜文璣) 이하의 자손은 무과 출신이고 울산 지역에다 선산을 이루었다.

41) 李光麟, 「姜瑋의 人物과 思想—實學에서 開化思想으로의 轉換의 一斷面—」(『東方學志』제17집, 1976년,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의 5쪽.

42) 金光里는 1912년에 발간된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따르면 세촌면의 丹塗洞에 포함된 자연 지명이었다. 단대동은 1914년 朝鮮總督府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로 은행정이, 논골, 금광리를 병합하여 단대리라 하고 중부면에 편입되었다. 1973년 성남시에 편입되면서 단대동으로 개칭하고 은행정이는 은행동에 편입시켰다. 단대동은 1967년 1·2동으로, 1980년에 3동으로, 1983년에 4동으로 각각 나누어졌다가 1989년 分區에 따라 단대2,3동은 금광동으로 이름이 바뀌어 중원구에 편입되었고 1,4동은 합쳐서 단대동으로 만들고 수정구에 들어가게 되었다(『城南市史』, 1993년 발간, 1816쪽).

그리고 강진악(姜鎭岳)의 손자 강원선(姜元善, 1861~?)의 묘는 북정동 안골에 있지 않고 창곡동에 있는 유격훈련장에서 필자가 발견하였다. 강원선은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주부, 판관을 거쳐 가산(嘉山)군수에 올라 통정계를 받았다. 1917년 발간된 『진주 강씨세보』(은열공 강민첩 파보)의 주도인물이기도 하다.⁴³⁾ 통정대부행가산군수 강원선과 배 숙부인전주이씨의 합장묘에는 1937년 규장각 부제학을 지낸 정만조(鄭萬朝)가 찬하고 1947년 일범거사(一凡居士) 김용로(金容魯, 상산인)가 쓴 묘표가 있다.

북정동 진주 강씨 묘역에서 가장 중시해서 언급해야 할 인물은 강진화(姜鎭華)의 둘째 아들 강위(姜瑋, 1820~1884)이다. 그는 이른바 실학을 개화사상(開化思想)으로 발전시킨 인물 중의 한사람으로 학계에서 주목한 인물이기 때문이다.⁴⁴⁾ 그는 본래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과 매천(梅泉) 황현(黃玗)과 더불어 19세기 후반의 3대시인으로 지칭된 사람이기도 하다.

강위는 족보에 기록된 바 본명이 강문위(姜文瑋)이고 자는 위옥(韋玉)이다. 이 밖에도 그는 이름을 호(浩), 성호(性濤)을 쓰기도 했으며 자는 중무(仲武), 요장(堯章)이라고 했으며 호는 추금(秋琴), 자기(慈杞), 청추각(聽秋閣), 고환당(古權堂)을 썼다.⁴⁵⁾ 그의 다양한 이름과 자와 호는 명자(名字)를 바꾸기 좋아하는 그의 성벽 탓에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1882년(고종20)에 일본에 시찰하러 갔을 때 나라에서 선공감 가감역(假監役)이라는 문관직을 제수한 것을 기뻐하여 비로소 이름을 위(瑋)로 하고 자도 위옥(韋玉)을 정하였다.⁴⁶⁾

그는 어려서 병이 많아서 11살이 되어서야 서당에 나아가서 공부했으며 14살에는 한성으로 가서 공부했고 그 중에서도 용산(蓉山) 정건조(鄭健朝, 1823~1882)⁴⁷⁾의 집에서 주로 공부했다.⁴⁸⁾ 24살에 가업인 무과를 포기하고 성리학을 공부하는 데 치중하여 민노행(閔魯行, 1777~1848) 밑에서 4년간 경학을 공부하고⁴⁹⁾ 다시 제주도에 유배중인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 1782~1856)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 김정희가 유배생활에서 풀려난 뒤 1851년(철종2)에 다시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이 반대파 김흥근(金興根)과의 신해예송에서 패배하여 함경도 북청(北靑)으로 유배가게 되자⁵⁰⁾ 그곳에 동행하여 학문

43) 1917년 발간, 『晉州姜氏世譜』의 마지막 장 참고.

44) 위의 李光麟의 논문, 37쪽.

45) 李光麟의 논문, 5쪽. 이하 강위의 생애는 이광린의 논문을 대폭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46) 李建昌 撰, 「姜古權墓誌銘」(李建昌全集(下), 亞細亞文化社 발간, 1978년)의 1084~1088쪽.

47) 鄭健朝의 물년은 민족문화추진회 web-site에서 확인하였다(『국역승정원일기』高宗19년 3월28일).

48) 許傳 撰, 「姜瑋傳」(『性齋集』, 민족문화추진회 발간 문집총간 308, 2003년)

49) 閔魯行은 閔景淹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백부인 閔景淩의 양자로 들어갔다. 호는 埤園이고 생원시에 입격하여 金浦郡守를 지냈다. 저서는 『咫尺別集』이 있다(1929년 발간, 『驪興閔氏族譜』, 국립중앙도서관 한-58-가27-2, 한국학중앙연구원 복제MF.003967.004003~004006.004009).

을 배웠다. 특히 김정희의 영향력은 지대하여 비록 스승의 학문이 고증학적인 성격에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김정희가 중인 제자들까지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요소는, 강위가 1866년 병인양요 이후 현실문제에 급격히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 등 서양 열강과의 개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할 것을 주장하는 데까지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학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강위는 전국을 방랑하기 시작하였다. 노숙을 하면서 전국의 명산, 오지를 두루 유람하였고 동해도 두 번이나 돌았으며 나중에는 가족을 거느리고 무주(茂朱) 산 속으로 들어가 생활하다가⁵¹⁾ 삼남지방의 민란으로 집이 불타서 한성으로 상경하였다.⁵²⁾

한성으로 돌아온 강위는 젊었을 때 교류한 정건조의 요청으로 2만9천자에 이르는 「의삼정구폐책(擬三政揀弊策)」을 짓는가 하면,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 이후 국가의 장래에 깊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병인양요에 침략을 당하고 있는 부근 해구를 살피고 총융사(總戎使) 신현(申櫓) 장군에게 상세한 방위정책을 건의하였다.

1870년대와 1880년대에는 몇 차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였다. 먼저 1873년(고종11) 12월에 동지사 정건조를 따라 북경으로 출발하여 1874년(고종12) 5월에 돌아왔고 그 해 12월에 동지사의 서장관 이건창(李建昌)을 따라 중국에 갔다가 1875년(고종13) 5월에 귀국하였다. 1876년(고종14) 2월 한일간의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할 시에 전권대신 신현을 막후에서 보좌하였고 1880년(고종18) 김홍집(金弘集)이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으로 파견될 때 그의 서기로 수행하였다. 또한 1882년(고종20) 3월에 뒷날 개화당의 주역인金玉均(金玉均)을 따라 동경에 갔다. 그 해 7월 귀국하던 도중 임오군란의 소식을 듣고 일행과 헤어져 장기(長崎)를 거쳐 상해(上海)로 건너가 중국의 정치가들과 조선의 사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당대에 그가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조선의 장래를 고심한 흔적은 정부 내의 박규수(朴珪壽), 신현(申櫓), 김윤식(金允植) 등과의 접촉을 통해서 당시 조선은 불가피하게 개국을 해야 할 상황이며 1880년대 개화파들에게는 열강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미국과 서둘러 문호를 열어 아라사를 견제할 것을 주장하였다.⁵³⁾ 그는 63세에 귀국하여

50) 李迎春, 「哲宗의 王位繼承과 辛亥祧遷禮訟」(『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집문당, 1998.8)의 342쪽.

51) 무주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강위의 외가 및 형수 집안의 세거지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강위의 부친인 강진화(姜鎭華)와 장자 강문기(姜文璣) 부자는 묘가 울산에 있는데 고부의 2기는 모두 무주에 있다. 부부의 묘를 합장하지 않고蔚山과茂朱라는 별개의 지역으로 위치한 이유가 무관의 근무지 변동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짐작할 수 없으나 무주는 강위의 가족이 일시 거주한 지역이었고 형 강문기의 아들, 손자의 묘지가 들어선 곳이기도 했다(『晉陽姜氏世譜』참조).

52) 李光麟의 논문, 7쪽.

53) 李光麟의 논문, 32쪽.

체력이 쇠진하여 2년 뒤 1884년(고종22)에 운명하였다.

대대로 무관을 세습한 가문에서 태어난 강위는 20대에 무과를 포기하여 민노행, 김정희에게 배운 뒤에 40대 이후로는 현실 문제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뛰어들고 정부 관료와 개화파에게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배경에는, 그가 무반 가문이었기 때문에 자연 신분적으로 중인들과 가까워서 외국을 드나들면서 외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그들의 안목을 같이 할 수 있었고 다수의 수구적인 정부 내에서 박규수, 신헌, 김윤식, 김옥균 등과 같은 개국 또는 개화를 주장하는 관료들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강위의 묘는 선산이 있던 광주부 세촌면 북정리에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 후손이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묘를 화장하였다고 한다.⁵⁴⁾ 이광린 교수의 논고에 따르면 강위의 후손은 호암(湖岩) 문일평(文一平)이 조선일보의 지상에 「한미관계오십년사(韓美關係五十年史)」를 연재할 때 사료를 찾기 위해 경성 왕십리에 있는 강위의 후손가를 방문하였다고 한다.⁵⁵⁾ 안골을 답사하면서 만난 한 후손은 어렸을 때 집안 어른들에게 들은 기억에 의존하여 이장한 흔적이 있는 묘를 안내해 주었다.

요컨대 북정동 진주 강씨는 묘가 약 10여기 있고, 이들의 관직 활동은 고려말~조선 초에 문관 벼슬을 지냈다가 16세기 이후로 무관을 가업으로 하였다. 관직으로 보면 대대로 현직에 진출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19세기의 인물 강위는 실학사상에서 개화사상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행적을 보여주는 활약이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7. 남양 홍씨 묘역

북정동 산62번지에 거주하는 홍석필(洪錫弼)씨의 저택에는 북정동 정수장 건립으로 인해 옮겨온 선대의 묘역이 위치해 있다. 집 뒤로 옮겨 놓은 묘역은 남양홍씨 홍은열(洪殷悅)의 25세손인 홍위(洪緯)와 후손들의 묘가 있다.

북정동 남양 홍씨의 입향조가 되는 홍위가 광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모이자 공조참판 정입(鄭陞, 1574~1629)의 부인과의 인연에서 찾는다.⁵⁶⁾ 홍씨부인은 외동딸만 있어 조카를 귀여워하여 홍위가 자주 세촌면 북정동에 출입하게 되었다. 외동딸의 남편을 윤경지(尹敬之, 해평인)로 맞이하여 홍씨부인의 조카 홍위와 홍씨부인의 사위 윤경지

54) 강위의 방손인 姜斗植(1927년생, 서울대 독문과 퇴직)교수에게 이민간 시기를 묻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고환당의 묘가 북정동에 존재하지 않으며 1968년 광주대단지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5) 李光麟의 논문, 각주 28 참조.

56) 洪錫弼, 『南陽洪氏 福井世譜』증보판, 2002.8, 189~190쪽.

는 돈독해지게 되었다.

홍위의 선계는 공민왕조의 문하시중인 문정공(文正公) 홍언박(洪彦博, 1309~1363)이다.⁵⁷⁾ 홍언박은 1363년(공민왕 13)에 흥왕사(興王寺)에서 일어난 김용(金鏞)의 시역 음모에 왕이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나라의 수상으로 역도를 꾸짖다가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⁵⁸⁾ 문정공의 충절은 손자인 관(寬, 師普의 아들), 윤(倫, 師禹의 아들)이 1374년에 일어나 공민왕 시역(弑逆)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고 뒤따라 화가 문정공의 아들들에게 미쳐⁵⁹⁾ 누대에 걸친 남양 홍씨 가문의 영화는 하루아침에 역신지가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조선조에 들어서 문정공의 5세손인 홍달손(洪達孫, 1415~1472)이 무과로 등제하여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에 활약하여 1등공신이 되어 이후 병조참판, 판서, 좌의정까지 올랐다.⁶⁰⁾ 홍달손의 발신으로 남양 홍씨는 전조의 오명을 씻고 훈구공신의 대열에 들 수 있었다. 이후 혼(忻)-신겸(信謙)-정(禎)-우량(友良)-곤(坤)-사립(思立)대까지 이 가문은 무과를 주로 하면서 관직의 맥을 이어갔다.⁶¹⁾ 세거지는 홍달손대에 양주(楊州)로 정해졌다가 부임지에 따라 충청도 면천(沔川)이나 전라도 임실(任實)로 잠시 옮겨가기도 하였다.

문정공 홍언박의 12세손 홍위(洪緯, 1600~1670)는 부가 경기도 음죽(陰竹)현감을 지낸 홍사립(洪思立)이고 어머니는 광산노씨 부사 노세준(盧世俊)의 딸이다. 조는 직장(直長) 홍곤(洪坤)이고 증조는 현감 홍우량(洪友良)이다. 위의 자는 명숙(明叔)이고 관직은 첨지를 지냈다. 홍위도 부조대의 무업을 계승하였다. 부인은 진주 소씨 첨지 소탁(蘇達)의 딸이다. 그리고 홍위가 광주에 정착하는 데 영향을 미친 고모 홍씨부인은 홍곤의 첫째 딸이다.

홍언박의 12세손 홍위가 연일 정씨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광주부 세촌면 북정리에 이거한 뒤로 두드러진 관직은 지내지 못했으나 선대의 세업을 유지하여 대략 400년을 세거하였다. 현대에 들어 성남시가 개발됨에 따라 북정동에 들어선 정수장이나 택지 개발로 인해 남양 홍씨 산소는 몇 차례에 걸쳐 북정동 산 61번지로 옮겨졌다. 묘가 있는 곳은 홍위의 12대손 홍석필(洪錫弼)의 가택 뒷편이다.

57) 洪彦博,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권, 1991년

58) 위의 『南陽洪氏 福井世譜』, 96~96쪽.

59) 『南陽洪氏 福井世譜』, 114~115쪽.

60) 洪達孫,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권, 1991년.

61) 『南陽洪氏世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서 B10B68B, MF.009670~009679.

8. 안골 느티나무

북정동 안골마을 중앙에 위치한 이 노거수는 성남시 보호수로 지정(1996, 11. 18)되어 있다. 안내판에는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수령은 80년, 수고 10미터, 나무둘레 1.5미터라고 소개되어 있다.

9. 망경암 느티나무

망경암 대웅전 앞에 있는 느티나무는 노거수로 현재 성남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1982년 10월 5일에 지정된 이 나무는 수령 200년이라고 한다. 수고 25m, 나무둘레 2.5m이다.



↑ 안골 느티나무



↑ 망경암 느티나무

II. 창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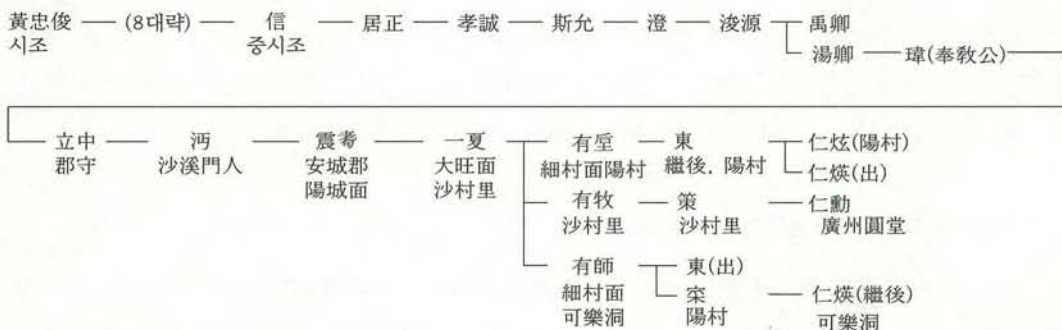
1. 창원 황씨 묘역

창곡동 산 83-1번지에 있는 창원황씨 묘역은 황유사(黃有師)와 부인 전의 이씨와의 합장묘만이 확실하게 피장자를 알 수 있으며 나머지는 묘표가 없는 묘 3기, 이장해간

묘 1기이다. 쓰러져 있는 문인석(文人石)이 2개가 있으며 대략 묘는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은 듯 잔디가 허물어졌고 묘 위에 나무가 크게 자라 있기도 했다. 이곳은 육군 행정학교에서 창곡5동으로 들어가는 삼거리를 지나 바로 도로 옆에 묘가 위치해 있고 뒤흘쪽으로는 (대)학생군사훈련장이란 표지판이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묘표가 있는 것을 1기밖에 발견하지 못했지만 추후 피장자의 신분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으로 족보의 기록에 의존하여 묘터를 표기하고 이력을 기술하였다.

[창원황씨 가계도]



창원황씨 묘가 창곡동에 분포하게 된 계기는 숙종대의 문신 황일하(黃一夏, 1644~1726)의 현달과 관계가 깊다. 위의 가계도는 특히 황일하 이후의 묘지가 어느 곳에 분포해 있는가를 표시하였다. 묘지는 족보상의 위치이므로 본래 세촌면 창곡리와 서부면 창동을 통합하여 만든 창곡동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심 인물인 황일하는 자가 자우(子羽)이다. 부는 회인현감 황진구(黃震耆)이고 조는 사계(沙溪) 김장생의 문인인 황면(黃沔)이며 증조는 예천군수 황입중(黃立中)이다. 모는 광산인 김영(金榮)의 딸이다. 그는 26살인 1669년(현종10)에 진사에 입격하여 금부도사를 지냈다가 53살에 문과에 급제하였다.⁶²⁾ 관직은 이조참의, 예조판서, 좌참찬까지 올랐고 궤장을 받았다. 전주이씨 이시성(李時聲)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유후, 유목, 유사, 유숙 네 아들을 두었다. 황일하의 묘는 선영이 있던 안성군 양성(陽城)을 떠나 광주부 대왕면(大旺面) 사촌(沙村)⁶³⁾에 자리잡게 되었고 이후 광주는 황일하의 증손대

62) 『昌原黃氏世譜』, 回想社 발행, 1998년.

63) 沙村(里)는 1914년 조선총독부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할 당시 같은 大旺面에 속한 松岷洞의 일부 지역을 묶어서 沙松里로 통합되었다. 1973년에 성남시 사송동으로 되었고 1989년 수정구에 편입되었다.(『城南市史』1820쪽, 1993년). 사송동은 금토동과 함께 신흥동에 속해 있으며 탄천을 경계로 수자원공사

까지 선산으로 유지되었다.

황일하의 네 아들 가운데 1자 황유후(黃有堉)는 음서로 교하(交河)군수를 지냈던 인물이다. 두 부인에서 손을 보지 못하고 둘째 동생인 유사의 장자 동(東)을 입후하였다. 둘째 아들 황유목(黃有牧)은 진사에 입격하여 김포군수를 지냈다. 셋째 아들 황유사(黃有師, 1680~1739)는 자가 운보(雲甫)이고 관직은 지내지 못했으나 아들 채(棗)가 무과로 가선대부까지 승진하는 바람에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부인은 전의이씨 서윤(庶尹) 이상린(李尙隣)의 딸이다. 유사의 아들인 황채(黃棗, 1703~1779)는 자가 자공(子公)이며 무과로 등과하여 품계가 가선대부에 올랐다. 부인을 안동김씨 도사 김류(金瑠)의 딸로 맞이했으나 무자하여 조카 황인영(黃仁煥)을 입후하였다.

창곡동에 있는 황유사와 부인 전의이씨의 묘표는 사위인 현감 유언용(俞彦鏞, 기계인)이 짓고 정조대의 명필 황운조(黃運祚)가 글씨를 써서⁶⁴⁾ 1770년(영조46)에 건립되었다. 묘표의 글씨는 23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근래의 것처럼 반들반들하다.

2. 광산 김씨 선산 및 김필(金潁)의 묘

광산 김씨가 광주에 정착한 것은 고려말의 유신 김약시(金若時, 1359~1406)가 역성혁명에 뜻을 같이하지 않고 세상을 피해서 음촌리(陰村里)에 터를 잡은 데서 비롯한다. 김약시는 1382년(우왕8)에 사마시에 입격하고 이듬해인 1383년(우왕9)에 문과에서 이방원(李芳遠)과 동방으로 급제하였다. 그는 봉상대부전의를부령(奉常大夫典儀副令), 직제학(直提學)을 지냈다. 두 형인 김약채(金若采)·김약항(金若恒)이 새 왕조에서도 출사한 것과는 달리 그는 태조의 여러 차례 징소에도 응하지 않았다.⁶⁵⁾

그의 행적은 8대손인 김우형(金字亨, 1616~1694)이 현종조에 승지로 있을 때에 왕에게 김약시의 유사를 얘기함으로써 조정에 알려졌고, 이후 10대손 김대수(金岱壽)와 11대손 김수석(金壽錫, 1673~1727)이 1720년대에 도암(陶菴) 이재(李穡, 1680~1746)에게 묘갈명을 청탁하고 김약시의 방손(傍孫)인 전라감사 김조택(金祖澤)이 글씨를 써서 비를 세우게 된다.⁶⁶⁾ 그리고 순조조에 이르러 광주 출신인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주장하여 충

성남지점을 끼고 있고 주거 공간보다 임야가 많은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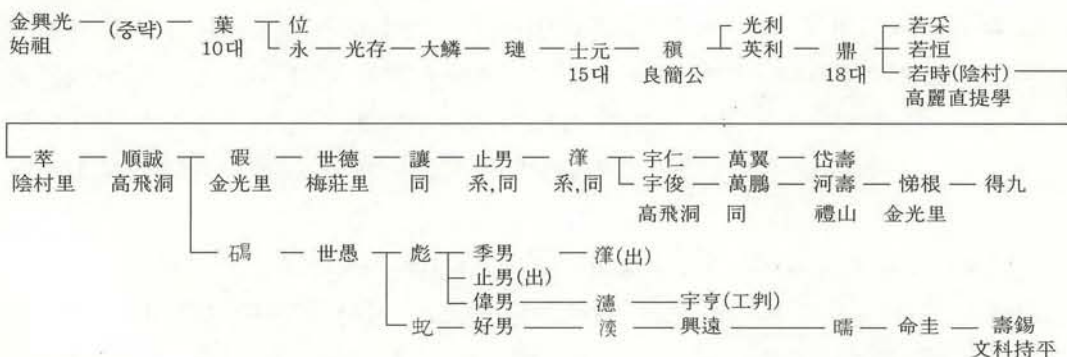
64) 黃雲祚(1730~1800)은 자가 士用, 호는 道谷 또는 悟修堂이다. 秋浦 黃愼의 5대손이며, 부윤 黃一皓의 현손이다. 筆名으로 출사하였고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청렴하고 백성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정조조에 누차 조정의 부름을 받아서 '春秋綱'이란 글자를 올렸는데 이 일로 죽은 뒤에 1814년(순조14)에 호도로서 旌閭閻을 내리라는 영예를 입었다. 부인은 韓山 李思麟의 딸이다. [『昌原黃氏派譜』, 국립중앙도서관 한-58-가8-21, 한국학중앙연구원 복제MF.004615]

65) 『光山金氏世譜』(1939년 발간, 국립중앙도서관 한-58-가5-491), 한국학중앙연구원 복제MF 003907~003912.

정(忠定)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다. 김약시의 묘는 광주 금광리에 있었는데 오늘날 신구대학 본관자리이다. 금광리는 김약시 이후로 광산김씨의 선산이 되었다가, 성남 개발로 인해 광산 김씨의 선산은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 공민산(恭愍山)으로 이전하였다.⁶⁷⁾

여기서 광산 김씨가 세거한 음촌과 금광리라는 지명을 고증할 필요가 있다. 금광리는 1912년 발간된 조선총독부 책자에서 세촌면의 7개리 중의 하나인 단대동(丹垌洞)에 포함된 자연 지명이었다.⁶⁸⁾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년) 지도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단대동 아래에 금광리가 있고 금광리 왼쪽으로 주막리(酒幕里)가 있고 금광리 아래쪽으로 내곡(內谷)이 있다. 단대동은 나중에 성남시로 바뀌면서 분동이 되었고 그 분동이 된 것이 금광동이 되었다. 이 금광리 안에 음촌(응달말)이라는 지명이 있었다.⁶⁹⁾ 음촌은 본고에서 다룬 인물들의 족보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연 지명이다. 음촌은 1912년 책자에는 나오지 않으나 1980년에 나온 성남 지도에 '은행동'이란 글자 아래에 적혀 있다.⁷⁰⁾ 요컨대 금광리는 김약시가 조선의 건국에 협조하지 않고 광주 금광리에 은둔한 것에서 생긴 지명이고 김약시의 후손은 금광리 중에서도 음촌에 살았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광산김씨 김약시 가계도]



66) 위의 『光山金氏族譜』 및 李緯 撰, 「高麗直提學金公墓碣」(陶菴集2, 文集叢刊 195, 민족문화추진회, 1997년) 그리고, 金祖澤은 피전자 金若時的 말형 金若采의 13대손이다.

67) 《성남향토전자대전》-(光山金氏; 성씨세거지)
實村面은 광주군의 가장 동남단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다(1955년 발간, 『京畿道管內圖』). 삼합리의 광산김씨 선영은 곤지암에서 양평 방향으로 가다보면 만선리라는 표지판이 나오고 거기서 5km 이동하면 영빈마을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景慕齋가 있어 후손이 거주하면서 묘를 관리하고 있다. 도로와 인접하여 龍溪公 金止男의 시도비가 있다.

68) 朝鮮總督府,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년 1월 발간, 太學社 영인, 1985년)의 廣州郡편.

69) 張三鉉, 「金光洞 光山金氏에 關한 研究」(『城南文化研究』제3호, 城南文化院·(부설)鄉土文化研究所, 1995년)의 147쪽.

70) 단대오거리에서 금광동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음촌로'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앞의 가계도에서 김약시의 직계파를 중심으로 해서 묘지의 위치를 제시하였다.

세촌면 음촌에 거주한 시기는 김약시와 약시의 아들 김철휘(金莘)까지이다. 철휘의 아들 김순성(金順誠)은 관직이 평양서윤을 지냈던 인물이고 묘는 영장산 고비동(高飛洞)이다. 고비동은 정확하게 어떤 지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금광동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한 지점임에는 틀림없다. 김순성의 아들 김하(金厓)의 묘는 다시 금광리에 자리하였다. 김하의 아들 김세덕(金世德)의 묘는 금광리에 있고 부인의 묘는 남편묘와 떨어져서 남한산성의 남문의 중대면(中岱面) 매장리(梅莊里)에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⁷¹⁾

김세덕의 아들 김양(金讓)의 묘는 매장리로 옮겨졌고 김양의 아들 김지남(金止男), 손자 김필(金潁)대까지 묘의 위치는 동일하다. 김필 아랫대로 가끔 광주가 아닌 지역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후손들의 묘는 매장리, 고비동, 금광리에 분포하였다. 그러므로 이 세 동(리)를 범위로 해서 김약시의 후손들은 광주에서 세거했고 그곳에 묘지를 썼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매장리를 현지 주민들은 매착리(梅着里)라고도 하고 매치기로 부르기도 한다. 현지 조사에서 만난 창곡동의 광산 김씨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매장리에서 현 상무체육관이 들어선 지역은 일제시대에 육군교도소가 있던 지역이었고 이곳에 살던 광산 김씨는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육군행정학교 뒤편으로 이사했다는 것이다. 매착리에 있던 광산 김씨의 묘는 일제시대 이후 군용지에 포함되면서 1957년에 이르러 김순성의 묘를 비롯한 후손들의 묘를 이장하여 현 북정동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대로 좌측 산으로 이장하였다고 한다. 특히 매착리의 묘에서 가장 윗대인 김순성의 묘는 남한산성으로 가는 도로변 가까운 언덕에 있다. 숙인 한씨와의 합장묘는 1984년에 후손들이 새로 새긴 묘표가 있다.

김약시 이후 광산 김씨 가문의 중심을 이룬 인물은 김지남(金止男, 1559~1631)이다. 김지남은 자가 자정(子定)이고 호는 용계(龍溪)이다. 사마시, 문과를 거쳐 1619년(광해군11) 정상도 관찰사에 올랐다. 그는 광해조에 줄곧 사환하면서도 대북 일파가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인목대비를 폐비하려는 책동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⁷²⁾ 김지남은 서인 계열의 인물이었고 그와 당대에 관계가 깊었던 인물은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였다. 김지남 아랫대로는 서인—노론의 핵심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정치적 입

71) 앞서 소개한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년)에 따르면, 광주군 中岱面에는 巨余洞, 長旨里, 文井洞, 可樂洞, 芳第洞, 松坡洞, 三田渡洞, 二洞, 梧琴里, 馬川里 모두 10개 동(리)가 들어 있고 梅莊里는 보이지 않는다. 중대면은 현 서울시 송파구의 洞이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매장리를 지칭하는 南漢山城 南門外에 해당하는 동(리)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된다.

72) 趙綱 著, 「監司龍溪金公墓誌銘」(『龍洲遺稿』, 문집총간90, 민족문화추진회web-site)

장을 같이하였다.⁷³⁾

지남의 부는 삼가현감 김양(金讓)이며 모는 죽산 박씨 박영(朴榮)의 딸이다. 생부는 영동현감 김표(金彪)이고 생모는 용인이씨 침추 이흥간(李弘幹)의 딸이다. 조는 생원 김세덕(金世德)이고 증조는 사마시 출신 김단(金澁)이다. 김지남은 2명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 2명만을 낳고 손윗 형 김계남(金季男)의 둘째 아들 김필(金潁)을 양자로 세웠다. 김지남의 묘는 매착리에 있다가 1972년 성남 개발로 금광리에서 이전한 묘와 같이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⁷⁴⁾로 이전했다고 한다.⁷⁵⁾

김지남의 아들 김필(金潁, 1582~1619)은 효자로 유명하다.⁷⁶⁾ 필의 생부 김계남(1556~1617)은 생원시에 입격하여 상의원(尙衣院) 판관을 지냈고 어머니는 전주이씨 진사 이광충(李匡忠)의 딸이다. 필은 자가 징보(澄甫)이고 호는 이안당(易安堂)이다. 해주 최씨 최일원(崔一源)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그는 음보(蔭補)로 관직에 나갔으나 약관의 나이에 말에서 떨어져 왼쪽을 못쓰게 되어 벼슬길을 포기했다. 때문에 그의 품계는 6품 선무랑(宣務郎)에 그쳤다.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언변이 명확하였다. 효심이 깊고 충직스러운 마음으로 처신하여 주위의 경모하는 바가 되었다. 또한 유랑민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 곤궁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아끼지 않았다. 생부모와 양부모 모두 극진히 모셔 효도에 모범을 보였고 서모를 대하는 데도 예로서 접대하였고 서제 또한 친동생처럼 돌보아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

김필의 묘는 매착리에서 남한산성행 도로 좌측편 산에 위치하고 있다. 김필의 묘는 도로변에서 가까운 언덕에 위치한 김순성의 묘보다 10분 가량 걸어서 밭을 지나 산자락에 있다(2001년에 후손들이 다시 세운 묘표가 있다). 김필의 묘 우측으로 들어가면 김필의 조부인 김양(金讓)의 묘가 있다.

요컨대 광주 세촌면 금광리에 처음 뿌리를 내린 광산 김씨는 인근 고비동, 매장리로 선산을 형성하였다. 오히려 오늘날 창곡동은 일명 매착리(梅着里)라고도 불리우는 매장리라는 자연 취락이 포함되어 있으며⁷⁷⁾, 앞서 설명하였듯이 세촌면 단대동의 일부가

73) 그러한 근거로 金止男 윗대의 비문은 선조대의 명문장가 李廷龜에게 의뢰했고 김지남 아랫대의 비문은 尤菴 宋時烈에게 부탁했으며 김약시의 현양 사업을 본격화했던 현종~영조대는 비문을 洛論의 거장 李穡에게 받은 것을 들 수 있다(『光山金氏族譜』참고).

74) 삼합리는 1912년 1월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의 광주군 實村面の 31개 동중에 知音里, 冶浦里, 國井浦里가 통합되어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7년)에 등장한다. 1913년 12월 총독부령 제111호로 단행된 행정구역이 개편된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이원재, 『제2장 근·현대의 성남지역』, 『성남시사』, 1993년, 257쪽.)

75) 매착리에서 이장한 묘 근처에서 음식업을 하고 있는 후손 김진수씨는 김지남의 묘는 금광리에서 옮겼던 묘와 같이 광주군 실촌면으로 이장했다고 하였다.

76) 張三鉉, 「金光洞 光山金氏에 關한 研究」, 『城南文化研究』제3호(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간행, 1995년), 161~162쪽.

떨어져 나가 금광동(리)가 되었다는 점으로 광산 김씨의 선산 또는 거주지가 대략 이런 범위에 퍼져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광산 김씨의 선산을 창곡동에 포함시켰지만 내용상으로는 오늘날의 금광동과 창곡동을 넘나드는 범위로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3. 전주 이씨 계양군(桂陽君) 후손 묘

창곡동 286-2번지에 전주 이씨 계양군(桂陽君) 후손의 묘역이 있다. 계양군은 세종 10자(서손) 이증(李璿)을 지칭한다. 창곡5동 삼거리에서 200m 못미쳐 창곡동 세자골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다. 이 도로의 끝까지 가면 세자골이 나오는데 현재 이 곳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병문씨가 계양군의 후손이다.

계양군 후손의 묘는 2군데에 흩어져 있다. 한 곳은 후손의 8대조, 9대조의 묘가 2기 있는데 묘표는 없었다.⁷⁸⁾ 바로 옆은 군사훈련장이 자리한 곳이다. 마주 보는 산자락에 묘3기가 있으며 이장한 묘의 흔적도 있다. 위쪽에 있는 묘는 묘표는 없으나 망주석과 석상이 있다. 이 묘의 주인공이 계양군의 8대손인 이덕영(李德英, 1659~1721)의 3번째 부인 한산이씨이다. 한산이씨(1688~1755)는 익위사(翊衛司) 익찬(翊贊) 이창직(李昌稷)의 딸이다.⁷⁹⁾

그런데 부군 이덕영의 묘는 분당구 율동에 있다.⁸⁰⁾ 이덕영(李德英, 1659~1721)은 자는 계형(季馨)이며 호는 서은(鋤隱)이다. 부는 사마시 출신으로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을 지낸 이몽석(李夢錫)이고 어머니는 순흥안씨 부사 안응창(安應昌)의 딸이다. 조는 음보로 고령(高靈)현감을 지낸 이기선(李起先)이며 증조는 사마시에 입격하여 평안도 강동(江東)현령이 된 이택민(李澤民)이다.

남편 이덕영은 1695년(숙종21)에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이어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가 1699년 사헌부 지평에 올랐고 문학, 장령, 헌납, 집의 등의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1710년에 기묘사화에 폐지된 현량과를 복설할 것을 주장했으며 승지, 황해감사, 함경감사, 대사간의 자리까지 올랐다.

77) 1993년 발행, 『城南市史』, 1833쪽.

78) 후손 이병문씨(음식점 경영)은 8대조, 9대조의 묘라고 했는데 족보에서 면담자의 9대조는 李起先(1597~1636)대 즉 계양군의 7대손의 항렬이고 8대조는 李夢錫(1626~1704)의 항렬이다. 창곡동에 묘가 있는 인물을 당장 찾을 수는 없었다(『全州李氏桂陽君波譜』, 1994년 발행).

79) 한국학중앙연구원 金鶴洙 전문위원의 교시.

『韓國系行譜』(寶庫社, 1992년), 『全州李氏桂陽君派譜』(回想社, 1994년 발간)를 참고함.

80) 부인과 남편의 묘가 다른 곳에 있게 된 까닭은 3번째 부인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그리고 남편 이덕영의 묘가 있던 율동은 황해감사를 지낸 이덕영의 고조부 李應龍이 田莊이 있던 지역이라고 했다.

첫째부인은 청주 한씨 통덕랑 한항(韓亢)의 딸이고 둘째 부인은 경주정씨 사재감 직장 정세성(鄭世城)의 딸이다. 이덕영의 묘는 청주 한씨와 경주 정씨 부인과의 합장묘로서 옛 광주부 돌마면 즉 현 분당구 울동(栗洞) 원봉(圓峰)에 있으며, 이 곳은 이덕영 이하 전주이씨의 선산이 되었다.

한산 이씨 묘 밑으로 이병문씨의 5대조, 6대조의 묘가 있고 그 아래에 이장한 묘의 흔적도 있다.

4. 해주 오씨 묘역

창곡동에서 육군행정학교로 이어진 도로에서 세자골로 들어가는 길옆에 있는 공수 훈련장 안에 해주 오씨의 묘역이 있다. 이곳은 조정공사의 옆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문에 해주오씨한양중종세장지지(海州吳氏漢陽宗中世葬之地)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다. 이 표석은 같은 본관인 서예가 오세창(吳世昌)의 필체이다.

이 묘역은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에 종인들의 협력으로 현 노원구 공릉동 178번지에 만들어졌다가 1968년 창곡동으로 이장한 것이다. 가장 윗대 묘는 통정대부회양부사(通政大夫淮陽府使) 오영주(吳永周, 1646~1708)와 숙부인 양위의 것이다.⁸¹⁾ 옆으로 대대로 오도영(吳道榮)-오인재(吳仁載)-오선행(吳選行)의 묘가 이어져 있다. 근년에 몰한 후손들의 묘까지 몇 십 기가 있다.

5. 간이골 느티나무

간이골을 지키고 있는 이 느티나무는 간이골 마을회관 앞에서 우회전하여 100여 미터 가면 있으며 성남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주소는 창곡동 441번지이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발간된 책에 따르면, 이 나무는 적송(赤松)으로 광주군 중부면 창곡리 313에 있었고 둘레는 7척이고 나무 높이는 7간(間)이며 수령은 120



↑ 간이골 느티나무

년이라고 하였다.⁸²⁾ 당시가 1937년의 기록이었으므로 현재 수령은 200년 남짓한 셈이

81) 가장 윗대인 吳永周의 최종관력인 淮陽府使는 읍지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무반 출신이 많은 것으로 보였는데 『해주오씨족보』에서 계통을 찾지 못하여 여기서는 소개에 그치고 말았다.

다. 그러나 1982년 성남시의 보호수로 지정된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400년이고 높이는 25m, 나무 둘레는 4.5m이다. 수령이 200년이나 차이가 있어 어느 한 쪽은 잘못된 수치임에 틀림없다.

III. 태평동

1. 봉국사(奉國寺)

봉국사는 영장산(靈長山) 서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이다. 사찰측의 주장으로는, 고려 1028년(현종19)에 창건된 절로서 폐사 상태에 이른 것을 1395년(태조4)에 담화(曇華)법사로 하여금 중수하게 하였다 한다.⁸³⁾ 그러나 고려 현종 대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은 신빙하기 어렵다. 이후 1674년(현종15)에 국왕이 금강산의 승려 축존(竺尊)에게 하명하여 광주부에서 10리 떨어진 성부산(星浮山)에다 대광명전(大光明殿)을 건축하고 출가 전에 죽은 명선(明善)·명혜(明惠) 두 공주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한다. 비용을 준비하여 춘추로 제사지낼 수 있게 하였고 절 이름도 '봉국사'로 명명하였다.

현종은 1남 3녀를 두었는데 딸 3명 가운데 첫째와 둘째 공주가 1년 사이에 요절함으로써 현종과 왕후의 슬픔이 지극하였다. 특히 첫째인 명선공주는 배필의 간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요절하였다.⁸⁴⁾ 이 두 공주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현종의 특명으로 지정된 왕실 원당이 된 봉국사는 공주의 신주가 봉안되고 춘추로 궁녀들이 파견되어 제사를 지내는 역이 배정되었다.

봉국사 왕실 원당의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선시대 다른 왕실 원당의 운영사례를 원용해서 봉국사의 경우를 추정해 보도록 한다. 조선전기 성종 대 정희왕후의 비호 하에 창사된 절을 제외하면⁸⁵⁾ 왕실 원당으로 새로 절을 짓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유교국가에서 관리들의 반발이 심했다. 자연히 제사 대상자의 묘가 있는 곳의 가까운 절을 지정하여 일부 비용을 대어 복을 빌어주는

82) 京畿道編纂, 『京畿地方の名勝史蹟』(1937.7 發行, 1990년 景仁文化社 영인, 韓國地理風俗誌叢書 128), 176쪽.

83) 權奇興 編, 『城南市誌』, 1982, 764~765쪽.

84) 『국역현종실록』 권20, 12년 12월 27일(갑진), 『국역현종개수실록』 27권, 14년 7월 24일(신묘)

85) 탁효정, 「조선후기 王室願堂의 사회적 기능」, 『淸溪史學』 19호, 2004, 158쪽.



↑ 봉국사

역을 지우는 것이 흔했다.

봉국사는 6.25동란을 겪으면서 퇴락되었던 것을 1958년 비구니 법운(法雲)의 노력으로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다.⁸⁶⁾ 1967년도에 혜성법사(慧星法師)가 삼성각을 신축했고 이어 요사채도 새로 세웠다. 1974년 대광명전을 완전 해체하여 복원하였고 목조 본존불의 개금불사(改金佛事)를 해서 1977년 5월에 타이에서 가져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삼층 석탑에 봉안하였다.

(1) 봉국사 대광명전

봉국사 대광명전은 봉국사의 주불전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101호로 지정되어있다. 낮은 언덕에 축대를 세우고 남향하여 지었는데 정면 3칸, 측면 3칸의 아담한 규모이다. 기단이나 계단, 기둥을 세우는 초석 등은 1974년에 이 건물을 해체·보수할 때 새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기단 위에는 민흘림기둥을 세웠으며, 간단히 기둥 위에만 공포를 두는 주심포양식을 취하고 있다. 지붕은 주심포 양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맞배지붕으로 간소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크기는 건물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공포를 구성하고 있는 쇠서의 형태나 장식은 18세기 말의 양식을 띄고

86) 『城南市誌』, 765쪽.

있다. 본래 대광명전은 비로자나불을 봉안하는 법당이나 봉국사 대광명전의 불단에는 목조로 된 아미타불이 안치되어 있으며,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아미타불을 협시하고 있다. 불상 위에는 화려한 단집을 설치하였는데 불단이나 단집 등의 장엄구는 재료가 좋고 제작 솜씨가 뛰어나 건물 창건 시기인 현종 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부분에서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건립연대가 분명하고 세부장식 등에서 조선 후기의 양식을 간직한 건물로 가치가 크다 하겠다.⁸⁷⁾

(2)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 좌상

봉국사 아미타여래좌상은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1974년 법당을 해체하여 복원하는 과정에서 금칠을 하여 외관상으로는 목조로 보이지 않는다. 아미타여래좌상의 높이 112cm, 어깨폭 76cm에 달하는데, 손의 모습은 아미타수인(阿彌陀手印)을 맺고 있으며, 결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다. 법의를 양 어깨에 걸친 통견(通肩)으로 한 착의법, 두껍고 경직된 법의 자락, 방형(方形)의 평면적인 얼굴 등에서 조선 후기의 불상양식이 엿보이나,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본래 대광명전의 주존불로는 비로자나불을 안치하는 것이 관례이나, 봉국사의 대광명전에는 비로자나불이 아닌 극락전의 주존불인 아미타불이 안치되어 있다. 명선, 명혜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된 이 전각은 본래 명칭이 아미타불을 봉안한 ‘극락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⁸⁸⁾

2. 의령 남씨 묘역

의령 남씨 묘역은 조선 개국공신인 남재(南在, 초명;점謙)과 남은(南闇)의 사패지가 광주에 위치하면서 아들대인 남경문(南景文)부터 선산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⁸⁹⁾ 광주부의 세촌면에서 의령 남씨의 묘지는 탄동(炭洞), 독정리(讀亭里), 사동(寺洞)⁹⁰⁾ 등지로서 오늘날 태평동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968년 이후 광주대단지 개발로 세촌면에 있던 의령 남씨의 묘역은 대전, 광주군 등지로 이장하거나 화장하기도 하였고

87)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0. 성남문화원,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1.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 2004. 성남시, 『성남분당지구 문화유적 제7집』, 1989.

88) 임영애, 「조선후기 강원도 양구 심곡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18세기 중부지역 기년작으로서의 의의」, 『강좌미술사』, 한국불교미술학회, 2003. 성남문화원,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1.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 2004.

89) 1900년 간행, 『宜寧南氏世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서 B10B-355, MF 010120~010125. 이하 의령 남씨 인물 기록은 족보에 의거하였으므로 각주는 생략하였다.

90) 寺洞은 각기 대군이나 공주를 제향하는 역이 주어졌던 望京庵, 法輪寺, 奉國寺가 있던 곳으로 현 건우아파트를 반경으로 한 지역일 것으로 추정한다.



↑ 오위장 남공 묘



↑ 충청수군절제사 남효원 묘



↑ 남명우 묘



↑ 남경문 묘

세 번째 인물은 남수신(南守身, ?~?)이다. 수신의 부는 영종포(永宗浦) 만호(萬戶)를 지낸 남희수(南熙壽)이고 모는 전주인 최인효(崔仁孝)의 딸이다. 수신은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를 지냈다. 부인은 남양 홍씨 군수 홍경수(洪經壽)의 딸이다.

네 번째 인물은 남순민의 증손자인 남계하(南季夏, 1564~1644)이다. 부인은 고흥 유씨 지평 유은(柳潑)의 딸이다. 계하는 자가 양백(養伯)이고 호가 구봉(龜峰)이고 시를 잘 지어 시학(詩學)교관을 지냈다. 후에 형조좌랑, 이천현감, 공조정랑, 사복시판관, 수안군수를 역임했고 80세로 첨지중추부사를 제수받았다. 합장묘이고 묘표는 손자 남언성(南彦成)이 짓고 외증손 정언 성임(成任)이 글씨를 써서 1690년(숙종16)에 세웠다.

다섯 번째 인물은 남계하의 맏아들 남명우(南溟羽, 1592~1647)이다. 명우는 자가 구만(九萬), 호가 장주(長洲)이다. 1610년(광해군2)에 생원시에 입격하고 1614년(광해군6)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에 올랐다. 부인은 화순 최씨 군수 최보신(崔輔臣)의 딸이다. 묘는 부인과의 합장으로 역시 태평동 산 3-8번지 의령 남씨 묘역에 있다.

여섯 번째 인물은 남계하의 2자 남명익(南溟翼, 1602~1645)이다. 남명익은 자가 대유(大遊), 호는 주은(酒隱)이다. 인조반정 이후 비로소 과거에 뜻을 두어 1637년(인조15)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에 올랐다. 부인은 우계 이씨 수찬 이경익(李慶益)의 딸이

고 둘째 부인은 신평 이씨 이후봉(李厚封)의 딸이다. 묘는 가운데 위쪽이 남계하이고 오른쪽에 우계 이씨묘가 있고 왼쪽에 신평 이씨묘가 있다. 묘표는 피장자의 간단한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형 명우에게 출계한 아들 남언성(南彦成)이 짓고 외손자 조상봉(趙尙鵬)이 글씨를 써서 1690년(숙종16)에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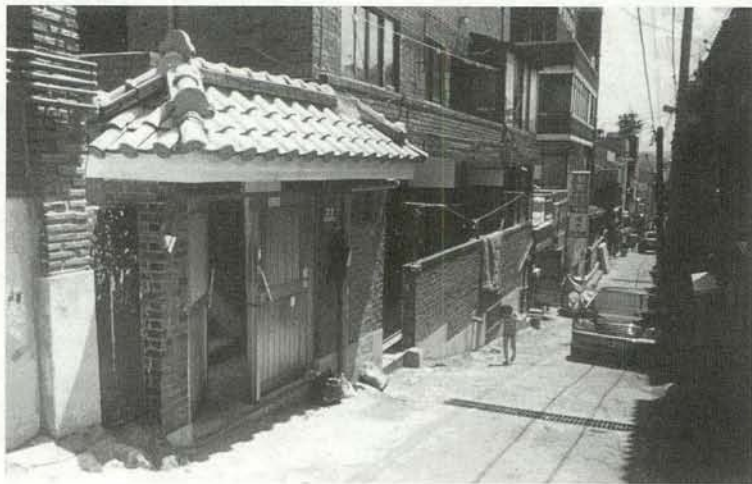
이외에 의령 남씨 묘역에는 묘표가 없는 묘가 1기가 있고 묘표가 망실된 대형묘 1기가 있다. 그리고 오위장(五衛將)을 지낸 묘가 있다.

태평동 의령 남씨 묘역은 26살에 조졸한 남경문을 필두로 하여 10여기가 위치해 있다. 묘역의 선두에 있는 의랑공(남경문)재실전축준공기념비는 1987년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없어진 남경문의 재실을 15여년만인 2003년 8월에 새롭게 낙성함을 기념하여 세워진 것이다.

3. 영창대군(永昌大君) 묘지석

영창대군 묘지석(永昌大君墓誌石)은, 1613년(광해군5)에 일어난 칠서지옥(七庶之獄)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한 영창대군(永昌大君, 1606~1614)에게 인조반정 후에 국가에서 관작을 복구하고 서궁(경운궁; 덕수궁)에 가매장되어 있던 영창대군의 시신을 광주부 세촌면 탄리에 묘를 조성할 때 묻은 영창대군의 일대기이다.

그러나 1968년 광주대단지 계획 발표로 인해서 영창대군의 묘는 1971년 8월에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고은리로 이장하였으나 불행히도 농에 묻혀 있던 묘지석은 미처 수습하지 못한 채로 1970년대 이후 들어서기 시작한 주택가에 묻혀 있었다. 묘지석은 근년에 도시가스관 가설공사 중 파손되어 내버려진 것을 당시 수정구 태평3동 29통장인 정상용씨가 발견하여 신고하였다.⁹³⁾ 묘지석이 드러난 지점은 현 경



↑ 영창대군 묘지석이 출토되었던 태평동 골목

93) 李亨求, 「永昌大君 墓誌銘 발견과 永昌大君 略史」(『城南文化研究』제2집, 성남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의 106쪽.

위 논문에서 묘지석이 발견된 시점을 적어주지 않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문의한 결과 1993년 10월 22일에 묘지석이 들어왔다고 하므로 발견 시기는 1992~1993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원대 전철역에서 봉곡사 방향으로 가다가 건우아파트 단지 못 미쳐 우측 탄리도로 빠져 약 100m 내려가면 마주치는 주택가 사이의 골목길에 있었다.⁹⁴⁾ 지금은 망경암에 내려 오는 4거리에서 이어지는 도로 옆 주택가의 어느 지점인데 정확히는 현 '태양부동산'이란 상호가 붙은 집과 그 아랫집 뒤편 주택가라고 한다.⁹⁵⁾

묘지석의 재료는 대리석이 고 크기는 가로76cm×세로107cm×두께20cm이다. 글은 인조조에 우의정을 지낸 문장가 신흠(申欽)이 짓고 글씨는 영창대군의 이성(異姓) 6촌인 유학(幼學) 김천령(金千齡)이 썼으며 작성 시기는 1623년(인조1) 8월이다. 수습한 묘지석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영창대군은 선조의 14자이고 유일한 적실 소생이다. 이름은 의(璣). 어머니는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의 딸인 인목대비(仁穆大妃)이다. 적실 소생 영창대군을 총애하던 선조는 후궁 소생의 세자 광해군이 임란시의 긴급한 상황에서 세워진 것을 내켜하지 않아 세자로 내심 바꿀 뜻을 갖고 있었다.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소북파의 영의정



↑ 영창대군 묘지석 탁본(『성남금석문대관』 소재)

94) 《성남향토전자대전》-영창대군 묘지석(永昌大君墓誌石.)

95) 24대에 걸쳐 성남에 세거해온 안윤태(72세, 철재상 운영)은, 초등학교 시절 영창대군 묘역에서 뛰놀았으며 그 곳은 산중으로 나무하러 다니고 소로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안윤태씨는 성남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며 신도시 성남이 만들어질 때 성남병원 근처에서 살았다는 그는 당시 태평동에는 2기의 대군의 묘도 이장해 갔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2005.10.26 면담).

유영경(柳永慶)이 선조의 내심에 영합하려고 하였으나 선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세자 교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영창대군은 광해군이 즉위함에 따라 이이첨(李爾瞻) 등의 대북파에게 왕권의 강력한 위협 대상으로 떠올라 1613년(광해군5) 부풀려진 일곱 서자의 옥(七庶之獄)에 연루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이이첨의 사주로 강화부사 정항(鄭沆)에게 증살(蒸殺)당했다.⁹⁶⁾

비문에는 어린 영창대군이 영특한 기품을 타고 났으며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1613년 변고를 당해서도 미리 사태를 짐작하고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했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고금에 없는 유자(幼子) 9세에 죽음을 당한 영창대군의 한을 위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영창대군의 시신은 강화도에서 인목대비의 거처인 서궁(慶運宮=德壽宮)으로 옮겨져 10년간 가매장되어 있었다는 점도 들어 있다.⁹⁷⁾

영창대군의 시신은 인조반정 후 관작 복구와 더불어 광주부 세촌면 탄리에 묘를 축성하여 이장하였고 ‘법륜사(法輪寺)’라는 절을 지정하여 대군묘를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⁹⁸⁾ 여기서 『범우고(梵宇考)』의 기사는 절을 창건했다고 하였지만 여기서 창건의 의미는 탄리 인근의 절을 지정하여 묘역(墓役)을 지웠다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⁹⁹⁾ 왜냐하면 봉국사와 망경암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전기 이후로는 국가의 경비로 왕실 원당(願堂)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인근의 절을 지정하여 묘를 관리하는 역을 지우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4. 탄리사지 동종(炭里寺址 銅鐘)

1970년 11월에 광주군 중부면 탄리에서 발견된 동종(銅鐘)으로 인해서 이 일대에 있었던 절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¹⁰⁰⁾ 발견된 곳은 현 태평2동 26-2번지이다.¹⁰¹⁾ 동종은 성남시가지의 기반을 닦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문화재청에서 1973년 9월 20일 매장물국고귀속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¹⁰²⁾ 이 절은 1899년에 발간된 『광주

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永昌大君, 1991년

97) 申欽 撰, 「永昌大君神道碑銘」(『象村稿』, 문집종간71~72집, 민족문화추진회 web-site).

98) 『京畿道佛蹟資料集』(경기도박물관 편, 1999.2)의 650쪽을 재인용함.

『輿地圖書』에 “在州南十五里”라 하여 남한산성에서 남쪽으로 15리 떨어져 있으며 『重訂南漢誌』에 “在靈長山北麓細村面”라는 기사로 세촌면 영장산록에 있다는 것으로 법륜사의 위치를 입증해 준다.

99) 『京畿道佛蹟資料集』의 650쪽 재인용.

“法輪寺 在靑涼山永昌大君墓傍 仁廟朝創建”(『梵宇考』, 1779년[정조3])

100)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의 협조.

101) 정확히 말한다면 탄리에 있었던 절의 동종을 발견한 지점을 가리킨다.

102) 동국대학교 박물관 편, 『畿內寺院誌』(경기도 발행, 1988년)의 71쪽.

炭里寺址의 銅鐘은 임의로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동종을 발견한 곳이 탄리이고 절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탄리사지라고 지칭한 것이다.

부읍지(廣州府邑誌)』의 사찰조에도 실려 있지 않지만 탄리사지에서 출토된 18세기 동종(銅鐘)(유물번호 신(新) 2602)이 탄리에 있었던 절의 존재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탄리사지는 현재 집들이 빈틈없이 들어서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절터가 있었던 곳은 아스팔트로 덮여져서 개울이나 우물의 자취는 알 수 없으며 절의 어귀로 추정되는 곳에 금광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 국립박물관 유물번호 新2602

동종(銅鐘)은 한국 종의 모양을 띠고 있으나 종뉴(鐘紐) 대신 현수(懸垂)만 할 수 있을 정도의 고리로 되어 있으며 종신(鐘身)은 포탄형(砲彈形)이다.¹⁰³⁾ 종신 표면에는 하대(下帶)만 있고 아무런 의장이 없는 이례적인 종이다. 종신 표면에는 구멍이 나 있다. 이 동종은 18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높이(高) 49cm, 지름(徑) 20.9cm이다.

5. 정부인 성씨묘(貞夫人成氏墓)

북정동에서 태평동으로 가다가 경원대학교 못 미쳐 우회전하면 굴다리가 있다. 해평 윤씨 묘로 들어가는 굴다리 다음의 것으로 통과하면 태평동 산 37번지에 정부인 성씨묘(貞夫人成氏墓)가 있다.

정부인 성씨(貞夫人成氏, 1387~1461)는 세종대 판서를 지낸 유계문(柳季聞)의 부인이다. 본관은 창녕이고 아버지는 연안부사 성수량(成守良)이며 어머니는 평강 채씨 전서(典書) 채구경(蔡久敬)의 딸이다. 2남 2녀의 맏이이고 아래로 서자인 남동생 2명과 서녀 여동생 1명이 있었다. 서녀 동생은 상당부원군 한명회(韓明澮)의 첩이 되었다.¹⁰⁴⁾

정부인은 유계문과 혼인하여 6남 3녀를 두었다. 성씨부인의 묘는 남편의 묘와 별도로 태평동 산 35-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묘표는 성씨부인 몰후 19년만인 1480년(성종11)에 세워졌으며 현대에 와서 1999년에 문화 유씨 안숙공 종중에서 세운 묘표가 있다.¹⁰⁵⁾ 본래의 묘표는 아랫 부분의 글씨가 뭉개져서 보이지 않는다.

후손 유웅열씨는 북정동 안골에서 동서울대를 지나 정부인 성씨묘까지 이어지는 곳이 예전에 문화 유씨의 땅이었는데 간선도로가 생기면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103) 동국대학교 박물관 편, 『畿內寺院誌』, 71쪽.

104) 趙從耘 編著, 『氏族源流』(豐壤趙氏文集叢書 제5집, 豐壤趙氏花樹會, 保景文化社 영인, 1991년)의 507쪽.

105) 성남시 · 성남문화원, 『城南金石文大觀』-미채택 금석문일람, 615쪽.

성세가 줄어든 것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성남 개발 시에 무연고자의 묘가 드러나면 관곽 둘레에 솟을 둔 예를 많이 보았으며 성씨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였다. 성씨묘는 유계문의 묘와 같은 6각형 모양의 묘인데 절반쯤 도굴당하고 묘에다 이물질들을 넣어둔 일이 있어 후손들이 새로 사토작업을 하고 사방돌을 교체하였다고 했다. 묘로 들어가는 터에 한 달 전에 낙성한 문화 유씨의 재실이 있다.

여 백



제 4 장 마을의 정치 · 경제 · 사회

여 백

제 4 장

마을의 정치 · 경제 · 사회

I. 마을의 정치와 사회

성남시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지역적으로 경제적 편차가 큰 곳이다. 분당 신시가지와 기타 지역의 편차가 크지만, 복정동·창곡동·태평동 역시 오늘날 성격이 많이 다르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른 제반 시설이나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태평동이 성남개발 때 가구별로 배분된 20여 평의 택지 위에 주차장 고려 없이 지어진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면, 복정동은 수년전부터 개발되고 있는 비교적 넓은 택지와 도로,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태평동과 같은 평수의 집이라 하더라도 임대료에서 차이가 크다. 창곡동은 아직까지 주변에 논과 밭이 존재하고 농촌촌락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나 점차 집들이 고급주택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태평동이 70년대 유입된 사람들이 주로 정착했던 지역이라면 복정동은 개발되기 시작한지 4~5년 되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곳이며, 창곡동은 개발 예정지이다. 창곡동은 올 7월 1일자로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창곡동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구성이나 주민들의 정서와 유대감은 다른 지역과 편차가 큰 편이다. 아직도 향촌 마을의 정서가 많이 남아 있는 편이며 젊은 사람들은 애향심이 강하다.

아래의 내용은 가능한 직접 관련된 사람을 면담해서 서술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자료를 참고하였다. 마을의 주요시설 항목은 전체적인 현황을 살핀 후 한 곳을 선택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1. 조직과 자치회

마을의 조직과 자치회의 성격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새마을운동 때는 '4H'

라는 것이 생겨 미혼남녀로 구성된 청년조직이 있었다가 1980년대 중반에 사라졌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는 '새마을지도자'의 비중도 컸다. 성인 남성으로 구성된 '청년회'는 새마을운동¹⁰⁶⁾ 이전부터 있어온 역사가 오래된 자치회이며, 성인 여성으로 구성된 '부녀회' 역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노인회'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 생겨났다.

(1) 마을조직과 회의 및 안건처리

지역의 행정은 오늘날 동사무소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동장' 밑에 '통장' 그 밑에 '반장'이 있어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일들이 전달된다. 통장은 과거의 이장과 같으며 50가구 정도를 관할하며 반장은 10가구 정도를 관할한다. 과거에는 이장에게 수고비로 가구당 매년 여름에는 보리 두 말반, 가을에는 벼 두 말반을 주었으나 근래에는 국가에서 월급이 나온다. 통장에게는 근래 월 20만원이 지급되며 반장에게는 년 2회 25,000원씩 지급된다.

창곡동의 경우, 5통까지 있는데 전에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했으나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자 근래에는 통장이 결정된 사안들을 통보하는 식이다. 마을 자치적으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동네 전체회의인 '대동회'가 과거 이장이 있을 무렵까지 있었는데 이장이 회의를 주관하였다. 대동회는 현재 없어졌으나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 지금은 대동회가 없어지고 통에서 매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전체회의를 하는데 근래에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다.

(2) 청년회

창말 청년회¹⁰⁷⁾(50세 이하의 남성으로 구성)의 경우 2003년 8월에 발대식을 가졌다. 성남시가 개발되면서 마을활동이 위축되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애향심을 고취하고 마을의 근본을 찾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창곡동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외지에 나가 있더라도 창곡동 출신인 젊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회비는 월 5000원이며 1년에 한 번 단합대회를 한다.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수시로 모이고 있다. 회원은 70여 명이다.

106) 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했다. 이후 첫째, 국민 각자가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공동개발, 공동발전을 위해 협동하여 노력할 것을 고취했다. 둘째,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을 지향했다. 셋째, 지역사회개발운동에서 나아가 국민정신을 일깨우는 의식개혁운동이자 생활운동이었다. 1970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부의 정책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다르게 재규정되었다.

107) 제보자 : 조규준(남, 45세, 창곡동 토박이 주민). 복정동은 개발되면서 청년회 조직이 흩어지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창말 청년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다. 2004년에는 남한산성 등산로에 '산불조심 리본달기 행사'를 했고, 매년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경로잔치'를 하고 있으며, 추석에는 '한가위노래자랑 대회'를 열고, 구정에는 '척사대회(웃놀이)'를 연다. 이와는 별개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매일 5명이조를 이루어 야간에 9시부터 12시까지 창곡동을 순찰하고 있다.

동네에 일어나는 대소사를 주민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는데 이때는 통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이 함께 모인다. 창곡동에는 군부대가 들어와 있어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ROTC 훈련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생기자 군부대 훈련 때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구했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

군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당(공마당)이 있었다. 이것이 군부대에 수용되면서 없어졌다. 때문에 군대 훈련장을 훈련이 없는 기간에는 동네 공마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현재 게이트볼, 족구, 농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노인잔치 후 남은 돈으로 충당했으며, 청년회원들이 봉사를 같이 하고 관에서 장비를 지원 받아서 만들었다.

일부 청년들은 1주일에 2회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강사를 보내주어 1주일에 1회는 강습을 받고 목요일에는 자체적으로 7~8명 정도가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밤이면 소리가 너무 커서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어 비닐하우스에서 모인다. 이렇게 사물놀이를 배우는 것은 경로잔치나 척사대회 때 외부에서 풍물패를 초빙하기 보다는 청년들이 직접 하기 위해서다.

(3) 부녀회¹⁰⁸⁾

북정동 부녀회는 행정관할이 북정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 각 통마다 부녀회 조직이 있다.

창말의 경우 1970년도에는 '절미저축운동'에서부터 시작했다. 각 통마다 부녀회장 1명, 부회장, 총무, 감사를 두고 있으며, 동 단위의 부녀회를 연합하는 수정구 부녀회가 있고, 그 위에는 성남시 부녀회가 있다. 임기는 2년이다.

부녀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이면 기혼이든 미혼이든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창말 부녀회의 경우 부녀회와 노인회의 회원이 겹쳐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0세까지 가입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65세 이상 된

108) 제보자 : 양영숙(여, 60세, 창곡동 거주). 북정동 부녀회는 행정관할이 북정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만 세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부녀회가 있다.

사람도 부녀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35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 달 회비는 2000원이고 2개월에 한 번 모임이 있다.

부녀회는 부녀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먹거리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농협과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을 한다. 농협에서 땅을 구하면 부녀회원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한 농산물은 농협에 부녀회원들이 나가 특정요일을 정해 판매도 한다.

옛날에는 거리질서 계도나 벽보제거 같은 활동을 많이 했으나 지금은 시청 앞에서 하는 거리질서 계도활동 정도만 한다. 이전에 비하면 활동이 줄어든 편이다. 하지만 다른 활동은 많이 한다. 그리고 김치나 간장, 된장 같은 음식을 해서 동사무소에 주면 거기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부녀회장들이 단체로 나가서 한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노인잔치'도 연다. 65세 이상 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나이는 별로 상관없다. 65세라는 기준은 노인회의 자격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준으로 내걸고 있을 뿐이다. 현재 창말 같은 경우는 청년회와 함께 노인잔치를 열고 있다. 노인잔치의 경우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가족이 경로잔치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고 한다.

(4) 노인회

창곡동 · 북정동 · 태평동 지역의 노인정은 총 21개이다. 태평1동에 제1경로당(6212번지), 제2백수경로당(5121번지), 제3만수경로당(7191번지), 제4궁마을경로당(6497번지)이 있고, 태평2동에는 제1경로당(916번지), 제2경로당(3344-1번지), 제3경로당(264번지), 제5경로당(2645번지), 태평3동에는 제1경로당(4320번지), 제2경로당(3528번지), 태평4동에는 제1경로당(2630번지), 제2경로당(7320-6번지), 제3선경아파트경로당(7308번지), 제4경로당(1912번지), 북정동에는 제1경로당(266-4번지), 제2복우물경로당(705번지), 제3안골경로당(153-1번지), 창곡동은 제1경로당(199-1번지), 제2세촌경로당(414번지), 제3창동경로당(166-3)이 있다.

노인정은 대한노인회 소속이지만 시설과 관리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며 각 동마다 관리 담당자가 있다. 매년 규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정의 실태에 대해서는 북정동 기와말경로당과 창곡경로당을 소개해 본다.

북정동 제1기와말경로당¹⁰⁹⁾은 북정동 651번지(전화 759-4619)에 있으며 2005년 4월에

109) 제보자 : 김준성 (남, 1935년생, 북정동 토박이 주민)

완공한 단독건물이다. 매월 20일에 월례회를 개최하는데 4~50명 정도가 참석한다. 현재 등록 회원은 60여 명이다. 회원이 되려면 입회비 1만원에 월 회비 2000원이다. 노인정 근처에 복지관이 있고 시설이 좋아 노인들은 노인정보다 복지관을 많이 찾는 편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회장은 71세, 사무장은 68세의 할아버지다.



↑ 청말 노인정

노인정은 개인집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기본료가 8만원이기 때문에 전기를 별로 쓰지도 않는데 한 달 전기료가 10만원이나 나와서 부담스럽다. 구청에서 4분기로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금이 현재 1년에 505만원이다.

창곡 제1경로당¹¹⁰⁾은 창곡동 199-7번지(전화 759-4987)에 있다. 창곡동에서 가장 오래된 노인정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가 있다. 임기는 회장은 4년, 총무는 2년이다. 매월 회비는 1000원이며 매달 20일에 모임을 가진다. 모임에서는 주로 결산보고를 하는 것이 주가 된다. 원칙적으로 노인회 회원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65세 이하라 하더라도 후원자 자격으로 같이 모인다. 후원자는 나이제한이 없다. 경로당 자체가 거의 마을의 쉼터 같은 곳이라 동네 노인들은 거의 다 모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경로당과 창곡제일경로당의 특징이기도 하다.

현재 회원은 62명이며 동네 노인은 대부분 등록하고 있다. 2002년부터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되어 도지사상으로 안마침대를 받았다.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된 연유는 이곳 경로당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곡 제1경로당의 경우 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1년에 420여 만원 되는데 이곳은 아직 도시가스시설이 없기 때문에 석유를 쓰고 있어 난방비가 많이 든다. 회원규모에 비해서 시설도 열악하다. 그러나 취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¹¹⁾. 매주 화요일

110) 제보자 : 창곡 제1경로당 회장

111) 자료조사자 방문했을 때도 예닐곱 명의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노래장단을 맞춰보고 있었다. 상당히 연습을 한 듯이 곡조가 잘 맞아서 물었더니 복지관에서 시범을 보이기로 되어 있어서 연습중이라고 한다.

에는 장구를 배우고, 수요일은 게이트볼을 배운다. 동사무소에서 코치에게 사례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다. 회원들은 거의 매일 연습을 하고 있다.

2. 단체

(1) 친목단체

가. 와곡친목회¹¹²⁾

북정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25년 된 '부부동반 친목모임'이다. 월 2만원씩 회비를 내고 매월 한 번씩 모여 저녁식사를 한다. 실제로 이 때 모이는 사람은 주로 남자들이다. 부부가 같이 모일 때는 단체관광을 할 때다. 단체 관광을 할 때는 따로 참가비를 받지 않고 모아둔 기금을 쓰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찬조금을 내는 것으로 충당한다.

나. 松竹친목회¹¹³⁾

30년 전에 결성된 창곡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친목회이다. 2달에 한 번 창곡동에 있는 음식점에 모여 친목을 다진다. 처음 시작은 20명이었다. 현재는 몇 사람이 작고하고 16명이 남았다. 현재 연령대는 63세에서 69세에 걸쳐있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부부동반 야유회를 가지만 원칙적으로는 남자들의 단독 모임이다. 친목 모임인 만큼 경조사에 함께 동참하는데 거의 100%의 출석율을 보이고 있다. 회원은 많지 않지만 운영은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하고 있다.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를 두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30년 전에 시작된 모임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기금이 제법 된다.

처음 모임을 결성할 때는 한 달 회비가 50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원이다. 당시는 부조금을 물건으로 계산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 혼인에는 막걸리 10통(한통이 20l, 지금은 막걸리 한 상자를 한 통으로 계산한다), 본인 환갑은 20통, 부모 장례 15통이다. 물가상승율만큼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합리적이다. 후에 배우자나 본인이 7일 이상 장기 입원하게 되면 5만원을 부조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30년 동안 쌓인 기금이라 꽤 많이 모여 여유자금이 제법 된다. 그래서 회원들이 환갑을 맞았을 때는 15돈 정도의 금을 축의금으로 준다.

단 회원이 사망할 경우에는 부조는 조화로 대신하고 지분만큼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현재 회원이 16명이면 기금의 1/16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은 창곡동의

112) 제보자 : 김준성(남, 1935년생, 북정동 10통)

113) 제보자 : 함진덕(남, 1937년생, 창곡동 토박이 주민)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다. 고향친목회

성남이 개발되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 어디에 살건 간에 고향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친목을 다지자는 뜻에서 13년 전에 '창말'이 고향인 50세 이상 된 남성들로 구성되었다.

라. 계모임

창말의 경우 과거에는 반지계, 쌀계, 광목계, 돈계 등이 있었는데 현재도 또래끼리 하는 계가 여러 개 있다. '돈계'는 돈을 내고 자신의 순번이 되면 돈을 타는 계이다. '광목계'는 15명 정도가 하는데 자신의 순번이 되면 광목을 타서 옷을 지어 입는다. 과거 빈곤한 시절에는 옷을 지어 입는데 돈이 많이 들어 이렇게 광목계를 해서 지어 입었다. 허옥희가 25세 무렵까지는 이 계가 있었는데 그 후에는 사라졌다. '반지계'도 자신의 순번이 되면 반지를 타는 것이었는데 30여 년 전부터는 반지계를 하지 않았다. '쌀계'는 과거 연로한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초상이 되면 쌀을 타서 장례 때 사용하였는데 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쌀을 거두어 장례를 맞이한 집에 주었다. 다른 계들은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다 사라지고 현재 돈계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

(2) 동호회

'중부산악회'의 경우 북정동과 창곡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등산모임이다. 모임 이름이 중부산악회가 된 것은 옛날에는 이곳이 중부면이었기 때문이다. 10년 전에 당시 60대가 주축이 되어서 앞으로 건강관리차원에서 산에 다니자고 제안해서 시작되었다. 현재 70세가 넘는 회원이 10여 명이며 최고령자는 76세이다. 지금까지 매월 한 번씩 산행을 하고 있다. 일정은 하루일정이지만 전국적으로 다닌다. 회원은 현재 55명이며 한 번 산행을 갈 때면 대형버스 한 대를 빌려서 35~40명 정도가 간다. 회비는 월 1만원인데 임원은 회비를 내지 않는다. 임원을 맡아서 일하는 것에 대한 배려다.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가 임원을 맡고 있으며 부회장은 지역별로 두어 5명이 맡고 있다. 등산일정이나 코스는 임원들이 결정해서 회원들에게 전화나 안내문으로 알려준다. 등산모임으로 시작했지만 경조사도 챙기고 있다. 동호회보다는 친목모임에 더 가까운 모임이다. 이 밖에도 북정동과 창말 주민들이 함께 하는 '조기축구회'나 각 동에서 하는 각종 동호회가 있다.

(3) 시민단체

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중부적십자봉사관

복정동 672번지(전화 759-5082)에 있는 이곳은 1979년 3월 9일 성남적십자봉사관을 개관하여 어린이집, 노인학교 등을 개원 운영하다가 1997년 중부적십자봉사관으로 개칭하였다. 2001년 동북봉사관이 개관함에 따라 관할지역을 5개시에서 3개의 시로 변경하였으며 2001년 태평4동, 2002년 야탑동으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2003년 봉사관이 준공됨에 따라 복정동에 위치하고 있다.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재난재해 발생 때 긴급구호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서 적십자 활동을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병원봉사활동, 청소년 적십자 RCY사업, 안전사업, 지역보건사업, 국제활동, 혈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와 관련하여서는 성남수도종합병원에서 병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태평동·복정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화재나 수재 발생을 대비해 구호물품을 비축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인봉사를 하며 새터민 정착 지원활동을 하기도 한다.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의 65개 읍, 면, 동을 관할하고 있다. 관장과 상근직원 3명이 일하고 있으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봉사원 수는 500여 명이다. 대부분은 주부이며 24개의 봉사회를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한다. 또한 청소년 봉사조직인 RCY를 운영하는데 관할지역에서 6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인원은 2100여 명이다. 성남지역에서는 태평중학교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설은 사무실, 강당,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 시설 자체를 복지시설로 이용하지는 않는다. 사무실은 하나이며 나머지는 강당과 회의실로 교육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간이다.

나. 성남 여성의 전화

태평2동 7288번지 25호 오현빌딩 6층(전화 751-2050)에 있는 이곳은 가정과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여성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의 기회를 넓혀 평등한 사회를 열어가고자 설립되었다. 1994년 12월 개소하여 1995년 8월 성남성폭력상담소와 1999년 3월 성남가정폭력상담센터를 부설하였다.

성남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과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 피해자 지지그룹 운영과 함께 가해자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집단교정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매년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1일 후원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성남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상담 시 의료 및 법률지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성남시 초 · 중 · 고교를 대상으로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등한 성문화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장 1명, 이사 11명, 감사 1명으로 총 13명이 상근하며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월평균 1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사이버상담이 늘고 방문상담이 증가하는 등 전화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종교단체

가. 신종교단체

성남시의 신종교 단체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당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그 때문인지 태평동, 복정동 지역에는 신종교 단체들이 적은 편이다.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신종교단체는 태평4동 증산도장, 태평2동의 여호와증인 '왕국회관'뿐이다. 국선도, 대순진리회, 성덕도, SGI 한국불교회 등은 성남시 전체로 보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태평동 · 복정동을 중심으로 보면 아직 단체가 설립되지 않았다. 특히 심신수련을 강조하는 단체의 경우 분당구에는 두세 개씩 있는 것이 이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로 인한 수요창출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증산도장은 성남시에 2개가 있다. 분당과 태평4동(전화 758-1691)에 하나씩 있다. 예일병원사거리에는 조그만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다. 매월 한 번 대전에서 전체모임이 있고 태평동에는 정기적으로 수, 금, 일에 모여서 수련을 한다. 수련터는 24시간 개방되고 '포정'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운영을 맡고 있다. 수련지도자인 포정은 따로 실비 정도의 활동비만 받는 봉사직이지만 다른 직업 없이 전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포정은 한 도장을 운영하고 그 위에 '수호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다. 수호사는 하나의 도장만 맡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도장을 총괄해서 관리하기도 한다. 포정과 수호사는 증산도에서 일종의 성직자 코스를 거쳐서 임명되는데 중앙에서 임명받아 각 지역으로 파견된다. 태평동 도장에는 포정 한 분이 지도하고 있다. 결혼은 자유롭다. 활동도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한다. 증산도 수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법(理法) 수행과 주문수련인 태을축(太乙呪)을 수련한다. 현재 등록 인원은 300명 정도다. 하지만 증산도 본부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수련을 이어가지만 이곳은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증산도의 경전은 도전(道典)이며 대전에 있는 증산도사상연구소에서 증산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나. 불교¹¹⁴⁾

성남지역에 불교가 시작된 것은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시기 성남은 백제에 속해 있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신라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왕조의 불교 정책에 따라 성남지역의 불교는 운명을 달리 하게 된다. 현재 성남지역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찰인 망경암과 봉국사는 모두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남에는 1998년 기준으로 종단에 속하는 사찰이 총 109개 사찰이 있다. 이 가운데 태고종이 28개 사찰, 조계종 19개 사찰, 법화종 11개 사찰이다. 사찰 수로는 태고종이 많지만 전통을 자랑하는 성남의 대표적인 사찰들은 대부분 조계종에 속한다.

성남지역 사찰의 전반적인 특징은 고사찰이 적고 신생 군소사찰과 포교당이 많다. 근대 이전에 지어진 전통사찰의 수는 매우 적어 약 2~3개 정도로 추정되며, 그 대표적인 것이 봉국사와 망경암, 골안사이다..

봉국사는 태평동 216-2번지(전화 755-0329)에 위치하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조계사(曹溪寺)의 말사이다. 1028년(고려 현종19년)에 창건하였으며, 그 뒤 폐허가 된 것을 1395년(조선 태조4년) 담화(曇華)가 태조의 명으로 중수하였다. 1674년(조선 현종15년)에 요절한 현종의 두 공주 명선(明善)과 명혜(明慧)의 명복을 빌기 위해 공주의 능 근처에 있던 이 절을 중창하였는데, 당시의 역사를 맡은 승려는 금강산의 승려 일축존자(日竺尊者)였으며 그가 중창한 뒤 '봉국사'라고 했다 한다.

봉국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문장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백곡(白谷) 허능대사(虛能大師)가 지은 〈奉國寺新創記〉가 그의 유문집 〈白谷大覺登階錄〉에 전해오고 있다. 이에 의하면 봉국사는 요절한 현종의 두 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왕비의 주선으로 현종 15년 8월 15일에 완성한 사찰이다. 1924년 이후 몇 차례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101호 대광명전(大光明殿)과 삼성각, 요사채 등이 있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경내에 남향으로 서 있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계(柱心包系) 맞배지붕의 아담한 건물이다. 풍판(風板, 지붕 밑으로 다는 널빤지)이 있으며, 몸체에 비해 지붕이 커서 외관이 장중하다. 자연석 기단에 놓인 고복형(鼓腹形) 초석 위에 민흘림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쇠서의 장식적 형태, 연봉과 봉황조각 등이 18세기 말의 수법

114)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제4장 성남의 종교』, 『성남시사』, 2003과 '성남시 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을 보이고 있다.

전각 내부의 불단 위에는 화려한 단집이 있는데, 불단에 안치된 불상은 대광명전의 주존으로 있어야 할 비로자나불이 아니고 아미타불이어서 이 전각이 본래 아미타불을 봉안한 극락보전(極樂寶殿)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0년 6월 2일 경기도 유형 문화재 제 101호로 지정되었다. 이 불전은 설립 연대가 분명하며 조선 후기의 불전형식을 잘 간직한 건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봉국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奉國寺 木造阿彌陀如來座像)은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존불(主尊佛)이다. 1674년(현종 15년) 건립된 봉국사 대광명전에는 목조아미타불이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으며, 좌우 협시보살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이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은 대광명전이 건립될 때 같이 조성된 것이며, 좌우의 협시보살은 1993년에 조성된 것이다. 대광명전의 주불이 '아미타불'이라는 사실은 봉국사가 현종(1641~1674)의 어린 두 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워진 절이라는 건립동기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불상은 본래 목조이지만, 1974년 절을 해체하고 복원할 때 곁에 금칠을 다시 입혀 외관상 나무재질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의(法衣)는 양 어깨에 걸친 통견(通肩)이며, 전체 높이 112cm, 폭 76cm이다. 일반적으로 창건 당시인 조선후기의 불상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되나 그 조형기법이 고려 때의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확실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아미타불은 극락전, 또는 극락보전에 봉안하고, 대광명전에는 비로자나불을 안치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봉국사 대광명전의 본래 명칭은 아미타불을 봉안한 '극락보전'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현재 봉국사는 음력 매월 1일, 15일, 18일, 24일 오전 9시 50분에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십재일¹¹⁵⁾(十齋日)을 지킨다. 천도제가 있을 경우, 특히 49제 막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몇 명씩 천도제에 참석해서 진행을 도와주고 함께 경도 읽어준다. 주지스님이 여러 사람이 함께 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115) 십재일은 육재일에다 1일, 18일, 24일, 28일을 더한 것으로 각 재일에 특정한 불보살을 배대(配對)하여 의미를 부여했다.

1일은 정광불, 8일은 약사불, 14일은 보현보살, 15일은 아미타불, 18일은 지장보살, 23일은 대세지보살, 24일은 관세음보살, 28일은 비로자나불, 29일은 약왕보살, 30일은 석가모니불이다. 이를 십재일불(十齋日佛)이라고 부른다. 이 열 가지 재일 중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지켜지고 있는 재일은 18일 지장재일과 24일 관음재일이다. 관음재일이나 지장재일의 의식은 <천수경>을 독송하고 각각 <관음예문>과 <지장예문>, 그리고 정근과 발원의 순으로 행해진다. 관음재일에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구하는 예문과 정근을 한다. 지장재일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발원과 정근을 한다.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것이다.

성남시 사암연합회¹¹⁶⁾는 태평2동 3104-1번지에 위치하며(전화 755~4151) 종단을 초월한 승려 전체의 모임이다. 비구, 비구니 스님도 같이 활동하고 있다. 사암연합회는 현재 성남시에 150여 개의 사찰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암연합회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3년 이상 된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66개 사찰이 소속되어 있다. 월 회비 2만원으로 운영한다. 회장이나 총무를 맡은 스님이 소속된 사찰에서 회의나 모임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무실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현재 원장은 지관스님이며 사무총장은 태고종 스님인 휴암스님이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이 일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는 휴암스님이 주지로 있는 성보사(태평2동)에서 일을 보고 있다.

주로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행사 찬조금을 모아서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하는데, 지난 2004년에는 성남에 있는 조계종 소속의 '자광원'에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매년 호국보은의 달(6월)을 기점으로 군경전몰유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2005년에는 6월 17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라는 이름으로 성남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성남시장뿐만 아니라 성남시 의장, 국회의원, 경찰서장,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법요식을 하고 2부에는 영산대재를 시연했다. 이 행사에서 총지휘를 맡은 사람은 한국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조교 겸 동방불교대학 영산재 교수 장청봉 스님이다. 사암총연합회가 종단을 초월한 총연합회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 불교의 사회참여와 불교종단의 화합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카톨릭

성남지역에 분당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개신교와 카톨릭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현재 성남시 전체에 13개의 성당이 있으며 그 중 태평동에 1개가 있으며 복정동과 창곡동에는 성당이 없다.

성 프란치스코 태평동 성당¹¹⁷⁾은 태평1동 5131에 위치하며(전화 721~3367) 주임신부는 안준성(마티아)이다. 이 성당은 수진동 성당에서 1999년 1월 26일 분가했다. 성당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로 임대한 건물 지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2001년 3월 건물이 준공된 후 지금의 성당으로 옮겨 왔다. 현재 태평동 성당은 수원교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세례자 수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1980명이다. 하나의 성당이 분당을 하려면 4000명

116) 제보자 : 극락성보사 주지 휴암스님

117) 제보자 : 사무원 안드레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4천명이 되면 분당을 준비하다가 5000명이 되면 분당하게 되는데 항상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주교의 방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태평동 성당은 일반적으로 보는 성당과 외관상 차이가 나는데 땅이 좁은 도시지역에서 짓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당이 없는 건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당에서 성물방(미사나 기도에 필요한 물품)을 따로 마련해서 봉사자를 두어 관리하는데, 태평동 성당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성물방이 사무실 한쪽에 있다. 도시의 땅값이 상승하고 성당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지면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성당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톨릭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교리공부를 마쳐야 한



↑ 태평동성당

다. 단 사망 직전 같은 비상시에는 예외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태평동 성당에서는 화요일과 일요일이 교리공부를 할 수 있는 날이다. 아무 날이나 1주일에 하루만 정해서 교리공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카톨릭 신자들은 의무적으로 교무금을 낸다. 교무금은 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이 얼마를 낼지 정해서 보고 하는데 이것을 '신립한다'고 한다.

카톨릭은 개신교와 달리 성당이 관할하는 지역이 정해진다. 따라서 신자들은 자신이 성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관할성당으로 출석하게 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성당이 있어 그곳으로 가서 미사에 참석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때도 교적(호적이나 주민번호 같은 것)은 관할지역의 성당에서 관리하게 되며 교무금(일종의 종교세금)도 관할지역 성당에 내게 된다.

신부는 사제관에서 수녀는 수녀원에서 생활하는데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건물에 있다. 경우에 따라서 사제관이나 수녀원이 마련되기 전에는 일반 집을 빌려서 사제관으로 쓰기도 하지만 성당에는 보통 사제관과 수녀원이 있다. 수녀원이라고 해서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거하는 곳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수녀들은 소속 자체가 교구 소속이 아니라 수도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수녀는 사랑의 자매회나 프란치스코회 등 수도회에서 파견 나오는 형식으로 성당에 근무한다. 성당에서는 매일 미사를 드리지만 월요일 새벽 6시 미사를 마치면 사제들은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쉴 수 있다.

일반신부와 주임신부는 일종의 월급을 받는데 생활비는 일반신부와 주임신부가 차이가 없다. 다만 활동비에서 차이가 난다.

신부는 보통 세례명뿐만 아니라 호적상의 이름을 같이 쓰는데 비해서(안준성/마티아) 수녀들은 성만 쓰고 세례명을 붙인다(이/가밀라).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수녀들의 호적상 이름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라. 성공회

성공회는 16세기 영국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등장한 교회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도(via media)를 표방하여 왔다. 현재 전 세계 160여 개국에 7천여 만 명의 신자가 있다. 서울교구에 속해 있는 성남지역의 유일한 성공회 성당은 대한 성공회 성남교회로 복정동 538-1번지(전화 754~5200)에 있다. 현재 교구장은 이동석(스테반)신부이다. 2001년 7월 8일 교회가 축성되었다. 건물은 3층의 아담한 양식 건물로 1층은 교회, 2층은 교육관, 3층은 사제관이다.

처음 이 곳에 성당을 지을 때 마을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이곳으로 오기까지 9번의 이사를 했을 만큼 재정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교회 운영방식은 개신교와 비슷하지만 로마 카톨릭처럼 신부는 발령을 받아서 부임한다.

마. 개신교¹¹⁸⁾

개신교(Protestant Church)는 로마 카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와 동방정교회(Estern Orthodox Church)와 함께 세계 기독교의 3대 흐름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이 때 선교활동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선교지역을 분할하는 선교협정이 마련되었다. 이 선교협정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동남부 지역은 북장로회, 서부지역은 북감리회, 동북부지역은 남감리회가 담당하였다. 이 협정은 1930년대 이후 사문화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지대해서 현재 성남지역에서 장로교가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현재 태평동에 70개, 복정동에 6개, 창곡동에 2개의 교회가 있다¹¹⁹⁾.

118)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 2003

119) 이 수치는 개신교 교파에 속하는 교회들이며, 기독교계 신종교를 제외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현재 성남시청 앞에 있는 주민교회는 성남지역의 민주화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다. 주민교회¹²⁰⁾(住民教會)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태평2동 7288-11번지(전화755-2404)에 위치한다. 1960년대 말부터 성남지역에는 본격적으로 서울의 철거민, 빈민들이 이주하게 되었고, 1971년에는 ‘광주대단지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1970년 11월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분신한 사건은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노동문제, 도시빈민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일부 기독교단체에서는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산업 선교와 빈민 선교에 나서게 되었다. 1973년 한국 특수지역 선교위원회는 ‘광주대단지사건’으로 드러난 성남지역 도시빈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남지역 민중선교를 위해



↑ 주민교회

이해학 전도사를 파송하여 교회 설립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수진동 26-84번지에서 이점례 등 교인 12명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주민교회가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부터 의료 선교활동, 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자치모임(아카시아회) 조직 등 성남지역 빈민,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박정희정권의 독재에 대한 주민교회의 민주화 요구와 저항은 갖은 탄압과 억압을 불러왔다. 1980년에는 김종태 청년회원이 신촌로터리에서 광주민주항쟁과 민주정치를 절규하며 분신하여 몸으로 대항하였고, 주민교회는 민주화운동과 성남 YMCA 창립(1981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1987년)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개소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교회는 성남시민과 함께 민주와 통일에 앞장서 온 한국현대사의 주역이며 산

120) 성남시 ‘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증인이다.

2000년대에도 성남 주민교회는 '용산미군기지 성남 이전 결사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북 평화통일운동과 이주노동자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발자취 속에서 주민교회는 1986년에는 산자교회(김해성 목사)를 개척하여 노동선교를 전담하도록 하고, 1994년에는 교육선교를 전담하는 느티나무교회를 개척하여 교육선교를 담당하는 등 교세확장과 선교활동의 전문화를 이루어오고 있다.

바. 유교

현재 성남시의 실질적인 유교활동은 주로 조선시대에 성남지역에 세거 집성촌을 이루었던 가문들의 '종친회'와 '회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²¹⁾. 그 가운데 태평동 · 북정동 지역에 한정해서 보면 북정동 산 71-1번지(전화 754~3120)에 있는 해평 윤씨(海平尹氏)의 사당인 '모덕재'가 있다. 윤두수(尹斗壽)의 본 사당은 북한에 있으나 분단 이후 제사를 지내기가 힘들어지자 그의 신위를 이곳에 모셨다.

윤두수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양(子仰), 호는 오음(梧陰)으로 본관이 해평(海平)이다. 문장이 뛰어나고 글씨가 능하였다. 이중호(李仲虎) ·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정철(鄭澈)이 화를 당할 때 같은 서인으로 연루되어 회령(會寧)에 유배되었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다시 기용되어 어영대장 · 우의정에 이어 좌의정에 이르렀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유성룡(柳成龍)과 함께 난국을 수습하였고 이듬해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탄핵을 받아 사직하고 남파(南坡)에서 여생을 마쳤다.

본래 이 사당은 1990년 윤두수의 손자인 윤경지(尹敬之)를 모시려고 지었다가 윤두수의 신위를 모신 곳이 없어서 이곳에 모시게 되었다. 제사는 윤두수의 기일인 음력 4월 7일과 윤경지의 기일인 음력 10월 15일에 지내고 있다. 현재는 멀리서 오는 문중사람들을 위해 정오를 기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현재 윤경지의 종손이 이 마을에 살고 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실질적인 관리는 윤이섭이 하고 있다.

121)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 2003, 615쪽

II. 마을의 주요기관과 시설

1. 행정 및 복지기관

(1)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태평1, 2, 3, 4동과 복정동에 있다. 복정동사무소에서 창곡동을 같이 관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태평4동사무소를 통해 이 지역 동사무소의 일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태평동 전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현재 태평4동은 남문로를 중심으로 고지대 영세서민층과 저지대중산층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고지대는 대부분 20평 분양지의 급경사로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현재 18통 112개 반으로 면적은 0.57km²로 시 전체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5월 31일 기준으로 7509세대에 인구는 19551명(남 9870명, 여 9681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에 달하며 주택 수는 2798호(집합 1246호, 일반 1552호)로 주택 보급율은 37.6%이다.

동사무소는 '주민자치협의회'라는 이름을 같이 달고 있다. 동사무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동사무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먼저 젊은 동장이 많아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동장은 별정직으로 분류되어서 사무관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주로 맡았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다. 동장은 행정사무관 5급에 해당한다. 지역마다 직책에 대한 호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로 동사무소의 구성은 동장, 주무(사무장), 실무책임자(6급 주사), 업무담당자(7~9급), 공익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7월 현재 동장, 주무, 실무책임자, 업무담당자 9명, 공익 3명이 근무하고 있다.



↑ 태평4동사무소

현재 태평4동사무소는 지방자치 이후 달라진 대표적인 동사무소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곳으로 사무소에 들어가면 '민원상담실'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다. 이곳이 바로 이전의 동장실이다.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으며 실무자들이 일하는 곳을 지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군가산점이 위헌판정을 받고 난 이후로 여성이 80%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자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남녀 비율을 5 : 5로 뽑으려는 개선안이 검토 중이다.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역사회에서 봉사가 가능한 사람들을 권유해서 참여시키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성남시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5월 31일 현재 관할지역 안에는 금빛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가 있다. 복지시설로 복지회관 1개, 노인정 4개, 놀이터 1개, 공원 1개가 있으며 생활편의시설로 금융기관 1개, 의원 10개, 약국 10개가 있다. 700여 개의 사업체가 있고 359세대 711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다.

(2) 경찰서

가. 성남중부경찰서

태평1동 6812번지에 있는 성남중부경찰서(전화 753-2111)는 1966년 7월 1일 광주경찰서 중부지서 성남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71년 성남경찰서로 개서되었다. 1995년 9월 22일 성남중부경찰서로 개칭되었고 1998년 7월 치안센터 통폐합지시에 의거하여 13개

치안센터를 운영하였다.

2005년 현재 4개의 지구대, 1개의 특수파출소, 169 방법순찰대, 705 전경대를 운영하고 있다. 민생치안 확보를 통해 확고한 사회 안정과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 중부경찰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무인원은 총경 1, 경정 6, 경감 8, 경위 21, 경사 40, 경장 98, 순경 22, 일반직 1, 기능직 5명으로 총 196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찰서장과 청문감사관, 경무과, 생활안전과, 수사과, 경비교통과, 형사과, 정보과, 보안과, 방범순찰대의 조직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생활안전과에 수진·태평·신흥·단대 지구대가 소속되어있다. 지구대는 2·3개의 치안센터(파출소)를 묶어서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나. 태평지구대

태평2동 3498-2번지(전화 755-4426)에 있는 이곳은 1989년 개소, 2003년 8월에 태평지구대로 바뀌었다. 태평1~3동, 복정동을 관할하는 치안센터로 태평1치안센터와 복정치안센터가 있다.

- 태평1치안센터 : 태평1동 6812, 전화 752-3312
1970년 개소, 2003년 치안센터로 바뀌었음
- 복정 치안센터 : 복정동 563, 전화 751-3311
1969년 개소, 2003년 치안센터로 바뀌었음
- 태평4치안센터 : 태평4동 7290-0 (남문로 242), 전화 755-3317
태평4치안센터의 경우 위치는 태평동이나 신흥지구대에 소속

치안센터는 대장 1명과 3개의 팀이 있으며, 관리반(서무) 2명으로 총 55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1팀은 소장 1명, 부소장 1명 외 순찰 14명, 2팀은 소장 1명, 부소장 1명 외 순찰 13명(여경1명), 3팀은 소장 1명, 부소장 1명 외 순찰 13명이다. 1개의 팀이 9일 단위로 돌아간다. 예를 들면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 형식으로 하고 있다. 주간은 9시부터 19시까지, 야간은 19시부터 9시까지 3조가 2교대를 하고 있다.

모든 사건의 초동조치를 맡고 있으며 미아·정신지체·가출인 찾기, 분실·습득물과 관련한 사항, 교통단속, 주정차위반지도를 하고, 특히 방법과 순찰임무가 많다. 매월 한번 주민들과 연계하여 방법,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 치안센터의 경우는 1명이 배치되며 치안센터에서는 민원·상담·안내를 하고 있다. 치안센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주간만 근무하며, 이후는 지구대에서 지원근무를 한다. 다른 지구대에 비해 주취자, 교통사고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관할구역에 비해 근무자의 수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창곡소방파출소

창곡동 437-1번지(전화 759-5119)에 있는 이곳은 1996년 9월 16일 북정파출소 설치가 허가되어 1997년 7월 23일 준공되었다. 2000년 1월 10일 창곡파출소로 개칭되었다. 성남소방서에 소속되어 신흥2동, 산성도, 북정동, 창곡동, 신촌동, 심곡동, 오야동, 둔전동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전체 관할구역은 총 면적 13.77km², 인구 65000명, 가구 24000가구, 소방대상물 380개소(근린생활 244, 아파트 9, 공장 10, 복합건물 11 기타 106)에 이른다. 근무인원은 12명이 있다.

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화재는 연간 약 30여 건 내외로 발생한다. 화재발생보다는 구조구급 발생수가 많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남이 전반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수진·신흥동이 많고 창곡소방서 관할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발생빈도가 적은 편이다. 그 외에 업무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기 작동법이나 생활 속의 응급조치 등의 소방교육이나 구급교육을 맡고 있다.

격일로 근무하며 6개월에 1번씩 발령을 받는다. 관할구역이 넓은데 비하여 근무인원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신흥2동)의 경우 화재진압 시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소방차진입이 곤란하다.

(3) 우체국

성남시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일반국인 성남우체국과 판교우체국, 별정국인 고등우체국과 분당우체국 그리고 군우체국인 122군사우체국이 있었다. 시로 승격된 이후

에는 체신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우체국이 신설되어 2002년에는 일반국 15개소, 별정국 1개소, 군사우체국 2개소, 분국 3개소, 취급소 15개소로 정비되었다. 현재 태평동, 북정동, 창곡동 지역에 위치한 성남우체국 소속의 관내국은 다음과 같다.



↑ 태평우체국

- 태평동 우체국 :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679-4, 전화 753~0004
- 태평2동취급소 :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2765, 전화 755~8892
- 태평4동취급소 :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7339-5, 전화 753~0016
- 경원대 우체국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전화 751~0004
- 제112군사우체국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234

태평3동에 있는 태평동 우체국은 1975년 12월에 개국했다. 현재 일반직 2명과 기능직 5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정단말기 3대와 CD기 2대 그리고 우체국금융업무에 필요한 금융단말기 5대를 보유하고 있다. 2,54km내의 30,546세대 82,000 주민의 우편업무를 맡고 있다. 하루에 평균 1500여건이 접수되며 접수량은 보통 > 등기 > 소포 순이다. 성남시에서 접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접수량은 소포를 제외하고 전년에 비해서 차츰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태평동 우체국에서는 우편접수를 받고 이것을 하루에 2번 1시와 6시에 분당 오리에 있는 성남우편집중국으로 보낸다. 배달업무는 태평동우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우체국에서 맡고 있다. 우편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고 취급소는 개인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태평2동과 태평4동에 취급소가 있다.

(4) 성남시청

성남시청은 태평2동 3309번지(전화 729~2114)에 위치한다. 성남지역은 신라 말까지 '한주'라고 불리어오던 곳으로 940년(태조 23)에 '광주'로 개칭되었고, 983년(성종2)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광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고려 말 행정구획인 양광도에 예속된 상태로 지속되다가 1395년(태조4) 양광도를 경기좌우도로 편하여 광주목은 경기좌도에 예속되었다. 1413년(태종13) 경기 좌우도를 통합하면서 경기도로 확정되어 8도 체제로 16



↑ 성남시청

세기 초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1637년(인조15)에는 다시 광주부로 승격되기까지 정치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등과 회복을 거듭하였다. 1651년(효종2)까지 부윤으로 지속되다 북벌을 기도한 1652년(효종3)에 부윤겸수어부사로 변경되었다가 3년 후 다시 혁파되었으며, 1795년(정조19)에 유수겸수어사로 설치되기까지 다시 부침을 거듭하였다. 정조 19년 이후로는 19세기말까지 지속되었다.

개화기로 들어서면서 오랜 전통의 행정구획은 1895년(고종32) 5월 26일 전문 6조의 제98조에 의해 8도 체제에서 23부제로 개편되었고 이때 한성부의 관할에 속하게 되면서 주부에서 광주군으로 되었다. 1896년(건왕 원년) 8월 4일 제36호로 발표된 “지방제도 관제봉급경비개정 건”에 의해 경기도 광주부가 되었다가, 1906년(광무10) 9월 24일 제 49호로 발표된 “지방구역 정리의 건”에 의해 광주군으로 강등되어 광주군수를 두게 되었다.

그 해 11월 10일 총독부령 제8호로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부면은 산성리 935번지 행궁터에 개소하였으며 1911년 3월 6일 낙생면 사무소가 판교리 191번지에 개소하여 낙생면, 돌마면, 대왕면을 통합관할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11년 8월 29일, 상적리에는 대왕면사무소를 개설하였고, 1911년 말 돌마면에는 정자리에 면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913년 12월 29일 총독부령 제111호로 공포된 “도의 관할구역”에 의해 광주군 군내면 소속의 7개리(산성, 검북, 불당, 오전, 광지원, 용미, 상산곡리)와 세촌면 소속의 7개리 중 6개리(단대, 상대원, 수진, 복정, 창곡, 탄리)가 통합되어 중부면이 신설되었으며, 세촌면 1개리(하대원리)는 돌마면에 편입되었다.

중부면은 중앙에 남한산성의 준령이 있어 그 서남기슭에 취락이 형성된 지역적 여건으로, 1946년 3월 3일 이전의 세촌면 관할구역 6개리(단대, 탄리, 수진, 상대원, 복정, 창곡 지역 27.43Km²)을 관할하는 중부면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여 탄리 275번지에 개소하였다가 1948년에 수진리로 옮겨 사무를 보게 되었다.

그 후 광주군 조례 제68호 (1964. 2. 24 공포)에 의거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로 승격되어 수진리 145번지에 성남출장소 건물을 신축하여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광주군수 직할 지휘 감독 체제로 전환하였다.

광주군은 1968년 8월 1일~1971년 8월 31일까지 “광주군 성남지구 도시건설 사업소”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는 1968년 9월 1일~1971년 8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 사업소”를 각각 설치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되자, 기존의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를 합해서 개발초기의 성남의 행정업무를 보는 관청이 셋이나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커졌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와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확산 및 서울특별시 외곽 도시의 합리적인 육성을 위한 법률 제2597호 (1973.3.12) “시 설치와 군의 폐지분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로 1973년 7월 1일 성남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 때 1실, 10과, 2개 사업소, 2개 출장소, 18개 동사무소를 설치하여 시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 시승격 당시 1담당관실, 1실, 10과, 42계, 2사업소, 2출장소, 18개 행정동으로 출발하여 2003년 7월 현재, 시장, 부시장(비서실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국에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경제통상국에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문화복지국에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위생과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 건설교통국에는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에는 전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도시정비사업소에는 자원관리과, 공원운영과, 탄천관리과, 중앙문화정보센터에는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6국, 2담당관, 22과 99팀, 10사업소, 3구, 21과, 111팀, 11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복지기관

가. 수정노인복지센터

복정동 666번지(전화 752-3366)에 있는 이곳은 2002년 9월 공사를 착공해 2004년 3월에 준공됐으며 2004년 9월 10일에 개관하였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여가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현대식 노인복지 시설로 경로식당, 건강교실, 취미교실, 치매노인 주·단기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4백여 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에 1회에 1백3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식당 및 수치료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각종행사, 영화상영 등 12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과 탁구장, 당구장 등이 있다. 또한 2층에는 각종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의실, 회의실, 휴게실이 있고, 3층에는 체력단련실, 노인



↑ 수정노인복지센터

전문의원과 물리치료실이 있으며, 4층에는 수치료실과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실을 설치하고, 옥상에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다. 회원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등록비 5000원을 내고 가입할 수 있다.

현재 2000명 정도가 등록된 상태이며 복지원은 수정구에 있지만 다른 구에 사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한다. 비율적으로는 수정구>분당구>중원구 순이다. 하루 이용은 400~500명 정도 되며 위치상 동떨어져있어 북정역까지 셔틀버스를 하루 16번 운행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대한예수교회장로회총회 유지재단에 위탁하였으며 근무인원은 26명으로 준공무원 자격이다.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운전기사 등이 있고 프로그램 강사가 30~40명, 자원봉사자는 교회나 대기업, 공군부대 등에서 오며 하루 평균 20명 정도가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센터 내의 활동뿐 아니라 외부의 경로당, 북정동 노인정 4곳, 태평동 1곳으로 생신잔치, 이미용, 체조, 여가교육, 환경미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자주적인 동아리모임으로 민요·탁구동아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동아리들은 외부의 효잔치, 생신잔치 등에 찬조공연을 하기도 하며 작품발표회를 열기도 한다. 센터의 4층에는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단기 보호센터가 있으며 현재 4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

나. 태평3동 복지회관

태평3동 3528번지(전화 721~4911)에 있는 이곳은 1993년 3월 11일에 개관하여 성남시 직영으로 운영되던 것을 1997년 민간에 위탁하여 수탁 계약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는 현재의 운영주체인 주민교회가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노인정, 공부방을 갖추고 있다. 현재는 공동작업장은 성남시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노인정, 공부방 운영과 함께 방과후 교실과 노인대학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고령의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들의 가사를 도와주는 가정방문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곳은 지역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다.



↑ 태평3동 복지회관

성남시에서 주민교회에 위탁하였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준다. 경로식당 등의 노인복지사업은 교회가 전담하고 있다. 수용인원은 어린이집 원아 52명, 교사 8명이 있고, 노인정은 52명이 이용하며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따로 두지 않는다.

노인식당은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2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도우미가 4명 있다. 방과후 교실은 현재 14명이 이용하며 1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경로식당의 경우 이용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만 가능한데 태평3동 복지회관이 다른 복지회관과 달리 평지에 위치하며 교통이 좋아 다른 지역보다 이용인원이 많은 편이다. 특별히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검진, 한방진료, 한 달에 2번 이·미용봉사, 경로식당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노인대상으로 욕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복지프로그램계획에 이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노인들을 위한 가정방문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2. 교육기관

성남시에는 초등학교 57개, 중학교 36개(공립 30개, 사립 6개), 고등학교 30개(공립 15개, 사립 15개)가 있다. 그 가운데 복정동·태평동에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1개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없다¹²²⁾. 또한 모든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1) 유아교육기관

가. 성남시의 어린이 보육시설 현황¹²³⁾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1~2위를 다투는 곳이다. 그 덕분에 아동복지 차원에서는 확실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영유아 보육시설이 더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성남시의 경우 다른 시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 사설 어린이집이 분당구에 36개, 수정구 76개, 수정구 7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중원구에 22개, 수정구만 15개 분당구에 4개가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구시가지인 중원구와 수정구에 더 많은 것은 역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 위치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는 분당구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분당구 전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네 곳에 불과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이 밀집한 곳에 설립된다. 분당의 경우에도 한솔마을, 청솔마을, 목련마을

122) 경기도 성남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현황' 참조

123) 성남시청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현황자료' 참조

세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곳은 모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이며 일반 아파트지역에는 야탑에 하나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집중적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 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방으로 나뉘질 수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에 속해 있는데 반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속해 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유치원은 교육시설,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보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유치원은 오전교육 중심으로 여름과 겨울에 방학이 있으며 초등학교와 거의 비슷한 학사일정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현재 성남시의 초등학교에는 모두 병설유치원이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종일반이 원칙이며 영아부터 대상이 된다. 이 때 영아란 6개월 된 어린 아기를 말한다. 어린이집의 설립목적이 유치원 교육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영아에서 만 5세까지가 대상이 된다.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의 특색은 장애아와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태평 제4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교사가 한 명 있으며, 매월 성남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전문교사가 방문해서 도와주고 있다.

국공립의 경우 국고보조가 나온다. 국고보조는 일단 건물을 임대해주고 종사자들의 임금을 보조해주고 있다. 보조비율은 교사마다 다르다. 영·유아 담당교사와 장애아 담당교사는 임금의 90%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전에는 45%였다. 이곳 태평 제4어린이집은 6명이 90%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지원비는 운영비의 30% 미만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위탁 운영되고 있다. 처음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했다. 공무원이 파견되고 원장 이하 선생은 채용하는 형식이였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나고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어 위탁제로 바꾸어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립 유치원보다 프로그램이 좋다는 반응이 많아서 대가자가 많다. 성남시는 전체적으로 사립 유치원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선호도가 높다.

위탁 운영자에 대한 심사는 2년에 한 번하며,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심사가 까다로워 세부적인 보육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대외적인 관계까지도 평가에 반영된다. 그래서 원장은 어린이집은 물론, 자기가 속한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훤히 알고 있어야 할 정도로 마을 일에 환해야 한다.

나. 태평 제4어린이집

태평역을 지나 경원대역 근처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팻말이 두개 보인다. '천주교 태평동 성프라체스코 성당' 그리고 '태평 제4어린이집'이다. 고개를 돌리면 베이지색에 연분홍띠를 두른 아담한 어린이집이 보인다. 여기가 태평1동 5127번지 태평 제4어린이집이다. 이곳에는 시설장 겸 원장이신 변순옥 선생과 10여 명의 교사,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 7명과 원생 84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있다.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이다. 지하에는 주방과 강당이 있어서 이곳에서 과외활동(외부교사를 초빙해서 레슨을 함)을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발표회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1층은 원장실 겸 사무실과 큰 교실이 두 개 있다.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고 안에 욕조가 같이 설치되어 있다. 2층에 올라가면



↑ 태평 제4어린이집

가지런하게 걸어둔 옷걸이와 신발장이 눈에 들어온다. 아이들이 음악소리에 맞춰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3층은 2층과 구조가 비슷하다. 주방이 따로 하나 더 달려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벽에는 곳곳마다 선생들의 세심한 마음 씬씀이가 느껴진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노란 벽지를 둘러싸고 그 위에 종이접기로 단풍잎을 달아 두었다. 빈 곳이 보이지 않는다. 올라가는 계단은 종이꽃으로 가운데 선을 만들어 놓았다.

태평 제4어린이집이 문을 연 것은 IMF가 터지던 1998년이다. 1998년 7월17일 개원을 했을 때 아동은 총 9명이었다.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있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에는 주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서 무슨 보육시설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내길 꺼려했다. 당시는 원장이 영아를 업고 앞치마를 두르고 취사까지 해야 했을 정도로 열악했다.

더구나 처음에는 반 이상이 장애아였다. 장애아와 통합교육을 하니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아만 아니라 함께 지내는 일반 아동들에게도 통합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한다. 장애아 통합을 반대했던 한 학부모는 발표회를 참관한 후,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경우도 있었다 한다.

등록 영유아의 수는 1999년에는 30명, 2000년 52명, 2001년 52명, 2002년 76명, 2003

년 86명이다. 그러다가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사촌이나 조카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원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운영내용과 일과활동 교육프로그램¹²⁴⁾을 보면, 이곳은 총 7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담임선생은 8명이다. 한 명이 더 있는 것은 장애아 전담교사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시설자 겸 원장 1명, 취사 담당자 1명, 그리고 사무보조 1명, 총 10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을 맡은 일용직으로 교사가 5명이다. 특별활동은 영어, 미술, 바이올린, 태권도, 풍물교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남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장애아동 통합교사가 순회교사제로 운영되고 있다.

영영아(6개월) · 영아반(만2세 이하)이 2학급, 만 2세반(4세) 2학급, 5~7세반이 각각 1반씩 총 7학급이다. 5~7세반에는 한두 명씩 장애아가 있으며 이들을 지도하는 전담교사가 한사람 있다.

반이름을 인성을 키우는 측면에서 예쁜1·2반, 튼튼1·2반, 지혜반, 바른반, 어진반, 고운반(장애아반)으로 운영하다가 2004년부터는 전통문화와 정신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이름을 장영실 · 김유신반, 이순신 · 정약용반, 신사임당반, 단군왕검반, 세종대왕반으로 바꾸기로 했다. 원비는 영 · 유아반은 243,000원이지만 6개월 미만일 경우 70%, 6개월~12개월까지는 50%를 더 받는다. 만 2세반은 201,000원, 만 3·4·5세반은 125,000원이다.

현재 영 · 유아반은 한 반에 5명, 만 2세반은 7명, 어린이반은 한 반에 20명이 정원이다. 총 84명이 이곳에 다니고 있다. 현재 대기자가 총 140명가량 된다. 회비는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한다. 현재 결혼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로서 보조를 받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맞벌이 부부가 90% 이상이다. 국고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우선순위도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대기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되기까지 원장과 교사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어린이집의 일과는 7시 30분에 시작된다. 교사들은 7시 20분까지 나와서 대기한다. 저녁에도 7시 30분이 끝나는 시간이다. 오전에 간식이 있고, 점심, 그리고 오후 간식이 있다. 교사들은 매일 12시간씩 근무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오전, 오후 당직을 순번제로 근무한다. 두 명의 교사가 오전 당직, 3명의 교사가 오후 당직을 맡는다. 아침 당직을 맡은 교사는 7시 20분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며, 오후 당직을 맡은 교사가 7시 30까지 맡는다. 대부분 6시 이전에 아이들이 돌아가지만, 7시 반이 지나도 남은 아이들이

124) 태평 제4어린이집 '업무분담표', '교육프로그램'(2003년) 참조

한 둘은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면 교사들은 늦게까지 남아서 부모가 올 때까지 함께 지내야 한다. 토요일은 격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지만 취사담당이 일이 있을 때는 쉴 수 없다. 여름에는 1주일, 겨울에는 3일 휴가를 순번으로 실시한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들은 돌아서 있어도 뒤에 있는 아이들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세심함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학부모들에게는 예민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스스로 일에 보람을 느끼지 않고는 하기 힘든 일이다. 이런 이유로 제4어린이집은 선생을 채용할 때 실력보다는 인성을 중시한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하는 것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직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를 채용할 때 어려운 점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근무여건이 유치원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태평 제4어린이집에 근무하던 교사 8중 4명이 작년에 유치원으로 갔다. 이직 사유는 유치원은 근무시간이 짧고 오전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토요일은 쉴 수 있고, 여름과 겨울방학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런데 후일 그 4명이 1년 만에 다시 복귀하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보육치침과 교육부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탐구생활, 언어생활, 안전생활, 지역사회 및 환경생활, 예절생활을 통합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며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인 놀이 중심의 학습방법으로 건강하고 창의적이고 즐거운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 가운데서 지역사회·환경생활, 안전생활, 예절생활이 태평 제4어린이집에서 추가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자기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영유아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욕구표현을 못하지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이므로 이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 가치, 철학, 그리고 인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의 특성상 결손가정이 많기 때문에, 결손가정의 경우 엄마가 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의 외도 때문인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경우이다. 남편의 무능력이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조부모가 손자를 떠맡게 된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들까지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시설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가정문제를 상담하는 것이다. 상담을 통해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아침에 맡겨놓고 버스터미널에서 '저 집 나왔어요'하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아버지도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들이 너무 의타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젊은 부부들인데도 일을 하지 않고 놀거나 토요일 같은 경우 부모가 집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그대로 어린이집에 맡겨두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통 2~3개월이면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비해서 이런 아동은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장애아의 경우 현장학습을 가게 되면 1 : 1로 붙어 있어야 하는데도 부모가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학습이나 가끔씩 실비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를 내지 않는 부모도 있다.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안전사고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집에 갔다가 오면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영아가 감전사고를 당하거나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다. 이것은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이 가정역할을 대신하는 측면도 있다. 이곳에서 아침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을 나가는 부모는 아침 도시락까지 싸서 아이를 보내며, 저녁에 늦게 귀가하는 부모가 있는 집은 아이가 가족과 지낼 시간이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가끔은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동들이 있다. 이럴 때 종사자들로서 매우 속이 상한다.

건물은 온돌식인 것은 시설이 가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이다. 유치반은 좌식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온돌식으로 만들어서 가정적 분위기를 낸다. 이곳에서 하루 종일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활교육, 예절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 아동 보육시설의 경우 모든 것을 교사들이 손수 해야 한다. 세심하게 하나 하나 손길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교실환경을 꾸미는 일에서 물품하나 정리정돈까지도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한다. 몸짓 하나, 표정, 옷차림까지 모두 신경을 쓴다. 그러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비록 작은 일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선에 선 사람들이다.

(2) 초·중등교육기관

‘소학교’의 명칭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제정·공포된 ‘조선교육령’에 따라 ‘보통학교’로 변경되었고, 1938년 교육령 개정으로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1941년 일왕의 칙령으로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로 바뀌었다. 이것이 8·15광복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다가 1996년 민족정기 회복차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현재 성남시에는 총 57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복정동 · 태평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5개이다. 복정초교(복정동), 수진초교(태평3동), 태평초교(태평3동), 금빛초교(태평4동), 성남초교(태평4동)가 있다.



↑ 허옥희씨 남편이 남한산국민학교 졸업 때의 모습. 사진에는 소화20년이라고 쓰여 있다. 당시에는 성남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인근에서는 남한산성 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

가. 수진초등학교

태평3동 3756번지(전화 753~0320)에 있는 이곳은 1971년 3월 5일에 수진국민학교로 개교하여 1996년 3월 1일 수진초등학교로 개명하였다. 4학년은 8학급, 나머지 학년은 9학급, 6개의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총 59학급이며 학생수는 2201명이다. 교직원인 교장 1명, 교감 2명, 교사 67명, 행정 및 기능직은 6명으로 총 76명이다.

수정구 관내의 초등학교 중 학생수나 시설면에서 가장 크다. 교통이 혼



↑ 수진초등학교

잡한 시장 주변에 인접하고 있다. 2004년 다목적 체육관의 확보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대 되었다. 태평동 일대와 시장주변의 학생들이 많은 만큼 맞벌이 부부가 많아 여가시간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1인 1인증제를 목표로 한자 급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량·자습시간을 활용하여 학습하고 있다. 매월 평가를 통해 급수를 인증 받는다. 양궁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력 개발을 위해 '영재 발명반'을 운영하고 발명주간행사를 통해 창의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졸업 후 학생들은 태평이나 풍생중학교로 주로 배치 받는다.

나. 수진병설유치원

성남시의 모든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진병설유치원은 수진초교에 소속되어 있다. 1981년 병설유치원 1학급을 인가받고 1987년 3학급을 인가받았다. 1997년 종일반 1학급을 개설하였다. 교사의 수는 원장 1명, 원감 1명, 교사 4명으로 총 6명이다. 일반학급이 만 4~5세 반의 3학급으로 총 93명이며 담당교사는 3명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 1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반은 20명이며 교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

푸른도서관 만들기와 기초질서 생활화를 강조하며 특히, 독서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주 1회 부모참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병설유치원의 규모가 크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다. 복정초등학교

복정동 383번지(전화 759~5151)에 있는 이곳은 1964년 3월 12일 성남국교 복정분교로 인가받아 1967년 복정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현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학급, 5·6학년 1학급씩으로 10학급이며,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2학급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학생수는 271명이다. 교직원수는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14명, 행정 및 기능직 4명 등 총 20명이다. 학교의 연혁 자체는 오래 되었으나 2004년 신축, 리모델링하여 신설학교 같다. 복정동과 창곡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학하며 창곡동에는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창곡동에서 오는 아이들이 더 많다.



↑ 복정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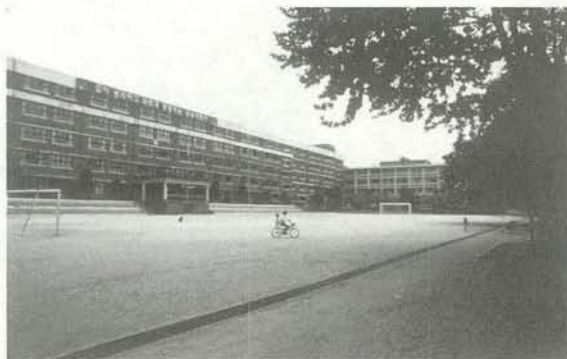
북정동 개발 이전에는 자체 인구수가 적어 학교규모가 작았으며, 개발 이후에도 개발 지역의 상황 때문에 잠시 들어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학생수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는 작은 편이다. 한 반 인원이 20명에서 15명사이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 4~6학년 대상으로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1주일에 1시간씩 원어민 교사를 통해 중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성남초등학교

태평4동 7236번지(전화 758~1955)에 있는 이곳은 해방 이후 성남출장소 관내에는 정규 국민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남한산국민학교에 통학하거나, 수진리에 개설되어 있는 수진간이학교에 다녀야 했다. 이에 1946년부터 단대, 상대원, 창곡, 수진, 북정, 탄리 등 6개 마을을 관할하는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개설되면서 1948년 5월부터는 수진간이학교를 성남국민학교로 승격, 정식 개교하여 1949년 3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¹²⁵⁾. 현재 2005년 2월 17일 56회 졸업생까지 총 20,025명을 배출하였다.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성남 어린이”라는 교육목표아래 특수 2학급을 포함한 초등 50학급, 유치원 3학급 등으로 편성되어 2000여명의 어린이와 71명의 교직원이 일하고 있다.

교장 1명, 교감 2명, 원감 1명, 교사 54명, 특수교사 2명, 보건교사 1명, 유치원교사 3명과 행정업무를 맡는 교무직원이 행정실장, 행정직원 2명, 영양사, 조리사 각 1명으로 총교직원은 71명이다. 건물은 일반교실 51개, 체육관, 체육실, 교장실, 교무실, 원무실, 유치원실 3개, 행정실, 보건실, 어학실 2개, 과학실 2개, 음악실 3개, 컴퓨터실 3개, 미술실, 예절실, 도서실, 역사실, 방송실, 학년연구실 6개, 운영위원회실, 학부모 상주실, 연수실, 급식실, 발간실, 자료실 2개, 사물놀이실, 정보실, 서버실이 있다. 2003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2년간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시범학교로 지정받아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교육공동체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다. 교화는 목련이며 교목은 느티나무이다.

아래에서는 이 학교에서 3회로 졸업한 이광식의 개근상장, 성적표, 수업장, 졸업장, 졸업사진을 참고로 소개한다.¹²⁶⁾



↑ 성남초등학교

125) 이완재, 『韓國史에 비준 ‘城南地域’의 歷史』, 민족문화사, 1993, 156쪽



다. 태평중학교

태평1동에 위치한(전화 721-1785) 이곳은 1998년 1월 15일에 설립인가를 받아 1998년 3월 2일에 개교하였다. '사랑 · 성실 · 창조'를 교훈으로 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의지력이 강한 건강인,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창조인, 예절과 질서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도덕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주인의식이 투철한 자주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였다.

1학년은 9반 362명, 2학년은 9반 360명, 3학년은 7반 280명으로 총 25학급, 학생수는 1002명이다. 교직원은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42명, 행정 및 기능직 8명으로 총 52명이다. 1인 1기 인증제를 실시하여 우리말활용, 생활영어, 생활한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이수 후에는 시험을 통해 학교장 발급자격증이 나온다.

특색사업으로 사이클 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며, 성남시 교육청지정 도서관 연시범학교, 영재학급운영, 영어와 수학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독서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독서생활 습관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학기 중에는 독서기록장을 작성하게 하거나 독서문고함을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독서캠프를 실시



↑ 태평중학교

할 계획이다. 중원·수정문화센터와 연계하여 독서교육을 추진하기도 한다. 또한 20여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영재학급 운영을 특성화하고 있다.

중학교 배정은 원칙적으로 근거리 배정임에도 불구하고 태평동 내의 학생수에 비해 중학교가 부족한 관계로 다 수용하지 못하여 다른 학교로 배치 받는 학생도 많다. 2006 년도에는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5개의 학급을 증설하여 200명을 더 수용할 계획이다. 졸업 후 태평동, 창곡동, 복정동 내에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풍생고 등으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

학부모 참여교육의 일환으로 학부모 보람교사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학부모들이 교대로 학부모 상주실에 근무하며 생활지도, 상담, 안전지도, 외출지도, 시험 감독 등을 하고 있다. 순번제로 하루 2명씩 있다. 학교 행정 결정사항은 교사 5명과 학부모 7명, 지역위원 1명이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

(3) 대학교

가. 경원대학교

복정동 산 65번지(전화 750~5114)에 있는 이곳은 1978년 7월 5일 학교법인 경원학원 설립 인가를 받고, 1981년 12월 경원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1982년 3월에 개교하여 1987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다.

대학본부는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연구처, 대외협력처, 입시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의 대학원, 인문대학·경상대학·법정대학·공과대학·소프트웨어대학·자연과학대학·한의학대학·미술대학·음악대학·생활과학대학 등 10개의 단과대학, 52개 학과에 2020명의 학생이 있다. 교수는 254명, 직원 144명이다. 부속기관으로

는 중앙도서관, 전산정보원, 사회교육원, 사회봉사단, 국제어학원, 신문방송국, 보건소, IT교육원, 교육개발원, 창업보육센터, 체육부, 출판부, 한중교류센터, 과학영재교육원, 공동기기센터 등이 있고, 부설연구소로는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산업환경연구소, 경제경영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소프트웨어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소, 조형연구소, 한의학연구소, 성남발전연구소,



↑ 경원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 정원음악연구소 등이 있다.

재학생은 7500명이고 한해 입학생은 2000명이며 대학원생 1016명이다. 이들 중 서울 강남지역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 한의학, 디자인, 중국학, 소프트웨어 등을 특성화시키고 있으며 한의학의 경우 서울의 경희대학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유일하다.

부설연구소 중 성남발전연구소는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성남시 산업특성화라든가 의료사업극복방안 등을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다. 2006년에는 정원전문대와 통합할 예정이지만 그 때문에 갈등도 있다.

나. 동서울대학

북정동 423번지(전화 720~2114)에 있는 이곳은 1976년 학교법인 제석학원 설립인가를 받고, 1977년 '대우공업전문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1978년에 개교하여 1979년 대우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인가를 받았다. 1992년에 학교법인 학산학원으로 법인명 변경을 인가받고, 1998년에 '동서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설치학과는 공학계열에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테크노경영학부, 관광정보처리학부, 전기정보제어과, 디지털정보전자과, 정보통신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산업디자인과, 건축과, 실내디자인과, 컴퓨터정보과, 디지털방송미디어과, 시계주얼리과로 19개의 학과와 예·체능계열의 크래프트코디·디자인과, 광고디자인과, 레저·스포츠과, 방송연예과의 4개과, 자연과학계열의 패션디자인과, 뷰티코디네이션과, 아동보육과, 실버복지과의 4개과가 있다. 연무반, 현애울 등 28개의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매년 5월에 학생들의 축제인 북정축전이 열리고 9월, 11월에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시회, 발표회가 열린다.

대학본부는 산학협력처, 학사지원처, 학생처, 사무국, 기획처로 구성되어있다. 부속기관으로 도서관, 전자계산소, 원격교육연구소, 학보사, 방송국, 예비군대대가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산업기술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평생교육원, 어학교육원,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교직원인 교수 135명, 직원 60명, 조교 52명이다.

현재 재학생 수는 6300명이며 1년 입학정원은 2742명이다. 대부분 성남, 분당, 강남, 강동에 거주하고 있다. 학생자치 동아리는 26개가 있다. 학위만 줘서 내보내는 것이 아닌 짧은 기간에 현장에



↑ 동서울대학교

서 요구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문식 교육이 교육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동을 실시하여 전국 500여 업체, 성남시 소재 10여 개 업체들과의 산학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나 연수, 취업까지 연계되는데 동서울대학의 경우 공업계학과가 80%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공급할 인력이 많으며 취업률은 80%에 이른다.

(5) 기타 전문교육기관

가. 신일직업전문학교

태평1동 5188-1번지(전화 758~4500) 한국빌딩 4~5층에 있는 이곳은 1998년 12월 18일에 승인을 받아 12월 26일에 개교하였다. 멀티미디어, 웹디자인, 인터넷 홈페이지제작, 정보통신시스템, 영상편집디자인, 3D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입체영상, 3차원 투영, 웹기획, 웹프로젝트 매니저먼트 등 인터넷 세상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노동부지정 교육기관, 교육인적자원부 학점 운영기관, 정보통신부 지원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웹마스터, 웹디자인,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웹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 PC 수리&네트워크, Auto CAD, JAVA 프로그래밍, LINUX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전산세무회계, 투자상담사 과정이 있다.

구성 및 인원은 교장 1명, 행정실 1명, 교무과 1명, 디자인과 3명, 언어과 3명, UNIX 2명, 취업지원실 1명이다. 교육이 5~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학생수는 80~100명으로 유동적이다. 강사 수 역시 학기에 따라 유동적이다. 오전에는 미취업자, 오후에는 직장인 프로그램이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 단기과정으로 야간과 주말반이 있다고 한다.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대다수이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고 주부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생의 대부분은 성남과 서울학생들이다.

4·5층에 강의실이 6개 있고 교육시간은 주 5일, 50분 단위의 수업이 이루어지며 총 107일 84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웹프로그래밍 쪽의 지원자가 많다. 직업학교로 취업알선,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수자나 재학생에게 취업을 연계 해주기도 한다. 2004년 6월에서 12월 사이의 교육생의 취업률은 65%였다. 교육자원부에서 학점이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나 아직까지 학점이수과정을 개설하지는 않고 있다.

나. 서울국제학교

현재 성남시에 두 개의 국제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은행동에 있고, 하나는 북정동에 있는 '서울국제학교'이다.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상

으로 북정동 32번지 16호(전화 02-2233-4256)에 있다.

서울국제학교는 앞으로 다가올 지구촌시대에 걸 맞는 지도자로서 공동체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국제학교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73년이다. 해방 이후 최초의 외국인학교였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것은 1973년 6월 5일이다. 그때부터 계속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주한외국인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왔다. 처음에는 건국대학교 교정 안에 있었으며 1976년 당시에는 1개의 교실이 있었다. 1978년에 4학년제 고등학교의 첫 졸업이 있었다. 더 많은 학급과 교실이 필요하자 1981년, 현재의 부지를 구했고 한옥식 건물이 4년 만에 완성되었다. 건물 면적은 150,000평방미터였다. 1985년 많은 문화유산을 가진 아름다운 목조교사로 이사를 했다.

서울국제학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WASC(The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s)에서 6년마다 신임장을 받고 있다. 1985년, 1991년, 1997년, 그리고 2003년 봄에도 계속해서 신임장을 받았다. 이 신임장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WASC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 미국의 교육과정에 합당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침, 학제, 재정 등 모든 문제에서 외부의 교육전문가에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시에 미국의 다른 학교에 언제든지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학제는 미국식 학제에 맞춰 1년에 4학기로 구분되며 학제는 8월 중순에 시작해서 6월 초에 끝나도록 되어 있다. 2005년의 경우 8월 12일에 첫 학기가 시작하여 2006년 6월 7일에 마지막 학기가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냐고 묻곤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문화적인 환경에 걸 맞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만큼 특정한 종교에 대한 교육은 없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다. 현재 학생들의 95%는 한국계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로서 영어가 제일 교육언어로 사용된다.

교사는 주로 미국출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지만 캐나다나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출신들도 있다. 모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엄선한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은 모두 그 나라말을 모국어로 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 서울국제학교

현재 등록학생은 1100명 정도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으며 학급의 학생수는 일정하지 않고 실력에 맞춰 반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특별과외는 없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읽기나 쓰기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외지도를 하고 있으며, 영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ESL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주로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일부는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나라의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서울국제학교는 100%의 졸업과 대학입학을 자랑한다.

서울국제학교의 교육목표는 서울이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구적이며 활동프로그램 모두에서 문화적 혼합과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

3. 문화예술기관

(1) 성남시민회관

성남시청 부지(전화 729~5400)에 있는 이곳은 1979년 8월19일에 착공하여 1981년 7월1일에 개관하였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1층 626석, 2층 442석의 대강당 · 296석의 소강당 · 소년소녀합창단 · 예총 · 시립합창단 · 구내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문화행사와 개인이나 단체공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까지는 시민회관을 성남시에서 관리했으나 현재는 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조직구성은 시민회관 운영부장 1명, 차장 2명, 사원 3명으로 공무원이 아닌 재단법인 직원들이다.



↑ 시민회관

기계, 난방, 서무, 전기, 대관, 음향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는 대관업무만 하고 그에 대한 대관료만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축제나 이·취임식, 연극 · 콘서트 · 공연, 단체 교육장소 제공, 영화상영 등의 행사에 대관한다. 내년부터는 시민회관 자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회관 자체 홈페이지는 제작 중에 있으며 이용에 관한 내용은 사단

법인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nart.or.kr>)에 나와 있다.

4. 기타 시설

(1) 성남하수처리장

복정동 294번지(전화 729~5814)에 있는 이곳은 1978년 10월 위생처리장이 있었던 것을 1991년 서울 송파구 장지동과 경계지역인 복정동 294번지 일대 81533평의 부지에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건설하였다.

하수처리과장 하에 하수행정팀, 하수시설팀, 하수처리팀, 수질관리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인원은 54명으로 일반직 18명, 기능직 24명, 청정 3명, 일용직 9명이 근무한다. 2004년 기준 하루 평균 425,47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주로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1998년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자 생활하수가 급증하고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까지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갖추는 등 각종 증설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 하수종말처리장

(2)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

태평3동 3742번지(전화 750~3114)에 있는 이곳은 1965년 개소한 성동영업소 단대리 출장소가 발족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설립을 계기로 1982년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으로 승격되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전역의 전력공급과 관내 전력공급설비 신증설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고객편의 위주의 전력사업 및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점장



↑ 한국전력 성남지부

이하 영업운영부, 영업부, 배전부, 배전운영부가 있으며, 간부 15명, 5~6급이 36명, 7급이 26명, 8급이 10명으로 총 87명이 근무하고 있다. 수납업무는 위탁원이 맡아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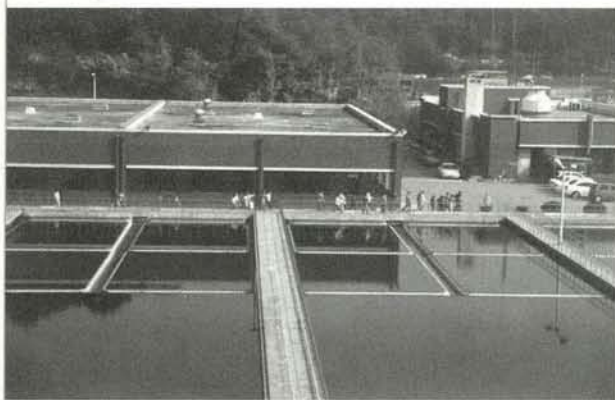
성남시에 소요되는 전력량은 2004년 10월의 경우 586,704MWh이며 수정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력량이 적은편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구시가지는 시내도로가 협소하여 전력설비구성과 유지보수작업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 판교 등지의 택지개발로 인해 전력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북정정수장

북정동 515번지(전화 729-5861)에 있는 이곳은 1970년 서울시에서 탄천에 심정호 3개를 설치하여 급수하였던 것을 1971년 서울시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하여 성남출장소 수도과가 발족하였다. 1973년 성남시 승격으로 성남시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였다. 1978년에는 북정정수장 1차 5만톤 준공으로 총 일일 75,000톤의 시설규모를 확보하게 되었고 1984년에는 북정정수장 2차 5만톤 준공으로 총규모 125,000톤을 확보하게 되었다. 1999년 9월에는 상·하수도 통합운영으로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개편하였다. 정수과장 하에 정수생산팀, 시설운영팀, 수질시험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이 16명, 기능직 34명, 일용직 9명, 청정 4명으로 총 63명이 일하고 있다.

한강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성남과 서울의 경계지역인 북정동에 위치하게 되었다. 한강과 팔당에서 물을 끌어와 정수하여 급수하고 있으며 하루 340.968톤을 생산하여

281,747톤을 급수하고 있다. 북정정수장은 양지배수지, 창곡배수지, 상대원1배수지, 상대원2배수지, 태평주배수지, 태평1배수지, 태평2배수지, 중동배수지, 희망대배수지, 하대원배수지, 분당2배수지, 분당1소배수지로 급수하고 있으며 이외의 이매동·야동·금곡동·구미동·운중동·고등동·판교동 등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성남정수장이 급수를 담당하고 있다.



↑ 정수장

(4) 공원

성남시 전체적으로는 수정구 13개, 중원구 8개, 분당구 101개, 총 122개의 공원이 있

다. 현재 조성된 공원이 114개이고 추진 중인 공원이 8개이다. 수정구에는 현재 조성된 11개 공원 중 근린공원이 5개, 어린이 공원이 6개이다. 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으로 태평공원과 근린공원으로 삼평공원이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원이 다 조성되고 나면 총 13개의 공원이 있는 셈이다.

그 가운데 북정·태평동 지역에는 영장공원이 있다. 앞으로 조성될 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 속하는 태평공원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미조성된 상태다. 그런데 수정구 전체 6개뿐인 어린이공원 가운데 북정동에만 무려 5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다. 이것은 북정동이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남시 122개 공원 가운데 분당구에만 101개의 공원이 밀집해 있는 것과 같다. 그만큼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그에 비례해서 도시생활에 공원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 영장공원¹²⁷⁾

이름에서 보듯이 영장산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수정구 일대의 신흥동, 태평동, 북정동, 산성동에 걸쳐있다. 영장산의 기존 산림지형을 이용하여 산책로 주변을 수목식재로 조성했다.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어른, 노약자 등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고, 특히 맨발 지압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공원산림 내에 야생화를 심어서 공원 이용객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면적은 538,022㎡이며, 조성면적은 92,555㎡이다. 조성기간은 2000년 4월 4일부터 2000년 12월 22일까지였다. 총 사업비 5,700만원이 들었다. 그 가운데 시설비가 1,700만원이고 토지보상비가 4,000만원이다.

공원에 있는 시설물로는 1km에 이르는 산책로와 10개의 그늘시렁, 정자 1개, 2단폭포 1개, 야외탁자 12개, 의자 82개를 설치하였다. 유희·운동시설로는 배드민턴장 2개, 게이트볼장 1개, 농구장 1개, 발지압장 3개, 기타 체육시설물, 역기대 등 7개, 놀이터 2개소가 있다. 교양·문화시설로는 야외무대 1개소, 탑, 기념비 1개소, 교통교육장 1개소가 있다. 편익시



↑ 영장산 약수터

127) 성남시, 『공원현황』, 2005

설로는 마을마당 스탠드, 이동식화장실 1동, 약수터 1개, 조각품 4개가 있다.

나. 짜투리공원

공원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박한 것이 '짜투리공원' (태평3동 4559번지)이다. '짜투리'라는 말은 남아 있는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지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성남시에는 짜투리공원처럼 조성된 공원이 의외로 많다. 태평3동에만 해도 8개가 있다. 호주머니공원, 별장공원, 은행나무공원, 짜투리공원, 태평공원, 태평쉼터, 숲골쉼터, 동사무소부속건물쉼터가 이때 조성된 공원들이다. 이런 공원들은 태평동 일대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공원을 계획할 정도로 계획적으로 조성된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개발되기전까지는 짜투리 형식의 공원이 아닌 제대로 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작은 공원들은 법적으로 공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사실 공원이라기보다는 '마을쉼터'라는 편이 맞다. 때문에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공원현황에도 나오지 않는다. 본래 공원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짜투리 공원 같이 동사무소에서 시행한 작은 공원들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원조성은 했지만 사후관리·보수에 관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공근로자로 배정된 사람들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다.

경원대역에서 봉곡사 쪽으로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청우아파트를 열고 신축 중인 아파트공사장이 있다. 그 뒤편으로 작은 골목을 따라 예닐곱 집을 지나면 육각형으로 된 통나무로 지어진 정자가 있고 주변에 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

다. '짜투리공원'이라는 간판이 없다면 아무도 공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작다. 흔히 생각하는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잣대를 대기 힘든 곳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식처라는 점에서 이곳은 분명 공원이다. 정자의 처마 밑에는 현판에 '짜투리 공원'이라는 필기체 글씨가 새겨져 있다. 또한 "이곳은 주민들의 힘으로 지은 짜투리 공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이 있다.



↑ 짜투리공원

공원은 쓰레기도 없고, 정자의 마루도 깨끗하고, 관목들도 손길을 받고 있는 듯 정돈되어 있다.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들을 보내서 매일 아침 청소를 하기 때문이다.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할머니들이다. 여름이면 이곳 정자에 나와서 부침개도 해드시고, 밥을 지어 먹기도 한다. 이곳은 여름이면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여 햇볕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쉼터로서는 안성맞춤이라고 한다. 차가 다니기 힘든 짜투리공원 옆의 골목에서는 가끔씩 아이들이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학원에 갔다 오는 아이들이 앉아서 쉬기도 한다.

짜투리공원이 있는 땅은 시유지에 속하는 곳이었다. 과거 청계천 철거민들을 이곳으로 보내면서 20평씩 땅을 분양했는데 법적으로는 1인당 공유면적이 5평은 되어야 하고 주택부지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7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곳의 집들은 한결같이 20평인 것은 당시 특별조치법까지 동원해서 20평씩 분양하고 땅값을 받아 집을 짓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마저 내지 못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문제는 그런 땅이 여러 곳 남게 되면서 이런 곳이 쓰레기장처럼 되어갔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8년 IMF가 터지면서 성남시와 구청에 실업대책반이 구성되었다. 실업자 구제책으로 공공근로제도가 시행되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3~4명 정도가 팀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이때 기획된 중요한 사업이 국토공원화사업이었다. 학교 조경, 가로수 조경, 놀이터 정비 등 이런 것이 모두 이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세부지침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태평3동사무소에서는 쓰레기장처럼 된 이런 곳을 작은 공원으로 꾸미는 일을 추진하였다.

국토공원화사업 가운데 '숲가꾸기' 사업이 있었다. 나무가 많아서 밑에서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생기자 숲을 가꾸는 차원에서 간벌사업이 시행되었다. 짜투리공원 같은 소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용된 나무는 모두 이 당시 베어진 나무를 얻어다 사용했다. 당시 성남시에는 각 동마다 1톤 트럭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성에 필요한 인력은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했다. 이런 과정에서 '짜투리공원'이 조성되었다. 당시 동원된 인원이 하루 평균 30명이었고, 1999년 5월 20일 시작해서 6월 20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약 10평(31제곱평방미터)의 땅에 육각형 정자를 하나 지을 수 있었다.

III. 마을의 생업과 경제

1. 지역의 물리적 성장과정

(1) 도로망과 지형

조선시대에 형성된 도로망은 근대 이후에 도로를 만들 때 그 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서울을 중심으로 한 X자형 교통망은 이미 조선초기부터 나타난 도로가 정비되면서 이룩된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도로는 1535년(중종 30)에 도로망의 역제를 চাল방제로 확립하면서 조선후기까지 유지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조선 시대에 역이 가장 많았던 군현은 광주군과 양주군이다.¹²⁸⁾ 두 군은 면적이 넓기도 하였지만, 서울과 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도로의 중요성이 초기부터 컸다.

『도로고』에서는 경기도 내의 6대로의 경로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성남과 관련이 있는 제4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된 도로이다. 주요 군현으로는 광주, 용인, 양지, 죽산을 경유하고 있으며, 양재도 관할이다. 주요 역으로는 양재(과천), 낙생(광주), 구흥(용인), 금령(용인), 좌찬(죽산), 분행(죽산), 무극역(음죽) 등이 있고, 그 경로는 서울-한강-신원점-현천현-판교점-협천-열원-용인-박군윤현-직곡점-김량장-양지-좌찬역-기안점-진촌-광암-석원으로 이어졌다.¹²⁹⁾ 이 도로는 오늘날 강남대로-393번도로-42번국도(용인-양지)-17번국도(양지-죽산)로 연결되다가 죽산면 매산리에서 분행역을 서쪽으로 끼고 남동 방향으로 이름 없는 도로를 따라 이천군 울면 산성리(석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조선시대 도로망은 근대 이후 도로 정비의 기초적인 인프라로 활용이 되었다.

근대 이후 성남의 도로망 정비는 성남의 지세와 연관이 깊다. 성남지역 내의 도로망은 단대천과 대원천이 흐르는 동서 방향으로 대봉로와 중앙로가 놓였고, 이와 직각으로 만나는 소지류의 침식곡을 따라 제일로, 수진로, 공단로 등이 놓여서 격자 모양을 띠고 있다.¹³⁰⁾ 도로 사이에 격자 구역은 주택, 상업시설, 공업 단지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 복정동의 경우, 성남과 서울 송파구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대가 높지는 않다. 하지만, 태평동은 전반적으로 동네의 고도차가 꽤 크다. 즉,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

1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기지역의 향토문화』, 1997, 157~180쪽.

129) 『도로고』, 권 1, 규장각 소장, 1770년(영조 46)

130) 토지박물관,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41~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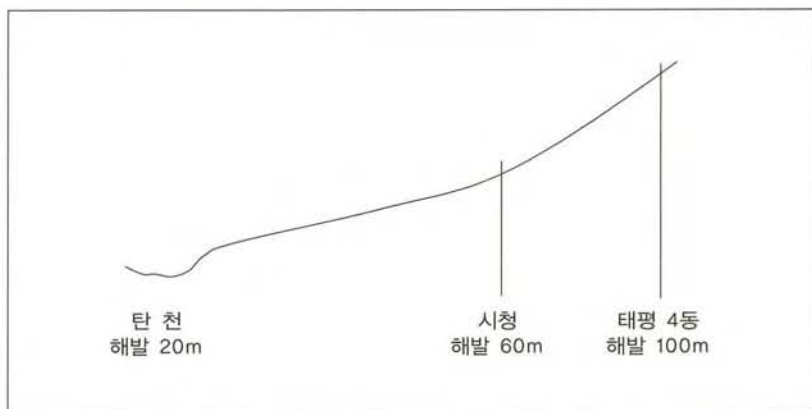
가 높은데, 남북 방향으로 나있는 성남대로를 비롯한 중심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능선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은 초기에 태평동 일대가 임야였는데, 도로 및 택지를 조성하면서 임야를 고른 땅으로 만든 후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무 및 지표만을 일부 정리하고 도로 및 택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원래의 지세대로 도로가 형성된 것이다.

1965년에 작성된 『서울시 都市勢力圈內時間帶調查報告書』에 따르면, 성남이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당시의 이유를 첫째, 외진 산골 지역이어서 지가가 저렴할뿐더러 대부분이 임야인데다 또 국유지가 많아 선투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며 둘째, 특히 지역 개발에 호응하는 원주민이 많을 것으로 믿어져 토지매입이 순탄할 것이고 셋째, 지가가 저렴하여 철거민들로부터의 지가환수가 용이할 것이며 넷째, 주택 건설에 있어서 철거민들의 자비부담 능력이 빈약하여 주택형태가 도시품격을 해칠 우려가 다분하나 개발된 타지역에 비하여 문제성이 적을 것이라고 한다.

당시, 성남시 개발에서 재정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보고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개발요인은 산림을 표면만 고르고, 고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개발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남시의 정북 및 정남 방향은 용인시 구성면 석성산에서 발원하는 탄천이 흐르고 있다. 하천변 충적지는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가 용이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농경지, 취락 입지로 이용되었다. 탄천 본류가 흐르는 지점들은 해발고도 20m 내외이며, 연안의 복정동, 시흥동, 여수동, 판교동, 금곡동, 운중동 일대가 성남시의 주요 농업지대를 형성해 왔다. 하천 주변이 특히, 충적지이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역시 탄천 주변지역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탄천 연안의 충적지를 따라 남북으로 뻗어있다.

반면, 동쪽의 구릉지성 산사면은 해발고도 100m 이상의 지역으로 태평 4동, 시흥 2동, 단대동 일부, 산성동, 은행 1동, 2동, 금광 1동, 상대원 1동, 2동, 3동 등이 경사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이밖에 성남시 안에 있는 많은 고개 이름은 성남시가 얼마나 지표면 굴곡이 많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고개로 수진이 고개(태평고개), 모란고개, 상대원 고개, 중동 고개, 서낭당 고개, 희망대 고개, 대원 고개, 성당 고개, 시청 앞 고개 등이 있다.



↑ 성남시 고도 분포

조사자가 이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주로 복정동에 있는 안말, 창말 등은 해발 고도가 탄천의 고도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지역이었다. 반면, 성남대로를 타고, 태평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당의 완만한 도로에서 성남에 진입하면서 부터 모란 고개, 태평 고개 등을 넘어야 했다. 특히, 태평동 지역은 초기에 산을 그냥 깎아서 해발 고도에 대한 고려 없이 택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과거 '숯골' 자리는 산 아래쪽 해발고도가 높지는 않지만, 태평4동 지역의 경우, 고지대에 주거지가 들어서 있고, 주거지 사이에는 좁은 골목길이 나있는 상황이었다.

(2) 지역 장시의 발달

성남지역의 경우 조선후기 장시의 상황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근거로 살펴보면, 판교 부근에서는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의 월 6회 개시하는 '낙생장'이 보인다. 조선 후기 송파장이 나타난 지도에 따르면, 낙생장은 1일, 6일, 성내장은 2일, 7일, 판교장은 3일, 8일, 과천장은 4일, 9일, 송파장은 5일, 10일장으로 나타난다. 인근지역에서 장날이 겹치는 것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시장권의 영역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장시의 날짜를 통해 추정할 때, 판교와 인접한 낙생장에서 출발한 상인들은 남한산성 근처의 성내장으로 갔고, 다음에는 판교장을 거쳐 과천장으로 간 다음 송파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18세기 상업적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으로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확대되고, 5일장 상호간의 경제적 유대 범위가 종전에 비해 확대되었다. 몇 개 고을을 묶는 시장권이 형성되고 일부 장시는 지역적 시장권을 벗어나 전국적 범위로 장권을 확대해 나갔다.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 의하면 전국의 장시는 평안도 134, 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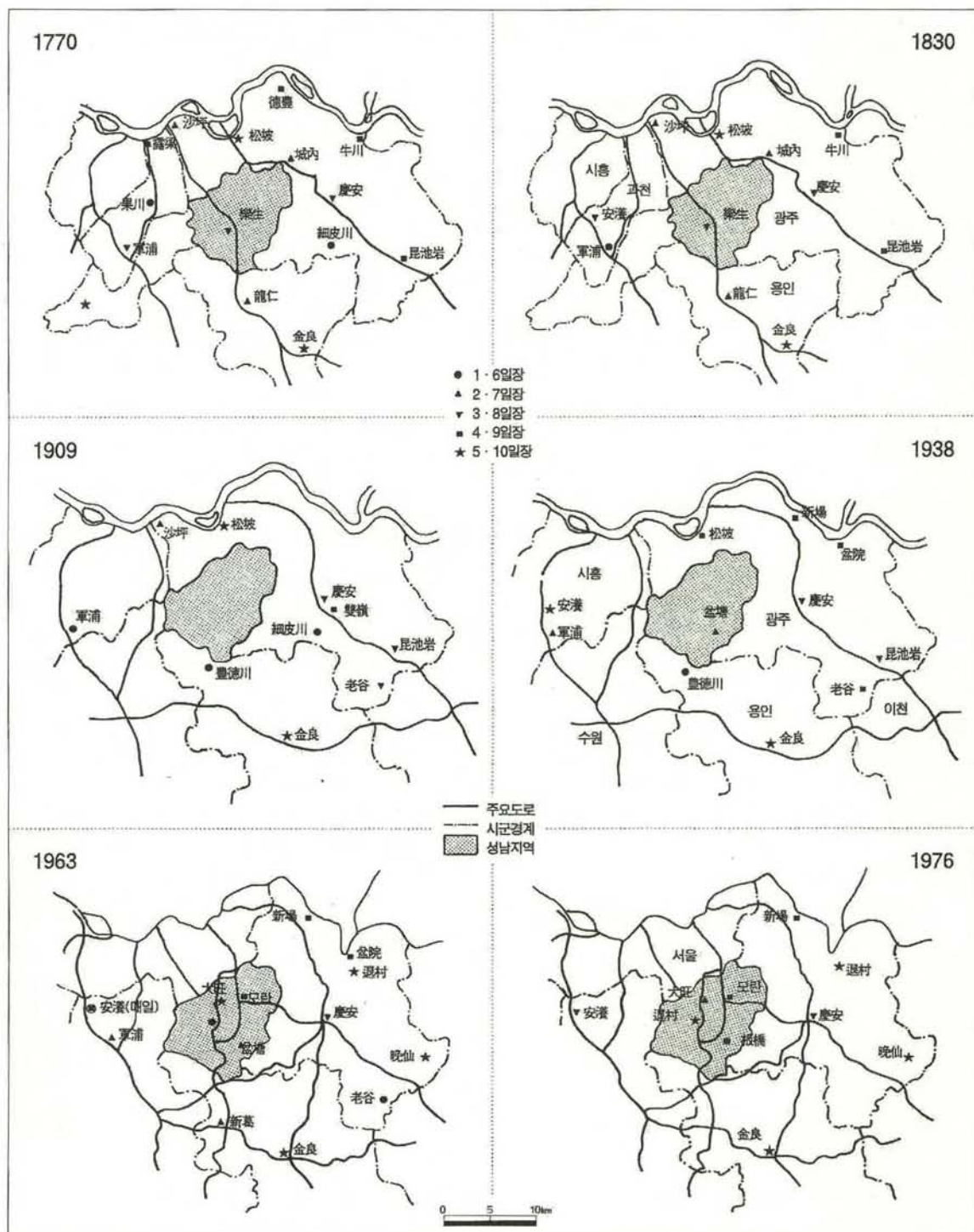
도 28, 황해도 82, 강원도 68, 경기 101, 충청도 157, 전라도 216, 경상도 278개소로 모두 1,064개소에 달했다.

5일장은 군마다 보통 3개소에서 4~5개소로 서로 다른 날짜에 번갈아 열렸으므로 5일장은 지역사람들에게 상설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5일장 체계의 형성은 적어도 한 군의 범위에서 교환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지역적 시장권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5일장은 80년대 상설시장이 들어서기까지 물품의 유통과 거래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만남의 장으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성남의 경우 판교장은 5일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필품을 교환하는 유통 중심지였다. 주변의 분당장과 대왕장이 개설되어 유통망을 형성하면서 판교는 경제적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17세기 이후 경기지역에서도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울 근교인 왕십리의 무, 청파의 미나리, 이태원의 토란, 석교의 가지, 오이, 수박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수원에서 미나리와 채소가 집중 재배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판교지역에 섰던 조선시대 '낙생장'의 거래 품목은 이와 유사한 상품이 주류를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6.25전쟁 이후, 성남 주변의 경우, 상등답을 제외한 대개의 전답은 곡물보다는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여기서 생산한 생산물은 대부분 서울로 반출되어 매매되었는데, 주요한 판로시장은 청량리시장, 동대문시장, 왕십리 중앙시장 등이었다.

1965년 이후, 성남출장소가 들어서고 이 지역의 도시개발이 촉진되면서, 일차적으로 서울의 철거민들과 다른 지역의 주민 유입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활동을 촉진시켰다. 특히, 중앙시장과 성호시장이 초기에는 길거리 노점으로 시작하여 점차 상설시장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복정동, 태평동의 경우에는 중앙시장이 인접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이 확대되었다. 반면, 5일장은 1970년대 이후부터는 상설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 이용자 중 소비층이 줄어들게 되었다. 5일장의 경우, 오히려 농업 및 축산 생산자 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이 지속되긴 하였지만, 상설시장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하였다.



↑ 성남지역 1770~1976까지의 장시망의 변화(『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50쪽)

2. 일상의 경제활동

(1) 창곡동 사례

창말¹³¹⁾은 성남 방향에서 성남대로를 거쳐 복정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조금 가다가 '우남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된다. 창말은 남한산성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주변에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창말은 웃말(양지말), 건넛말(옹달말), 세자골로 불리는 3개의 자연촌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웃말과 건넛말은 개천을 사이에 두고 있어 과거에는 구분이 되었으나 개천이 복개된 후로는 왕래가 수월하여 뚜렷한 구분이 없다.



↑ 창말 앞 벼농사 지역



↑ 창말 앞 밭농사 지역

창말은 전반적으로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주택, 한국전쟁 이후 지어진 주택, 그리고 최근에 들어선 집들이 함께 마을을 채우고 있었다. 현재는 최근에 지어진 집들은 많지 않고, 외형은 과거에 지어진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부만 개조한 경우가 많다. 수십 년 전에는 가득히 주택이 들어서 있었으나 택지가 자기 땅이 아닌 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간이골 등지에 택지가 조성되면서 그곳으로 이주하여 그들이 살던 집터들은 주택이 헐리면서 밭이 되었다. 마을 내부에 이렇게 형성된 밭에는 여러 가지 작물이 심어져 있다. 현재 이 마을에서 키우고 있는 밭작물은 옥수수, 깨, 열무, 콩, 토마토, 호박, 고추 등이다. 마을 앞에는 논이 있어 벼가 재배되고 있다.

가. 일상 경제생활 사례¹³²⁾

허옥희는 서울 양재에서 태어나 혼기가 되자 1946년 창말로 시집을 왔다. 한국전쟁 때는 창말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나 다행히 북한군, 중공군, 한국군 등이 왔지

131) 여기에서는 창곡동 중에서 창말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132) 제보자 : 허옥희(1930년생), 조사일 : 2005년 7월 25일, 장소 : 마을회관, 이갑성(1942년생), 조사일 : 2005년 7월 29일, 장소 : 마을회관

만 마을에 피해는 거의 없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마을 사람들의 주요 생업이었던 농사를 지었다.

논농사의 경우, 모내기를 빠르면 5월 초, 늦으면 5월 말에 물의 여건을 보아 하였다. 창곡 마을의 논농사는 주로 천수답으로 비가 충분히 내리기를 기다렸다. 특히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을 유도해서 수로를 통해 효과적으로 물대기를 하였다. 당시 산골과의 거리가 가까운 논과 먼 논 사이에는 물 공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동네 사람끼리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갑성에 따르면, 천수답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샘을 팠다고 한다. 그 샘을 농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2인 1조로 두레박을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샘을 파서도 물을 대기가 어려운 논은 어쩔 수 없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모내기를 해야 했는데 그러한 논을 '마냥모'라고 하였다. 즉, 마냥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모를 낸다는 뜻이다. 모내기를 하고 나서, 김매기를 할 때도 사람들이 품앗이를 하였는데, 김매기는 두벌매기까지 한다. 애벌매기의 경우에는 호미로 잡초를 뽑았고, 두벌매기는 손으로 직접 작은 풀들을 뽑아 낸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마을에 '두레'가 있었는데, 품물놀이도 함께 하였다. 이갑성에 의하면, 창말의 두레는 농사조직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난 두레라기보다는 흥을 돋우는 일종의 농악대를 두레라고 할 만큼 활발하지는 않았다 한다.¹³³⁾ 오히려 농사 일은 품앗이를 통해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은 서로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논농사를

도와주고, 자신의 논농사를 도움 받는 식으로 운영되었고, 논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돈으로 계산하여 공동으로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갑성 씨에 따르면, 60년대 초의 품삯은 보리쌀 2뿔박 반 정도 약 3.5 kg의 양을 지불하였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 논농사의 생산량은 평균 1마지기에 벼는 4가마, 도정한 쌀로는 2가마 정도인 양식논이 대부분이었다고



↑ 고추를 말리고 있는 창말의 한 주민

133) 두레에 관련된 의견을 허옥희와 이갑성로부터 들었지만, 그 이전 한말의 상황에 대해서 이 마을에서 있었던 농업조직 내지는 단체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고증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두레에 대한 의견도 제보자들이 기억하는 수준에서 서술한 것이므로 한말 상황까지 소급해서 이 마을의 두레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힘들다.

한다. 허옥희는 20마지기의 논을 경작하였는데, 쌀로는 40 가마 정도가 60년대 생산량이었다 한다. 그녀의 당시 가족은 5인이었는데 가족들과 농사철 일꾼 등에게서 소비되는 쌀량이 15가마니 정도였고, 나머지 25가마니는 송파장 쌀가게에 넘겼다고 한다. 1954년도 쌀 한가마는 약 7천원에서 거래가 되었고 1960년대 초반에 만원 에서 6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쌀 가격이 높아지면서 5~6만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쌀을 팔아서 남긴 돈은 비료, 사료, 설비, 인건비로 재투자 되었다.

허옥희 닥은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도 지었는데, 밭작물로는 보리, 조,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심었다. 콩은 보리를 심어 수확이 끝나면 밭을 엮은 후에 심었다. 시기적으로는 음력 5월 그믐께에 보리를 베어서 수확하고 땅을 갈아엮은 후, 콩을 심었다. 콩을 심은 후 8월 그믐께에 다시 콩을 수확하고, 다시 보리를 심는 방식으로 밭농사를 하였다. 보리는 한 밭에서 매년 경작하지는 않았고, 지력을 위해서 보리를 가끔씩 쉬기도 하였다. 조와 콩을 번갈아 가면서 함께 심는 경우도 있었다.

허옥희는 6.25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에 포목장사를 했다. 일단, 포목을 동대문시장, 송파시장 등 큰 시장에서 구입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짐을 머리에 이고 다녔다. 특히, 그녀는 강남의 양재를 그 주된 판매 장소로 하였다. 양재 쪽은 친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강남 부근에서는 주로 과수 및 채소 등 도시 근교 상업농업 작물이 많이 경작이 되기 때문에 화폐유통이 창곡리나 당시 성남보다 활발히 전개되었기 때문에 판매시장을 양재 쪽으로 잡은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유효했다. 이때 당시에는 빗, 실, 바늘을 비롯하여 각종 물품을 이고 팔러 다닌 박물장사가 있었고, 또한, 잡동사니, 요지경 등 물품과 잡화를 취급하는 어리장사가 있었다. 어리장사는 바구니를 지고 다니는 박물장사와는 달리, 지게를 층층이 나누어서 팔 물건 별로 분류해서 운반하여 판매하였다. 이러한 포목장사 일이 가능한 것은 당시 전쟁이 끝나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이었다.

50년대 말에 포목장사를 그만두고 농사에 전념하였다. 특히,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 과일, 채소류를 밭에서 많이 생산했다. 벼농사도 지었지만, 계절성이 강한 토마토, 고추, 참외, 복숭아 등의 작물을 밭에 경작하면서 생산성과 이윤의 측면에서 성장을 보였다. 당시에 과채류



↑ 조학년씨 닥 텃밭에 심어진 야채



↑ 창말의 참깨가 심어진 밭에서 아이들이 꽃잎을 따먹고 있다

를 집하하는 조합이 창곡리 마을 단위로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동네에 공동 트럭이 있어 여름과 가을에 수확하는 과채류를 모아 청량리, 동대문, 천호동시장 도매상에 넘겼다. 1970년대 초반에는 매일 시장에 출하할 정도로 생산량 및 수요가 커졌다. 과채류의 경우 서울 근교농업은 당시 전국 고속도로망이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타 지방에서 올라오는 과채류보다 경쟁력이 있었다. 가격도 70년대 초의 도시개발과 함께 물가가 상승

하면서 과채류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윤을 획득하기에 적당하였다. 허옥희는 1980년 초까지 즉, 50대 초반까지 도시 근교의 이점을 살린 농업 생산을 통해서 가정을 남편과 함께 끌어나갔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집에서 먹을 식량만큼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 농지들은 빌려주어 소작료를 받는다.

이후에 시장은 주로 서울 송파에 있는 가락동 시장을 출입하면서 생활하였다. 오늘날에는 성남의 경우, 5일장으로는 '모란장'이 유명하지만, 모란장은 70년대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장이다. 창말 인근에 상설시장이 나타나기 전에 자주 갔던 5일장은 송파장, 판교 고등리장, 모란장, 경안장이 대표적이다. 이들 장시의 경우, 서로 장시가 열리는 날짜가 달랐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시장을 방문할 수가 있었다.

이갑성의 경우에도 60년대부터 논농사를 탈피해서 일명 '초식' 즉, 과채류 재배를 시작하였다. 주로 심은 작물이 오이, 호박, 참외, 파리 고추였다. 주로 동대문, 남대문, 청량리 쪽으로 출하를 하였고, 가락시장이 생긴 후에는 가까운 그곳으로 농작물을 출하하기 시작하였다.

창말의 경우, 2004년까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변화가 없었다. 마을에 밭이 중앙 및 산 아래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2005년 7월 말 현재 밭농사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주민을 쉽게 볼 수 있다. 제보자들도 농사를 과거처럼 많이 짓지는 않지만, 집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채소류는 직접 경작해서 사용하고 있다.

복정동에서 창말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원예 하우스가 7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원예 하우스를 짓고 원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들

어와서 지역민의 토지를 빌려서 시작한 경우와 토지를 처음부터 사서 시작한 경우가 있다. 현재 북정동 사거리와 안골과 창말 입구 대로가에 형성된 원예단지에는 IMF 사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일부 원예 종사자들은 판교 주변과 중원구 궁내동과 도촌동으로 이동하였다. 주변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지가가 상승하여 임대료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지역 원예 하우스가 다루는 작물로는 초화를 비롯하여 난, 관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 북정동 사례

북정동은 성남대로를 따라 모란역, 태평역을 거쳐 경원대역을 지나면 바로 오른쪽과 왼편에 있는 동네이다. 현재 성남대로의 오른쪽에 있는 주거지들은 거의 1997년 이후에 북정동 주민들의 토지를 환지의 방식으로 개발하면서 형성된 신주거지이다. 반면, 왼쪽에는 일부 주거지만 있을 뿐인데, 상대적으로 오래된 집들이 있는 지역이다. 북정동은 서울 송파구와 바로 접해있는 곳인데, 개발이 되면서, 토지가 없는 원주민의 경우, 이주를 한 상태이며,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일부 남아있고, 새로운 주거지 및 상가에는 서울에 출퇴근하는 직장인, 동서울 대학 교직원이나 학생, 그 밖의 외지인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다.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및 건물의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나 성남대로 바로 뒷편 이면도로에는 상업지역이 들어서 있어 복잡하다. 북정동 주거지들은 3~4층의 다세대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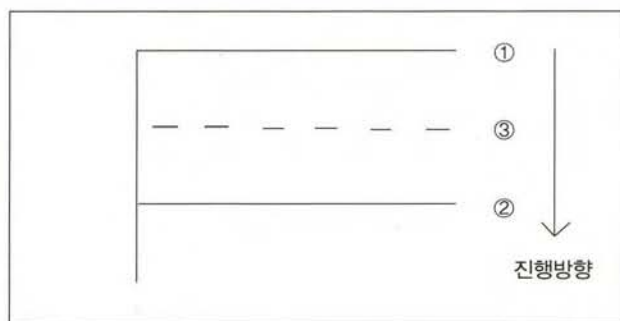
가. 일상의 경제생활 사례¹³⁴⁾

심영식은 과거 북정동 기와마을에 살았는데, 그 마을은 웃말, 아랫말, 건넌말, 그리고 구석말 이렇게 4개의 자연마을로 구분되었다 한다. 요즘과 같이 성남이 개발되기 전에는 북정동에서도 전통적으로 농업이 주된 경제활동이었다. 과거 모내기를 내기 전에 먼저 소를 몰아서 쟁기질을 하였다. 4월 쯤 겨울에 얼은 땅이 풀린 다음에 쟁기질을 시작하였다. 심영식의 기억에 의하면 해방 무렵 기와마을에는 집이 약 40호 가량이 있었고, 동네에 소는 4마리 정도가 있었다 한다. 소를 몰아 쟁기질을 할 때는 3번을 반복해서 갈아 주어야 하는데, 한번 쟁기질 하면 한쪽 방향으로 흙이 넘어가게 된다. 2번째 쟁기질은 간격을 두고 반대 방향으로 흙이 넘어가서 서로 포개어지게 쟁기질을 해준다. 3번째 쟁기질은 양쪽에서 한쪽으로 포개어진 흙의 중간을 갈라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쟁기질을 한 다음에는 고르게 덩어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서래질을 한다. 봄에는 참나무 잎 사귀로 만든 거름을 눈에 뿌려서 지력(地力)을 보완하였다.

134) 제보자 : 심영식(1929년생), 조사일 : 2005년 8월 5일, 장소 : 노인정

주민들은 각자 자기 논에 못자리를 만들어 벼씨를 파종하였다. 심영식의 논은 한때 8마지기였는데, 당시 못자리 크기는 200~300평 되었다. 모내기는 늦어도 6월 초순까지는 끝냈다. 논에 물이 없으면 모내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내기 날짜를 잡는 데는 물의 양이 중요하였다. 논에 물을 대는 방식은 논이 어떤 지형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탄천과 거리가 가까운 쪽에 있는 논에는 강물을 대어서 모를 냈고, 강물이 여의치 않는 곳은 샘을 파서 웅덩이를 활용하였다. 그마저 되지 않는 논은 그야말로 하늘만 보며 비가 오길 기다리는 '천수답'도 있었다.

모내기 방식은 줄모를 활용하였다. 즉, 논이 가장자리에 하나의 줄(그림에서 왼쪽의 줄)을 쫓은 다음에 그 줄과 직각이 되게 다른 하나의 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옮겨가면서 모를 내는 방식이다. 모를 심는 순서는 아래 순서와 같다. 즉, ①번 줄에서 심고, 다음 ②번으로 줄을 옮겨간 다음 그 줄에 심고, 그리고 ①과 ③사이에 모를 심으면서 진행한다. 심영식은 산골과 벌판은 줄모의 간격을 달리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 줄모를 내는 방식

즉, 산골의 경우, 벼의 간격을 좁게 약 5치 정도로 해서 심고, 벌판의 경우 넓게 약 7치 정도의 간격을 만들어 심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논바닥의 수온차가 나기 때문에 주로 산골의 경우, 샘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서 벼가 자랄 때 포기가 좁게 퍼지는 생장 현상을 나타내고, 벌판의 경우, 봇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온이 상대적으로 산골보다 높아서 벼가 생장을 할 때 포기가 넓게 퍼지므로 모를 내는 간격을 논에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였다고 설명한다.

너무 가물어 모내기가 힘들어 모내기 날짜를 넘기면 메밀이나 콩을 심었다. 대개 모내기를 하고 보름 정도가 지난 후에 첫 김매기를 한다. 모내기와 2번의 김매기, 그리고 수확을 할 때는 품앗이를 하여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두레와 같은 좀 더

조직화된 형태가 발달되지 못한 이유를 심영식은 마을의 호수(戶數)가 적어 굳이 두레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한다.

밭농사는 주로 보리, 콩, 조를 심었다. 일단, 하지 전에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땅을 갈아 엮고 콩 등을 심었다. 조의 경우 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부터 복정리 산골에는 파리고추를 특화시켜서 심었다. 당시 기와골과 안골이 합쳐서 1트럭씩 수확을 해서 신당동 중앙시장으로 팔았다. 점차적으로 다른 상업 작물을 서울 근교농업의 입지를 활용하여 경제생활로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보리와 콩을 경작하던 밭에 다른 작물들을 심기 시작하였다. 즉, 상업 작물을 심어서 판매하여 필요한 보리나 콩 등을 다시 시장에서 사는 쪽이 더 이익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에 심영식은 농기구를 살 때는 상설시장이 들어서기 전이므로 송파장, 고등리장, 낙생장과 같은 5일장을 활용하였다. 경안장은 우시장으로 당시에 유명했다고 한다.

1970년도 초에 성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복정리에서 탄천에 인접한 논은 물사정이 나빠지게 되었다. 원래 강 주변에 보를 만들어 농사에 활용하였는데, 탄천이 성남개발로 오염되면서 보가 터지게 되었고, 그것은 농사를 그만두게 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골짜기 쪽의 샘을 이용하던 논은 최근 3~4년 전까지도 농사를 지었다. 봇물을 쓰던 논은 1970년대 초부터 파,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렇게 재배된 작물은 가락시장으로 팔려 나갔다. 1974년부터는 외지인들이 그 땅을 빌려서 하우스를 짓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결국 탄천 주변의 그 논은 1991년도 '복정하수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수용된 후 사라지게 되었다.

심영식은 동네 친목계를 1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2달에 1번 모임을 가지는데, 회비는 3만원이다. 이 계의 경우, 결혼과 같은 좋은 일에는 따로 도와주지 않고, 장례 때에만 약 20만원 정도 계에서 지원을 한다.

(3) 태평동 사례

태평동의 두드러진 물리적인 특징은 과거 산지(山地)를 표면만 정비해서 택지로 썼기 때문에 경사면에 주거지를 비롯하여 각종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다. 동서 및 남북 방향으로 경사와 굴곡이 심하다. 태평동 저지대의 경우, 시장, 은행, 복지회관 등의 다양한 동의 시설물 및 단체들이 들어서 있고, 고지대에는 대부분이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다. 크게 성남대로와 마찬가지로 남북 방향으로 난 도로는 제일로, 탄리로, 공원로인데, 이 3개의 도로가 수정로와 남문로와 십자 형태로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구역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저지대의 경우 공공 시설물 및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골목길의 경우에도 비교적 차가 다닐 만한 폭을 확보하고 있는데, 고지대 즉, 남문로 윗편 주거지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골목이 좁게 형성되어 있다.

가. 일상의 경제생활 사례

① 성남 개발 이전의 원주민 사례¹³⁵⁾

과거 태평동은 개발 전 자연마을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 마을을 ‘숯골’ 또는 ‘탄리(炭里)’라고 불렀다. 현재 지도에도 그 지명이 남아 있는데 성남시청에서 제작된 『성남시 생활안내 지도』를 보면 ‘윗숯골’과 ‘아래숯골’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윗숯골은 현재 태평 2동 지역이 해당되고 아래숯골은 성남대로를 지나서 태평 1동 지역이 해당된다. 과거 숯골은 현재 태평동에서도 고도 상으로는 아래쪽에 분포하였다. 자연스럽게 태평동 공간의 고도에 따라 아랫동네는 원주민들이 살고, 윗동네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원주민은 전체 태평동 주민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박인호는 밀양 박씨(密陽朴氏)로 성남 개발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토박이이다. 과거에 일제시대에는 보통학교였던 당시 남한산성 학교를 다녔고, 이후 광주 농업학교를 다녔다.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다.¹³⁶⁾ 박인호는 당시 논 다섯 마지 정도를 지었다.

과거의 탄리의 논은 대개 물을 탄천에서 끌어다 쓰는 방법과 샘을 파서 물을 대는 방법을 통해서 경작이 이루어졌다. 샘을 팠을 경우에는 물웅덩이의 물을 일명 ‘두레박’으로 2인 1조가 되어서 물을 논에 대었다. 가뭄이 있을 때는 하늘에서 비를 기다리는 천수답도 있었고, 그러한 논은 마냥 비를 기다린다고 하여 ‘마냥모’라고 불렀다.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악조건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꼬챙이를 가지고 논 바닥을 파서 벼를 심는 ‘꼬챙모’를 내기도 하였다. 가뭄이 심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는 논농사를 포기하고 그 논에다 메밀 등의 대체 작물을 심기도 하였다. 탄천의 물을 끌어다 쓰는 논들은 각각의 논이 물을 대는 순서가 달랐기 때문에 모내기철에는 물꼬

135) 제보자 : 박인호(1926년생), 조사일 : 2005년 8월 5일, 장소 : 음식점. 박인호는 태평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다. 태평동은 70년대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현재는 과거 마을 단위의 모습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여느 도시의 주거지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도로를 통해 격자형으로 구역지어진 공간에는 도로 가까이에는 상업건물을 비롯하여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주거지가 있는데, 주거지의 형태는 대부분 연립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조사자는 태평동에 있는 노인정 3곳을 방문하였는데, 연세든 분들이 거의 60년대 말에 이주해온 분이 많았다. 현재 태평동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70년대부터 유입되어온 외지인이다. 원주민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노인정에서 소개하여 원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136) 성남지역은 46년 이전에 광주군 세촌면 관할구역 6개리(단대리, 탄리, 수진리, 상대원리, 복정리, 창곡리)가 있었다.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소의 경우, 마을에서도 좀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키웠는데 쟁기질 할 때 소의 품삯은 일꾼 한 사람의 품삯을 받았다고 한다.

모내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박인호는 먼저 풀을 꺾어 논에 넣어서 거름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당시에 소작농을 짓는 사람은 생산물의 반을 지주에게 주었다. 못자리 논인 경우, 솟골에서는 각자가 못자리를 만들어 나중에 모내기에 쓸 모를 준비하였다. 모내기나 김매기를 할 때는 당시 솟골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중에서 부자들과 여건이 힘든 집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부자들은 몇 십 마지기 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풍물을 울리면서 모내기, 김매기 등을 하였다고 한다. 농사 조직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품앗이를 통해서 하였다. 박인호는 해방 전에는 모내기를 할 때, 줄을 쓰지 않았는데 해방 후부터 줄모를 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줄의 간격은 그의 기억에 의하면 한 뼘 정도에 해당하였다고 한다. 품종은 시기마다 약간 차이를 보였는데, 시기적인 구분을 박인호는 구체적으로 할 수 없고, 대개 '풍옥', '아키바리', '곡량도' 등을 심었다고 한다.

밭농사의 경우 보리와 콩을 심었는데, 보리를 수확한 후에 땅을 엮고 다시 콩을 심는 그루갈이의 형태를 띠었다고 한다. 해방 무렵에는 특화된 작물로 참외, 수박, 고추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주로 이 지역의 참외, 수박, 고추와 같은 농산물은 종로4가 쪽 시장과 청량리 시장으로 도매로 나갔다. 그러한 농작물이 서울에 있는 시장으로 주로 거래가 된 이유는 주변의 5일장에서는 그러한 작물을 소비할 계층이 부족하였고, 당시 종로, 청량리에는 소비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박인호는 말한다. 주변의 5일장으로 송파장, 낙생장, 고등리장, 경안장이 있었는데, 특히, 경안장의 경우 우시장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경안장 부근의 송정동에 우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성남시사』에 보면, 1969년 5월 2일부터 서울시 철거민의 집단입주가 시작되었다. 박인호에 의하면, 당시 원주민들은 토지가 수용되는 조건으로 '광주군 성남지구 도시건설 사업소', '서울시 광주대단지 사업소',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 등에 전답의 경우 수용 용지의 50%를 다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조건은 수용이 되지 않았고, 전답의 20% 수준에서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임야의 경우에는 평당 100원 정도에 매입이 되었다 한다. 하지만, 집을 짓고 살았던 대지의 경우에는 당시 성남 개발사업 주체가 그 집터의 크기를 그대로 100% 환지(換地)하였다고 한다. 서울에서 유입된 철거민의 경우에는 20평의 택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일명 '딱지'를 받았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개발이 되는 동안 '딱지'를 받은 주민들이 집을

짓지 않으면 '딱지'가 무효가 된다고 개발 사업 주체가 주장을 하였지만, 실제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집을 짓지 않고 매매되는 딱지를 무효화하는 정책을 집행하지는 못하였다 한다. 이미 당시에 준비했던 부동산을 거쳐 '딱지' 매매가 성행하였기 때문에 통제하기란 힘이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

최근 2003년까지 30여 년 동안 원주민 25명 내외가 참여하는 친목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름을 '유탄 친목계'라고 불렀는데 규약은 매월 1회 모임을 가지고, 회비는 2만원으로 쌀 1가마 정도를 경조사가 난 계원에게 지원을 하였다고 한다. 이 계의 경우에는 같은 집에 한 해에 여러 번의 경조사가 있어도 모두 '태워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3년에 충무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에는 해체되었는데 박인호는 그 점을 아쉬워하였다. 그는 과거에 계를 많이 할 때는 7~8개까지 동시에 참여한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2개 정도만 참여한다고 한다.

② 성남 개발 후 유입된 주민의 사례¹³⁷⁾

최 씨는 성남으로 이주하기 전에는 서울 석관동에 살았다. 1968년도부터 서울 월계동 철거가 시작되었는데, 최 씨가 머물던 곳은 도로확장을 위해서 정부가 땅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1969년 11월에 성남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성남은 광주군에 속하였고, 성남출장소가 있어 성남의 택지개발을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에서 온 철거민들은 당시 새끼줄로 구획을 지어놓은 땅을 20평을 추첨해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20평의 토지를 2만원에서 5만원에 살 수 있었다. 당시에 성남으로 이주해 오면서 직업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노역에 참가하였다. 최 씨에 따르면 당시에 물이 부족하여 성남 곳곳에 비상 우물을 파는 노역을 여기저기서 하여 그렇게 우물을 파는 노역에 참가하여 밀가루를 배급받았다 한다. 현재 중앙시장 자리에 당시 큰 공동우물이 있어서 물을 길러 먹곤 하였다. 최 씨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1970년 초반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일거리는 서울 쪽에 많았기 때문에 서울로 출근하였다. 당시 성남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는 시영 버스가 있었는데 하루에 운행을 몇 회 하지 않았다.

권 씨에 따르면, 시영버스는 1970년도부터 1975년까지 운행이 되었는데 그 노선은 단대쇼핑~단대오거리~송파~천호동~왕십리~을지로6가였다고 한다. 이후에 경기교통 등 지역 버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서울에서 온 철거민들의 경우, 서울로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버스는 항상 초만원이었다. 권

137) 제보자 : 최○○(1942년생), 조사일 : 2005년 7월 26일, 장소 : 골목, 권○○(1937년생), 조사일 : 2005년 7월 29일, 장소 : 복지회관, 두 제보자 모두 서울에서 이주해온 분이다.

씨의 경우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거주하다가 서울 도시계획 일환으로 도로확장을 시작하면서 집이 철거되면서 성남 수진리 고개 임시 가수용지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때가 1969년 10월이었다. 1970년 4월에 토지 20평을 추첨을 받아서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원래 서울 동대문 우체국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성남으로 온 후에도 얼마간 하다가 그만두고 서울 염천교 부근에 있는 시장에서 도매일을 하였으며 1973년도에는 조경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조경회사였는데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하였다.

최 씨에 따르면, 초기에 성남에 왔을 때 산의 나무를 깎은 후 산사면의 경사를 조정도 없이 개발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내에 많은 굴곡이 있는 것이라 한다. 태평 4동의 주택들이 현재와 같은 주거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상대적으로 골목이 좁고, 2~4층 연립주택의 형태로 집들이 들어섰다. 지대가 높다보니 대로 주변인 저지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있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지대로 모여 들게 되었다. 연립주택의 형태도 여러 개의 셋방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 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70년대 말에는 운중동에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現한국학중앙연구원) 건설현장에 참여하였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세종연구소 건설에도 참여하였다. 다행히 건설 쪽 일은 꾸준히 연결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전반적인 건설경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지되었는데, 최 씨가 1975년경에 남양만 및 아산만 간척지 건설현장에서 일할 때는 정부가 돈이 없어 전표를 지급하였다. 당시 전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돈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당시 건설사 직원들은 전표를 대량으로 싼 가격에 매입하였다.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날짜가 길게 남은 것은 7부를 떼어내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3부를 떼어냈다. 당시 건설 노동자는 일단 돈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표를 넘겼다.

최 씨의 가족은 태평동에 살면서 대개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샀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분당에 마트가 생기면서 야탑 쪽으로 가서 한 달치 생필품을 한꺼번에 사서 쓰고 있다. 최 씨는 친목계를 하고 있는데 경조사를 서로 도와주는 목적을 가진 계이다. 참가인원은 15명 정도이고, 친목계 회원들은 집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다. 1달에 1번 모임을 가지는데 모임 때 회비는 3만원이다. 이 회비는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순번대로 경조사에서 사용한다. 과거에는 경조사 때 쌀 2가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에서 지원을 하였다. 모임이 있는 날에 음식값은 매번 계원이 그날 유사가 되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는 방식이다. 계 차원에서 부조금은 현재 40여 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 자격으로 약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계원 경조사

에 낸다.

권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5개의 계에 참가하고 있다.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과의 계도 있다. 한번 참가 회비가 1~3만원까지 다양한데 한번 계원을 '태울 때' 마다 약 50만원~60만원 사이가 된다고 한다. 최 씨나 권 씨는 태평동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듯 계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한다. 최 씨가 주로 계모임을 가지는 곳은 중앙시장 옆에 있는 5,500원을 하는 '줄줄이 부페'라는 식당에서 매달 15일 가지는데, 그날 다른 계모임에서도 같은 식당에서 많이 한다고 한다. 최 씨나 권 씨 둘 다 계모임을 20년 이상 해오고 있다. 초기 성남에 정착한 외지인들은 그 동네에서 서로간의 친분을 특히, 계모임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같은 동네에 살아도 각자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계와 같은 모임이 아니면 동네 단위의 친목을 행할 수 있는 모임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4) 중앙시장의 지역경제 활동¹³⁸⁾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은 태평동뿐만 아니라 성남 전역에 걸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상설시장으로서는 수진역 주변의 성호시장과 더불어 지역의 중요한 상설시장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시장의 형성 시기는 성호시장의 형성 시기와 비슷하다. 1965년에 성남으로 이주해온 이순자에 따르면, 1966년경부터 현재 중앙시장 부근에 노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서울 개발계획에 따라 1969년부터 서울에서 철거민들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지역민의 말에 따르면, 그 이전부터 조금씩 서울에서 성남으로 인구이동이 시작되었다 한다. 신근식은 현재와 같은 중앙시장의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74년이라고 한다.

이순자는 처음 성남에 들어와서 야채장사를 했다. 그것을 선택한 것은 초기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초기에 채소를 이미 형성된 중앙시장 채소 도매상으로부터 채소를 구입해서 중앙시장과 10~15분 거리에 있는 제일시장 앞 노점에서 채소를 팔았다. 아침 8시부터 노점에서 채소를 팔고 저녁 10시에 중앙시장 채소도매상이 문을 닫으면 중앙시장으로 와서 밤 12시까지 남은 채소를 소비자들에게 팔았다.

138) 제보자 : 신근식(1960년생), 조사일 : 2005년 7월 29일, 장소 : 가게, 이순자(1943년생), 조사일 : 2005년 7월 29일, 장소 : 가게, 조사자가 중앙시장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던 중 한 상인이 현재 결중인 중앙시장 조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근식을 소개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중앙시장에 오래 전부터 일해 온 상인 이순자를 소개받았다.

채소장사를 2~3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본이 형성이 되자 이번에는 축산물 판매를 하였다. 주로 닭을 많이 취급하였는데 성호시장에서 도매로 받아서 중앙시장에서 약 20년 동안 축산물을 판매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현재 취급하고 있는 섬유로 된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순자의 기억으로 중앙시장이 가장 활성화 되었던 시기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안정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1997년 일명 'IMF'가 터지고부터 상인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하지만 1998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한다. 1996년에 분당에 E-마트가 들어서면서부터 분당 쪽에서 오던 소비자의 발길이 줄어들었고, 2000년에 야탑에 '까르푸'가 생기면서 그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신근식은 중앙시장의 토지관계가 복잡해서 국가나 시가 소유한 토지와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섞여있다고 한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 소비자의 경우, 옷, 이불과 같은 혼수품 장만을 중앙시장에서 많이 하곤 하였다 한다. 그 당시가 최고의 전성기라는데 이순자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오늘날 과거 5일장보다 발달된 상설 시장이 '마트'와 같은 새로운 종류가 형성되면서 '재래시장'으로 불린다. 현재 성남의 주요 상설시장인 중앙시장과 성호시장은 근교에 새로운 시장과 마트들이 형성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경쟁요인이 증가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중앙시장의 경우, 시장 상인조합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지 않았는데, 2005년 현재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 중앙시장

여 백



제 5 장 마을의 생활과 문화

여 백

제 5 장

마을의 생활과 문화

I. 의식주 생활

1. 주생활

(1) 개관

서울 근교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인지 조용한 시골이었던 성남은 개발붐에 일찌감치 노출되어 변화의 길을 걸었다. 오늘날 성남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최첨단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또 한 편에는 시골마을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시외곽의 자연마을도 있다. 여기서 다루게 될 북정동과 태평동, 그리고 창곡동 또한 개발의 추이에 따라 변화된 양상들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 최근에 신축된 북정동 다세대주택들



↑ 신축되고 있는 건물들 사이에 할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과거의 주택들이 을씨년스럽게 드물게 남아있는 북정역 주변 주택가

태평동은 성남 개발 당시부터 주택 및 상업 혼합지역으로 주목받던 곳이다. 1968년 성남 개발을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거주지를 철거당해 이주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18평 내지 20평의 택지 분양권을 이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렇게 형성된 곳이 이 곳 태평동



↑ 창말에 최근에 지어진 고급주택

주택단지이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새 건축이 들어서고 또 주민들의 나고 늙이 활발해지면서 철거민들이 세웠던 옛 집들은 헐리고 그 터에 현재와 같은 2층 단독주택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5층 이상의 빌라도 군데군데 세워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완만한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어 차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태평1동에서 만난 이아무개¹³⁹⁾의 집은 오늘날 태평동의 전형에 속한다. 이보영은 태평동에서 태어나 근처로 시집을 갔다가 30년 전에 다시 태평동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았다. 태평동으로 돌아오던 해에 한 철거민에게서 18평 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18년 전에 그 집을 허물고 현재의 집을 지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으로, 태평동 어느 곳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이아무개의 집에는 '한 지붕 4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하에 두 가구, 1층에 한 가구가 세를 살고 있고, 2층엔 이아무개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타지에서 온 사람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이아무개 가족이 거주하는 2층은 방 3, 주방 1, 화장실 1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식구는 할머니(이아무개)와 큰아들 내외, 손자, 손녀, 이렇게 5명이 살고 있는데, 안방은 큰아들 내외가, 아랫방은 손자가, 건넌방은 할머니가 손녀딸과 함께 쓰고 있다. 할머니가 생각하기에, 손녀딸은 자기 방을 몹시 갖고 싶어 하는 눈치라고 한다.

잠실 쪽에서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하는 북정동은 경원대학교와 동서울대학교가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다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개발되었다. 개발붐이 일면서 신축건물의 상당수는 여느 대학가와 마찬가지로 음식점이나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 이 오피스텔은 대개 지방학생들에게 임대해주거나 고시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건물을 지을 때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 '대학촌'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창곡동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이주가 활발하지 않고, 또 마을 주위에 논밭이 있는 탓에 도시 근교에 있는 시골마을의 전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39) 제보자 : 이○○(여, 72세, 태평동에서 태어났고, 현재 태평1동에 거주)

창말에는 대략 160여 호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혹은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지어진 주택들이다. 그리고 수도권 주변지역이 그렇듯이, 창말 또한 한 집에 서너 가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또 세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자를 들임에 있어 창곡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태평동이나 복정동의 경우는 세입자를 들일 때 전세로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창곡동 창말의 경우는 사글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창말의 사글세방은 시설은 낙후되었을지라도 방 하나에 평균 월 15만원 정도여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둘째, 세입자 중에는 홀로 생활을 영위하는 독거노인이나 원래 이 마을에 살았으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2급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매달 30만원 정도의 최저생활비와 쌀이 배급된다. 이 중 15만원은 방세로 지불하고 나머지 15만원으로 생계를 영위하는데, 점심은 복지회관에서 가져다주기 때문에 아침, 저녁만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제보자는 15만원으로도 한 달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¹⁴⁰⁾.



↑ 현대식으로 비슷한 규모와 구조로 지어진 간이골의 주택



↑ 과거에 지어진 창말의 주택, 지붕이 돌기와로 되어있다

(2) 살림집의 형태와 구조

오늘날 성남의 주택들은 태평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하까지 방으로 꾸며놓은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각 층이 15~20평)이 일반적이며 다세대 주택 사이로 수년전에 신축한 5층 규모의 빌라들이 대로나 넓은 골목 주변에 드문드문 있다. 아파트로는 태평동에 건우아파트(봉곡사 좌측), 통보공원아파트(영장산 현충탑 우측)가 있으며 성남서초교 맞은 편에 청운아파트가 있었는데 2004년 헐리고 현재 신축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140) 제보자: 김○○(남, 76세, 창말 거주)

경사진 좁은 골목에 주차장이 없는 다세대주택이 가득한 태평동과는 달리 복정동은 비교적 평수가 넓은 신축 다세대주택에 주차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주거지다.

창말은 과거 농가를 개조한 주택과 신축한 양옥들이 섞여 있다. 농가의 경우 외형은 옛날 모습을 간직하되 내부는 현대생활에 맞게 개조하였다. 농가 형태의 집이 신축한 양옥에 비해 그 수가 현재는 월등히 많으나 점차 양옥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창말은 아직 자연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의 느린 변화상을 살펴보기에 용이하다. 여기서 과거 농가를 개조한 주택을 중심으로 그 형태와 구조를 살펴본다.

살림집의 형태와 구조는 가계의 경제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성남을 포함하는 경기도 남부의 전통가옥은 주로 튼 'ㄱ'자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¹⁴¹⁾. 창말에 있는 전통가옥 또한 튼 'ㄱ'자의 형태와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튼 'ㄱ'자라기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형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집들은 윗채에는 안방과 건넌방, 그리고 마루와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채에는 대문과 사랑방, 그리고 외양간 및 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들은 생업의 변화나 농업기술의 변화 등으로 원래의 공간을 폐쇄하거나 그 용도를 변형시켜 사용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양간(근래에는 소를 키우는 집이 없음)이나 광의 경우 옛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민들이 이것을 방과 부엌으로 개조하여 세입자들에게 세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창말은 한 집당 3~4가구 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3) 일상적인 공간의 이용 : 조학년¹⁴²⁾씨 댁 사례

가. 집의 내력

이 집은 8.15해방 직후에 지어졌다. 그전에는 창말 토박이가 살았으나, 조학년이 1972년에 세를 들어왔다가 1981년에 12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당시 집주인이 급하게 집을 파느라고 싸게 구입했다 한다.

조학년은 원래 대구사람으로 대구에서 결혼을 하여 살다가 남편 직장을 따라 부산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일푼으로 다시 창말로 이사를 왔다. 창말로 이주해온 당시 조학년은 이 집 사랑방에서 월 5만원에 사글세를 살았는데, 이 집을 산 이후로는

141) 경기도 남부의 살림집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는, 김동욱·정정남, 「경기 남부의 주생활」, 『경기민속지Ⅳ』, 경기도박물관, 2001, 578~644쪽, 주영하, 「생활문화」, 『이천시지Ⅲ』,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72~92쪽 참조.

142) 제보자 : 조학년(여, 75세, 고향은 대구로 남편 직장을 따라 부산으로 이주했다가 30년 전에 창말로 이주해 옴. 당시에는 빈손으로 이곳에 정착했지만 이곳에서 집도 사고 자식들도 키워내어 창말에 대한 애정이 많다)

자신이 살았던 사랑방에 정이 들고 또 그 방을 '돈벌어주는 방'이라고 여겨서 비워두는 한이 있어도 남에게 세를 내주지는 않는다. 현재는 거의 빈방이지만, 옷장과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 이곳에 옷을 보관하고 있으며, 명절이나 생일날 가족들이 모일 때에 사용한다.

나. 가족 구성원

조학년의 남편은 성남으로 이사 온 후 이 집을 구입하기 전에 눈을 감았다. 그래서 조학년이 홀로 2남, 2녀를 키웠는데 지금은 모두 분가하였다. 아들네 가족은 각각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과 수지에 살고 있는데 가까워서 자주 들리는 편이다. 또 특별한 날엔 며느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곤 하는데, 금년 초복에도 며느리가 닭도리탕을 해왔다고 한다. 현재는 홀로 된 여동생과 둘이서 살고 있다.

다. 집의 재료

이 집은 지을 때 수수깁을 엮어서 외벽을 쳤는데, 그 이유는 흙이 잘 붙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외벽을 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수깁으로 엮어서 우선 외형을 만든다. 그 다음, 흙이 잘 엉기라는 의미에서 진흙에다 짚을 썰어 갠 후, 수수깁으로 만든 외벽(외형)의 양쪽에다 바른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으로 다시 곱게 바른다. 만일 진흙이 터질 경우에는 진흙에 고운 모래를 섞어서 새 벽을 바르면 된다. 기둥과 마루는 소나무를 이용했다. 집을 짓는 기간은 빨라야 세 달이 걸리고, 보통은 여섯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외 엮는 것과 진흙이 마르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외를 엮어서 집을 많이 지었으나, 197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흙벽돌로 짓기 시작했다. 흙벽돌은 나무가 많이 들지 않아 짓는 데 경제적이다. 그런 까닭에 쉽게 대중화될 수 있었다.



↑ 조학년씨 댁



↑ 함진득씨 댁 대문, 주택의 안채는 현대식으로 신축하고 바깥채는 그대로 사용함

라. 집의 구조와 활용

조학년의 집은 오랑 기와집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못을 쓰지 않고 흙을 파서 지은 집이다. 튼 'ㅁ'자형 집으로 윗채에는 안방과 건넌방, 부엌, 마루가 배치되고 아래채에는 사랑방 및 문간방, 그리고 외양간과 광을 두었지만, 1981년에 조학년이 이 집을 사서 세를 놓기 위해 기존의 외양간과 창고를 모두 방으로 개조했다. 따라서 지금은 방이 6개, 부엌이 4개, 창고 1개, 재래식 화장실 1개, 장독대 1개로 구성되어 있다.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안방과 마루, 그리고 창고¹⁴³⁾와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바깥채뿐이다. 부엌 뒤에는 장독대와 텃밭이 있다¹⁴⁴⁾.

일상공간의 쓰임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방은 주인 자매가 거주하는 공간이고, 마루는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음식은 부엌에서 만들지만, 식사는 상을 펴서 마루에서 먹기 때문에 마루에 냉장고¹⁴⁵⁾가 위치한다. 아직 김치 냉장고가 없는 대신, 김치만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별도로 들여놓았다. 따라서 김치를 예전처럼 김치광에 보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는 여전히 뒤뜰에 있는 장독대에다 보관하고 있다. 안방에 딸린 부엌은 1981년에 아궁이가 있는 재래식 부엌에서 현재와 같은 입식 부엌으로 개조하였다. 그러나 양옥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식 부엌의 형태는 아니고, 썩크대를 놓고 아궁이를 막



↑ 조학년씨 댁 부엌 뒷면

143) 창고 벽면에 차를 끓여 먹을 때 사용하는 오가피와 누름나무를 매달아 놓았다. 현재 창곡동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난방으로 조학년씨 댁에는 연탄을, 취사용 연료는 LPG가스를 사용한다. 따라서 창고에는 연탄이 채워져 있으며 부엌 옆에는 LPG 가스통이 놓여 있다. 난방으로 석유를 사용하는 집도 있으나 최근 유가의 급등으로 시골에서는 다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144) 2005년 8월 현재 텃밭에는 고추, 가지, 부추, 파, 들깨, 토란이 자라고 있으며 무성하게 자란 호박넝쿨이 담장을 에워싸고 있다. 식사 때면 이곳에서 나는 싱싱한 야채를 먹는다. 장독에는 고추장, 된장, 간장이 담겨 있다.

145) 2005년 8월 김덕목과 박지윤이 조학년씨 댁 냉장고를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음식과 재료가 들어 있었다. '냉동실'에는 김, 멸치, 북어, 떡,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조기), 고춧가루, 새우젓, 잣, 쑥 삶은 것, 마른 오징어, 마늘 다진 것, 은행, 마른 새우, 영양가루(잣, 호도, 보리쌀 등을 썬어 만든 것), 감자가루, 검은 콩, 마른 홍합. '냉장실'에는 김치, 들깨가루, 깻잎, 열무김치, 배추김치, 고추장, 마늘 다진 것, 더덕, 마늘 절인 것, 마늘짬아치, 다시마, 차임, 초고추장이 있었다. 과일은 배, 토마토와 고구마가 있었으며 음식재료로 멸치가루, 참쌀가루, 메주가루 같은 것, 단호박가루가 있었다. '냉장실 문밖'에는 구르세링 한 병과 소주 3병 그리고 레몬 3개를 잘 썬어 숙성시킨 오일류와 참기름, 젓갈, 들깨가루, 콜라, 위청수, 들깨분말, 산초가루, 홍삼정골드, 소스, 캐참, 벌꿀, 인삼 말린 것, 다시마, 대추, 약 등이 있다.

아 그 위에 시멘트를 평평하게 바른 다음, 그 위를 상이나 그릇 등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옛 부엌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엌 앞에는 수도가 있는 곳인데 지금은 사방에 시멘트를 발라서 세탁기를 함께 두었다. 또한 겨울철에는 외풍이 심하기 때문에 지붕에서부터 수돗가를 비닐로 빙 둘러싸우곤 한다. 미관상 별로 좋지는 않지만, 난방료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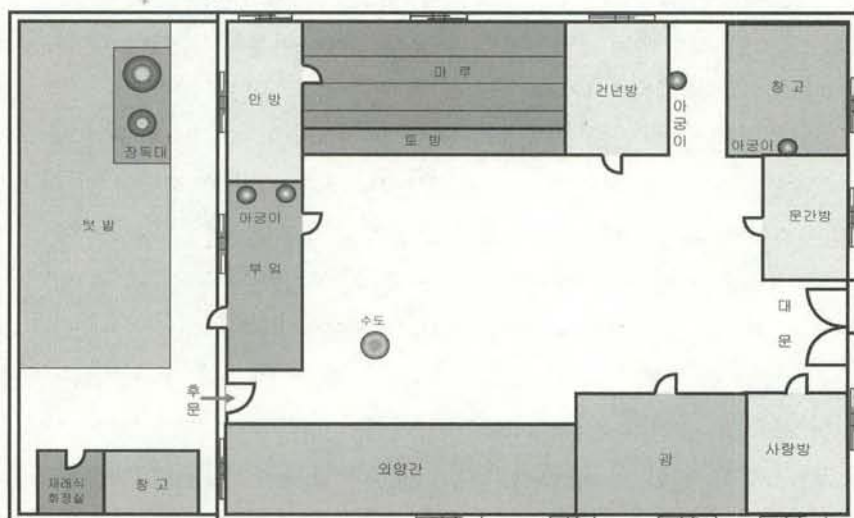
↑ 조학년씨 덕 부엌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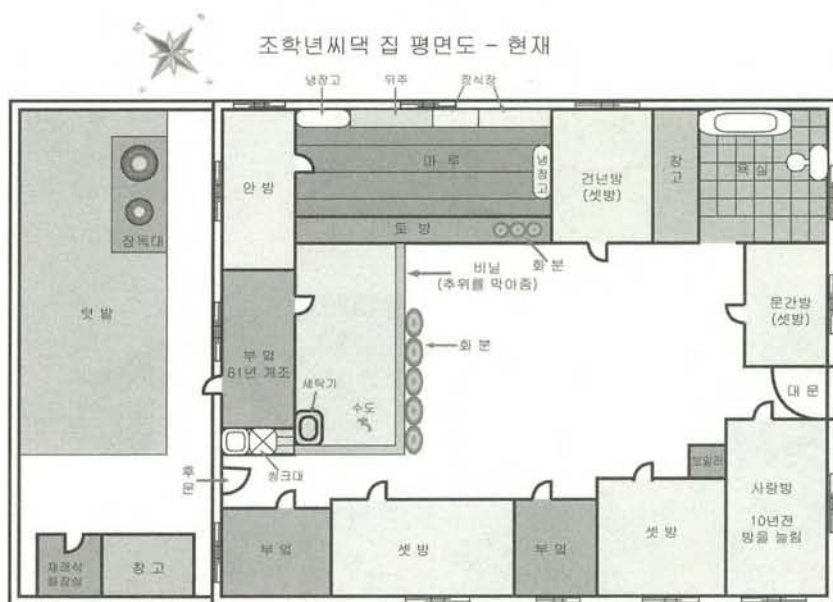


↑ 조학년씨 덕 부엌 뒤에 있는 장독대와 텃밭



조학년씨덕 집 평면도 - 과거





조학년은 10년 전에도 집을 한 차례 개조했다. 자신이 이 집에 이사와 처음 살았던 사랑방을 늘리기 위해 대문 한 짝을 뜯어내고 그 공간만큼 방을 키운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조학년은 이 방만큼은 '돈 들어오는 방'이라 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세를 주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굳이 방의 규모를 키운 이유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찾아오는 자녀와 손주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학년의 가옥은 1981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조되었다. 집을 개조한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였다. 첫째는 세를 주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분가해서 찾아오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즉 조학년 가옥의 변형은 세입자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주택의 개조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해방 직후에 지어진 이 집은 애초 취사와 난방으로 땔감을 사용하는 집으로, 그리고 광이나 마굿간 등 농업을 위한 용도와 거주를 위한 용도를 겸한 농가(農家)로서 지어졌다. 취사와 난방 연료의 변화와 생업의 변화 등으로 농업을 위한 용도가 사라지고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새로운 용도가 추가되는 등 그동안 여러 가지 생활상의 변화에 맞게 이 집은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주택의 외형은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내부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조사자가 수년 후 이곳에 왔을 때는 외형마저 사라지고 그 터에 시멘트콘크리트로 지어진 양옥이 들어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 벌써 이웃에는 이렇게 들어선 양옥들을 볼 수 있다.

2. 식생활

(1) 집에서의 식생활 공간

전통적인 한국의 살림집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공간은 부엌을 중심으로 하여 찬방, 장독대, 우물, 그리고 광이라는 부속건물로 이루어진다. 부엌은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난방을 하는 아궁이가 설치된 곳이다. 찬방은 식탁을 차리고, 각종 조리기구와 식기를 보관해두는 부엌의 부속공간에 해당된다. 장독대는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필요한 각종 장을 비롯하여 마른 고추와 소금 따위를 보관하는 공간이다. 우물은 부유층의 살림집에서만 독립적으로 집의 부속물로 등장하지만, 음식의 조리과 세척에 필수적인 물을 제공한다. 광은 음식의 재료를 보관해 두는 곳으로 이 역시 부유층의 살림집에서 나타난다¹⁴⁶⁾.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아궁이의 변천이다. 오랫동안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을 하다가 연탄이 등장하면서 연탄아궁이로 바뀌게 되었다. 태평1동의 이보영은 당시 시아버지가 몸이 편찮은 관계로 매 끼니마다 죽을 끓여야 했는데, 매번 아궁이에 불을 때서 하기가 번거로워 연탄아궁이를 들여놓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석유곤로가 나와서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엔 LPG가스, 또 그 다음엔 지금과 같은 도시가스가 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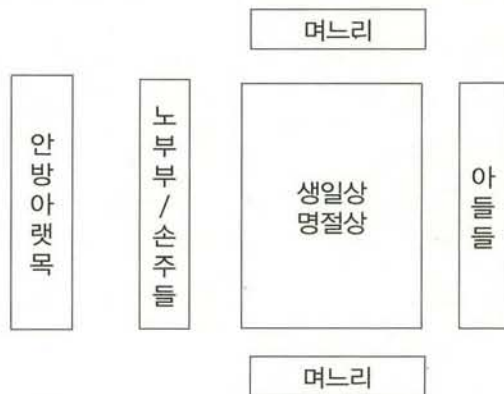
한편 오늘날의 도시 살림집에서는 부엌을 중심으로 하여 식탁과 안방, 거실 등이 밥을 먹는 공간으로, 베란다와 냉장고는 음식 재료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김치냉장고는 예전의 김치광을 대신하여 한 여름에도 언제든지 싱싱한 김치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김치냉장고는 김치만을 보관하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각종 야채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부들은 김치뿐 아니라 야채와 과일을 보관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큰 용량의 김치냉장고를 희망하고 있다.

식생활과 관련된 공간을 살펴보기 위해 제보자 손희선¹⁴⁷⁾ 집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손희선의 집은 여름에는 마루에서, 봄·가을이나 겨울에는 거실이나 안방에서 상을 펴고 밥을 먹는다. 어른인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식사할 때 정해진 자리는 딱히 없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위치를 중심으로 집안 식구들의 식사하는 위치(특히 할머니)가 바뀐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밥을 먹을 경우, 할아버지는 주로 안방 앞

146) 주영하, 「식구론 :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음식습관」, 『정신문화연구』제25권 제1호, 2002, 11~12쪽

147) 제보자 : 손희선(여, 73세, 답십리에서 6.25가 나던 해 시월 18세에 창말로 시집옴. 창말에 거주한 지 올해로 54년)

(안방을 등지고)에 앉는데, 그럴 경우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는다. 한편 안방에서 식사를 할 경우, 할아버지가 아랫목에 앉고 할머니 또한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는다.



↑ 〈명절이나 생일에 가족들이 상 앞에 앉는 위치〉

위는 생일이나 명절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에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들이 앉는 배치를 재구성해 본 것이다. 노부부는 가장 격식 있는 공간을 차지한다. 그것은 바로 안방을 등지고 앉은 위치이다. 여기서 아들이나 며느리가 동석하지 않지만 손자들은 예외이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아이들이 '소황제화' 되어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이 노부부를 마주보며 아들이나 딸들이 자리에 앉는 반면, 며느리들은 상머리의 주변부에 위치한다. 이처럼 식사를 하는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연 중 집안의 위계가 존재하여 상황과 공간에 따라 가족들이 앉는 위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일상식

가. 일상식의 구조

일상식의 구조는 밥, 국(찌개), 김치 위주이다¹⁴⁸⁾. 태평1동 이보영 가족의 일상식을 조사해본 결과, 밥은 쌀밥과 잡곡밥, 콩밥, 보리밥, 김치도 배추김치에서부터 꼬들빼기 김치까지 다양하며, 여기에 나물 등의 반찬이 추가된다. 즐겨먹는 찌개의 종류는 김치찌개, 호박고추장찌개, 동태찌개, 된장찌개 등이다. 지금처럼 쌀밥을 먹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그전에는 쌀밥이 귀해서 늘 보리밥에 감자를 섞어서 먹었다. 쌀밥을 하는 경우는 집안 어른을 위해서나 혹은 제사 때뿐이었다. 밥을 할 때 보리밥 중간에 쌀

148) 일상식의 구조에 대해서는 주영하 앞의 논문과 『음식전쟁, 문화전쟁』, 사계절, 2000, 최준식, 『한국인에게 밥은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2004 참조.

을 안쳐서 쌀밥이 딱 한 그릇 나오게 하여 집안 어른께 드렸는데, 이보영의 셋째 아들은 그것에 대해 늘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엔 잡곡밥을 일부러 챙겨먹는데, 그 이유는 이보영이 당뇨가 있고 또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고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귀하던 쌀밥보다 잡곡밥의 값이 더 비싸서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손주들은 잡곡밥보다 쌀밥을 여전히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잡곡밥이 거칠기 때문이다.

나. 일밥

과거에는 일밥 또한 중요한 일상식의 한 형태였다. 농번기에 모내기나 김매기 등 집일을 하는 날에 여자들은 일밥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내야 했다. 아침새참, 점심, 점심새참, 그리고 저녁새참, 이렇게 일밥이 하루에 네 차례나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일꾼들은 각자 새벽밥을 지어먹고서 7시쯤 일을 나오기 때문에 아침 10시쯤 되면 출출해진다. 아침새참은 국수나 수제비 등 허기를 간단히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데 막걸리도 물론 빼놓지 않고 챙겨간다. 1시쯤 되면 점심을 내가는데, 밥 위주의 식단이었다. 그리고 3시쯤에 점심새참을, 4시 반이나 5시쯤 저녁새참을 내놓는다. 저녁은 각자 집에 가서 먹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세 시간 간격으로 일밥을 내가야 했기 때문에 일밥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일밥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것을 일터까지 배달하는 사람, 이렇게 최소 두 사람 정도가 필요했다. 이보영은 태평동에 살았지만, 전답이 모란에 있어 그곳까지 일밥을 운반했다고 한다. 주로 음식을 담은 고무다라를 이고 다니거나 망태기에 음식을 넣어서 지고 다녔다 한다.

이렇듯 농번기의 하루는 아침 6시쯤 아침밥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두워지도록 일을 하고 돌아와 저녁을 먹곤 했다. 그러나 농한기인 겨울철이라고 해서 게으름을 피울 수는 없었다. 겨울철엔 남자들의 경우에는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고 또 나무하러 다녀야 했다. 여자들은 길쌈을 하거나 빨래를 하고 다림질하여 농번기 동안 헤진 옷을 기워서 다음 농번기를 준비하여야 했다. 특히 나무를 팔러 가는 남자들은 새벽에 일찍 서울로 가야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밥을 먹고 나갔다.

다. 음식물의 구입

태평동의 경우, 음식물 구입은 주로 가까운 중앙시장을 이용한다. 상설시장인 중앙시장이 형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쯤이다. 그 전에는 5일장인 모란장이나 고등리장, 송파장, 광주 경안장 등을 이용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시

장 출입이 빈번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으면서부터 채소, 육류, 과일 등 대부분의 먹거리를 시장에서 구입한다. 이보영은 자신이 직접 농사지를 때보다 현재 더 좋은 먹거리를 먹고 있다 한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당시에는 돈이 귀해서 잘생긴 것은 모두 팔고 자신과 가족들은 별레 먹은 것, 상한 것 등을 먹었다 한다. 일상의 먹거리 외에 김장 등 저장음식에 쓸 고추나 콩 등은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골에 살고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구입한다. 반면 마늘이나 양파 등 부피가 큰 재료는 매일 마을을 도는 트럭에서 구입한다.

라. 식기구

이보영 가족의 경우, 집안 어른인 할아버지는 놋그릇과 은수저를 사용한다. 이 은수저는 며느리가 시집을 때 가족들 숫자만큼 사온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 이보영을 비롯한 나머지 식구들은 개인용 수저와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스테인레스 제품을 즐겨 쓴다. 은수저는 무거워서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3) 비밀상식

가. 세시의례음식¹⁴⁹⁾

예전에는 세시음식이 주로 명절 음식을 일컬었던 반면, 오늘날은 제사와 복날, 생일 까지도 이 세시음식의 범주로 분류한다. 이 날 준비하는 음식의 종류와 양은 집집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이보영과 손희선을 통해 재구성해 본 성남의 세시음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제사음식** : 제사음식은 기제사와 차례(설, 추석 등), 시제 등에 따라 음식의 종류가 다소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일생의례의 제사부분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략히 서술한다. 이보영의 경우, 1년이면 제사가 7번 있다. 종교가 불교라서 제사로 인한 갈등은 없다. 제사에 올리는 과일로는 대추, 밤, 꽃감, 배는 삼색이라 하여 빼놓지 않고 꼭 올리며, 그 외에 사과, 수박, 참외, 포도, 귤 등 시절과일은 그때에 따라 올린다. 나물은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숙주 등 삼색 이상을 올린다. 탕은 다시마, 두부, 무, 북어, 소고기 등을 넣고 끓인다. 제사음식을 만들 때는 특히 정갈함을 강조하고, 고춧가루는 쓰지 않는다. 그 외 메와 탕, 적, 전, 떡, 과자 등이

149) 최준식은 세시의례음식과 통과의례음식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시의례음식에서는 몸의 성장·발달 및 인체 대사에 필요한 영양을 획득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통과의례음식에서는 육류 등을 통한 단백질 보충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세시의례에서는 떡이나 제철에 나는 과일 혹은 채소 등을 섭취해서 탄수화물과 비타민 보충의 성격이 강한 반면, 통과의례는 각 개인이 맞는 중요한 시점에 차리는 음식이라 잘 먹자는 의미에서 고기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의 의미가 크다(최준식, 앞의 책, 236~237쪽.)

올려진다.

이보영이 처음 시집왔을 때 시댁에서는 제기(祭器)로 유기와 목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목기는 물에 넣으면 변색이 되거나 칠이 벗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마른 행주로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30년 전에 이보영은 녹슬지 않고 관리하기에도 편한 스테인레스 제기로 바꾸었다.

- **명절음식** : 명절의 개념이 변화되었다. 예전에는 설과 추석 못지않게 한식, 단오, 동지가 중요했지만, 요즘은 설과 추석 정도만 설 뿐이다. 설날에는 만두(속 : 김치, 돼지고기, 숙주나물, 잡채), 떡국을 준비하고 갈비찜과 토란국과 여기에 제사음식을 보태서 준비한다.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을 모두 챙긴다. 예전엔 개고기를 즐겨먹었는데, 요즘엔 손주들이 개고기를 꺼리기 때문에 주로 닭을 요리해 먹는다. 복날 먹는 음식이 효과가 있다고 제보자들은 믿고 있다. 불교를 신봉하는 이보영의 경우는 칠석과 백중을 위해 음식을 하거나 집에서 따로 쇠지는 않고 절에 가서 선친을 위해 불공을 드리고, 또 절에서 음식을 먹고 돌아온다. 추석에는 깨, 콩, 팥, 밤 등으로 속을 넣은 송편을 빚고 차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 동지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점심공양으로 절에서 준비한 팔죽을 먹고 온다.

옛날에는 생일상으로 미역국, 밥, 떡(주로 콩설기)을 준비해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곤 했지만, 요즘엔 식구들끼리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외식 때는 주로 삼겹살 등 고기이다. 아들 4형제만을 둔 이보영은 자녀들의 생일에 친정어머니가 절구에 뺑아서 수수팔떡을 해주면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여, 아이들이 열 살이 될 때까지 매년 수수팔떡을 해주었다. 손자들 생일에도 열 살까지는 떡을 해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케익과 선물을 사주었다. 아이들이 떡보다 케익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 통과의례음식

이보영은 아들 네 형제를 결혼시킬 때, 피로연을 한 식당에서는 갈비탕과 술만 준비하게 하고 대부분의 음식을 집에서 마련해갔다. 그때 준비한 음식은 떡(송편, 인절미), 청포묵, 더덕 무침 등을 하고 통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 이보영의 회갑연은 집에서 치러졌다.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뷔페를 불러서 대신하고, 본인은 물론 아들, 며느리, 이보영의 동기간에게까지 한복을 사주었다. 남편은 나이 50세에 사망하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희망이 없다고 하여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집에서 눈을 감았다. 따라서 문상도 집에서 받았는데, 안방에 마련하였다. 문상 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하

여 고기를 삶고 술과 밥을 내놓았다. 갑작스런 죽음인지라 수의와 상복은 모두 급하게 구입했는데, 수의는 가게에서, 상복은 시장에서 구입했다. 요즘은 상복을 농협에서도 판매한다. 운구는 상여가 아니라 영구차로 장지까지 모셨다. 49재(四十九齋)는 절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냈다.

다. 외식

외식은 휴일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 가끔 하는데, 메뉴는 그때마다 다르다. 집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 그들이 자장면이나 피자 등을 좋아하여 가끔 배달시켜 먹기도 한다. 여름 피서와 동네에서 해마다 가는 봄철 나들이도 외식을 하게 하는 주원인이다. 창곡 마을의 경우 올해는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2박 3일간 진도와 조도를 다녀왔다. 봄철 나들이를 갈 때 예전에는 동네 부녀자들이 음식을 만들어가곤 했지만, 요즘은 주로 여행지에서 사먹는다. 예전에 음식을 가지고 갈 때는 밥은 찌고 떡(주로 인절미)도 하고 배추김치, 오이김치, 북어찜 등을 장만하고, 닭도 삶아서 가져갔다. 닭으로는 주로 닭계장을 해먹었는데, 당시에는 가스가 없었기 때문에 석유곤로를 들고 다녔다.

(4) 저장음식

가. 장류¹⁵⁰⁾

- **메주** : 메주를 쏠 때 옛날에는 네 말 정도를 췌다. 그러나 요즘엔 두 말이면 충분하다. 이렇듯 양이 반으로 줄어든 까닭은 예전에는 사먹을 게 없어서 순전히 김치와 된장에 식생활을 의존해야 했고 또 모내고 김멜 적에 일꾼들의 일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장과 김치를 넉넉히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영농의 기계화도 장과 김치의 저장량을 줄이는데 한몫을 한 셈이다. 장이든 김치든 예전에는 모두 담아 먹었지만 지금은 장은 사서 먹는다. 이보영 닌의 경우 고추장은 어찌다 며느리가 담기도 하지만, 간장과 된장은 모두 슈퍼나 시장에서 사 먹는다. 특히 요즘엔 조선간장을 잘 쓰지 않고 왜간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국장만큼은 아직도 이보영이 직접 담아 먹는데, 청국장은 사먹으면 제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음력 9월 말에 메주콩으로 메주를 췌서 메주를 만들어 통풍이 좋고 비가 들지 않는 곳에 매달아둔다. 음력 12월이 되면 이렇게 매달아놓은 메주가 바짝 마르면서 발효가 된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 따뜻한 곳에 둔다. 그리고는 설을 쇠 후 음력 1월 10일쯤 되면 메주를 반으로 잘라 깨끗이 닦아서 햇볕에 바짝 말린 다음, 말날에 장을 담는다. 말날 장을 담아야 맛이 있다고 전해오기 때문이다.

150) 제보자: 조학년(여, 75세, 고향은 대구. 창말 거주), 방순애(여, 53세, 복정동 거주)

- **간장** : 항아리에 말린 메주를 담고, 소금물을 붓는다. 이때 소금의 양은, 물 한말에 소금 석 되 정도가 적당하다. 소금물에서 계란을 띄웠을 때 계란이 쏙 내려가면 간이 싱겁고 계란이 반쯤 뜨면 간이 맞다. 여기에 참숯과 붉은 고추, 대추를 넣고서 한 달쯤 되면 메주가 다 우러난다. 그러면 메주를 건져내어 메주와 간장을 분리한다. 이렇게 메주가 우러난 간장물을 체로 거른 후 술에 달인다. 달이지 않을 경우, 냄새가 나고 쉽게 변질되기 때문이다. 간장을 담을 때 별다른 금기사항은 없다. 왜냐하면 간장 담을 때 숯이며, 붉은 고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이미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된장** : 간장을 담고 나서 담는다. 간장에서 분리해낸 된장을 다라에 담고서 치댄 후, 항아리에 담으면 된장이 된다. 이때 된장을 맛있게 담는 비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간장을 담기 전 메주를 한 장쯤 남겨 그것을 잘게 부순 다음, 방앗간에 가져가 막장 식으로 가루로 뿜는다. 그리고는 된장을 담기 위해 간장물에서 건져낸 메주에다 그 가루를 섞고, 소금과 물을 조금 더 넣어 같이 치댄다. 이때 맛을 보아 약간 짠 듯 하면 간이 맞다. 만약 싱거울 경우, 된장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변질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다.
- **고추장** : 역시 간장을 담고 난 뒤 담는다. 된장처럼 간장을 담기 전에 메주를 한 장 남겨서 아주 곱게 갈아서 둔다. 고추는 곱게 갈고, 엿기름가루는 체에 걸러 놓는다. 찹쌀 빵은 것에 엿기름가루를 붓고 질퍽하게 버무려 술에다 끓이면 이것이 삭아서 식혜처럼 멀겁게 물이 된다. 메주가루, 고춧가루를 그 달인 물에 버무리면 고추장이 된다. 버무리릴 때 물엿을 조금 넣으면 맛이 좋다. 간은 소금을 넣어 맞춘다. 고추장은 바로 먹어도 되지만, 된장이나 간장은 1년을 넘겨서 먹어야 맛이 난다.
- **청국장** : 콩을 담가 삶은 다음, 소쿠리에 건져 놓는다. 건져놓은 콩이 아직 뜨거울 때 비닐을 씌워서 한쪽에는 전기담요를 깔고 또 한쪽은 담요 등으로 덮어서 폭 썬 워놓는다. 그렇게 띄우기를 한 다음, 소금과 고춧가루 등을 넣고 절구나 다라에 찜는다. 청국장이 잘 썬졌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나무주걱(쇠주걱이나 숟가락은 不可)으로 떠봤을 때 진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 **담복장** : 담복장은 된장과 거의 비슷하지만 간장을 빼지 않고 바로 담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메주를 뿜아서 물과 소금을 넣고 간장을 빼지 않고 바로 담으면 담복장이 되는데, 담복장은 금방 변해 오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담지 않는다.

나. 김치류

장류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김치를 담그는 일도 줄었다. 오늘날 한국인은 김치를 자가생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제 생산의 것을 구입하여 먹는 방식으로 김치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난 주부들은 대체로 김치를 자가생산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김치를 구입해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¹⁵¹⁾고 한다.

그럼에도 음력 10월 말이 되면 성남에 사는 주부들의 손길은 여전히 바빠진다. 김장을 담그는 철이기 때문이다. 속이 짝 찬 튼실한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거리를 사고 이들을 손질하는 일이 여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요즘 도회지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김치를 담아먹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김치를 공급하는 어머니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주영하는 「식구론 :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음식관습」이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김치의 분배 행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김치의 분배가 가능한 인간관계는 다른 의미에서 그들이 원래의 식구 집단이었으며, 자녀들이 분가하여 각각의 가족을 형성한 후에도 김치를 共食하는 범주적 구성원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¹⁵²⁾.

손희선은 김장을 해서 일곱 집으로 나눈다. 손희선은 슬하에 딸 5명, 아들 1명을 두고 있는데,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내외를 포함해서 6집과 작은 집까지, 모두 일곱 집이 나눠먹을 김치를 담는다. 한편 슬하에 아들 2명, 딸 2명을 둔 조학년은 세집이 나눠먹는데, 시집간 딸은 멀리 살고 있고, 또 그 쪽 시댁에서 가져다먹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

김장은 주로 11월 말에 하는데, 이때에는 주로 배추김치와 달랑무김치, 파김치를 담는다. 김장을 담을 때에는 평균 100포기 정도를 담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를 해서 김장을 하는데, 100포기를 담으려면 5~6명의 일손이 필요하다. 요즘에도 그렇듯 100포기씩 담는 이유는 옆집끼리 나눠먹고, 자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이다. 양념으로는 멸치젓, 새우젓, 갈치액젓을 쓴다. 김치는 김치냉장고를 사용하여 보관하거나, 아직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지 못한 집은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따로 냉장고 한 대를 쓰기도 한다.

151) 주영하, 앞의 논문, 23쪽.

152) 주영하, 앞의 논문, 23쪽.

3. 의생활

(1) 의생활의 변화

50년 전까지는 옷감을 집에서 직접 만들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옷감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6.25 이후부터는 생활방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6.25 이후, 성남 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양상이 있는데, 첫째,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을 떠다가 직접 옷을 지어 입는 방법이다. 이 경우, 옷본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몸의 치수를 재거나 마름질을 할 때 바느질자 등의 기본적인 도구만을 사용하여 눈대중으로 옷을 만들었다. 이때 사용되는 도구는, 바느질자, 인두, 인두판, 화로 정도. 즉, 바느질자로 재가면서 마름질을 한 후, 인두판 위에 마름질한 옷감을 올려놓고서 화로에 담은 불에 인두를 달구어 잡아당기면서 인두질을 했다. 계절에 따라 옷감의 사용을 달리 했는데, 봄, 가을에는 강목을 두 겹으로 겹쳐서 옷을 만들었고, 여름엔 주로 베나 모시를 사용했으며,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목화를 탄 솜을 틀고 씨를 빼낸 다음, 그 솜을 넣어서 솜바지 등을 해 입곤 했다. 둘째, 시장에서 옷을 사 입었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워 걸어 다닐 수 있는 송파시장을 주로 이용했다. 셋째, 붓짐장수들에게서 옷이나 참빗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 이때 거래는 화폐보다는 쌀 등의 곡식을 주었다.

최근에는 옷을 지어 입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해서 입는다. 어쩌다 몸빼처럼 간단한 옷은 지어 입기도 하지만 드문 일이다. 옷을



↑ 창말 허옥희씨가 친정조카 월남파병 때 친정식구와 함께부산으로 마중 가서 촬영(1960년대 중반, 좌측에 있는 분이 허옥희)



↑ 허옥희씨 친정조카가 월남에서 돌아왔을 때 찍은 사진

구매하는 경우, 외출복과 평상복을 구입하는 시장이 각기 다르다. 외출복은 주로 동대문시장이나 백화점에서, 평상복은 모란시장에서 구입하는 편이다. 작업복의 경우는 일부러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외출복으로 입다가 낡은 옷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옷의 분류

가. 일상복

일상복은 집에서 편하게 걸치는 평상복과 일할 때 입는 작업복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그 경계는 모호하다. 평상복으로 입던 옷이 헐었을 경우, 그것을 작업복으로 사용한다. 일상복은 시장에서 구입하고, 주로 면 소재를 고른다. 때로는 외출복이나 평상복으로 입던 헌 치마를 뜯어서 몸빼처럼 간단한 종류의 작업복을 만들어 입기도 한다.

작업복은 봄, 가을은 물론 여름에도 긴 옷을 착용한다.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자를 쓰는 경우에도 챙이 넓은 모자를 애용하고 그 위에 다시 수건을 둘러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위에는 주로 헐거워진 남방을, 아래에는 몸빼를 걸치고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즐겨 신는다.

나. 비일상복

- **외출복** : 창말 사람들은 외출복은 놀러갈 때, 이웃집에 갈 때, 시장갈 때, 혹은 나들이갈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창말 사람들이 외출복으로 인식하는 옷은, 칼라 달린 옷옷과 기지 바지가 가장 많고, 여름엔 모시옷을, 겨울엔 모직 코트를 떠올린다.

노인들의 경우 외출복은 생일이나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선물해주는 옷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옷을 선물 받는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직접 사주는 것보다 돈으로 주어 자신이 맘에 드는 옷을 직접 골라 입는 것이 훨씬 좋다. 옷을 구입할 경우에 동대문시장을 이용하거나 세일 기간에는 백화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한편 신발의 경우는 티켓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신발을 고를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편안함의 여부이다. 발이 편해야 디스크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때로는 남대문시장에 가서 수입상품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가볍고 질기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한참 유행했던 효도신발은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집안에 잔치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점잖게 보이고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한복

을 즐겨 입는다. 예를 들면 집안사람의 결혼식, 회갑연, 명절, 시제, 차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자와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복을 입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나이든 사람은 한복을, 젊은 사람은 양복을 입는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한복 못지않게 생활한복도 즐겨 입는데, 입기에 간편하기 때문이다. 한편, 남의 결혼식, 회갑연 등에는 남녀 모두 주로 양복을 차려 입는다.

- **혼례복** : 손희선은 남편과 중매로 만나 열아홉에 시집을 왔다. 얼굴도 모른 채 시집을 왔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오는 게 두려운 줄도 몰랐다고 한다. 초례를 치른 날 신부집에서 하룻밤을 머물지 않고 시집으로 바로 오는 것이 경기도 풍습이어서, 손희선도 대례(초례)를 치른 그날로 가마와 배를 갈아타고서 시집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시집에 들어온 그 이튿날부터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색시놀음(색시구경)을 왔다. 색시는 아랫목에 앉아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일어섬과 앉음을 반복해야 했는데, 색시놀음은 새색시가 해온 버선을 보며 며느리의 바느질 솜씨를 구경하고 동시에 새색시의 친절풍습이 암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었다 한다.

혼례 때 입는 치마저고리는 신랑집에서 옷감을 보내와 집에서 어머니가 옷을 지어 주었다. 옷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속에는 분홍저고리에 남색치마를, 겹에는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를 껴입었다. 여기에 활옷을 걸치고 족두리를 쓰고 흰 고무신을 신었는데, 활옷과 족두리, 덩(가마보다 큰, 궁중에서 쓰는 가마)은 따로 구입하지 않고 마을에서 구비해놓은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초례상에는 대나무(참대 : 사철 없이 편히 살라는 의미), 참대에 걸쳐놓은 청실·홍실, 남색 보자기에 싸인 장담(수탉), 쌀, 붉은 팔, 촛불, 용떡, 초례상 양쪽에 배치한 나무로 만든 기러기 두 마리 등이 있었다.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시집을 때 반드시 해 와야만 하는 혼수가 있었다. 내외가 쓸 낫그릇과 수저 한 벌, 낫요강, 경대, 이불, 시부모 옷 한 벌, 그리고 시부모와 친척들에게 줄 버선 한 죽이 그것이었다. 특히 버선 한 죽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단의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 **배내옷** : 융(폭신한 옷감)을 이용해서 재봉틀로 지어 입혔다. 어린아이에게는 단추나 지퍼도 위험하기 때문에 앞트임 양옆의 끈으로 온몸을 한 번 감싼 다음, 앞에서 여며 입을 수 있도록 끈을 달았다. 간난아이는 남녀 구별 없이 하의로 두롱치마를 해서 입혔는데, 발을 폭 덮을 만큼 길게 만들어 아기 이불의 역할도 겸하게 했다.

- 수의 : 부잣집은 주로 명주를 쓰고, 가난한 집은 삼베를 썼다. 아무나 만들 수 없고, 예법과 바느질 솜씨가 좋은 사람이라야 만들 수 있다. 겹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평소에 입는 옷과는 여밈 등이 반대이기 때문에 깃을 다는 것이 어렵고 헛갈리는 등 바느질이 상당히 까다롭다.

	기 본	부 속
남 자	속옷, 속저고리,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도포)	얼굴싸개, 머리싸개(=복건), 손싸개, 손톱, 발톱 주머니, 요, 이불, 장매(여미는 넓은 천), 맷베(묵는 끈)
여 자	속옷(사리마다:일종의 팬티), 생리대, 속저고리,고쟁이,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버선	
입히는 순서	속옷→속저고리, 고쟁이→치마, 바지→저고리→두루마기→(잘 사는 사람의 경우)도포→싸개→요, 이불→장매→맷베	

↑ 〈수의의 구성〉

수의를 구입할 때 예전에는 솜씨가 좋은 사람에게 맡기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병원에서 구입한다. 삼베의 경우, 200만원 정도를 호가한다. 창말의 경우, 마을에서 바느질 솜씨가 좋은 세 사람이 분업하여 수의를 만들기도 했다. 재단과 바느질은 허옥희(76)가 담당했고, 손희선은 미싱을 이용하여 바느질을 하였고, 당홍분은 옷고름을 달고 바지 허리를 다는 등 주로 마무리를 담당하였다. 이렇게 분업하여 만든 수의가 20벌 정도 된다.

수의는 옷장의 아래쪽에 보관한다. 수의의 경우에는 위에다 없으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 손희선은 서랍장 맨 아래칸에 수의를 보관하고 있는데, 밑에 신문지를 두툼히 깔고 그 위에 수의를 놓은 다음, 또 중간에 신문지를 끼워 넣어 습기와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한다.

(3) 의류의 보관

이불과 코트처럼 길고 부피가 큰 것은 장롱에 보관하는 한편, 차곡차곡 개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단스를 사용한다. 손희선은 5칸짜리 단스의 맨 아랫쪽 두 칸에는 남편의 옷을, 그 위쪽 세 칸에는 자신의 옷을 개서 보관한다. 남편의 옷을 아래쪽에 두는 이유는 남편이 연로하여 앉아서 옷을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류를 오랫동안 장롱이나 단스에 넣어둘 경우, 좀과 곰팡이가 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창말 사람들은 의류 보관을 위해 시장에서 좀약을 사서 넣어둔다. 또한 봄·여름

에는 가끔씩 통풍을 하기 위하여 장롱문을 열어둔다. 가끔 옷손질을 위해서 세탁소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겨울에 입은 모직 옷을 세탁할 필요가 있거나 양복을 세탁할 경우이다.

(4) 옷과 가족 이야기

창말에 거주하는 강순례에게는 특별한 옷이 한 벌 있다¹⁵³⁾. 작은집 조카가 해준 한복이 그것인데 조카가 집에 인사오거나 놀러 올 때마다 용돈을 조금씩 주어서 보냈더니, 취직을 한 후 조카가 그것을 잊지 않고 큰어머니인 자신에게 한복을 한 벌 선사한 것이다. 지금은 유행이 지나버려 그 옷을 입을 수는 없지만, 너무 고마운 마음에 입지 않아도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고마운 옷이라고 한다.

II. 세시풍속

1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세시풍속은 민속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의례, 신앙, 놀이, 음식 등 민속학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반적인 요소들이 세시풍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을이라는 공간과 1년이라는 시간의 맥락 속에서 주민들이 겪어가는 세시풍속은 그 지역의 생활문화를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圖面)과 같다. 따라서 세시풍속을 조사할 때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세시풍속을 어떻게 겪어가는 지 촘촘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조사보고서는 그 지역 문화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사는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태평동과 창곡동 중 두 개의 마을을 선택하여 제보자들의 대답을 통해 이 지역의 세시풍속을 살펴보았다. 1968년 김현옥 서울시장 시절 정부로부터 성남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곧이어 성남은 조용한 농촌에서 도시건설을 위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금번 마을지 조사지역인 태평동, 복정동, 창곡동은 당시 크고 작은 자연마을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오늘날 태평동은 행정구역상 당시 광주군 중부면 탄리¹⁵⁴⁾와 수진리를 합한 것으로

153) 제보자 : 강순례(여, 73, 광주 출생, 창곡동 창말 거주.)

154) 제보자 : 박○○(남, 78세, 토박이 주민으로 태평3동 거주)

탄리에는 독정마을과 남씨편, 건너말이라는 3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당시 '독정(讀亭, 현재는 신흥동에 속함)'마을은 현재 수정구청에서 성남초등학교까지 지역에 15가구 정도가 있었으며 주민들의 성씨는 남씨, 정씨 등 각성받이었다. '남씨편(南氏便)'마을은 현재 시청후문에서 영장산 기슭까지 세로로 길게 위치하였으며 15가구 정도가 거주하였는데 주로 남씨들이 살았다. '건너말'(윗숯골)은 현재 태평오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자리에서 중앙파출소가 있는 탄리사거리까지 세로로 위치하였는데 현재 탄리로 좌측에 마을이 위치하였으며 탄리로 우측에서 성남시청이 있는 곳까지는 농토였다. 건너말은 탄리 중에서 가장 큰 마을로 개발되기 전 60여 가구가 살았다. 지금도 당시의 원주민들이 10여 가구 이곳에 살고 있다. 당시 이곳은 조씨가 10여 가구 있었으나 각성받이 마을이었다. 박 씨의 경우, 조상대대로 이곳에서 살았는데 현재도 선대로부터 살아왔던 터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대로 살고 있다.

과거 수진리¹⁵⁵⁾에는 새탄말, 앞말, 뒷궁말, 새오개라는 4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는데 '새탄말'(아래숯골)은 현재 태평역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방향으로 수정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으며 과거 30~40여 가구가 살았는데 그중 전주 이씨(全州李氏)가 30여 호 되었다. 현재도 대다수의 토박이 주민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개발전과 비교하면 5가구 정도가 이사를 가고 나머지 주민들은 대부분 과거의 집터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전세를 놓아 집세를 받으며 살고 있다. '앞말'은 태평역 2번 출구 뒤쪽으로 20여 집이 있었으며, '뒷궁말'은 현재 성남경찰서에서 보면 성남대로 건너편에 6집이 있었다. '새오개'(새우등처럼 생겼다고 하여 새우고개가 와전)는 현재 경원대역 부근인 성남서초등학교 주위에 12집 정도가 있었다.

북정동(福井洞)은 과거 행정구역상 광주군 중부면 북정리였다. 개발되기 전인 1970년에는 북우물, 기와골, 안골, 가마절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었는데 '북우물'은 현재 경원대 밑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건너편까지 70여 가구가 살았는데 성남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의해 마을이 양분되었으며 수년 전부터 신축건물이 대거 들어섰다. '기와골'은 현재 성남대로에 있는 북정역 우측에서 북정초등학교 지역까지 40여 가구가 있었는데 현재 토박이는 10여 호가 거주하며 수년전부터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신축건물 사이에 있는 몇 집 남은 과거의 주택들은 곧 철거될 예정이다. '안골'은 북정사거리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조금 가다보면 도로 우측에 있는 마을이다. 과거에는 40여 가구가 살았는데 현재는 원주민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가마절'은 북정사거리에서 안골 입구를 지나 백여 미터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면 있는 마을인데 과거에는 20여 가구가 살았

155) 제보자 : 박규녀(여, 71세, 토박이 주민으로 태평1동 거주)

으나 현재는 원주민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¹⁵⁶⁾ 창곡동(倉谷洞)은 1970년에는 행정구역상 광주군 중부면 창곡리였다. 창곡리는 매착리와 간이골, 창리라는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착리'는 원래 주민들이 '매치기'로 불렀던 마을로 과거나 현재 비슷하게 20여 호가 거주하며 위치도 과거와 동일하다. '간이골'은 오늘날 외곡동으로 불리는데 1970년대에는 7가구가 드문드문 있었다. 1970년대 이 지역은 주로 논이었는데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던 정승화가 한때 땅을 소유하였다가 80년대에 전두환정권이 그 땅을 몰수하여 성남시에 귀속시켜 1990년대부터 대거 주택들이 신축되면서 현재와 같은 주택가가 되었다. 창리는 원래 '창말' 또는 '창동'으로 불리었던 마을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과거 병자호란 때 마을 뒤쪽 산골에 군량미를 보관한 창고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창말'이라 불리었다 한다. 창곡동에는 현재 상무대, 육군 행정학교, 문무대 등 여러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데 일제시대에는 이곳에 일본군 포병부대가 있었다. 지금 행정학교 취사장 있는 곳은 과거 병자호란 때 진을 친 곳이라 하여 '진터별'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촌로들은 동네가 병자호란 이전부터도 있었다고 한다¹⁵⁷⁾. 창말은 1970년에는 인근에서 가장 큰 마을로 100여 호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 마을 중 당시 큰 마을이었던 탄리의 '건너말'과 창곡리의 '창말'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시간적으로는 도시화되기 이전인 지난 1970년대 이전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즉, 과거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행해지는 세시풍속에 비중을 두었으나 서술함에 있어 과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변화양상과 원인도 함께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1. 창말의 세시풍속¹⁵⁸⁾

1월

(1) 설

- 차례 : 이 마을 경주 이씨(慶州李氏)댁의 경우, 설날 아침에는 식사를 하기 전에

156) 제보자 : 김영기(여, 71세, 토박이로 북정동에 거주)

157) 이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58) 창말의 세시풍속은 허옥희의 구술을 통해 조사했다(단 삼재막이와 홍수막이 부분은 송희선의 구술). 놀라운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과 충기를 가진 허옥희씨는 차분히 이 동네의 세시풍속을 말해주었다. 사실 세시풍속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 남녀를 함께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허옥희의 경우는 두루 상세히 알고 있었다. 허옥희의 시대는 경주 이씨이므로 제례의 경우는 집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경주 이씨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에는 떡국을 올리며 밥은 올리지 않는다. 또한 만두는 근래에도 일체 올리지 않는다. 아침 식사 후 성묘를 다니는데 산소는 마을 뒷산에 있다. 성묘를 다녀온 후 친척들과 동네어른들을 뵙고 세배를 드린다. 과거¹⁵⁹⁾에는 동네 어른들을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근래에는 집안끼리만 다닌다. 과거에는 대보름 안까지는 세배를 다녔다.

차례나 제사를 지내고 나면 다른 곳은 몰라도 터에는 떡이나 떡국 등을 가져다 놓는데 보통 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 기제사 때는 편(飰)을 가져다 놓는다.

- 청참 : 설날 '풍년 풍년'하고 우는 풍년새가 울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돼지가 울면 그해는 '결죽하다'는 말이 있다. 또한 까치소리를 들으면 손님이 오고 송아지가 울면 길하고 닭이 울면 그해는 풍세(바람)가 사납다는 말이 있다.
- 유모일(有毛日), 무모일(無毛日) : 설날이 유모일에 속하면 그해는 풍년이 들고 무모일(용날이나 뱀날)에 속하면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2) 정초

- 정초12支일 : 소날에는 도마질을 하지 않으며 솥에 밥도 넣어두지 않는다. 용날 물을 길러가면 일할 때 비 맞는다는 말이 있어 이 마을에서는 이날 우물물을 길러 가지 않는다. 용날에는 또한 칼질을 하지 않는다. 이날 칼질을 하면 용머리를 자른다는 말이 있다.



↑ 대보름에 허옥희씨 대문에 걸어놓은 채

- 귀신닭날 : 정월 16일에는 신발을 뜰에 두지 않고 방안에 들여놓으며, 대문 앞에 채를 걸어놓는다. 허옥희씨는 지금도 매년 이 날이 되면 대문 앞에 채를 걸어놓는다. 정월 14일에는 신발을 여러 개 줄에 꿰어 두는데 이렇게 하면 호박과 오이 등이 잘 열린다는 말이 있다.
- 토정비결과 신수점 : 정초에는 1년 신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정비결을 보거나 만신을 찾아가 신수점을 보기도 한다.
- 복조리 : 근래에도 정초가 되면 복조리를 판매하러 외부에서 상인들이 온다.

159) 여기서 말하는 과거란 성남이 도시화되기 이전인 1970년 직전인 과거 농촌사회를 지칭하도록 한다.

- **삼재막이와 홍수막이** : 성남이 도시화되기 전만 하더라도 성남주민들에게 무속은 삶에서 중요한 생활문화였다. 구체적으로 성남 주민에게 무속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여기에서는 창말에 거주하는 송희선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정월의 신수점, 삼재막이, 홍수막이로부터 7월에 칠석맞이, 가을에 햇곡맞이, 장례식, 질병 등에서 무속은 주민들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조사자 : 보통 정초에는 무당을 찾아가 1년 신수점을 보거나 홍수막이 또는 삼재가 든 사람은 삼재막이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아주머니의 경우에는 어떤가?

✎ 송희선 - 정초에는 대개 무당을 찾아가 신수점을 본다. 집안에 삼재가 있으면 만신이나 절에 가서 부적을 구해 방 문설주 위에 붙여놓는다. 이 마을에서는 요즘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정초에는 홍수막이를 한다. 정월 보름 안에 하는데 만신집에 가면 만신이 징을 치면서 두 시간 정도 해준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정월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전처럼 많지 않다.

칠석에는 칠석맞이를 한다. 만신집에서 2시간 정도 홍수막이 때처럼 한다. 요즘에는 4월 초파일에도 만신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래에는 무당들도 부처님을 신당에 많이 모셔두었기 때문이다.

가을에는 격년으로 10월에 ‘단풍맞이’ 또는 ‘햇곡맞이’ 한다고 하여 만신을 불러 집에서 굿을 한다. 굿을 하게 되면 대문에 황토를 깔아놓고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북굿은 몇 일씩하는 것도 보았는데 이 지방 굿은 하루면 된다. 보통 저녁에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에 끝난다. 이 지방에서는 제물로 돼지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로 우족을 갖다놓고 굿을 했으며 작두도 타지 않았다. 요즘은 무당들이 이북굿을 흉내 내어 작두를 타고 돼지를 잡는데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해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굿을 할 때 부정을 치기 전에 문에 떡을 꽂아놓았는데 동네사람들이 굿구경 와서 이것을 먹으려고 난리였다.

✎ 조사자 : 장례 끝나고 자리견이는 어떻게 했나?

✎ 송희선 : 우리 시부모까지는 내가 ‘자리견이’¹⁶⁰⁾를 해 드렸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웃에서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들 자리견이를 하였다. 보통 자리견이는 장례식날 장지에서 돌아오면 그날 저녁에 하는데 장지가 멀어 그날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삼오젯날 산소에 다녀온 후에 한다. 전에는 부조금으로 장례비용과 자리견이를 하는 비용이 충당되었다. 보통 자리견이 비용으로 쌀 한가마니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시부모님 장례 때는 내곡동에서 박수무당을 불러서 했다. 자리견이는 상문살이 없고 장례식에 다녀간 사람들 모두 편안하라고 한다. 요즘도 자리견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160) 장례식 직후 죽은 자가 누웠던 자리를 걷는다는 의미로 하는 천도굿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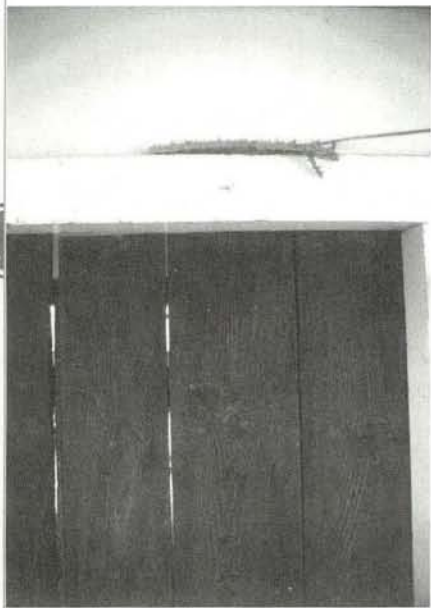
하지만 과거처럼 일반적이지 않다. 내가 죽으면 자리견이를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 조사자 : 성남이 도시화되기 전인 1970년대 이전에 이 마을에 왕래했던 만신들은 어디서 왔나?

✧ 송희선 : 과거 내곡동의 박수, 섬말, 새오개(현재 경원대 부근), 거여동 등지에서 만신들이 이 마을에 와서 굿을 했다. 과거의 만신들은 굿을 많이 했으나 돈을 많이 받지 않아 가난했다. 요즘의 만신들은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굿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 자주할 수 없다.

✧ 조사자 : 과거에는 병굿도 많이 하지 않았나?

✧ 송희선 : 요즘은 아프면 병원으로 가지만 전에는 병굿도 많이 했다.



↑ 함진득씨 대문 위에 걸어놓은
엄나무

● 엄나무 걸기 : 엄나무는 정월 초순(10일 전)에 대문 위에 많이 걸어 놓는데 근래에는 이렇게 해놓은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조사자는 2005년 추석에 주민 함진득(咸鎭得)씨 댁에 갔다가 그 집 대문 위에 있는 엄나무를 보았는데 함진득은 이렇게 해 놓으면 부정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예전부터 이렇게 해 왔다고 한다. 꼭 정월만이 아니라 동티가 있을 때 손 없는 날 엄나무를 대문 위에 걸어두기도 한다.

● 정초의 놀이 : 과거에 이 마을에서도 풍물을 쳤으나 정초에 고사반을 할 때는 수진리 사람들이 와서 했다. 고사반을 하러 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재수없다고 하여 마당에 쌀을 담아놓고 고사반을 하도록 했다. 정초에는 성인들은 옷놀이, 널뛰기, 강강술래¹⁶¹⁾를 하며 아이들은 연날리기, 팽이치기, 비석치기, 자치기 등을 하면서 놀았다. 정초에 놀다가 대보름이 지나면 농사 준비를 하므로 놀이를 하지 않는다.

(3) 입춘

● 입춘축 : 입춘이 되면 대문이나 마루 기둥에 ‘立春大吉’이라고 입춘축을 붙여놓는데 요즘도 주민 중 한두 집은 이렇게 하고 있다.

161) 강강술래는 마을의 부녀자들이 노는 놀이인데 청말 노인정에서 만난 노인들은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이 놀이를 해왔다고 한다. 노인 중에서도 강순애씨는 과거 강강술래를 할 때 선소리를 했던 분으로 조사자들에게 소리를 들려주었다.

(4) 대보름

- 불밝히기 : 14일 밤에는 접시불을 밝혀 집안 곳곳에 둔다.
- 잣불켜기 : 14일 밤에 잣을 바늘에 꿰고 식구의 이름을 대며 불을 붙여 그 불이 일어나는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의 한 해 운수를 점친다.
- 밤새기 : 과거에는 14일 밤에 자면 눈썹 센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 부럼 깨물기 : 요즘도 잣, 호도, 땅콩, 밤 등으로 대보름날 아침에 부럼을 깨문다.
- 귀밝이술 : 대보름날 아침에 귀밝이술이라고 하여 맑은 술을 마신다. 이 풍속은 요즘도 하고 있다.
- 더위팔기 : 대보름날 아침에 먼저 보는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한다.
- 제웅치기 : 14일 밤에 ‘지웅’이라고 하여 허수아비를 조그마하게 만들어 그 속에 동전을 넣어 두면 동네 아이들이 와서 가지고 간다. 아이들은 동전을 꺼내고 허수아비는 버린다.
- 달맞이 : 14일 밤에는 달맞이를 하는데 남한산성 쪽에서 달이 뜨므로 그쪽을 보고 달맞이를 한다. 이 마을에서는 달맞이를 하러 산에 올라가지는 않고 동네 아무 곳에서나 한다. 짚을 한 묶음 추려서 나이 수만큼 묶은 후 달이 뜰 때 불을 피워 달을 보고 절을 하며 소원을 빈다.
- 달점 : 과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꼭 달을 보았다. 보름달이 붉으면 그해 가뭄이 온다는 말이 있다.
- 쥐불놀이 : 14일에 아이들이 쥐불놀이를 한다. 요즘도 아이들이 쥐불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모깃불피우기 : 14일에 집안의 쓰레기, 짚 등으로 모깃불을 피웠다. 이렇게 하면 여름철에 모기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 �곡밥과 묶은 나물 먹기 : 14일 오후에 �곡밥을 먹는다. 이때는 고기나 김치를 먹지 않고 나물(시래기, 산나물, 콩나물 등)을 반찬으로 먹는다. 이때와 보름날 아침에 김치를 먹으면 여름철에 논에서 일할 때 생고자리에 쏘인다는 말이 있다. �곡밥은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 물에 말아 먹으면 일할 때 비가 온다는 말이 있다. �곡밥을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먹어야 하며 숟가락으로 먹지 않는데 숟가락으로 먹으면 논에 가래(풀)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 보름밥 얻어먹기 : 과거에는 14일 밤에 이집 저집 다니면서 �곡밥을 얻어먹는

풍속이 있었다.

-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 하기 : 14일에는 '밥 아홉 번 먹고 나무 아홉 짐 한다'는 말이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 과일나무 장가 보내기 : 과거에는 14일 오후에 과일나무 가쟁이에 돌을 올려놓는 풍속이 있었다.
- 소밥주기 : 14일에는 갯(소죽통을 이 지방에서는 '갯'이라 함)에다 오곡밥과 나물을 한쪽에 나누어 주는데 이때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그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 개보름쇠기 : 대보름에는 아침에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 노래기 쫓기 : 14일 저녁에 솔잎을 떼어 집 주위에 뿌리면서 '노랑각시 바늘 준다. 노랑각시 바늘 준다'고 한다. 초가지붕을 새 것으로 갈지 않고 오래도록 두면 짚이 썩어 '노랑각시'라는 벌레가 생기는데 냄새가 지독하다. 이 풍속은 초가지붕에서 살 때 하던 것이다.
- 어부슴 : 이 마을에는 '어부슴'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나 요즘도 밥을 종이에 싸서 강물에 던져 고기가 먹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에 가는 사람들이 방생하는 것과 같다.

2월

(1) 이월 초하루

- 나이떡 먹기 : 정월 그믐에 송편을 만들어 두었다가 이월 초하루 아침 식사할 때 나이 수만큼 먹는다. 송편을 빳을 때 쌀을 나이 수만큼 숟가락으로 떠서 그 만큼 빳는다.
- 여자들 남의 집에 일찍 가지 않기 : 이날은 여자들이 남의 집에 일찍 가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남의 집에 일찍 가지 않는다.

(2) 월중

- 말날 장담그기 : 남쪽 지방은 정월 말날에 장을 담그는데 이 지역은 2월 말날에 장을 담근다. 말날에 장을 담아야 장맛이 좋다는 말이 있다.
- 도롱이알 먹기 : 요즘도 노인들은 경칩 무렵에 도롱이알을 먹는다. 이 마을은 남한산성 아래에 위치하는데 마을 뒷산 계곡에 도롱이알이 있다. 도롱이알은 한식 전

에 먹어야 한다. 한식이 지나면 알에 생명체가 생기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 **좀생이점보기** : 2월 7일 좀생이별이 달보다 먼저 가면 먹을 것이 부족해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 해는 흉년이 들고, 달보다 나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 천천히 가도 되기 때문에 이런 해는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어 전에는 좀생이점을 보았다. 좀생이는 아이들이다.

3월

(1) 삼진날

- **호박 및 박심기** : 삼진날 호박이나 박을 심는다. 이 때 심어야 시기적으로 적당하다.
- **처음 본 나비색깔로 점치기** : 이 무렵에 처음 보는 나비 색깔이 흰색이면 그해 상복을 입고 노랑나비이면 몸이 가볍다는 말이 있다.
- **느티나무 잎 피는 것보고 풍흉점치기** : 이 마을에서는 간이골의 노인정 뒤에 있는 느티나무를 보고 잎이 많이 피는 방향에 그해 풍년이 든다고 예견하였다. 동쪽 방향으로 잎이 많이 피면 동쪽이 풍년이 들고 남으로 많이 피면 남쪽이 풍년이 든다고 한다.

(2) 한식

- **차례** : 한식에는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데 경주 이씨(慶州李氏) 댁에서는 이때 제물로 송편과 적, 과일 등을 가지고 가며 메는 올리지 않는다. 한식에는 성묘 외에도 개사토, 이장 등 묘를 손보는 일은 이때 많이 한다. 이때는 이런 일을 해도 탈이 없다 한다.
- **찬밥 먹기** : 한식에는 찬밥을 먹는다. 이날은 방에 불을 넣지 않기 때문에 찬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귀신을 막는다는 말이 있으며 이날 찬밥을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허옥희씨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나 근래에는 이 풍속을 지키지 않는다 한다.
- **썩떡 먹기** : 이 마을에서는 과거 한식에 썩떡을 많이 해먹었다.
- **씨 뿌리지 않기** : 한식은 고초일(苦草日)이라고 하여 이날은 씨를 뿌리지 않는다. 이 지방은 한식 전에 씨를 뿌린다.
- **한식의 날씨** : 한식날 천둥이 치면 국가에 불행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3) 월중

- **곡우에 볍씨뿌리기** : 과거에는 주로 곡우에 볍씨를 뿌렸으나 근래에는 곡우 안에 씨를 뿌린다. 볍씨를 뿌릴 무렵에 부정이 끼면 그날은 볍씨를 뿌리지 않고 깨끗한 날에 뿌린다.
- **놀이** : 이 무렵에 과거 아이들은 물오른 버들가지로 풀피리를 만들어 붙였으며, 여자아이들은 각시풀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놀았다.

4월

(1) 초파일

- **절에 가서 불공드리기** : 주변에 사찰이 여러 곳 있어 태평동에 있는 봉국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기타 본인들이 평소에 다니는 절을 찾아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 허옥희씨는 근래에 일원동에 있는 불곡사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한다. 이날은 절에 가서 연등을 달고 대웅전 앞에 있는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빌기도 한다.
- **음식** : 초파일에는 죽을 넣어 만든 개피떡을 많이 해 먹으며 미나리도 먹는다.

5월

(1) 단오

- **약쑥 베기** : 단오날 정오에 약쑥을 베어 말려야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산모가 있을 때는 쑥을 삶아 오강 속에 넣어 산모가 그 위에 앉아 몸을 찌게 하기도 하고 애기를 낳은 후 산모에게 약쑥 삶은 물로 몸을 씻겼다. 태어난 아이도 약쑥을 삶은 물로 씻겼다. 약쑥은 이밖에도 다양한 용도로 쓰였는데 땀을 뜨기 위해서나, 들에서 일할 때 담뱃불용(과거에는 성냥이 없으므로 약쑥에 불을 붙여놓았다가 그 불씨로 담배를 피울 때 마다 사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싯돌용(부싯돌 가까이에 약쑥을 두고 돌을 서로 치면서 쑥에 불이 붙게 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하므로 모기 향으로도 사용하여 모기가 기성하는 여름철에는 약쑥에 불을 피워놓기도 했다.
- **수리치떡 빚어먹기** : 단오에는 산에서 수리치를 뜯어 수리치떡을 많이 해 먹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 뒷산에 수리치가 많았다. 수리치는 작은 나무 밑에서 잘

자라는데 지금은 나무가 커져서 수리치가 사라졌다.

- 단오빔 단장 : 과거에는 단오가 되면 특히 여자들은 머리를 감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예쁘게 하고 나갔다.
- 창포에 머리감기와 창포비녀 꽃기 : 과거에는 이 마을에 집집마다 울안에 창포를 길러서 단오에 이것으로 머리를 감고 뿌리는 깎아서 비녀를 만들어 꽃았으나 요즘에는 이것을 심어 놓은 집이 없다. 이 마을에 있는 화원 같은 곳이나 가면 볼 수 있다.
- 단오에 비가 오면 곡식이 석자 석치가 줄어든다 : 단오에 비가 오면 곡식이 석자 석치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다. 단오에 비가 오면 좋지 않다.
- 그네뛰기 : 4월 초파일에 그네를 매어 5월 단오까지 뛰고 이날 줄을 끊는다. 과거에는 마을 앞에 있는 소나무에 그네를 매었다. 그네에 올라갈 때는 '모기 몰자' 하면서 그네를 뛴다.
- 단오놀이 : 단오놀이를 하면 년중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단오놀이 한다고 이장이 돈을 거두어 놀았는데 장고를 치고, 그네를 뛰고 피리, 젓대를 불고 놀았다. 요즘도 단오가 되면 과거처럼 장고를 치거나 그네를 뛰지는 않지만 술 마시고 논다.



↑ 창말 어느 주택에 걸어놓은 약쑥

(2) 월중

- 익모초즙 마시기 : 여름철에 더위를 먹었을 때는 익모초즙을 마시거나 익모초를 찌서 먹기도 한다.
- 봉선화 물들이기 : 5월에 여자들은 봉선화로 손톱에 물을 드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6월은 썩은 달이라고 하여 6월에 물을 들이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



↑ 봉선화

6월

(1) 유두

- 머리감기 : 유두에는 머리를 감는다. 이날 놀지는 않는다.

(2) 월중

- 복날 : 복날에는 보신탕, 닭, 수박 등을 먹는다. 이 마을에서는 초복이 되면 매년 노인정에서 노인잔치를 한다. 허옥희씨가 시집오기 전부터 이 마을에 복날 노인잔치를 하였다고 하니 오래된 전통이다. 2005년 7월 15일 조사자가 이 마을에 가던 날도 초복이라 노인잔치를 하였다.
- 여자들 참외밭에 가지 않기 : 이 무렵에는 참외가 한창인데 부정이 탄다고 하여 상가집에 다녀온 사람이나 여자들은 참외밭에 오지 못하게 했다.
- 기우제와 기우풍속 : 5~6월에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를 지낸다. 남자들은 마을 북판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여자들은 같은 날 우물을 퍼서 동서남북으로 서서 체로 물을 까분다. 비가 오지 않아도 기우제는 보통 단오 지나고 지낸다.
- 태종우 : 허옥희는 “음력 5월 10에 과거 내곡동의 현릉(獻陵)에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임금이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타 죽는다하고 장작불이 다 탈 때까지 있으면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릉은 조선 3대 임금인 태종의 능이다. 태종은 5월 10일에 임종하였는데 죽을 무렵 나라에 가뭄이 심해 태종이 깊이 시름하며 내가 죽으면 비가 내리게 하겠다하고 죽었는데 임종한 후 곧 바로 비가 내려 그 해는 나라에 풍년이 들었으며 매년 5월 10일 무렵에는 비가 내려 사람들은 이맘때 내리는 비를 ‘태종우’라고 불렀다. 허옥희의 이야기는 태종우와 관련된 설화가 와전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태종의 능에 가서 임금들이 비를 기원하는 풍속이 있었는지는 고찰해 보아야 알겠지만 이 지방의 촌로들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지방 기우풍속에 현릉이나 태종우가 의미를 가지고 구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두레와 두레싸움 : 과거에 농사를 질 때는 공동노동이 필요했다. 특히 김매기를 할 때는 두레조직을 이용하여 하였다. 김을 맬 때는 힘겨움을 잊기 위해 노동요를 불러 가면서 하였는데 선소리꾼과 악사가 논에서 풍물을 치면서 앞으로 나가면 일꾼들은 뒤에서 뒷소리를 받아가며 김을 매면서 일을 했다. 들판에서 이웃마을의 두

례를 만나면 기싸움을 했다. 두레에서는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농기를 들고 다니는데 두레싸움을 하게 되면 이 깃발 위에 있는 꿩털을 먼저 뺏는 쪽이 이기게 된다. 따라서 깃대를 드는 사람은 튼튼한 사람으로 한다. 기싸움을 하여 진 마을은 이긴 마을의 두레기를 ‘형님기’라고 부르며 그날 술을 산다. 다음부터 들판에서 만나면 진 마을에서는 이긴 마을기를 보고 깃대로 인사를 하며 형님기라고 예우를 해야 한다. 진 마을에서는 이것이 싫어 서로 맞닿지 않도록 피해 다니기도 하고 마을에 힘센 사람이 생겨 자신감이 있으면 다시 도전하기도 한다. 과거 창말은 강하여 이웃마을에서 이기지 못했다. 1960년대까지는 이러한 풍속이 있었다.

7월

(1) 칠석

- 칠석맞이 : 절이나 만신집에 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칠석맞이를 하고 절이나 만신집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서 칠석맞이 고사를 지낸다. 이날 호박을 넣고 밀전병을 하여 막걸리와 함께 터주자리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낸다. 칠석 때 장독대에는 물을 떠놓고 북두칠성 쪽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자손들 명(命)있게 해달라고 빈다. 허옥희씨는 과거에는 집에서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빌었는데 근래에는 절에 가서 칠석맞이를 한다.
- 여자들 먼저 들에 나가지 않기 : 칠석에 여자가 먼저 들에 나가면 칠석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내려다보고 곡식을 줄게 한다는 말이 있다.

(2) 백중

- 차례 : 백중에 자손이 없는 조상들을 위해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요즘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부터 이날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보지 못했다.
- 백중장 가기 : 과거 이 마을에서는 송파장으로 갔다. 백중에 장에서는 씨름을 하였다. 머슴을 부리는 집에서는 이 때 중의적삼을 한 벌 해주고 노잣돈을 주어 백중장에 가서 놀다오도록 했다.

(3) 월중

- 우물치기 : 과거에는 많은 비가 오고 나면 우물이 흐려지기 때문에 연중 수시로 우물을 쳤다. 우물은 봄에도 치나 비가 많은 여름철에는 자주 쳤다. 과거 창말에는

우물이 두 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메웠다. 우물을 치고 나면 막걸리를 한 잔 우물 앞에 올렸다.

- 벌초 : 벌초는 음력 7월 보름 무렵에 많이 하는데 근래에는 공휴일에 시간을 내어 한다.

8월

(1) 추석

- 차례와 성묘 : 경주 이씨(慶州李氏) 덕의 경우 차례상에는 메는 올리지 않고 송편을 대신한다. 차례를 지낸 후에는 시제를 지내지 않는 4대조 이하의 조상님의 산소를 찾아뵙고 성묘를 한다.

9월

(1) 중양절

- 차례 : 백중 때와 같이 자손이 없는 조상을 위해 이날 절에 가서 제를 지내는 사람도 있다.

10월

(1) 월중

- 시제 : 시제는 5대조 이상의 조상의 산소에 찾아가서 지내는데 10월 중 적당한 날을 잡아 일가친척들이 참여한다. 경주 이씨(慶州李氏) 덕은 과거 수진동에 선영이 있어 그곳에서 시제를 지냈는데 성남이 개발될 때 산소를 없애고 유골은 화장하여 뿌렸다. 당시에는 납골당을 만드는 풍속이 없어 납골당에 모시지 못했는데 현재 이 마을에서는 함씨 덕에서만 가족 납골당을 만들어 놓았다.
- 안택고사 : 이 지방에서는 가을에 지내는 고사를 '가을고사'라고 하는데 지금도 토박이들은 시월이 되면 적당한 날을 골라 팔떡을 해서 집안의 신들에게 고사를 지낸다. 과거에는 이 무렵에 '신곡맞이'로 굿(추수감사의 뜻으로 가을에 하는 안택굿)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11월

(1) 동지

- 팔죽쭈기 : 경주 이씨(慶州李氏) 덕은 과거 장티푸스로 죽은 조상이 있기 때문에 동지에 팔죽을 쭈지 않는다. 이 지방에서는 열병으로 죽은 조상이 있는 집에서는 동지에 팔죽을 쭈어먹지 않는다. 근래에는 절에서 팔죽을 쭈어 나누어 주기 때문에 절에 가는 사람들은 집에서 쭈지 않고 절에 가서 먹는 경우가 많다.

12월

(1) 선달그믐

- 묵은세배 : 선달그믐날 밤에 1년 동안 감사의 뜻으로 어른께 '묵은세배'를 하는데 이것은 정초의 세배와는 달리 부모나 조부모 등 가까운 가족에게만 한다.
- 불 밝히기 : 이날 밤에는 불을 끄지 않고 집안 곳곳에 밝혀둔다.
- 콩볶아 먹기 : 과거에는 전날 밤에 콩을 볶아두었다가 선달그믐날 아침에 '왜놈 볶아 먹는다'고 하여 콩을 먹었다.
- 집안 청소하기 : 이날은 지난 한해의 모든 부정한 것을 쓸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으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월중

- 참새잡이 : 겨울철에는 참새를 잡아먹었다. 과거에는 초가지붕 속에 굴을 파놓고 참새가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막아 참새를 잡아 구워먹었다.

윤달

윤달은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이라 하여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수의를 만들고 묘이장, 사초, 집수리나 이사 등도 이 때 많이 한다. 근래에도 이런 일은 윤달에 주로 한다.



↑ 조사자에게 세시풍속을 말해주고 있는 창말의 노인정에서 만난 아주머니들

2. 탄리의 세시풍속¹⁶²⁾

1월

(1) 설

- **차례** : 설날 아침에는 식사를 하기 전에 차례를 지낸다. 박아무개 댁의 경우를 살펴보면, 차례상에 메 대신에 떡국을 올리는데 만두는 만두대로 따로 올리며 다른 제물은 일반 제사음식과 같다. 설날 차례를 지낸 후 떡국을 대청, 터주 등에 가져다 놓는데 추석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 **성묘와 세배** : 아침식사 후 성묘를 간다. 과거에는 집안은 물론 동네어른까지 모두 찾아뵙고 세배를 드렸는데 근래에는 가까운 친척에게만 세배를 한다.

(2) 정초

- **귀신답날** : 16일은 귀신답날이라고 하여 과거에 신발을 방안에 들여놓았다.
- **복조리 걸기** : 정초에 외부상인들이 마을에 와서 복조리를 팔러 다닌다. 이것은 근래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 **삼재막이** : 삼재가 들면 만신집에 가는 사람은 만신에게, 절에 가는 사람은 절에서 '삼두매'가 그려져 있는 부적을 얻어 출입문의 문설주 위에 붙여 놓는다. 또한 만신이나 스님이 주관하여 삼재풀이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풍속은 요즘도 흔히 볼 수 있다.
- **홍수막이** : 과거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정초에 만신집에 가서 홍수막이를 했다. 근래에도 만신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 **엄나무 걸기** : 과거에는 집안에 부정이 들지 말라고 엄나무를 대문 위에 걸어놓는 집들을 볼 수 있었으나 근래에는 보지 못했다.
- **정초의 놀이** : /고사반 - 과거에는 정초에 고사반을 했다. 대개 마을에 풍물패가 있어 마을의 주민들이 고사반을 하는데 이 마을은 마을에 풍물패가 있었으나 정초가 되면 다른 마을에서 5~6명 정도의 풍물패가 깃발을 들고 와서 고사반을 했다.

162) 조사일시 : 2005. 7. 15~16 제보자 : 박○○(남, 78세, 건너말에서 태어나 현재도 거주), 탄리의 경우 건너말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제보자는 박아무개씨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면에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 이 마을의 경우 과거 원주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박아무개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세시풍속을 조사하였다. 이런 경우 제보자가 남자이므로 여자들이 잘 아는 민속신앙이나 여자들의 놀이, 음식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마을에 예전에 행해졌던 풍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성남이 개발된 후부터는 이러한 풍습을 볼 수 없었는데 근래에는 성남의 젊은이들이 만든 풍물패에서 정초에 시장을 돌면서 고사반을 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과거에는 풍물패가 고사반을 돌 때 집집마다 안마당에 고사반을 만들어 놓는데 즉, 상을 펴고 그 위에 쌀 말통에 쌀이나 콩을 담아 놓고 위에 다시 쌀이 담긴 대주 밥그릇을 올리고 밥그릇에 대주의 숟가락을 꽂은 후 숟가락에 실타래를 감아놓는다. 또한 말통 좌우에 북어를 꽂아놓는다. 상에는 촛불을 켜고 청수를 떠놓는 집도 있다. /웃놀이 - 정월 초순부터 대보름까지 웃놀이를 많이 했다. /널뛰기 - 여자들은 정초에 널뛰기도 했다. /팽이치기·비석치기·자치기 - 아이들은 정초에 팽이치기, 비석치기, 자치기를 했는데 마을에 화천이 없으므로 논에 물을 넣어 얼음판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그곳에서 썰매를 타고 팽이치기도 했다. /연날리기 - 현재 수진초교 쪽 능선 위에서 과거에는 연날리기를 많이 했다. 능선에서 연날리기를 해야 연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고 잘 날았기 때문이다. 정초에 연날리기를 시작해서 14일이 되면 '액을 띄워 보낸다'고 하여 날려 보낸다. 과거 정초의 놀이는 대보름이 지나면 하지 않고 그 후로는 농사준비를 했다.

(3) 입춘

- 입춘축 : 입춘이 되면 '立春大吉' 등의 글귀를 적은 입춘축을 대문이나 마루의 기둥 등지에 붙여놓는다. 요즘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4) 대보름

- 불밝히기 : 과거에는 14일 저녁에 들기름을 넣은 접시에 숨을 말아 심지를 만들어 불을 밝혀서 집안 곳곳에 두었다.
- 잣불켜기 : 과거에는 14일 밤에 잣을 비늘에 꽂고 식구의 이름을 대며 불을 붙여 그 불이 일어나는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의 한 해 운수를 점쳤다. 잣이 맑게 잘 타면 운수가 좋고 그을음이 많이 나면 좋지 못하다.
- 밤새기 : 과거에는 14일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이 풍속이 사라졌다.
- 어부슴 : 이 마을에서 어부슴이라는 용어는 듣지 못했으나 과거에 주민들은 "고기 밥 주러 간다"고 하여 14일 저녁에 조밥을 깨끗한 종이에 싸서 강물에 던져 고기가 먹게 했다.
- 부럼 : 15일 아침에 부럼을 한다고 아침 식사 전에 잣, 호두, 밤 등을 깨물어 먹는다. 이렇게 해야 부럼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토박이 주민들은 요즘도 이렇게

하는데 근래에는 땅콩으로도 많이 한다.

- **귀밝이술 마시기** : 15일 아침에 귀밝이술을 마신다. 술은 맑은 약주로 마시는데 토박이 주민들은 요즘도 이렇게 하고 있다.
- **더위팔기** : 15일 아침에 해뜨기 전에 보는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하며 더위를 판다. 근래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
- **제흉 버리기** : 이 마을에서는 ‘지웅’이라고 하는데 14일 밤에 지웅을 집에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가져가 그 속에 돈은 자기들이 갖고 지웅은 버린다. 지웅을 버릴 때는 전부 찢어서 버려야 좋다고 하여 돈을 깊숙이 넣어 아이들이 돈을 찾기 위해 지웅을 찢도록 한다. 과거에 돈은 1전짜리 동전을 사용했다.



- ↑ 2004년 대보름에 탄천가에서 성남지역 문화패들이 모여 달집태우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 행사는 ‘숫대’를 비롯한 지역문화패들이 몇 년전부터 매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성남지역의 달맞이 풍속과는 차이가 있다. 멀리서 대나무를 구입하여 만들어놓은 달집은 남부지역에서 행하는 것을 모방한 것이다.

- 보름달 보고 풍흉점치기 : 과거에 노인들은 보름달을 보고 풍년이 되는지 그해 가뭄이 드는지 등을 점쳤다. 보름달이 붉으면 가뭄이 든다고 했다.

● **달맞이** : 달맞이를 이 마을에서는 ‘다람질’한다고 하는데 14일 밤에 짚을 한 묶음 추려서 나이 수만큼 묶어 달이 뜰 때 짚에 불을 붙인 후 달을 보고 절을 하며 소원을 빈다. 이것은 보통 아이들이 하는데 불이 위험하므로 이 때 어른들이 아이들 옆에 지키고 서 있는다. 이 날은 달을 빨리 보기 위해 산 능선으로 올라가는데 건너말의 경우에는 현재 수진초교가 있는 능선으로 올라가서 달맞이를 했다. 163)

163) 태평2동 봉곡사 앞에 '달맞이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골목길이 있는데 그곳이 과거 달맞이와 연관이 있는 곳인가 하여 조사자는 토박이 주민 박아무개씨에게 물어 보았더니 모른다고 하였다. 관청에서 임의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과거 이 지역 주민들이 달맞이를 한 곳이라는 유래가 있어서 지명을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 **다리밟기** : 현재 창곡동에 있는 육군 행정학교 자리는 과거 일본군 포부대가 있었다. 일제시기 북정동 사거리에 군용다리가 생겼는데 건너말에서는 그곳으로 다리밟기를 갔다. 15일 저녁에 풍물패가 농악복색을 입고 풍물을 치면서 군용다리에 가서 놀다 온다.
- **오곡밥과 묵은 나물 먹기** : 14일 오후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장만하여 먹는다. 묵은 나물은 시래기, 산나물 등을 말려두었다가 이날 먹는다. 오곡밥을 먹을 때와 15일 아침에 밥을 먹을 때 김치를 먹으면 여름에 논에서 일할 때 생고자리¹⁶⁴⁾에 쏘인다고 하여 김치를 먹지 않는다. 보름날 아침은 명일이라고 하여 첫 숟가락은 김을 싸서 먹으며, 이날은 백반에 북어찜, 청어찜 등을 해서 잘 먹는다. 또한 15일 아침은 숟가락으로 먹으면 김멜 때 큰 이랑이 걸린다고 하여 젓가락으로 먹는다.
- **오곡밥 흠쳐먹기** : 과거에는 14일 밤에 아이들이 오곡밥을 흠쳐 먹기 위해 이집 저집 다녔다.
- **아홉 번 행동하기** : 14일은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 한다는 말이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 **과일나무 장가보내기** : 14일 오후에는 과일나무 가쟁이에 돌을 올려놓는다.
- **개보름쇠기** : 15일에는 개에게 아침밥을 주지 않고 저녁에만 준다.
- **쥐불놀이** : 14일 밤에 쥐불놀이를 한다. 옛날에는 깡통이 없었으므로 짚을 묶어서 돌렸는데 그 후 깡통이 나오자 아이들이 깡통으로 했다. 근래에는 태평동은 도심이 되어서 쥐불놀이를 할 수 없다.

2월

(1) 이월 초하루

- **콩 볶아 먹기** : 과거에는 이날 “왜놈 볶아 먹는다”고 하면서 콩을 볶아 먹었다.
- **나이떡 먹기** : 과거에는 정월 그믐에 쌀을 숟가락으로 가족의 나이 수만큼 떠서 송편을 빚어 다음날 아침을 먹을 때 송편을 나이 수만큼 먹었다.
- **여자들 남의 집에 일찍 가지 않기** : 과거에는 이날 여자들은 남의 집에 일찍 가지

164) 생고자리는 하얀 것이 구더기 같이 생겼는데 논에서 일할 때 이것에 쏘이면 매우 아프다. 과거에는 장화가 없어 맨발로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거머리나 생고자리 같은 것이 농부들을 괴롭혔다.

않는다는 말이 있으나 이 마을에서는 남녀 누구나 남의 집에 가지 않았다.

(2) 경칩

- **도롱이알 먹기** : 경칩 무렵 도롱이알을 먹는다는 말이 있으나 과거 탄리에는 깊은 산골이 없어 도롱이알을 구하기 힘들었다. 그래서인지 도롱이알을 먹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3) 월중

- **좀생이점** : 2월 6일 좀생이별이 달보다 먼저 가면 아이들이 밥을 먼저 먹기 위해 가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 천천히 가는 것이라고 하여 좀생이별이 달보다 먼저 가면 그해는 흉년, 나중에 가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 **말날 장담그기** : 2월 말날에 장을 담근다.

3월

(1) 한식

- **차례** : 한식에는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낸다. 이때 음식은 기제사와 동일하다. 박아무개씨의 경우에는 지금도 차례를 지내는데 선산이 광주군 목현리에 있어 그곳으로 간다. 묘이장, 개사토 등 묘를 손보는 일도 이때 많이 한다.

(2) 월중

- **처음 본 나비색깔로 점치기** : 3월에 처음으로 보는 나비의 색깔이 호랑나비이면 그해는 길하고 흰나비를 보면 상복을 입는다는 말이 있다.
- **범씨 뿌리기** : 주로 곡우 무렵에 범씨를 뿌리는데 부정한 일이 있으면 이때는 범씨를 뿌리지 않고 다른 날을 택한다.
- **놀이** : 과거에는 3월에 물오른 버들가지를 잘라서 풀피리를 붙였다.

4월

(1) 초파일

- **절에 가기** : 초파일에는 마을 가까이에 봉국사가 있어 그곳으로 불공을 드리러

간다. 봉국사는 성남에서 가장 큰 사찰로서 초파일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신도들로 북적되며 신도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연등으로 절 마당이 장관을 이룬다.

5월

(1) 단오

- **약쑥베기** : 과거에는 단오에 약쑥을 베어 두었다가 훗날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여름철에 약쑥이 독하므로 모기향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성냥이 귀했을 당시에 는 들에 약쑥을 피워놓았다가 담뱃불을 붙일 때 사용했다.
- **익모초 즙 마시기** : 정확히 단오 때는 아니지만 이 무렵에 더위를 먹었을 때는 익모초를 짜서 즙을 만들어 먹었다.
- **창포에 머리감기** : 단오에는 창포에 머리를 감는다는 말은 들어보았으나 과거에 이 동네에는 창포가 나는 곳이 없어 머리를 감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 **그네뛰기** : 단오에는 그네를 뛰었는데 그네는 도당굿을 하는 느티나무에 매었다.
- **봉선화 물들이기** : 5월에 봉선화를 따서 여자아이들은 손톱에 물을 들인다.

6월

(1) 월중

- **두레** : 과거에는 두레가 있어 논에서 김을 맬 때 선소리꾼과 악사가 앞에서 풍물을 치면서 나가면 뒤에서 김을 매면서 뒷소리를 따라 했다. 일을 힘들지 않고 재미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들판에서는 이웃 마을의 두레와 만나면 서로 기싸움을 했다. 1960년대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그 후로는 이러한 풍속이 사라졌다.

7월

(1) 칠석

- **칠석맞이** : 칠석에는 만신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 만신집을 찾는 사람들은 가족들의 수명장수를 비는 치성을 드리고 온다. 1970년 무렵에 탄리에는 만신집이 없었다. 이 마을에서는 섬말에 만신집이 있어

그곳으로 갔다.

- **칠석고사** : 칠석 때에는 밀전병을 해서 막걸리와 함께 터주가리에 올린다. 과거에 이 마을 토박이주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했다. 박아무개씨 댁에서는 요즘도 이렇게 하고 있다

(2) 백중

- **백중장 가기와 머슴대접** : 과거 백중에는 판교시장이나 송파장으로 갔다. 머슴¹⁶⁵⁾을 부리는 집에서는 머슴에게 이날 노잣돈을 주고 증의적삼을 한 벌 해주어 백중장에 가서 놀다오도록 했다. 백중날 장터에서는 '백중씨름'이라 하여 씨름대회가 열렸다.

(3) 월중

- **복날** : 지금도 복날이 되면 '복다림'한다고 하여 보신탕이나 닭을 먹는다. 조사자가 세시풍속을 조사하기 위해 태평동에 갔을 때가 초복(2005년 7월 15일)이었는데 이날도 박아무개씨를 비롯한 노인들은 음식점에 가서 보신탕을 먹었다.
- **우물치기** : 칠월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과거에는 맑은 물을 받기 위해 우물을 쳤다. 필요에 따라 년중 우물을 수시로 쳤으나 우물고사를 지내지는 않았다.
- **벌초** : 음력 7월에 집안마다 적당한 날을 정해 벌초를 한다. 근래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보통 공휴일에 많이 한다.

8월

(1) 추석

- **차례와 성묘** : 추석에는 차례를 올리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이날 밥을 올리지 않고 송편만 올리는 경우도 있으나 박아무개씨 댁은 밥과 송편을 함께 올린다. 이날은 주로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과 햇과일을 올린다. 차례를 지낸 후에는 산소에 성묘를 간다. 이날 성묘는 시제를 지내지 않는 4대조까지의 산소를 찾는다.

165) 이 무렵의 머슴들은 신분제적인 하인이 아니다. 과거 산업이 발달하기 전 일자리가 부족했던 시대에 가난하거나 땅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땅을 소작하거나 머슴이 되었는데 당시의 머슴은 계약직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 이들은 봄철에 계약을 하여 추수 후 세경을 받으면 주인과 계약이 끝난다. 머슴은 땅이 많은 부잣집에서나 필요로 했다.

10월

(1) 월중

- 시제 : 10월 중 적당한 날을 잡아 자손들이 모여 5대조 이상의 산소를 찾아가 시제를 지낸다.
- 가을고사 : 10월에 적당한 날을 택일하며 건너말에 살던 토박이 주민들은 근래에도 가을고사를 지낸다. 내용은 민간신앙부분 참조

11월

(1) 동지

- 팔죽 : 동지에는 팔죽을 쑤어먹는 집도 있고 쑤어먹지 않는 집도 있다. 팔죽을 쑤어먹는 집에서는 성주, 터주 등 집안의 신들 앞에 올려 두었다가 나중에 뿌린다. 동지가 되면 봉국사에서는 불공을 드리고 팔죽을 쑤어 신도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날 집에서는 팔죽을 쑤지않고 절에 가서 먹고 오는 사람도 많다.

12월

(1) 섣달그믐

- 집안 청소하기 : 이날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해를 맞이한다.

(2) 월중

- 참새잡이 : 과거에는 겨울철에 참새를 잡아먹었으나 근래에는 도회지가 되어 이렇게 할 수 없다.

윤달

윤달에는 근래에도 수의를 만들고, 집수리나 묘이장, 사초 등을 많이 한다. 윤달에 이런 것을 하면 탈이 없다는 말이 있다.

III. 일생의례

1. 출산

근래에는 아이를 낳을 때 병원을 찾는다. 임신이 되면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산부인과에 입원해서 아이를 낳고 몇일 후 집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과거처럼 유아사망율이나 산모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줄었다.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때는 출산을 앞두고 산모가 순산을 하지 못하면 산파를 부르기도 하고, 삼신할머니께 정성을 다해 빌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서양식 병원이 들어온 것도 오래 되었지만 의료보험¹⁶⁶⁾이 온 국민에게 일반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에서는 창말 노인정에서 만난 허옥희씨 및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 가정에서 출산할 때를 중심으로 하여 이 마을의 출산의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출산 전의 풍속

- 임신부나 가족이 금기하는 행위나 음식 : 임신을 하면 닭뿔나 오징어 등을 먹지 않는다. 이런 것을 먹으면 아이에게 미(자국)가 나온다. 임신부가 누울 때는 자리와 자리가 만나는 중간지점에는 눕지 않는다. 집안에 임신부가 있을 때는 아궁이 속에 그을음이 차도 걷지 않는다.
-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아는 방법 : 임신부의 뒷몸매가 예쁘면 아들을 낳고 아랫배가 너무 볼록하면 딸이다.
- 유산방지를 위한 방법 : 은가락지를 다려 먹거나 두레박줄을 삶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 임신한 아이를 떼기 위한 방법 : 고로쇠나무 뿌리를 다려 먹거나 파리뿌리를 삶아 먹어도 아이가 떨어진다.

166) 한국에서 의료보험의 실시는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1968년 장기려(張起呂)가 청십자운동(靑十字運動)을 전개하면서이며,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은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면서부터이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1988년에는 5명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 해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 밖에 1987년에 한방의료보험이, 1989년에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 태몽 : 복숭아, 대추, 살구, 알밤 따는 것을 보면 아들이다(이것은 씨가 있기 때문에). 붕어, 호랑이, 벌을 잡거나 보면 아들이며 용꿈을 꾸면 큰 인물이 태어난다고 한다. 밤송이가 벌어진 것을 보거나 잉어, 뱀, 구렁이 등을 꿈에 보면 딸이다. 허옥희는 태몽으로 바위 속에 호랑이가 있는 것을 보았으며, 우물에 물이 가득 있는 것도 보았다. 딸을 낳을 때는 가락시장에서 밤, 대추를 줍는 꿈을 꾸었다.

(2) 출산풍속

- 출산준비 : 출산이 임박하면 방을 깨끗이 치우고 짚을 깎는다. 탯줄을 자르기 위한 가위와 실을 준비해놓고 아이가 입을 배넛저고리, 아이 배에 묶을 소창(아이의 배에 탯줄을 자른 후 소창으로 상처를 감싸 그곳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함), 포대기, 대아 등을 준비해 놓는다.
- 아이를 낳는 장소 : 과거에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근래에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다. 과거에도 병원이 있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으나 의료보험이 없던 시대라 병원비가 비싸 대부분은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과거에는 주로 시댁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경우에 따라 친정에 가서 낳는 사람도 있었다.
- 산파 : 허옥희가 아이를 출산할 무렵에는 송파에 산파가 있었다.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므로 걸어가서 데리고 왔다. 동네에도 출산할 때 잘 보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동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산파는 출산 전에 불러 아이를 낳고 나면 보내고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며 산모의 뒷수발을 들어준다. 출산할 때 산파를 불러놓으면 마음이 편하다. 과거에 산파는 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가 낳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했다. 보통 순산일 경우에는 부르지 않으며 난산일 경우에 애를 쓰다가 산파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과거 산부인과에 있다가 휴직하거나 퇴직한 간호원들이 산파를 하기도 했다.
- 순산을 위한 방법 : 허옥희는 난산일 경우에는 임신부가 있는 방안에 피마지대를 거꾸로 열십자가 되게 하여 세워 놓는다는 말을 들어보았으나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마을에서 보지 못했다 한다. 애기를 낳다 죽은 조상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 마루 끝에 미역국과 밥을 상위에 차려 놓고 비는 것은 본 적 있다 한다.
- 태어난 아이의 처리 : 아이가 태어나면 실로 탯줄을 묶은 후 끊고 배에 솜을 댄 후 소창으로 배를 감싼다. 더운물로 아이의 입을 씻기고 손발부터 먼저 물을 적신 후 몸을 씻긴다. 아이 몸에 양수가 묻어 있기 때문에 씻겨야 한다. 그리고 포대기로 싸서 아랫목 따뜻한 곳에 둔다. 태어나서 아이가 울지 않을 때는 거꾸로 하여

발을 들고 불기를 때리면 운다. 아이의 배꼽은 실로 감은 탕줄이 떨어지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물이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보통 상처가 아무는데 1주일 정도 걸린다. 엄마 몸속에 있는 탕줄도 출산 직후 빼내야 한다. 밖으로 나온 탕줄의 일부를 잡고 서서히 당기면 나온다. 태어난 아이는 3일간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수시로 따뜻한 물로 입술이나 적혀준다. 3일간은 산모의 젖이 나오지 않는다. 그 후 산모에게 젖이 나올 때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아이가 스스로 빨아먹는다.

- **첫국밥** : 출산 후 산모에게 첫국밥을 먹인다. 첫국밥은 쌀밥에 미역국을 주며 다른 반찬은 없다. 산모는 출산 후 3일간은 몸에 '바람이 들면 좋지 않다' 하여 그대로 누워 있도록 하고 밥만 자주 먹인다. 이때는 하루 낮에 4번, 밤에 1번 정도 밥을 먹인다. 3일 후 약쑥물로 목욕을 시킨 후 쑥을 요강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좌욕을 하도록 한다.
- **태의 처리** : 마당에 산모가 깔고 있던 짚을 놓고 그 위에 탕줄을 올려서 태운다. 이것을 '삼불 피운다'고 한다.
- **금줄** : 산모에게 첫국밥을 먹인 후 남편이 대문에 원새끼로 금줄을 친다. 아들을 낳으면 숯과 고추, 딸을 낳으면 숯과 솔가지를 금줄에 매단다. 금줄은 21일간 쳐놓는데 금줄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21일 안에도 초상집에 가지 않은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은 볼 수 있다. 가족이라도 '강을 건너 온 사람은 산모의 젖이 마른다'고 하여 21일 안에는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한다. 요즘도 아이를 낳으면 시골인 경우에는 금줄을 친다. 시골에 젊은이가 없어 아이를 낳는 것을 볼 수 없어 금줄을 보기가 힘들지만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후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면 금줄을 친다.
- **삼신상 차림** : 아이가 태어난 후 7, 14, 21, 100일, 둘 때 아침에 아이 머리맡에 밥, 미역국, 숟가락을 올린 삼신상을 차려놓는다. 이 마을에서는 출산 후 3일 째는 삼신상을 차리지 않는다. 삼신상에 '삼신할머니 고맙습니다'하면서 빌고 그 밥은 산모가 먹는다.
- **아기의 의복** : 출산 3일 후 아이에게 배냇저고리를 입히고 21일 후에는 옷을 지어 입힌다. 또한 3일부터는 아이가 젖을 먹으므로 이때부터 대소변을 스스로 가릴 때까지 기저귀를 채운다.

(3) 양육풍속

- **이름짓기** : 출산 후 7일 정도 되면 집안의 조부나 부친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

최근에는 작명가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

- **배냇머리와 손·발톱의 처리** : 배냇머리는 이발해 주는 사람도 있으나 돌이 지나면 빠진다. 손 발톱은 엄마가 입으로 떼어 준다.
- **첫나들이** : 보통 생후 1달 정도 지나면 이웃집에 데리고 가는데 이때는 '처녀포대기'를 만들어 아이를 업는다. 처녀포대기는 비단으로 빨강 혹은 연두색으로 하여 수를 놓아 예쁘게 만든다. 보통 아이를 낳으면 친정에서 아이 옷 한 벌, 처녀포대기, 기저귀 등을 선물로 준다.
- **대소변 가리기 훈련** : 아이가 자라면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도록 가르친다.
- **젖 떼는 방법** : 아이가 자라면 점차 죽을 먹이며 젖을 떼야 하는데 과거 약방에서 팔던 쟁기랍을 젖에 바르면 쓰기 때문에 아이가 젖을 먹지 않는다.

(4) 백일

- **백일 때 아이가 입는 옷** : 백일이 되면 아이에게 집에서 만든 깨끗한 저고리와 바지를 입히고 복건을 씌워준다. 이때는 아직 아이가 제대로 앉지 못한다.
- **백일상** : 백일상에는 흰무리(백설기를 경기지역에서는 '흰무리'라 함), 밥, 미역국, 수수팔떡 등을 차린다. 백일상은 돌상에 비해 간단히 차린다.
- **삼신상** : 백일 아침에 쌀밥과 미역국으로 삼신상을 차려놓는다.
- **이웃과의 관계** : 백일은 '백사람이 먹어야 아이에게 좋고 명이 길다'는 말이 있다. 백일은 아이의 명이 길게 되라고 하는 것이며, 돌은 '첫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날 아침에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고 떡을 이웃에 돌린다. 전로부터 백일에는 부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에 음식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부조를 할 수 밖에 없다.

(5) 돌

- **돌 때 아이가 입는 옷** : 남자 아이는 풍차바지, 색동저고리, 타리개버선(타래버선을 주민들은 '타리개버선'이라 함), 복건을 씌우고, 여자아이에게는 색동저고리와 치마, 머리에는 조바위를 씌운다. 근래에는 한복만 입히고 돌잔치를 하기도 한다. 1983년에 허옥희 손녀딸의 돌잔치 때 사진을 보면 한복만 입고 있다.
- **돌상** : 돌상은 잘 차린다. 수수팔떡, 흰무리, 무지개떡, 송편 등과 함께 책, 붓, 먹, 돈, 실타래(이것을 집으면 명이 길다), 등을 놓아 아이가 무엇을 먼저 잡는가를 보고 아이의 장래를 점친다. 허옥희 손녀딸의 돌잔치 사진을 보면 '케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래에는 돌상에 올리는 음식도 서양식 풍조가 가미되고 있음을



↑ 허옥희씨 손녀 돌잔치(1983, 남자아이는 친구임)

부조를 해야 한다.

2. 혼례

민속은 시대에 따라 변해간다. 그 변화의 요인은 생활환경의 변화와 외래문화의 유입에 의해서 비롯된다. 근래 우리의 생활환경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 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었다. 시간에 따라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그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그 적응의 산물인 민속은 그 때 그 때의 얼굴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민속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때 그 때의 얼굴을 나타내지만 그 얼굴은 그 이전의 얼굴에서 변화되는 것이며 그 얼굴과 이전의 얼굴들 사이에는 일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 때 그 때의 얼굴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연결해 봄으로서 그 끈의 실체를 느낄 수 있다. 그 끈은 오랜 세월동안 내려오는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며 그 때 그 때의 얼굴은 '그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말해준다.

한국인의 일생의례 역시 여기에 예외가 아니다. 혼례라는 민속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생활문화사(生活文化史)'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창곡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허옥희 집안사람들이 시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혼례를 어떻게 엮어가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방법은 2005년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허옥희와 그의 아들, 딸을 직접 만나 대담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허옥희의 경우에

알 수 있다.

- 삼신상 : 백일 때와 동일
- 이웃과의 관계 : 돌 때도 백일과 마찬가지로 떡을 이웃집에 돌리며 가까운 사람들은 아침식사를 함께 한다. 이때 이웃집에 떡을 돌리면 빈 그릇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과거에는 그릇에 돈을 넣거나 쌀을 넣어 보냈다. 요즘은 음식점에서 하기 때문에

는 면담을 하면서 비디오촬영을 하여 채록한 후에 그 후 몇 차례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의 조사내용에 대한 서술방식은 제보자들의 말을 충실히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우에 따라서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을 섞어서 표현하였음을 밝혀둔다.

(1) 허옥희씨의 혼례

1928년 양재동에서 태어난 허옥희는 18세인 1946년에 창말에 사는 경주 이씨(慶州李氏) 19세 된 총각과 혼례를 했다. 혼례 후 차남인 신랑은 시댁으로부터 이웃에 있는 집을 세간으로 얻어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꾸렸으나 그 밖의 재산은 얻지 못해 첫출발은 가난했었다. 열심히 살면서 점차 재산을 불려갔으며 부잣집이었던 친정에서도 땅을 살 때 조금 보탬을 주었다. 현재까지 신혼살림을 꾸렸던 그 집터에서 장남과 함께 살고 있다. 자녀는 2남 2녀를 두었다. 허옥희가 결혼할 당시는 해방 직후이므로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국민들의 생활은 빈곤한 상황이었으나 허옥희의 친정과 시댁은 부유한 집이었다. 따라서 허옥희와의 대담을 통해 살펴본 그의 혼례식은 가난했던 사람들의 사례와는 달리 혼수품 등을 보더라도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¹⁶⁷⁾. 이 사례는 해방 직후 서울 근교지역의 혼례는 물론, 당시 부유한 집의 혼례풍속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가. 혼례 전의 절차

- **중매·양가 어른들 뵙기** : 허옥희는 18세 되던 해 당시 창말에 사는 시댁 큰시어머니(伯母)의 중매로 창말에 사는 남자와 혼담이 오가게 된다. 혼례 전 신랑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혼례 전에 서로 배우자의 얼굴을 보는 경우는 드물었다. 배우자 간에 '맞선'¹⁶⁸⁾은 보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와 고모가 신랑을 만나보았다. 신랑 측에서는 시어머니와 큰시어머니가 여자집으로 찾아와서 보았다.
- **궁합보기** : 시댁의 시할아버지가 궁합을 보았다.
- **사주단자 보내기** : 봄에 신랑댁에서 사주단자가 오고 난 후 혼례 날짜를 정하여 가을에 혼례를 했는데 사주단자는 중매를 한 사람이 가지고 왔다. 사주단자는 신랑의 사주를 써놓은 창호지를 접어놓은 것 위에 수수깁을 올려놓고 청실과 홍실로 매어 있었으며 신부가 입을 치마 저고리감(이것은 혼례 때 입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

167) 조사자가 『판교마을지』(성남문화원, 2001)에서 소개한 1952년에 행해진 판교의 이순덕·이호석부부나 『판교마을지1』(성남문화원, 2002)에서 소개한 1948년에 행해진 운중동의 김현정·박송용부부의 사례에 비하면 부잣집의 혼례였음을 알 수 있다.

168) 허옥희보다 5세 아래인 동생은 결혼 당시 맞선을 보았다 한다. 그 무렵에도 맞선을 보는 사람이 드물게 있었으나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옷을 지어 나들이용으로 입는다)과 3돈짜리 금가락지가 함께 왔다.

당시에 선을 본 후 양가 어른들의 마음에 들면 상대방의 사주를 중매쟁이에게 물어보아 궁합을 보았다. 따라서 사주단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서로의 사주를 알고 있으나 굳이 사주단자를 보내는 것은 공식적인 관례이며 서로 혼사를 하겠다는 징표(約婚의 의미)이다. 혼례날짜는 양가의 형편에 맞추어 중매쟁이를 통해 상의하나 최종결정은 신랑집에서 하여 중매쟁이를 통해 신부댁에 통보한다.

- **함 보내기(納幣)¹⁶⁹⁾와 친영(親迎)** : 혼례를 하는 날 아침에 신랑과 함진애비(함을 지는 사람)와 신부가 탈 가마를 운반하는 사람 등이 왔다. 함을 지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지고 오기도 하나 과거 양반들은 수고비를 주고 함꾼을 사기도 했다. 양반들의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은 하인들이었다. 함을 지고 갈 때는 7명 또는 9명이 온다.¹⁷⁰⁾ 이때는 9명이 왔다. 청사초롱을 든 사람 두 명이 앞장을 서고 뒤에 신랑과 신랑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 집안어른, 짐꾼이 따른다. 함진애비는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가며 일행이 신부의 동네어귀에 다다르면 청년들이 신랑에게 재를 뿌린다. 이런 것은 '부정이 들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재가 신랑에게 가지 못하도록 우산을 들고 가리기도 한다. 따라서 신랑은 대례를 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함이 도착하면 대청에 봉치떡(찰떡을 시루로 찐다)을 놓고 그 위에 함을 올리게 한다. 이윽고 신부의 부친이 함에 손을 넣어 보았다. 함속에는 혼서지와 채단(청색과 홍색의 비단 옷감 두 벌¹⁷¹⁾), 비녀, 머리 쪽에 꽂는 각종 장신구, 신부 두루마기가 들어 있었다. 봉치떡에서 함을 내리고 나면 떡을 퍼서 먼저 신랑에게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준다. 허옥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함꾼들이 신부집에 와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돈을 요구하는 풍속은 그 후에 생긴 풍조라고 한다.

나. 혼례식과 그 후의 절차

- **기러기 드리는 예(奠雁禮)** : 신랑과 장모 사이에 서로 보이지 않게 장막을 쳐놓고 신랑이 기러기를 들고 건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 장모에게 준다. 장모는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안방에 놓고 기러기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위에 시루를 얹어 놓는다. 기러기를 대례상에는 올리지 않는다. 안방에 그대로 두었다가 신랑이 집으로 돌아갈 때 빌린 것이므로 돌려준다.

169) 신랑집에서는 보통 함을 혼례식 전날 보내는 것이 상례인데 이때는 친영 갈 때 같이 보냈다.

170) 허옥희에 의하면 신부가 신행을 갈 때는 신부 측에서 11명이 간다고 한다.

171) 이것은 혼례 후 입을 장래 저고감이다. 혼례 때에는 속치마를 입고 그 위에 남치마에 분홍저고리나 홍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는다.

- **혼례식(醢禮)** : 신랑 일행이 함을 들고 오기 전에 미리 안마당에 대례상을 차려놓는다. 신랑이 대례상 동쪽에 서고 신부가 맞은편에 서서 홀기의 순서대로 대례를 행한다.
- **신랑상** : 대례 후 신부집에서는 신랑에게 돼지다리, 갈비, 떡, 부침개, 과일, 술 등을 푸짐하게 차려준다. 이때 남은 음식을 고리짝에 넣어 신행 때 신랑집으로 가지고 간다.
- **신랑집으로 가기(新行)** : 대례를 마치면 신랑집으로 간다.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가는데 이때 신부집에서 준비한 혼수품을 모두 들고 간다. 보통 붓짐을 든 짐꾼들이 신랑일행을 따르는데 허옥희의 경우에는 짐이 많아 수레에 싣고 갔다.
- **신부가 신랑집으로 들어 갈 때의 풍속** : 신부가 신랑집으로 갈 때 동네어귀에 들어서면 신랑집에서는 '주당살'을 피한다고 집밖으로 모두 나온다. 신부가 가마에서 내릴 때는 붉은 보자기를 씌워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한다.¹⁷²⁾ 이렇게 하여 부엌으로 들어가 보자기를 벗기고 조왕(부뚜막)에 절을 세 번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 입구에 솔뚜껑을 놓고 낫쇠로 만든 숟가락을 들고 머리 위에서 솔뚜껑에 닿도록 떨어뜨린다. 이렇게 하여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게 한 후 솔뚜껑을 밟고 방안으로 들어간다.
 이 지방에서는 과거 신부가 시집을 때 친정에서 시댁으로 오는 방향이 삼살방이나 대장군 방향과 일치하면 '소코두레'¹⁷³⁾를 속치마 속에 넣어 치마끈으로 매어 가지고 와서 신방 출입문 위에 달아놓았다. 소는 아무 방향으로 가더라도 방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허옥희도 시집을 때 이렇게 했다.
- **색시상(신부큰상)** : 방으로 들어가면 신부에게 색시상이 나온다. 이때는 여러 가지 음식을 잘 차려서 신부에게 주는데 돼지다리, 과일, 부침개, 떡, 고기 등 푸짐하다. 이때 음식은 신랑이 3일째 처가(妻家)에 갈 때 가지고 간다. 신부집에서는 '색시상' 왔다고 이 음식들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¹⁷⁴⁾ 반대로 신부집에서는 '신랑상'이라고 하여 잘 차려서 신랑을 대접한다.
- **사당차례** : 식사를 한 후 사당차례를 지냈다. 시부모가 차남이고 당시 시조부모가

172) 허옥희에 의하면, 이것은 부정이 따라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서울곳에서 호구별상을 놀 때 붉은 보자기를 뒤집어쓰는 것과 같다 한다.

173) 이사 갈 때도 방향이 그해 삼살방이나 대장군 방향과 일치하면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다.

174) 이때 3일 동안 음식을 두면 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따라서 혼례식은 겨울철 또는 음력 10월에 많이 했다. 또한 이 무렵은 추수가 끝난 후라 농촌도 한가하기 때문이다.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사당차례는 이웃에 있는 큰택에 가서 대청에서 지냈다. 신부는 이때 활옷을 입고 신랑은 두루마기를 입었다. 이때는 메 대신 국수를 올린다. 국수와 기타 음식을 차린 후 지방을 써 붙이고 차례를 지낸다. 경주 이씨(慶州李氏)인 시댁은 조상이 많아 조상 수대로 지방을 바꾸어 갈고, 그때 마다 국수도 다시 올리고 여러 번 차례를 지내어 시간이 많이 걸렸다.

- **폐백(幣帛)** : 폐백은 안방 혹은 마루에서 하는데 시부모부터 가까운 친척 순으로 한다.
- **초야(첫날밤)** : 폐백이 끝나고 밤이 늦어 곧바로 잤다. 신방에 한쪽은 병풍을 쳐놓고 한쪽문은 일부러 사람들이 엿보도록 열어놓았다.¹⁷⁵⁾
- **재행(再行)** : 3일후 신랑만 처갓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온다. 이때 동네 청년들이 처갓집에 와서 함께 술상을 차려놓고 논다. 청년들이 신랑을 달아매고 발바닥을 때리며 짓궂은 장난을 치고 술값을 내라고 하면 장모가 대신 술값을 내준다. 또한 처갓집에서는 사위에게 씨암탉을 잡아준다.
- **첫 친정나들이(觀親)** : 시집온 후 신부가 친정에 가는 것은 가을에 추수 후나 정월에 새해 인사로 가는데 허옥희의 경우에는 음력 10월에 혼례를 했기 때문에 새해에 친정을 갔다. 이때는 부부가 함께 가는데 인절미, 절편 등 떡을 닷말 정도 하고 복어찜, 약주, 담배 등을 푸짐하게 준비해서 갔다. 시댁으로 올 때는 친정에서 더 많이 준다. 소고기찜, 엿, 단술(식혜를 이곳에서는 '단술'이라 함), 떡 등과 가족들에게 선물할 버선을 가지고 왔다. 당시에는 혼례를 해도 시댁에 음식 외에 특별히 선물하는 것은 없었으며 이때 드리는 버선이 고작이라고 할 수 있다.¹⁷⁶⁾

다. 혼례복과 음식 및 용품

① 혼례복

- **신랑** : 신랑이 입는 옷은 조선시대 관복과 동일하다. 바지 저고리를 입은 후 그 위에 단령(團領)을 입고 각대(角帶)를 두르고, 사모(紗帽)를 쓰고 목화(木靴)를 착용한다.
- **신부** : 신부는 대례 때 치마 저고리를 입은 후 그 위에 원삼(圓衫)¹⁷⁷⁾을 입고,

175) 허옥희에 의하면, 초야에 신방을 엿보도록 하는 것은 과거 신랑이 색시를 벗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부의 옷이 아니라 살가죽까지 벗겨 놓았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 때문에 신방을 엿보도록 한 것이라 한다. 즉, 성(性)에 대해 무지한 어린 신혼부부를 위한 일종의 '예방책'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176) 당시에는 시댁식구에게 오늘날과 같은 선물을 주지 않았다. 버선 혹은 양말을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시부모나 처가에 옷값으로 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풍조는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이 정착되면서부터 생긴 것이라고 허옥희는 말한다.

177) 고려시대부터 대례복으로 궁중여인이나 신부의 옷으로 사용되었다(조선일보사, 『사진으로 보는 家』

머리에는 족두리¹⁷⁸⁾를 쓰고 비녀를 꽂고 비녀에 땡기를 걸어 늘어뜨리고, 불에 연지를 찍고, 꽃신을 신는 경우와 원삼 대신 활옷¹⁷⁹⁾을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는 경우, 당의(唐衣)¹⁸⁰⁾를 입고 화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허옥희는 대례 때 활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머리'를 썼었다. 당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화관 대신에 하남에게 세를 주고 빌린 큰머리를 썼는데 이것은 사람의 긴 머리를 잘라서 만든 것이다. 혼례 때 쓰는 큰머리에는 갖가지 장식이 있어 화려하다. 폐백을 올릴 때는 원삼을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으며 사당차례를 지낼 때는 활옷을 입고 족두리를 썼다. 혼례 때 입는 옷은 이렇게 대례 때 입는 옷, 사당차례 지낼 때 입는 옷, 폐백 드릴 때 입는 옷 등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과거 혼례복 등 혼례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해 주고 혼례식 때 색시를 도와주고, 대례 때 절하는 것을 도와주는 '하님'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영업적으로 혼례식 때 도와주고 수고료를 받는 사람들이다. 과거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에서 도와주었으나 부잣집에서는 하님을 불렀는데 허옥희의 혼례식 때도 하님을 불렀다.

② 혼례음식

- **대례상**¹⁸¹⁾ : 대례상에는 밤, 대추, 사과, 배, 참쌀, 팔 등을 올렸다. 이 마을에서 대례상에 소나무나 대나무, 꽃병은 올리지 않았다. 곳에 따라 닭을 보자기에 싸서 올려놓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이 마을에서는 보지 못했다. 촛대는 두 개를 올리는데 청색과 홍색으로 된 종으로 초를 감싸 놓았다.
- **잔반이상** : 대례상 아래, 신랑과 신부 쪽에 놓아두는 작은 상에는 막걸리와 콩나물(안주를 위해), 표주박으로 만든 술잔, 나무를 꺾어 만든 젓가락을 놓는다. 또한 신랑 쪽에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 놓는다.
- **폐백상** : 신부집에서 대추, 밤, 약밥, 편포(소고기를 저며 양념), 육포 등을 층층이 쌓아 근봉(謹封)하여 술과 함께 시댁에 가져와서 폐백상에 올린다. 시조부모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시부모 것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허옥희의 경우에도 당시

庭儀禮』1995, 57쪽).

178) 몽고에서 고려 말에 들어온 족두리는 조선시대에 와서 그 모양이 왜소해져 머리 장식품으로 사용되다가 영·정조시대에 사치방지를 위해 얹은머리를 금하고 쪽진머리를 장식하는 수복품으로 권장되면서 대례에서도 사용되었다(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95, 147쪽).

179) 궁중에 의식이 있을 때 왕비가 입던 대례복

180) 궁중에서 왕족이나 외명부(관직에 있는 사람의 아내)에 있는 여자들이 입던 옷으로 양반집 여인들이 대례복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당의를 입었을 경우 머리에는 화관을 썼다.

181) 초례상이라고 하지만 이 지방에서는 '대례상'이라 부른다.

시조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폐백음식을 이중으로 해왔다. 시조부모와 시부모에게는 같은 폐백음식을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친척에게 절할 때는 시부모에게 올린 폐백상에서 그대로 한다.

- **신부큰상** : 위의 색시상 참고
- **신방상** : 신방에 주안상을 넣어 주는 경우도 있으나 허옥희는 이것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 **하객접대음식** : 원래 잔치에는 메밀국수를 했다.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 미리 메밀을 심어 몇 가마니 추수를 한 후 메밀을 갈아 반죽을 하여 국수 빼는 집에 가서 '국수틀'에 넣어 국수를 만들어 잔치에 사용했다. 사골 삶은 물에 메밀국수를 말아 위에 고기 다진 것과 갖은 양념을 넣어 먹으면 매우 맛있다. 그 후에 메밀 농사를 짓지 않고 밀가루로 만든 국수가 나와 편의상 그것으로 잔치 때 사용하게 되었다. 허옥희의 혼례 때는 메밀국수와 그 외 과일, 술, 단술(식혜), 부침개, 나박김치 등이 준비되었다. 당시 하객들이 오면 마당에 명석을 깔고 차일을 치고 음식상을 차려 대접했다. 70년대에 와서는 도시락에 음식을 넣어 하객들에게 싸주기도 했다. 허옥희의 부친 장례 때에는 과일, 고기, 약과, 떡, 불고기, 조기, 김 등을 밥과 함께 싸서 도시락을 만들어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 한다.

③ 혼례용품

- **혼수품** : 신행 때 가지고 온 혼수 - 신부가 시댁으로 올 때 양장을 넣을 수 있는 신식 양복장과 단스, 화장대, 반지그릇, 실크로 된 고급스런 옷, 솜이불 한 채, 낫으로 된 대야와 요강, 분(박하분)¹⁸²⁾, 신랑 신부가 밥그릇으로 사용할 낫그릇 등을 실고 왔는데 보통 짐꾼들이 지고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허옥희의 경우에는 혼수품이 많아 수레에 실고 왔다. 낫그릇은 주발과 대접 두 벌인데 주발 하나에는 붉은 팔, 하나에는 찹쌀을 담고 위에 대추 몇 개를 올려놓았다.¹⁸³⁾ 팔과 대추는 '자손 번성하라'는 뜻이고 찹쌀은 찰떡 같이 살라는 뜻이다. 시댁에 오면 찰떡 같이 살라는 의미에서 이 곡식으로 3일째 되는 날 밥을 해준다.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 - 혼례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인 패물이나

182) 허옥희는 당시 몇 년치 사용할 것을 이때 가지고 왔다. 시댁에서 새 색시가 함부로 물건을 살 수 없었던 당시로서는 시집을 때 화장품 같은 필수품을 넉넉히 장만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183) 대례상에 올렸던 팔과 찹쌀을 그대로 담아 오는 경우도 있는데 허옥희의 경우는 별도로 대례 전에 미리 팔과 찹쌀을 그릇에 담아 짐을 싸놓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한다.

옷감 등은 사주단자나 함을 보낼 때 함께 넣어 보낸다. 물품은 위의 사주단자와 함 부분 참조.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예물 -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예물은 신행(新行)을 때 가지고 오는데 물품은 반지,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이다. 이 옷은 예식 때는 사용하지 않으며 결혼 후 외출복으로 입는데 두루마기는 주로 겨울에 나들이복으로 입는다.

- **혼례시 운송도구** :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왔다. 당시 가마와 말은 신랑집에서 준비를 했는데 가마는 연꽃과 구슬이 장식된 고급스런 것으로 신랑의 대례복과 함께 개포동에 있는 혼례용품을 빌려주는 곳에서 세를 내고 빌렸다.
- **혼례용품 보관** : 1960년대까지 군용지터(현재 군부대가 있음)에 있던 마을회관에 혼례복과 가마가 있었으나 그 후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되자 소실되었다. 허옥희가 결혼을 할 무렵에도 창말에 혼례복과 가마가 있었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빌려서 했다.

라. 이웃과의 관계

- **부조** : 과거 집에서 혼례식을 하던 1960년대 무렵만 하더라도 이웃에 혼례를 하면 단술(식혜) 한 초롱(병을 '초롱'이라 함), 막걸리 한 초롱, 국수 한 간, 떡 다섯 말 등 돈이 귀하기 때문에 주로 물품으로 부조를 대신 했다. 그마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는 사람도 있었다. 부조는 받은 만큼 해야 한다. 떡 다섯 말을 받으면 그 집 잔치 때 그대로 해야 한다. 당시 떡 다섯 말 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면 힘들었다. 잔치 때 일은 이웃집에서 해주었다. 마을에 혼례가 있으면 주로 친척이나 이웃에서 왔으며 이웃마을에서는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장례가 있을 때는 이웃마을에서도 막걸리 한 초롱을 부조로 들고 문상을 왔다.
- **혼기와 통혼권** : 당시에는 20세를 넘기지 않고 18~19세가 되면 혼례를 했다. 일제 말기 일본군이 젊은 처녀들을 성노예로 잡아갈 때는 16살이면 혼인을 시킨 적도 있다. 통혼권은 인근 마을이나 시군에서 이루어졌는데 인근에서 장가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라도에 있는 가난한 집 처녀들과 혼인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⁸⁴⁾ 이렇게 온 처녀들은 혼수품 없이 빈손으로 왔다.

184) 이런 사례는 조사자가 강원도 지역을 갔을 때도 조사된 바 있는데 당시 전라도 여성들이 각지로 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의 농촌으로 시집오는 경우와 처지가 유사하다.

(2) 허옥희씨 아들의 혼례



↑ 성남 중앙예식장에서 치러진 이희명씨 결혼식

이희명(1951년생)은 1977년 11월 3일 성남중앙예식장¹⁸⁵⁾에서 혼례를 하였으며 당시 신랑은 26세, 신부는 25세였다. 이 사례를 통해 1970년대 후반 이 마을의 혼례 풍속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혼례 전의 절차

- **맞선·교제** : 신부는 대구사람이었는데 인근에 사는 신부의 올케가 중매를 하여 만났다.
- **궁합** : 신랑의 부친이 궁합을 보았다.
- **양가 상견례** :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혼례식 날짜를 정하였다.
- **약혼식** : 1977년 7월 10일에 서울 강남에 있는 '풍림회관'이라는 식당에서 약혼식을 하였다. 약혼식 순서는 신랑 친구인 사회자가 개식사와 신랑 신부의 약력

을 소개하고 친지의 대표가 참석한 친지들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예물 교환을 하고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식사를 하였다. 예물을 교환할 때 신랑은 신부에게 다이아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를 주었다.¹⁸⁶⁾ 신부는 신랑에게 반지와 시계를 주었다. 이때 사주단자도 교환했다.

- **야외사진촬영** : 이때는 야외촬영을 하지 않았다. 현재 45세인 허옥희의 큰딸 때는 야외촬영을 했는데 장남의 결혼 때만하더라도 야외촬영을 하는 경우를 허옥희는 보지 못했다 한다.
- **함 보내기** : 혼례식 전날 함을 보냈는데 신부의 집이 대구이므로 그곳까지 갈 수 없어 서울에 사는 신부의 오빠집으로 신랑과 친구들이 함을 들고 갔다.¹⁸⁷⁾ 함에는

185) 처음 성남이 건설될 때만 하더라도 성남에 예식장은 없었다. 성남에 최초로 예식장이 생긴 것은 70년대 후반으로 성남종합시장(이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결혼식 방명록에는 당시 신촌2동 210번지로 되어 있음)에 생긴 중앙예식장이다. 오늘날에는 모란웨딩홀, 소망웨딩홀, 한길웨딩홀, 스카이 웨딩홀 등 많은 예식장이 있다.

186) 허옥희에 의하면, 과거 사주단자를 보내는 의미가 시대가 바뀌어 약혼식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약혼식을 하는 풍조가 있었는데 근래에는 다시 약혼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한다. 허옥희의 큰딸(45세)의 경우에도 약혼식을 하지 않았다 한다. 약혼식은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이 양가의 어른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며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사주단자를 서로 보내는 것으로 약혼의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였으나 전통혼례 풍속에서 약혼식에 해당하는 의식은 없다.

187) 허옥희의 장남 이희명(54세)은 당시 친구들이 결혼할 때 함을 지리 간 적이 많은데 이때 함을 지고

신부에게 줄 한복 1벌과 양장 1벌이 있었으며 혼서지와 폐물은 약혼식 때 주었으므로 넣지 않았다.

나. 혼례식과 그 후의 절차

- **혼례식과 폐백** : 혼례식은 1977년 11월 3일 성남 중앙예식장에서 올렸는데 주례는 부친의 친구였던 전 국회의원 유기준씨가 했다. 혼례식과 폐백 절차는 허옥희씨 막내딸의 경우와 동일하다.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의 식순은 근래나 차이가 없으나 이때는 주례사 하기 전에 예물교환이 있었다. 약혼식 때 예물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하는 것은 간단히 비싸지 않은 짝가락지(커플링)를 서로 나누어 낀다. 근래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절차를 생략하는 사람도 있다.
- **피로연** : 당시 하객이 680여 명 왔기 때문에 600석 이상 되는 큰 식당을 빌려서 피로연을 했다. 신랑 신부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는 따로 빌렸는데 그곳에서 친구들이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짓궂은 장난을 쳤다. 이날 친구들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신랑 신부를 놓아주지 않아 밤새 술을 마시고 놀아서 기차 시간도 놓치고 돈도 떨어져(친구들과의 피로연 비용은 신랑이 지불하였기 때문) 다음날 돈을 빌려서 신혼여행지로 갔다.
- **신혼여행** :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경주까지 가서 경주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온양온천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왔다. 당시만 하더라도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 **사당차례** :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다음날 아침에 대청(큰집에 가지 않고 허옥희 집에서 했음)에서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님(당시는 조부모)께 결혼하였음을 고하는 차례를 지냈다. 일반제사와는 달리 이때는 음식을 차려놓고 간단히 절만 한다. 차례를 지낸 후 산소에 가서 성묘를 했다. 이 지방에서는 요즘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당차례를 지낼 때는 메 대신에 국수를 올린다. 환갑 때도 마찬가지로 집안에 잔치가 있어 지내는 사당차례는 국수를 올린다.
- **처갓집 가기** :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3일 후 신혼부부는 처갓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다. 이때 양가에서 주고받은 선물은 막내딸의 경우와 유사하나 신부댁의 사정도 있고 해서 간단히 했다.

다. 혼례복과 음식 및 용품

- **혼례복** : 예식 때는 신랑은 양복,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신랑의 양복은 신

부집에서 미리 돈을 주어 맞추었는데 웨딩드레스는 세를 주고 빌렸다. 폐백 때 신부는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 **폐백상** : 폐백상은 신부집에서 직접 만들어 왔다. 폐백이 끝난 후 음식은 신랑집으로 가지고 갔다.
- **하객접대음식** : 피로연에 나온 음식은 국수와 기타 음식들이 나왔다.
- **혼수품** : 당시 신부는 냉장고, TV, 장롱, 화장대, 이불, 그릇, 수저 등을 가지고 왔다. 신부는 약혼식 때 시계와 반지 등을 신랑에게 주었으며 양복 2벌을 주었다(한복은 주지 않았음). 신랑은 신부에게 약혼식 때 패물셋트를 주었으며 함을 보낼 때 한복과 양장 1벌을 주었다.
- **양가 가족을 위한 선물** : 신부집에서 시부모를 위해 옷을 사라고 10만원을 보내주었으며 신랑집에서도 처갓집 어른들을 위해 옷값으로 5만원을 보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신랑집에서는 신부집에 비해 적은 금액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이웃과의 관계

- **부조** : 당시 신랑집 방명록에 기록된 부조금 내역을 보면 총 125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124명은 금액이 쓰여 있고 1명은 청첩장이라고 쓰여 있다. 124명을 통계로 내보면, 1,000원이 55명, 1,500원이 16명, 2,000원이 48명, 3,000원이 11명, 5,000원이 3명, 10,000원이 8명, 13,000원이 1명으로 총 금액이 310,000원이다. 그러나 방



↑ <이희명씨 결혼 때 부조금을 적어놓은 방명록>

番 號	名	金 額
18	김희	1,000
19	최	1,000
20	노	1,000
21	박	1,000
22	유	1,000
23	한	1,000
24	박	1,000
25	한	2,000
26	한	1,000
27	김	1,000
28	신	1,000
29	조	2,000
30	김	1,000
31	김	2,000
32	손	2,000
33	허	3,000
34	김	1,000
35	한	1,000

↑ <방명록 내부의 일부분, 당시 부조금 내역이 적혀있다>

명목에 총 금액이 331,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외 추가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1977년 무렵 이 마을에서는 1~2천원 정도가 부조금액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친구들은 돈 대신 액자 등을 선물하는 경우도 있었다.

- **청첩장** : 허옥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청첩장이 없었다. 주로 말로 잔칫날을 전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60년대 무렵부터 청첩장이 생겼다. 허옥희 아들이 결혼할 때는 결혼식 전에 청첩장을 돌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장례식 때 부고를 돌리는 풍속은 옛날부터 있었다. 초상이 나면 호상의 주판 아래 글을 아는 사람이 수백장이 되는 부고를 직접 붓으로 써서 돌렸다. 보통 같은 마을은 부고를 돌리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이웃마을이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고를 돌린다. 근래에는 초상 때에도 부고를 인쇄하기 때문에 간편해졌다.

(3) 허옥희씨 막네딸의 혼례

현재 39세인 허옥희의 막네딸은 1999년에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내의 예식장에서 혼례를 했으며 현재 분당에 거주하고 있다. 결혼 당시 신부의 나이는 33세, 신랑의 나이는 34세였다. 이 사례를 통하여 근래에 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혼례풍속의 단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혼례 전의 절차

- **맞선·교제** : 신랑은 서울 천호동 태생으로 친구의 사촌 오빠인데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 만난 후 어느 정도 교제를 했다.
- **궁합** : 신랑의 부친이 궁합을 보았다.
- **양가 상견례** : 양가의 부모님이 만나서 혼례 날짜를 정하였다. 약혼식은 하지 않았다. 근래에는 약혼식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 **야외사진촬영** : 함을 받기 전에 적당한 날을 잡아 잠실 석촌호수에서 야외촬영을 했다.
- **함 보내기** : 결혼식 전날 저녁에 신랑과 친구 9명이 함을 가지고 왔다. 요즘은 신랑 친구들이 시간이 나지 않으면 결혼식 1주일 전 휴일에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 함을 들고 올 때 앞에 두 사람이 청사초롱을 들고 뒤에 신랑과 함진아비가 따라왔다. 함진아비는 과거에는 얼굴에 검정칠을 했는데 이때는 오징어로 가면을 만들어 쓰고 왔다. 신랑이 먼저 집으로 들어오는데 친구들은 함을 지고 들어오지 않고 돈을 내놓으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함꾼들이 4~50만원 정도 신부집에서

받았다. 이날 신부 친구들도 신부집에 왔는데 신부집에서 신랑 친구들과 함께 모여 음식 먹었으며 신랑 친구들은 함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신부친구들에게 꽃값으로 주었다.

함이 들어 올 때는 봉치떡(찰떡)을 시루째 대청에 놓고 그 위에 보자기를 깔고 함을 올려놓은 후 친정아버지가 확인해 보았다. 함속에는 사주단자¹⁸⁸⁾, 혼서지, 폐백 할 때 입을 한복, 예복(양장으로 된 정장 두벌), 패물(다이아반지와 금 한 세트 즉,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이 들어 있었다. 당시 신랑이 입을 옷은 친정부모가 돈을 주고 신부가 입을 옷은 시댁에서 돈을 주었다. 양가에서 돈을 주고 둘이서 알아서 옷집에 가서 구입하라 하여 옷을 준비한 후 신부가 입을 옷은 이때 함속에 넣어 신부에게 전달되었다.

나. 혼례식과 그 후의 절차

- **혼례식과 폐백** : 혼례식은 롯데월드 결혼식장에서 했다. 결혼식 절차는 사회를 맡은 신랑친구가 개식사를 하고 신랑입장, 신부입장, 신랑 신부 맞절, 주례를 맡은 신랑의 대학 은사가 신랑 신부 서약을 하고¹⁸⁹⁾ 성혼선언문 낭독, 주례사를 하고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하객들에게 인사하고¹⁹⁰⁾, 신랑 신부 퇴장하고 사회자가 결혼식이 끝났음을 알리는 폐식사를 했다. 이어서 기념촬영을 하는데 신랑 신부, 주례가 먼저 촬영을 하고 신랑 신부와 양가부모, 신랑 신부와 양가친척, 신랑 신부와 친구들 순으로 했다.

신랑 신부는 이어서 예식장에 있는 폐백실에서 시부모님과 시댁 친척들에게 폐백을 드렸다.¹⁹¹⁾ 폐백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피로연을 하는 곳으로 가서 하객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 **사당차례** : 과거에는 혼례식 후 신랑집에서 폐백을 하기 전에 조상님들께 사당차례를 했는데 이때는 예식장에서 폐백을 하기 전에 간단히 조상님들께 술을 올리고 사당차례를 했다. 근래 예식장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 **피로연** : 피로연은 예식장에서 지정된 식당에서 했는데 음식은 갈비탕과 기타 음식들이 준비되었다. 위의 언니 결혼식 때는 국수를 했었다. 일반 하객들과 달리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모이는 별도의 피로연 장소(근처의 적당한 식당)가 마련되었는데

188) 과거에는 사주단자를 함 보내기 전에 보냈는데 이때는 사주단자가 함께 보내지고 있다.

189) 신랑 신부의 서약 이후 예물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물은 함을 받을 때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했다.

190) 신랑 신부의 퇴장 전에 신랑 측에서 시아버지가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였다.

191) 요즘에는 친정부모에게도 폐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곳에서 친구들은 신랑 신부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곧 이어 시간에 맞추어 신혼여행지로 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갔는데 공항까지는 신랑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탔으며 차에는 풍선을 매달았다.

- **신혼여행** : 당시만 하더라도 신혼여행은 주로 해외로 갔는데 이때는 국내적으로 외환위기 즉, IMF시대였으므로 제주도로 가서 3박 4일을 보내고 왔다.
- **처갓집 가기** :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부모께 인사를 하고 쉬었다가 이튿날 신혼 부부는 처갓집(허옥희씨 댁)에 갔다. 이때는 과거 근친 때와 같이 음식을 장만하여 갔다. 당시 인절미 1말, 절편 1말, 약식 1말, 소고기 10건, 사과 1박스, 오렌지 1박스, 참외 1짝을 가지고 왔다. 이때 들어온 음식은 대동(마을)에 전부 나누어주었다. 창말에는 요즘도 다들 이렇게 한다. 신혼부부가 시댁으로 돌아갈 때는 인절미 1말, 절편 1말, 찰떡 1말, 약식, 갈비 1짝(당시 30만원), 과일 몇 박스를 보냈다.

다. 혼례복과 음식 및 용품

- **혼례복** : 예식 때 신랑은 양복,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이때 양복은 맞추었으며 웨딩드레스는 대여했다. 폐백 때 신부는 활옷에 족두리를 썼다. 이때 신랑 신부가 입은 폐백옷은 예식장에서 대여했다.
- **폐백상** : 폐백음식은 닭 1마리, 밤 1대, 대추 1대, 육회 3근, 육포, 구절판(술안주로 이혼 가지 음식을 판에 담아 놓은 것) 등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친정집에서 미리 장만해 가지 않고 비용만 부담하여 예식장에서 주문을 했다. 당시 폐백상을 주문하면 예식장에서 50만원을 받았다. 폐백이 끝나면 음식은 시댁으로 가지고 간다.
- **하객접대음식** : 식당에서 준비한 갈비탕과 기타 음식이 마련되었다.
- **혼수품** : 신부는 냉장고, TV, 세탁기, 전자렌지, 전기밥통, 그릇, 수저, 장롱, 화장대, 침대, 이불 등을 가지고 갔다. 신부가 살림살이를 준비해 가는 반면에 신랑은 함께 살 집을 준비했다. 신랑에게는 양복 두 벌, 잠바, 코트, 두루마기, 바지 저고리, 모시적삼 1필과 시계, 반지를 주었다. 신부집에서 혼례비 들어간 전체 비용은 2000여 만원이며 그 정도면 일반가정에서는 당시로서 보통 정도라고 한다.
- **양가 가족을 위한 선물** : 신부집에서는 시댁으로 500만원을 보냈으며, 신랑집에서는 처갓집으로 300만원을 보냈다. 선물 대신 각자 필요한 것을 사라고 돈으로 대신하였다.

라. 이웃과의 관계

- **부조** : 당시 부조금이 적힌 방명록이 현재 허옥희씨 댁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까운 친척들은 몇 십 만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친구나 이웃 등의 경우에는 2만원 혹은 3만원, 5만원 정도의 금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중 3만원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였다.

- 청첩장 : 청첩장을 돌려 결혼식 장소와 시간을 알렸다.

(4) 혼례의 변화와 연속

허옥희가 결혼하던 해방 직후와 그 장남이 결혼하던 1970년대 후반, 막내딸이 결혼하던 1990년대 후반은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혼례풍습도 변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 가정에서 하던 전통혼례식이 예식장에서 하는 신식혼례식으로 바뀐 점이다. 또한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새로운 관행들이 생겨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그 관행도 또 다른 신생(新生) 관행에 의해 밀려났다. 혼례풍습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생활문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화지 않고 끊임없이 내려오는 풍습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관행 역시 터무니없이 돌출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관행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발견된다. 변화가 곧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연속성 속에서의 변화이며, 인간이 기존문화를 새로운 환경에 대응시키면서 엮어가는 실천의 산물이다. 또한 그 산물은 일정기간 그 시대의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그 변화상을 개략적으로 도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혼례의 변화〉

		허옥희(1946년)	장남(1977년)	막내딸(1999년)	비고
혼례 전	배우자 선택	중매를 통해 결혼했으나 혼례 전에 배우자를 보지는 못했음(맞선은 아님)	중매를 통한 맞선으로 배우자를 만남	중매를 통한 맞선으로 배우자를 만났으나, 교제를 한 후 결혼	맞선과 교제가 강화
	사주단지, 함보내기	사주단자를 보내고 몇 개월 후 혼례 직전에 함을 보냄.	약혼식 때 사주단자를 주고, 혼례식 전날 함을 보냄	약혼식을 하지 않았으며 함을 보낼 때 사주단자를 함께 보냄	간소화
혼례식과 그후	혼례식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를 신부집 안마당에서 함.	혼례를 예식장에서 함	혼례를 예식장에서 함	예식이 서양식으로 변화
	그후의 절차	혼례식 후 신랑집으로 가서 사당차례를 지내고 폐백을 하고 초야를 보내고 3일 후 신랑은 재행으로 처갓집을 다녀오고, 신년에 근친을 감	예식장에서 예식 후 폐백을 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 사당차례를 지내고 3일 후 재행과 근친을 겸하여 부부가 처갓집에 감	예식장에서 예식 후 폐백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부모께 인사하고 다음날 재행과 근친을 겸하여 부부가 처갓집에 감	사당차례, 폐백, 초야, 재행, 근친이 예식장, 신혼여행에 의해 변모

	혼례복	관복과 활옷	양복과 웨딩드레스	양복과 웨딩드레스	예복의 변화
	혼례음식	대례상, 폐백상 등 음식상이 여러 가지며 하객접대음식은 메밀국수(집에서 만듦)	폐백상(직접 만듦) 외에는 예식에 음식상이 없으며 하객접대음식은 밀국수(공장에서 만듦)	폐백상(주문) 외에는 예식에 음식상이 없으며 하객접대음식은 갈비탕	의례음식의 간소화, 하객접대음식의 변화
	혼례용품	금가락지, 비녀 등의 폐물과 옷감, 기타 신부가 싣을 때 가지고 오는 혼수	다이아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의 폐물과 시계, 옷, 기타 신부가 가지고 오는 혼수	앞과 동일	점차 혼수의 종류가 늘어남
기타	부조	술 한 병, 국수 한 간 등 물건을 가지고 옴	1500원 정도 부조함	3만원 정도 부조함	물건에서 돈으로 전환
	혼기와 통혼권	10대 말, 근교에서 통혼	20대 중반, 대구 등 멀리에서도 통혼	30대 초반, 앞과 동일	혼기가 늦어지고, 통혼권이 전국화
	청첩장	청첩장 없음. 구두로 전달	청첩장으로 혼례 알림	청첩장으로 혼례 알림	
	※ 세월에 따른 변화 속에서도 사주단자와 함보내기, 폐백 드리기, 혼수품을 주고받는 풍속 등은 지속되고 있다.				

3. 회갑

회갑이란 본인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장수(長壽)를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수연'(壽筵) 또는 '회갑연'이라 하여 일가친척과 친한 친구들을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다. 이때 회갑상을 앞에 둔 부모님께 자녀들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데 이것을 헌수(獻壽)라 한다. 만일 회갑을 맞은 사람의 부모가 아직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모 앞에도 따로 술상을 차려 놓고 회갑을 맞은 사람 내외가 먼저 부모에게 술잔을 올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헌수를 받는다. 간혹 회갑상 위에 올리는 음식들을 높이 쌓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음식을 쌓아 올리는 높이가 바로 자손들의 효심(孝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집에서 잔치를 했는데 회갑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풍악이 울리고 잔치판이 벌어졌다. 오늘날은 음식점에서 많이 한다. 창곡동에 거주하는 허옥희씨와 송달승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곡동에서는 환갑잔치가 있는 아침에는 대청에서 조상님께 메밀국수를 만들어 제사를 지낸다. 과거에는 집에서 환갑잔치를 했기 때문에 삼신할머니께도 상을 차려서 부모님께서 오래 살게 해 달라고 빌기도 했지만, 요즘은 음식점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허옥희의 남편이 회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 정릉에 있는 '풍년각'라는 음식점이 회갑잔치 하는 장소로 유명하여 남편은 그곳에서 회갑을 했다. 그러나 1990년도까지만 해도 주로 집에서 잔치를 치른 집이 많았다.



↑ 허옥희씨 친정아버지의 회갑잔치(6.25전쟁 때이나 양재동은 전쟁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한다)



↑ 허옥희씨 남편의 회갑잔치가 열렸던 서울 풍년각 음식점. 당시 이곳은 회갑잔치 장소로 유명했다 한다(1989)

과거 가정에서 회갑을 할 때는 음식으로는 과일, 과자, 편, 쌀밥, 국수, 무 맑은 장국과 여러 음식을 장만하여 하객들과 먹었다. 회갑 때는 큰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잔을 올린 다음, 가까운 사촌들이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나면 가족들이 음식을 나눠먹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허옥희씨는 모란에 있는 뷔페집에서 회갑잔치를 했다.

최근에는 노년층의 수명이 늘어나 육순잔치는 간단히 하거나 생략하고 칠순잔치를 회갑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골에 사는 송달승씨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송달승씨는 회갑잔치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 풍년각에서 회갑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의 모습(1989)

치르지 않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빌리고 여행경비를 조금 부담해서 4박 5일간 남해와 부산, 강릉 일대를 둘러보며 여행으로 대신했다 한다. 그는 스스로 회갑례를 치를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근래에는 회갑례보다 칠순잔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한다.



↑ 모란에 있는 부페집에서 행해진 허옥희씨 회갑잔치 때의 모습



↑ 〈허옥희씨 남편의 회갑 때의 방명록〉

방 명 록

번호	성명	금액
자1	김	10,500
자2	최	30,000
자3	김	10,000
자4	김	10,000
자5	홍	10,000
자6	최대영	10,000
자7	이	20,000
자8	박	임의금 30,000
자9	이	20,000
자10	이	20,000
자11	김	10,000
자12	이	20,000
자13	이	20,000
자14	홍	10,000
자15	김	10,000
자16	이	10,000
합계		330,000

후원처: 문화재단, 정기기원, 김대영회
 후원처: 후배, 대영회, 김대영회
 후원처: 고대, 동원회, 김대영회, 김대영회

↑ 〈방명록에 적힌 축의금 내역〉

4. 사례

본 마을지의 조사지역 중에서 창곡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되지 않은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간직한 마을로 행정상 5통으로 분할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을은 1통과 3통으로 분리되어 있는 창말이다. 창말은 남한산성을 감싸고 있는 청량산

서쪽 자락에 자리한 자연마을로 주변에는 군부대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군인아파트와 군부대 사격훈련장이 맞닿아 있다. 군부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은 청량산의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도 남다른 고통을 겪어왔다고 한다.¹⁹²⁾ 창말은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역사를 가진 자연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지금은 제3노인정 회장을 맡고 있는 배진섭 회장과 서울 마장동에서 30년 전에 이사 온 이후 음식점을 운영하며 충무를 오랫동안 맡고 있는 박현규 충무를 만나 마을에서 지내왔던 장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창곡동 창말의 사례

마을에서 치러지는 장례의 일정은 대체적으로 유교식 전통장례법에 따른다고 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않았다. 다만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교식 전통상례절차로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먼저 사람이 운명하면 혼이 나간 것으로 생각하여, 이 혼을 다시 불러 들여 살아나기를 바라는 초혼(招魂)을 한다. 깨어나지 않으면 사자밥을 차리고 수시를 한다. 향물로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殮襲)으로 시신처리의 과정을 끝낸다. 그리고 성복(成服)을 거쳐 발인(發靦)과 운구를 끝내고 안장을 하게 된다. 분묘를 완성하고 지내는 성분제(成墳祭), 혼을 모시고 집에 돌아와 지내는 우제(虞祭), 곡을 그칠 때 지내는 졸곡제(卒哭祭), 1·2주기에 지내는 소상(小喪)과 대상(大喪)의 순서로 상례는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죽은자는 산자와 분리되며, 매장되면서 신의 세계로 전이되는 기간인 2년을 거치고, 다음에 완전히 신의 세계로 통합되어 제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¹⁹³⁾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마을에서 있었던 장례일정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을 간추려 본다.

가. 장례일정

- 호상(護喪) 선정 : 보통 상가집과 친분이 두터운 친구나 상례를 잘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정했다 한다. 또한 상가집 대문 앞에 사자상을 차릴 때에는 공기밥 위에 동전 몇 개를 꽂아둔다.

192) 예를 들면, 마을 주변의 사격장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군인들의 진지방어훈련 때문에 농번기에 심어 놓은 논을 손상시킨다든지, 밤늦도록 울리는 사격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사격소리에 산모가 놀라 불안한 생활을 한다든지 등의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표를 구성하여 군부대에 불편을 하소연하기도 하였는데, 그래서인지 지금은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불편한 생활은 계속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193)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7, 74쪽.

- **습과 염** : 습과 염을 행할 때는 깨끗한 물로 시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갈하게 씻기고 나서, 시신의 입에 쌀 한 숟가락 정도의 반함을 행한 후, 마을 여자들이 상가집에서 만들어 놓은 수의를 입히는데, 겹적삼에 속적삼을 끼어 넣어 한 번에 입힌다. 그리고 시신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차례로 21군데를 묶고 입힌 후 입관한다.
- **성복과 성복제** : 입관한 후에는 친소에 따라 상복을 입고, 일반 제사 때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 **발인 전날** : 장지가 정해지면 마을청년 10여 명이 장례식 하루 전날 장지로 가서 땅을 파고 하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발인** : 발인할 때는 관이 방에서 나올 때 방문 앞에 놓아둔 바가지를 밟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여 관을 내온 후 상여에 올려놓고 발인제를 지낸다. 장지로 가다가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의 집을 지날 때는 그 집에서 원하는 경우 준비한 음식을 차려 놓고 노제를 지낸다. 그리고 장지로 가는데 근래에는 선소리꾼의 상여소리에 맞춰 마을입구까지 운구한 후, 영구차에 옮겨 지방의 선산이나 공원묘지로 가서 장사를 지낸다.
- **하관** : 하관할 때에는 칠성판 위에 관을 내려놓은 다음 회토를 뿌려 관을 덮고, 흙다지기를 세 번에 걸쳐 달구질을 한 다음,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씌운다.
- **하산 후** : 초우제를 지내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삼우제를 지낸다. 근래에는 장례를 마치고 하산한 후에는 조문한 문상객과 장례를 도와준 마을 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가족들은 초우제, 삼우제를 지낸 후 탈상한다. 간혹 장례식 후 100일이 되어 지내는 졸곡제를 마치고 탈상하는 집도 있으나 집집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다.

나. 의례용품

- **수의** : 보통 마을 부녀자들이 상가집에 가서 직접 만들었다. 수의는 재단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부녀자들은 하루에 걸쳐 바느질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창말에서는 허옥희씨가 바느질을 잘하여 매번 수의를 만들 때는 단골로 다녔다고 한다. 이런 일에는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 **칠성판** : 상가집에서 나무판에 일곱 개의 별을 그려 하관할 때 사용했다.
- **상여** : 해방 후에 마을에서 만들어 둔 것으로 24명이 드는 대틀이었다고 한다. 마을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장례가 있으면 일부 손질하여 사용했으나 지금은 소실되어 없고, 상여를 보관해 두었던 창고가 마을 한쪽에 남아있다고 한다.

- 상복 : 주로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유교식 전통복제에 따랐다.

다. 이웃과의 관계

창말에서는 과거 유교식 전통장례법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경우(대략 1982년 초반까지)도 있었지만, 대개는 3일장이나 5일장을 치뤘다고 한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품앗이를 하며 상가 일을 도왔다고 한다. 여자는 수의를 만드는 일이나, 조문객을 접대하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남자는 돌아가신 분의 부고를 알리는 일이나, 마을에 있는 상여를 손질하여 준비하였고 장지에 가서 묘터를 잡아 땅을 파고 잔디를 씌워 봉분을 만들 때까지의 모든 일을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다거나 개인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문상을 하였고 품앗이를 통해 상가집 일을 도와주어 상주의 아픔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2) 창말의 함진득씨 댁의 경우¹⁹⁴⁾

개별적인 사례로 함진득(67세, 남) 댁을 방문하여 과거에 지내왔던 장례모습을 알아보았다. 함진득은 어릴 때 할아버지의 장례를 지켜보았고, 장성해서는 아버지를, 그리고 10여 년 전에는 어머니의 장례를 본인이 직접 겪었는데 시간적으로는 약 20년의 간격을 두고 장례를 지켜보았다. 현재는 환갑을 훌쩍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노년의 나이이지만, 아직도 농사일을 돌볼 정도로 젊음이 넘친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여쭙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하였지만, 그의 지나간 기억을 따라가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그동안 치렀던 장례의 모습들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며 변모해 왔다는 점이다. 현재 자녀들 중 일부는 고향을 떠나 서울 근교에 살고 있어 명절이나 제사가 있는 날이면 손자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지만, 함진득씨 댁은 여전히 증조부 대부터 현재까지 5대가 마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토박이 중에 토박이이다.

가. 장례의 진행과정

① 임종 직후의 절차

- 정제수시(整齊收屍) : 임종하면 고인의 손발을 묶고 솜으로 코, 귀 등 인체에 있는 구멍을 막는다. 조부님은 음력 10월에 돌아가셨는데 안방에 모셨다. 보통은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을 떼지 않으나, 시기적으로 쌀쌀한 계절이어서 방에 불을 조금씩 떼기도 했다. 그래서 향을 많이 피웠다. 그 당시에는 지금 사용하는 인조향이 아니라 오래된 향나무의 뿌리를 말려서 만든 것으로 향 두께도 굵고 냄새도 짙어서 아주 좋았다고 한다.

194) 이것은 2005년 추석에 창말 제보자의 자택에서 김덕묵과 함께 조사한 내용임

- 사자상 : 정세수시를 하고 나면 대문 왼쪽에 망자가 신던 신발 한 켤레와 속옷, 적삼을 차려놓는다.
- 고복(卓復) : 망자의 성명을 불러 고복을 한다. 예를 들면, “양근 함께 누구누구 속적삼 가져가시오, 복 복 복”라고 외친다.
- 임종 직후의 상주복장 : 임종 직후 상주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한쪽 팔만 소매에 넣고 한쪽은 등 뒤로 묶어 놓는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 ‘통건’을 쓴다. 여자 상주들도 머리를 푼다. 이때 지팡이는 짚지 않는다. 지팡이는 정식 상복을 입는 성복제 때부터 짚는다.
- 호상(護喪, 장례준비위원장)선정 : 조부님이 돌아가셨던 1950년대는 문맹자가 많아서 부고서식도 잘 알고 글도 쓸 줄 아는, 그러면서도 여러 면에서 장례 일을 잘 아는 분을 따로 모셔다가 정했다 한다. 그 당시에 이웃에는 대략 10여 호가 있었는데, 호상은 주로 이웃주민이나 타성에서 정해 치렀다. 이웃주민과 친지들은 호상의 지시에 따라 일을 도와준다.
- 부고돌리기 : 조부님은 밤 10시경에 돌아가셔서 다음날 부고장을 만들어 부음을 알렸는데, 같은 마을사람들은 장례가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주로 떨어져 있는 이웃마을에 돌렸다.

② 습(襲)과 염(殮)

습과 염은 고인이 사망한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한다.

- 습(襲 : 시신씻이기) : 향나무를 물에 넣고 다린 물에 수건을 적셔서 정갈하게 씻긴다. 그러나 근래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경우에는 알코올로 씻기셨다고 한다.
- 반함(飯含) : 시신을 씻고 나면 물에 넣어 두었던 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을 이용하여 고인의 입에 넣어 준다. 입에 넣을 때는 “천석이요, 만석이요, 십만석이요”라고 말한다.
- 소렴(小殮 : 수의 입히기) : 반함을 한 후 수의를 입힌다. 수의는 잘 썬 삼베로 하는데, 이웃사람들(여자들)이 와서 만들어 주었다. 수의를 입힌 후 맷배 7장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장례를 다시 깐 다음 시신의 체구에 맞춰서 잘라 묶는다. 그 후 서로 끈으로 연결해 놓은 다음, 세로로 7매를 묶는다. 그리고 창호지로 고깔을 만들어서 매듭 사이에 넣어서 매듭이 보이지 않게 덮는다.
- 대렴(大斂 : 입관) : 시신을 관에 넣어 뚜껑을 닫은 후 윗목에 놓고 앞은 병풍으로 가린다. 성복제 전에는 간단하게 북어포를 올려놓고, 성복제를 지낸 후에는 식사를 올리는 삭망전을 하였다.

③ 성복과 성복제

- **성복** : 입관 후 상주와 친척들은 고인과 촌수(寸數)에 맞추어 상복을 입는다. 남자 상주는 굴건제복을 입고, 여자 상주들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 새끼를 두른다. 그리고 남자가 사망했을 때는 대나무 지팡이(喪杖), 여자가 사망했을 때는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 **성복제** : 상복을 입은 상주들은 성복제를 지낸다. 성복제는 일반 기제사 때와 같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며 절차도 동일하다. 성복제를 지낸 후부터 상주가 서있는 곳 바닥에 짚으로 만든 자리를 깔고 앞에는 짚베개를 설치해 놓는다.
- **상식 올리기** : 성복제를 지내고 나면 문상객을 받으며 조석으로 망자 앞에 식사를 올린다. 음식은 평소에 먹는 음식과 동일하다.

④ 출상(발인)

- **호상놀이** : 근래에는 볼 수 없으나 해방 전에는 '호상놀이'가 있었다. 제보자는 호상놀이를 생전에 한 번 보았다고 하는데, 과거 이웃마을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가신 분의 집에서 하는 것을 보았다 한다. 당시 빈상여를 가지고 마당과 집 주변을 돌면서 놀았다.
- **관이 방에서 나올 때의 풍속** : 출상하는 날이 되면 상식을 올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관을 방에서 내놓는다. 이 때 관을 장항틀에 메어 몇 명이서 들고 머리부분을 방의 네 귀퉁이로 돌리면서 절을 시킨 후 방 문턱 앞에 바가지를 얹어 놓고 앞에 선 사람이 바가지를 밟아 깨뜨리고 나온다. 그리고 상여에 올리고 발인제를 지낸다.
- **상여 떠날 때의 풍속** : 상두꾼들이 각자 정해진 자리에 서서 상여를 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굽혀 상여가 집을 보고 세 번 절하도록 한다. 이 때 상주들은 상여 맞은편에 서서 상여에 절을 한다. 상여를 메고 절을 할 때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두꾼들은 상여를 메기 전에 키가 적은 사람은 앞에, 키가 큰사람은 뒤에 서서 상여를 들고 절을 한다.
- **상여 출발시 대열순서** : 상여가 장지로 떠날 때는 명정, 공포, 가주, 상여, 상주 일행, 만장 순으로 대열을 갖추어 가며, 선소리꾼은 상여 앞에서 북을 치며 상여 소리를 한다. 선소리꾼은 주로 '오~ 호~' 소리를 내었다.
- **노제** : 상여를 메고 가는 도중에 가까운 친지들의 집에 이르면 그 집에서 원하는 경우 노제를 지낸다.

⑤ 장지에서의 절차

- **묘터잡기와 땅파기** : 묘터는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 경우도 있고, 임종 후 상주가 지관에게 의뢰하여 잡는 경우도 있다. 조부님의 경우에는 동네사람들이 당일 조금 일찍 올라가서 땅을 파놓았다. 왜냐하면 전에 올라가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산짐승들이 몰래 와서 묘터를 불결하게 해놓을까 염려되어서이다. 땅을 파기 전에 염습하는 것을 보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구덩이를 팔 때는 ‘겉광’을 넓게 판 후, 그 안에 다시 ‘내광’을 파서 관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
 - **하관 전** : 상여가 장지에 도달하면 묘터 옆에 상여를 놓고, 주변에 ‘제청막(빈소)’을 설치한 후 조객을 받는다.
 - **하관** : 정해진 시간이 되면 관을 구덩이에 넣는다. 이때 관을 통째로 넣는 경우와 관속에 있는 시신만 꺼내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조부님의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관할 때는 나무판의 결을 보고 상하를 표시한 칠성판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는다. 시신을 내광에 모시고 나면 흙을 다지고 지관이 동서남북을 표시한 판을 그 위에 묻는다. 하관할 때는 ‘피생’이라고 하여 하관 시간과 생기복덕이 맞지 않는 사람은 자리를 피하는데, 이것은 요즘도 반드시 거린다. 하관한 후 영정을 관 위에 깔고, ‘홍대’라고 하여 나무토막을 홀수(5개 또는 7개 정도)로 관 가장자리에 꽂는다.(또는 관위에 올려놓는다. 지금은 네 귀퉁이에 병을 둔다는 사람도 있다 한다.) 아버님 때는 옷나무로 만든 홍대를 썼는데, 이장할 때 그대로 있어 아버님의 시신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회단이** : 홍대를 깬 후, 인부들이 회와 흙에 물을 부어 버무려 놓으면 상주들이 먼저 한 삽씩 넣은 후 인부들이 회와 흙을 넣어 회단이를 한다. 회단이는 보통 ‘내광’을 다질 때와 ‘겉광’을 다질 때, 그리고 분묘를 만들 때 3회 정도 반복한다. 회단이를 할 때는 인부들이 막대기를 들고 ‘에어리 달고’하면서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한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회단이를 잘한 덕택에 탈골이 잘 되었다고 한다.
 - **평토제** : 묘봉을 만들고 위에 잔디를 입히면 축문을 읽고 평토제를 지냈다.
- ⑥ 하산 때와 그 후의 절차
- **상주일행을 집에서 맞이할 때의 풍속** : 상주는 산에서 내려올 때 장지로 가던 길로 내려오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온다. 상주일행들이 집으로 오면 여자 상주들은 대문 밖으로 나가 상주일행을 맞이하며 ‘아이고, 아이고’하면서 곡을 한

다. 하지만, 조부님 때는 여자(며느리, 딸)들도 함께 갔다고 한다.

- **영좌(빈소)설치** : 출상한 다음에 대청에 영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바닥에는 짚으로 엮은 섶을 깔고 제사를 지냈다.
- **초우제와 자리견이** : 장지에서 상주일행이 돌아오면 곧이어 상청에서 반혼제를 지낸다. 반혼제를 지낸 후에는 만신(무당)이 와서 '자리견이'를 한다. 자리견이 비용은 초상 때 들어온 부조금으로 충당하는데 과거에는 이 때 자리견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자리견이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빌고 장례식에 온 모든 사람들이 상문살 없이 편안하라고 한다. 자리견이를 마치면 늦은 저녁이 되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곡을 하면서 상식을 올렸다.
- **상식과 삭망(朔望)** : 상청을 탈상하기 전까지 조석(朝夕)으로 상청에 평소와 같이 식사를 올리고 삭망(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기제사와 같이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곡을 했다.
- **삼우제(三虞祭)** : 장례식 후 3일이 되면 오전에 집에서 제를 지내고 산소에 가서 다시 제를 지낸다.
- **졸곡제(卒哭祭)** : 어머님 상을 치를 때까지 이 집에서는 졸곡제를 지냈다.
- **소상** : 망자가 사망한 후 1년이 되면 '소상'이라 하여 제사를 크게 지낸다.
- **대상** : 망자가 사망한 후 2년이 되면 '대상'이라 하여 제사를 크게 지낸다. 대상 후에는 매년 기일에 기제사를 드린다. 조부님 때는 대상을 상청에서 지내면서 탈상할 때까지 상식을 올렸는데, 상청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했다.
- **탈상** : 과거에는 대상을 지낸 후 상복을 벗고 상청을 철거(탈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삼우제를 지낸 후 곧바로 탈상하는 경우가 많다.

나. 의례용품

- **수의** : 수의는 잘 썬 삼베로 만들며, 부유한 집에서는 생전에 미리 만들어 두지만 대개는 임종직후 이웃사람들(여자들)이 와서 만들어 주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과거에는 미리 만들어 놓는 집이 없었다.
- **칠성판** : 임종이 가까워 오면 '칠성판'이라 하여 망자의 신체를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되는 송판을 준비해 놓는다.
- **상여** : 24명이 드는 큰 상여였는데, 현재는 없어지고 상여를 보관하던 창고만 남아 있다.
- **상복** : 임종 직후 상주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한쪽 팔만 소매에 넣고 한 쪽은 등 뒤로 묶어 놓는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 '통건'을 쓴다. 여자 상주들도 머리를 푼다.

입관 후 성복제를 지낼 때 상주와 친척들은 고인과의 촌수에 따라 정해진 상복을 입는다. 남자 상주는 굴건제복을 입고, 여상주들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 새끼를 두른다. 그리고 남자가 사망했을 때는 대나무 지팡이(喪杖), 여자가 사망했을 때는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다. 이웃과의 관계(사회적 측면)

- **부조** : 조부님의 경우에는 이웃집에서 술, 떡, 두부, 팔죽 등을 해 가지고 왔다. 이웃끼리 서로 가지고 가면 초상집에서는 호상이 부의록에 전부 기록해 두며, 이 때 가지고 간 음식은 장례준비를 위한 물품을 만들거나 밥상을 하면서 먹는다. 부모님 장례 때의 경우에는 현물대신 점차 화폐사용이 많아지면서 부조도 현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성복제를 지낼 때까지는 이웃에서 품앗이로 만들어 온 팔죽(대략 10여 동이)을 나누어 먹었다.
- **부고장 만들기** : 제보자는 군대행정요원으로 복무했을 때 등사하는 일을 배웠는데, 이 일로 해서 마을에 장례가 있을 때면, 부고장을 직접 만들어 이웃 마을에 부음을 알리기도 했다. 그래서 신문에 부고장이 나면 관심 있게 봐두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맡아서 일을 도왔다고 한다. 전화가 개통된 후에는 부고장을 쓰는 일이 많이 줄었지만, 제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상가집에 자주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을 싫어하셨다고 한다.
- **상가집에 가지 않는 사람** : 그 해 상문이 든 사람, 자식 혼례식을 앞둔 사람, 부인이 출산을 앞둔 사람, 가까운 날에 자기집에 제사가 있는 사람은 상가집에 가지 않는다.
- **상가집에 다녀올 때의 풍속** : 상문살이 들지 말라고 계장의 큰다리를 잘라 주머니에 넣고 가서 올 때 버리고 온다.
- **상두꾼** : 정해진 상두꾼은 없으며 창말의 경우 마을에 거주하는 남자들이 상여를 맨다.
- **상두꾼 대접** : 조부님의 경우에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정도였지만, 아버님 때는 담배를 사다가 대접했다. 그러다가 어머님 때에는 일정한 액수의 현금으로 대접하게 되었는데, 상두꾼들은 이 때 받는 돈을 간혹 상이나 그릇, 채를 만들거나 공동물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마을기금으로 내놓기도 하지만, 전부가 아닌 일부만 내놓기도 한다.
- **풍수(지관)** : 묘터를 잡을 때 풍수를 불러 좋은 자리를 잡는다. 근래 이 때 드는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이다.

라. 장례의 변화

- **장례일정** : 조부님은 1956년에 84세로 돌아가셨는데 5일장을 지낸 후, 3년상을 치렀다. 아버님은 1974년도에 74세로 돌아가셨는데, 3일장을 지낸 후 1년상을 치렀다. 그리고 어머님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3일장을 지낸 후, 100일 후에 탈상하였다. 가까운 친척들 중에는 절에 모신 후, 49제를 지내고 탈상하기도 하였다.
- **상여 이용** : 조부님과 아버님의 경우에는 마을에 있는 대상여를 이용하여 산너머에 있는 묘소까지 운구했지만, 어머님의 경우에는 마을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여가 파손되어 쓸 수도 없었고, 또한 당시에 마을 뒷산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산소를 만들 수도 없었다. 그래서 마을에 있었던 상여도 쓸모없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여튼 병원의 영구차가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관을 모시고 나갔다.
- **상여꾼에 주는 노자돈** : 조부님의 경우에는 특별히 준비했던 것이 없었는데, 아버님의 경우에는 집에서 담배를 사다가 준비해서 돌렸다. 그러나 어머님의 경우에는 상여꾼이 요구하는 관계로 현금을 준비해서 돌렸다.
- **자리걸이** : 조부님과 부모님의 장례 때 모두 자리걸이를 했다.
- **수의 준비** : 조부님과 아버님의 경우에는 마을 분들이 오셔서 팔죽을 먹으며, 수의를 만들어 주었지만, 어머님의 경우에는 손수 수의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께서 오래 살다 가신 것 같다.
- **부의금** : 조부님의 경우에는 팔죽, 막걸리, 음식 등의 현물이나 품앗이로 부조를 했는데, 아버님의 경우에는 보통 1~2백원, 사위의 경우에는 5백원 정도를 부의금으로 받았던 것 같고, 어머님의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부의금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수의를 만들 때 아주머니들이 잡숫던 팔죽은 이웃에게 해준 일이 없어서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 **묘소관리** : 매장만 하고 관리를 하지 못할 바에 공원묘지에 가족묘역을 만들어 자손들에게 관리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근래에 가족들이 회비를 모아 화성군 마두면에 가족납골묘역을 만들어 놓았다. 이 마을에서는 이 집만 현재 납골당을 설치하였으며 다른 집들은 지금도 매장을 하고 있다.

〈상례의 변화〉

내 용	조부님(84세卒, 1957)	아버님(74세卒, 1974)	어머님(93세卒, 1996)	비고
장례일정	5일장 후 3년 탈상	3일장 후 1년 탈상	3일장 후 100일 탈상	
부음전달방법	부고장	부고장·전화	전화	
염습	향나무를 우린 향물	향나무를 우린 향물	알코올	
이웃의 부조	팔죽, 막걸리 등의 현물이나 품앗이	문상객은 현금 1~2백원, 가까운 친척들은 5백원 정도	문상객은 현금 2~3만원	
자리건이	했음	했음	했음	
상여이용	마을의 대상여	마을의 대상여/ 마을 앞길을 돌아서 뒷산으로 올라갔다고 함 ¹⁹⁵⁾	마을의 영구차/ 마을 뒷산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산소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생각됨.	
상두꾼품삿	없었다	담배	현금	
묘소형태	산소	산소→이장→가족묘역	가족묘역	

(3) 태평동 예일병원의 경우¹⁹⁶⁾

태평동은 성남시로 승격된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공간이 밀집된 마을로 변모된 이래, 서울과 성남 및 주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많아졌고 일상의 바쁜 도시 생활로 인해 장례식에 있어서도 간소화된 현대식 장례를 치르고 있다. 장례일정은 보통 3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태평동에서는 주로 인근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성남에 위치한 경우에는 태평4동에 있는 예일병원이나 분당의 재생병원과 차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태평4동에 있는 예일병원 내의 장례식장을 통해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¹⁹⁷⁾ 알아보았다.

(1) 사망 당일

예일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병원과는 다른 사업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폐업중인 예일병원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장례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예일병원 내의

195) 1통노인회 회장인 박상렬의 장남(박동로, 43세, 남)은 어렸을 때 마을뒷산으로 상여가 갈 때 마을 앞길을 돌아서 뒷산으로 올라갔다고 옛 기억을 말해 주었다.

196) 예일병원 장례식장 이용안내 팸플릿과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 1』, 2장, 평생의례 중 「현대의 상장례 절차」, 2004, 555~560쪽

197)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례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철 부장과 염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호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타병원이나 자택 또는 기타 지역에서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모셔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전화접수를 받게 되면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과 직원 두 명을 보내어 병원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병사로 돌아가신 분의 경우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를 발급받아 원무과에 제출해야 하며, 외인사, 기타 및 불상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검시필증 1부를 첨부하여 원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되면 장례식장 직원과 유가족이 같이 안치실의 호실을 확인하고 분향실을 결정하여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 상주는 입관, 발인, 화장, 묘지선정 등의 장례일정과 방법에 대해 담당자와 논의하며, 영정사진과 분향실의 장식, 분향실 차림 및 상주들이 입을 상복과 수의와 입관에 쓸 관 등의 장의용품을 장례식장에 마련된 물품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과 직장동료에게 부음을 알리게 된다.

오늘날의 상례에서는 가정 및 병원을 막론하고 호상(護喪)의 역할은 부의금을 접수하며 상례에 소요되는 지출을 담당하며, 이를 정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특히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굳이 호상의 안내를 받지 않아도 영좌를 찾는 데 어렵지 않도록 공간이 배치되어 있으며, 별도로 문상객의 안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상객이 먹을 음식을 나르는 일은 상주의 친척 여성들이 주로 담당한다. 음식은 육개장, 북어국, 무우국을 주 메뉴로 하여 모듬전, 수육, 홍어무침, 북어찜의 안주류와 오징어채, 땅콩 등의 마른안주, 그리고 떡과 과일, 김치 등의 찬을 대접한다. 영안실 측에서 미리 정해 둔 식단 2~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도 한다. 음식은 대부분의 경우 식당 요리부에서 직접 만들어 공급하고 있으며, 장지에서 필요한 제물, 식사, 도시락 등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조문객을 대접하는 일(식당보조, 조문객 안내 및 접수)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면 사무실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이틀째

사망한 다음날 이틀째에는 염습을 하게 되는데, 염습을 마친 다음에는 바로 입관하게 된다. 입관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되지만, 보통은 조문객이 없는 오전 시간대에 진행된다. 그러나 입관 당일 상주 가족들이 빈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다른 상가들과의 염습일정을 고려하여 유가족이나 상주와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 따라 오후 늦게 진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입관 전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 또는 사체 검안서와 검시필증(사고사)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입관에 필요한

장의용품(관, 수의, 부속물 등)을 미리 선정하여 준비해 두어야 염습에 차질이 없게 된다. 입관을 마친 후에는 남자는 상복을 갈아입고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하고, 여자는 흰색의 치마와 저고리를 입어 상례를 치르게 된다. 성복제는 유족들의 종교에 따라 기독교식이나 불교식으로 치르기도 한다. 또한 이 날에는 다음날 발인 때에 쓰게 될 물품과 장의차량의 배차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며,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각종 비용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염습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염습을 담당하는 사람을 '염사'라고 하는데, 2인 1조로 진행된다. 염사는 염습시간이 되면 염치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유족 및 친지들을 참관하도록 하는데 이때, 염사는 가족들에게 혹시라도 있을 핸드폰 소음을 사전에 제거하게 하거나, 고성방가를 삼가도록 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일러주어 염숙한 분위기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 염치실 안에는 대형 통유리가 있어, 유족 및 가까운 친척은 염치실 안쪽으로 들어가 직접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자가 많을 경우 촌수나 친분관계가 상대적으로 먼 사람들은 유리 너머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리 안쪽은 6,7명 정도의 인원이 참관 가능할 정도의 공간이다. 따라서 자손이 많을 경우에는 유족 중 일부도 유리를 통해 참관할 수도 있다.

염사는 섭씨 5℃내외로 보관되던 유해가 염상으로 모셔지고, 유해를 덮고 있던 흰 천을 걷어 내면서 알코올을 적신 솜으로 얼굴부터 발끝까지 몇 차례 반복해서 시신의 상태에 따라 정갈하게 닦는다. 순서는 얼굴, 팔, 상체, 하체로 하며, 왼쪽을 먼저 닦은 후 오른쪽을 닦는다. 특히 얼굴부분은 머리를 감긴 후에 남자의 경우는 면도를 하기도 하고, 여자의 경우는 얼굴화장을 곱게 하여 몸가짐을 깨끗하게 한다. 염습이 완료되면 발끝부터 위로 수의를 입히는데, 미리 겹옷 안에 속옷을 넣어 두어 손쉽게 입힐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손에는 악수를, 발에는 버선을 신긴다. 수의를 입히면 유족들이 망자와 마지막으로 대면하면서 곡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때는 유가족들의 종교에 따라 깨끗한 상태에서 보게 한다. 그리고 상주가 '반함'을 하는데, 염사는 상주의 손을 잡고 엽전(구리로 만든 돈)을 고인의 가슴속에 넣게 하는데, 이때 염사는 엽전 하나씩을 넣을 때마다 "천 석이요, 이천 석이요, 삼천 석이요"라고 외친다. 반함을 끝내면 염사는 "이제 얼굴을 가리겠습니다."라고 유가족들에게 말한 후, 깨끗한 탈지면으로 입 모양을 오려내서 얼굴을 감싼 후 면모를 씌운다. 이를 세 번 반복한 후, 바로 '소렴'을 한다.

소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지로 묶고 몸 전체를 삼베 한 필(20자)로 묶는다. 이 때 시신은 최대한 바르게 펴야 한다. 소렴이 끝나면 바로 '대렴'을 치른다. 대렴포로 시신을 21군데 묶게 되는데, 관 모양과 흡사하도록 네모에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목 주변이

나 다리 사이에 톱밥이나 종이 등으로 보공을 한다. 대렴표로 묶고 나서 관 안에 한지를 깔고 양쪽에서 유해를 들어 관에 옮긴 후¹⁹⁸⁾ 관의 빈 공간에 심을 뺀 종이를 넣어 보공한다. 보공이 완료되면 관 뚜껑을 덮고 영구를 묶은 후 준비한 명정을 덮은 다음 보관실로 옮긴다.

염습과 입관을 마치면, 유족들을 빈소로 가서 상복을 입게 된다.¹⁹⁹⁾ 남자는 검정색 양복에 완장을 오른쪽에 차기도 하며, 여자는 흰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지만, 종교(기독교와 천주교)에 따라서는 검정색을 입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식 흰색 상복을 입기도 한다. 상복을 갖춰 입고 나면 조문객을 받는다.

(3) 3일째

성복제를 올리고 조문객을 받은 다음날에는 발인을 하고 장지로 출발하게 된다. 발인에 앞서 시신을 인수할 때에는 유가족 중 한사람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준비된 장의차량에 운구하는데, 장지로 출발하기 전에 영구 앞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발인제'를 갖는다. 이때 올리는 음식은 식당에서 준비해 준다. 장지에 도착한 후에는 산신제, 평토제, 성분제, 반혼의 의식을 행하지만, 유족이나 고인의 종교에 따라 달리 지내기도 한다. 장지는 주로 매장인 경우는 고인의 선산이나 공원 묘지로 출발하게 되며, 화장인 경우에는 남현동의 화장터를 거친 후 성남 영생사업소에 있는 '납골묘'에 모시게 된다.

5. 제례

제례는 원래 신과 인간의 세계를 매개시켜 주던 종교행위로서, 반드시 사제자에 의해서 주재되어 왔다. 그러나 조상숭배 사상이 보편화됨에 따라 죽은 조상이 신으로 추앙되면서 제례는 널리 일반에게까지 시행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제자의 역할은 종손이 제사 때에만 임시로 맡게 된 것으로 바뀌었다. 즉 종손은 비직업적 사제자인 셈이다. 그러므로 제례는 삶과 죽음의 세계를 매개시켜 주는 상징적인 종교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조상의 제사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98) 이 때 염사는 "입관이요"라고 외친다.

199) 근래에는 고인이 임종하면 유족들이 먼저 상복을 입고 문상객을 받는다 하면, 또는 먼저 상복을 입고 입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예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담당자는 말하였다. 전통상례에 따르면, 성복제를 치르기 전까지는 고인을 산사람으로 보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하여 가장 이른 시간인 0시에 4대 조상을 범위로 제청에서 모시는 '기제사', 명절이나 일정한 절기에 4대 조상을 범위로 낮에 사당에서 올리는 '차례', 그리고 4대조 이상의 모든 조상을 대상으로 묘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낮에 올리는 '시제'가 그것이다. 이 기제사는 후손인 우리들을 창조하신 신의 탄생일, 즉 돌아가신 날을 축하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차례는 곡물의 성장과 풍요를 기원하는 사계절의 농업적 종교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또한 시제도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²⁰⁰⁾ 하지만, 오늘날 행해지는 제례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마다 집집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그리고 정보사회로 치달리고 있는 변화 속에서 제례의 양상은 시간적·공간적인 차이를 넘어서고 있다. 그것은 제례 형식에서 뿐만 아니라 제례가 행해지는 공간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행해지는 제례 양상들이 모두 예법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련의 변화 속에서도 변화지 않는 전통(원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마을지의 조사지역인 창곡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현대적인 요소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농촌마을이 도시화된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도시풍의 전원마을로 변모해 가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요소는 변화된 마을전경 속에서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전통가옥과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고향마을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는 토박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젊고 건장했던 청년시절을 창말에서 보냈던 어른들의 희미해진 기억과 입담 속에서나마 전통적인 제례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먼저 창말의 1통 노인회 회장이신 박상렬(78세, 남) 통장의 안내로 조귀현(86세, 남)씨 댁을 방문하여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현재 조귀현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어려서부터 익혔던 붓글씨도 더 익힐 겸 서울로 다닐 정도로 원기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은 3년 전에 새로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추석명절을 맞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방문을 드렸는데도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맞이하여 주었다. 마침 마루에는 가족식구들이 제사를 마치고 난 후 오순도순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조귀현의 본관은 창녕 조씨로 현재 4대째 거주해 오고 있으며, 큰아버님에게 아들이 없어서 장남인 본인이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귀현씨 댁의 가족은 조상제사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일찍 사별한 동생의 제사까지

200) 장철수, 『韓國의 冠婚喪祭』, 집문당, 1997, 75~76쪽.

도맡아 지내고 있어 다른 집보다 많은 제사를 지내고 있다.

(1) 조귀현씨 댁의 경우

가. 차례²⁰¹⁾

- 봉사대상 : 고조부님, 증조부님, 조부님, 부모님 대까지 4대를 모시고 있다.
- 시기 : 설,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
- 장소(祭場) : 보통 마루에서 차례를 지낸다. 2층에 있는 마루가 밝고 넓어서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기에 알맞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 참가자 : 8촌 이내의 가족들이 모여, 가까이 사는 경우 기제와 차례 때 함께 제를 지낸다. 차례 때는 여러 집에서 제를 지내므로 큰집인 조귀현씨 댁에서는 이른 시간에 차례를 지낸다.
- 제물진설 : 설에는 떡국, 과일, 전, 적(魚炙, 肉炙, 鷄炙), 탕(북어탕, 두부와 무를 넣고 끓인 탕, 소고기탕), 나물, 북어포, 산자, 약과, 다식, 청주를 올린다. 추석에는 떡국 대신 햇쌀로 빻은 송편과 토란과 쇠고기, 다시마를 넣고 끓인 국을 올리는 것 외에는 설과 차이가 없다.
- 절차 : 설과 추석 때의 차례절차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유교식 예법에 따라 지낸다. 일반적인 유교식 예법에 따른 차례의 순서는 대체로 (神位奉安), 진설(陳設), 분향강신(焚香降神), 헌작(獻爵 : 초헌, 아헌, 종헌), 재배(再拜), 개반삼시정저(開飯插匙正箸), 합문(闔門, 병풍을 가림), 부복(俯伏), 첨작(添酌 : 종헌관이 잔을 올릴 때 반잔만 채우는데 나중에 이곳에 가득 술을 채움), 재배, 헌다(獻茶 : 송능을 올림), 철상(撤床) 순으로 진행된다.²⁰²⁾ 또한 차례 때는 축문은 읽지 않는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풍이 있고 마을마다 특색이 있듯이, 일반적인 유교식 예법을 중시하나, 꼭 이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201) 오늘날의 차례는 사당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례』에 의하면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는 정월 초하루,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참배하는 제사가 있다. 이들 중에서 매월 보름에는 술잔을 차리지 않고 찻잔만을 올리게 되어 있다. 제사 중에서 가장 간략한 이 보름의 사당 참배에서 '차(茶)를 올리는 예(禮)'라 하여 차례(茶禮)가 유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또 사당의 제사 가운데서 민속 명절에 올리는 제사에는 그 명절에 먹는 특별한 계절식을 올리는 것이 관례였다. 결국 사당에 올리는 차례는 설,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각종 명절에 지내던 것을 합하면 1년에 무려 30여 회에 이른다. 근래에는 사당이 사라지게 되어 이 차례가 바로 명절의 제사로 남게 된 것이다. 명절의 차례도 옛날과는 달리 설과 추석 두 번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차례는 사당 예법의 유습이 정착된 것이라고 하겠다(이영준, 『차례와 제사』, 대원사, 2005(10쇄), 215~216쪽).

202) 또는 (1)재계, (2)제상과 집기의 설치, (3)제수 준비, (4)제복 입고 정렬하기, (5)제상 차리기, (6)신위봉안 (7)신 내리기, (8)합동 참배, (9)제찬 올리기, (10)잔 올리기, (11)식사 권유, (12)수저 걷기, (13) 합동배례, (14) 신주 들어 모시기, (15) 제상 정리, (16) 음식 나누기 순으로 진행된다(위의 책, 217~220쪽).

나. 기제²⁰³⁾

- **봉사대상** : 선대로는 4대조까지,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 및 삼촌을 모신다고 한다. 다른 집안보다 많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출계(出系)로 인한 내력 때문인데, 조귀현은 본인이 있을 동안에는 조상님 제사를 지내겠지만, 후손들에게 꼭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하여 후손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배려의 말이 있었다.
- **시기** : 조상이 사망한 날을 기일로 하여 제를 지낸다. 원래 기제는 사망한 날에서 가장 빠른 시간인 자시(밤11시~새벽1시 사이)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근래에는 편의상 초저녁에 지낸다. 그러나 조귀현 댁에서는 시속(時俗)을 따르기보다는 예법에 따라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여 밤 12시에 맞춰 제사를 지낸다.
- **장소** : 차례 때와 마찬가지로 마루에서 지낸다.
- **참가자** : 인근에 사는 8촌내 후손들이 참석한다.
- **제물진설** : 기제 때는 메(밥)와 갱(무우와 두부를 넣고 끓인 맑은 국을 올린다. 제사에는 토장국과 같이 흐린 국을 올리지 않음), 편(위에 고물을 얹음), 과일, 전, 적(魚炙, 肉炙, 鷄炙), 탕(북어탕, 두부와 무를 넣고 끓인 탕, 소고기탕), 나물, 북어포, 산자, 약과, 다식, 청주를 올린다. 제수는 여자(며느리와 딸)들이 준비하지만, 형편에 따라 정성껏 준비하게 하며, 특히 과일은 큰 것보다는 작더라도 야무지고 잘 익은 것을 골라 올린다.
- **절차** : 제를 지내는 순서는 차례 때와 동일하나 제사 전날 목욕제계를 하여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한 후,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고 제사를 대한다. 차례 때는 축문을 읽지 않지만, 기제 때는 초헌한 후에 축문을 읽는다.

(2) 함진득씨 댁의 경우

조귀현씨 댁을 방문하기 전에, 큰 아드님(조규상 :45, 남)을 우연히 만나 함진득씨 댁(67, 남)을 알게 되었다. 큰아드님은 차례를 마치고 창말 뒷산으로 나들이를 가던 참이었다. 한낮의 햇볕이 내리쬐는 길가에서 창말의 풍수를 여쭙보니 삼형제골, 다람쥐골, 절골, 잣골과 같다는 말이 있었다고 일러 주었고, 어떤 풍수가의 말을 빌어, 마을 뒷산

203) 기일제사는 보통 '기제사' 또는 '기제'로 약칭되고 있다. 기일이란 돌아가신 날을 말한다. 따라서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의 제사란 뜻으로, 조상이 돌아가신 당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제사는 이날 첫새벽 곧 닭이 울기 전에 행하는데, 보통 밤 0시가 지나 새날이 시작되면 행한다. 제사를 한밤중에 행하는 것은 귀신이 음도를 따르므로 고요하고 그윽한 시간에 거동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며 또, 제사를 그날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에 우선해서 행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 전날은 입제일(入祭日)이라 하여 제사에 들어가는 날로 제구와 제기를 정비하고 제찬을 준비하는 날이다. 제사를 지낸 당일은 파제일(罷祭日)이라고도 부르는데, 흔히 친지와 이웃을 초대하여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위의 책, 112쪽, 188쪽).

이 청량산을 가리고 있어, 부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주변마을 보다 개발이 늦게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창말 입구에 있는 부동산에 의하면 창말의 땅값은 이미 서울 부자동네의 땅값과 비슷할 정도로 시세가 많이 올라 있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개발이 되느냐하는 시간문제인 것 같았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창말의 변화는 앞산의 영장산 자락이 이미 터널공사로 한쪽이 잘려 없어진 것보다는 오히려 뒷산의 풍수가 어떠하더라도 창말의 정취를 더해주는 지금이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사자는 해 보았다.

함진득씨 댁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될 즈음이었다. 앞마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차례에 올린 토란줄기를 다듬고 계셨는데, 창말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니, 흔쾌히 집안으로 안내해 주었다.

가. 차례

- **봉사대상** : 증조부님, 조부님, 부모님 3대를 모시고 있다.
- **시기** : 설,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 추석에는 아침 7시 전후에 제사를 지내고 가족 묘지에 다녀오는데, 보통 승합차를 이용해 4촌내의 남자들만 갔다 왔다고 한다. 또한 경춘공원묘지에 가족납골묘역(32기)을 만들어 놓아 가족모임을 통해 찾아보고 있다고 하였다.
- **장소(祭場)** : 안채와 마루에서 차례를 지낸다.
- **참가자** : 8촌 이내의 가족들이 모여, 가까이 사는 경우 기제와 차례 때 함께 제를 지낸다. 차례 때는 여러 집에서 제를 지내므로 큰집부터 먼저 제를 지내고 기차들의 집으로 간다.
- **제물진설** : 설에는 떡국, 과일, 전, 적(魚炙, 肉炙, 鷄炙), 탕(북어탕, 두부와 무를 넣고 끓인 탕, 소고기탕), 나물, 북어포, 산자, 약과, 다식, 청주를 올린다. 추석에는 떡국 대신 햇쌀로 빻은 송편과 토란과 쇠고기, 다시마를 넣고 끓인 국을 올리는 것 외에는 설과 차이가 없다.
- **절차** : 설과 추석 때의 차례절차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유교식 예법에 따라 지낸다 한다. 차례의 순서는 대체로 신위봉안(神位奉安), 진설(陳設), 분향강신(焚香降神), 헌작(獻爵 : 초헌, 아헌, 종헌), 재배(再拜), 개반삼시정저(開飯挿匙正箸), 합문(闔門, 병풍을 가림), 부복(俯伏), 첨작(添酌), 재배, 헌다(獻茶 : 송늬를 올림), 철상(撤床)순으로 진행된다.

나. 기제

- **봉사대상** : 조부모님과 부모님 2대만을 모시고 있고, 증조부님은 큰댁에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 5대 이상 중시조는 고성(高城)의 선산으로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 **시기** : 조상이 사망한 날을 기일로 하여 제를 지낸다. 원래 기제는 자시(밤11시~새벽1시사이))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근래에는 편의상 초저녁에 지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주변에 사는 자녀들의 안전한 귀가와 직장생활에 따른 피로를 고려하여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낸지는 얼마 안 되었다 한다. 축문은 과거에는 예법과 한문을 아는 분이 있어 그 사람이 주로 축문을 썼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 축문을 읽지 않는다 한다.
- **장소** : 안채와 마루에서 지낸다.
- **참가자** : 인근에 사는 가족들이 참석한다.
- **제물진설** : 기제 때는 메, 갠(무우와 두부를 넣고 끓인 맑은 국을 올린다. 제사에는 토장국과 같이 흐린 국을 올리지 않음), 편(위에 고물을 얹음), 과일, 전, 적(魚炙, 肉炙, 鷄炙), 탕(북어탕, 두부와 무를 넣고 끓인 탕, 소고기탕), 나물, 북어포, 산자, 약과, 다식, 청주를 올린다. 제수는 여자(며느리와 딸)들이 준비하지만, 형편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다.
- **절차** : 제를 지내는 순서는 차례 때와 동일하나 제사 전날 목욕제계를 하여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한 후 지낸다.

다. 기타

북정동 안골마을에 있는 진주 강씨 댁은 집안 뒤편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어서 제례과정을 알아보려 했으나 집안 사정상 자세히 들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간단한 말로는 차례의 경우 먼저 집안에서 이른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주변에 사는 가족들의 집으로 간다고 한다.

3) 시제²⁰⁴⁾

북정동 안골마을에 있는 정혜공양원군 이희의 묘에는 음력 10월 2일이 되면 송파구

204)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묘제를 '시제'라고 칭하며 음력 10월에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 윗대의 조상, 즉,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그러나 시제와 묘제는 원래 전혀 다른 제사였다. 예법상의 시제는 1년에 네 번, 춘하추동 4계절의 가운데 달에 사당에 모신 4대조를 향사(享祀)하는 제사이며, 우리 속습의 10월 시제란 것은 5대조 이상의 먼 조상을 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10월의 묘제(시제)는 『가례』에서 매년 1회씩 시조나 선조에 대해 집안에서 지내는 정규 제사와 흡사하다. 이 시제(묘제)는 예서에는 없는 제사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엄격히 지내는 것으로 보아 관습적인 제사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이영춘, 위의 책, 220쪽).

청담동에 있는 양원공파 이씨대중회에서 시제를 지낸다. 30년 전에 북정동4거리에서 살다가 이희의 묘소 주변으로 이사 온 홍원길(66, 남)씨가 현재 묘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제에 관한 자료(사진, 비디오)는 대중회에서 관리한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시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봉사대상** : 5대조 이상의 조상들을 모신다.
- **시기** : 음력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지낸다. 최근에는 전후의 일요일로 택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생활로 인해 참석하기 어려운 문중 자손들을 다수 참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 **장소** : 5대조이상 조상님들의 산소를 찾아다니면서 지낸다. 비용은 종중(宗中)의 돈으로 하는데 현재 종중명의로 된 빌딩과 토지 등이 있다.
- **참가자** : 해당하는 자손들이 참여하여 함께 지낸다.
- **제물진설** : 제수는 기제사의 경우에 준하여 준비한다. 다만 기제사에서는 대부분의 제찬을 합설하고 밥, 국, 술잔, 수저만 고위(考位)와 비위(妣位)를 각각 달리하여 차리는데 비해, 묘제에서는 떡과 면(국수)도 따로 쓰는 경우가 많으며 탕은 3탕이 아닌 5탕을 쓰고, 어육은 '간납'이라 하여 기제사보다 더 많은 종류를 쓰기도 한다. 상차림은 기제사와 거의 같으나 기제사는 5열로 차리는데 반해 묘제는 제수의 종류가 많아 6열로 차리기도 한다.
- **절차** : 묘제는 조상의 무덤에서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신주나 지방을 쓰지 않으며, 따라서 참신을 강신보다 먼저 행한다. 그리고 유식(侑食), 첨잔, 합문, 계문이 없고 삼시정저(掃匙定箸 : 수저를 음식 위에 꽂거나 놓는 일)를 초헌 때에 한다. 이는 야외의 제사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절차는 기제사와 대동소이하다. 묘제는 야외에서 진행하고 참석자가 많아 질서 유지와 예식을 지휘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목청이 좋은 사람을 집례(사회자)로 지명하여 제사의 식순을 적은 홀기를 큰소리로 창도하면서 제사를 진행한다.

그 대강의 순서를 보면 우선 묘소에 대한 제사로 식전 의식은 (1)날잡기(擇日) (2)재계 (3)제수의 마련(具饌)과 제상 차리기(陳設) (4)청소(灑掃)와 자리 깔기(布席) (5)음식 차리기(陳饌)의 다섯 가지 과정이 있으며, 제사의 집전 절차는 (6)합동 참배(參神) (7)신 내리기(降神) (8)첫잔 드리기(初獻)와 축문 읽기(讀祝) (9)버금 잔 드리기(亞獻) (10)끝 잔 드리기(終獻) (11)합동 배례(辭神) (12)제상 정리(徹) (13)음복(飲福)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음 지신(地神)에 대한 제사인 후토제(后土祭 : 산신제라고도 함)는 (1)자리 정돈

(布席)과 음식 차리기(陳饌) (2)귀신 내리기(降神) (3)합동 참배(參神) (4)첫잔 드리기(初獻)와 축문 읽기(讀祝) (5)버금 잔 드리기(亞獻) (6)끝 잔 드리기(終獻) (7)합동 배례(辭神) (8)제상 정리(徹)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묘제의 진행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신인 후토씨(后土氏)에 대한 제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IV. 민간신앙

1. 마을신앙

성남지역은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마을을 중심으로 도당굿이 행해졌으며, 지역민들의 생활중심에 유구한 세월동안 내려온 우리 민족의 민간신앙이 자리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시가지가 아닌 곳에서는 산제가 지내지고 있다.²⁰⁵⁾ 조사자가 1999년에 조사한 성남지역의 동제 현황은 대략 과거 23개 마을이 동제를 지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0개 마을이 현재도 동제를 지내고 있으며 13개 마을이 단절되었다.²⁰⁶⁾ 오늘날 성남 시청이 있고 주택가가 형성된 태평동 지역에도 과거에는 도당터가 있어 주민들은 10월 상달이 되면 굿을 하고 주민들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탄리(現 태평3동)의 경우는 과거 해방 전까지 도당굿²⁰⁷⁾이 행해졌으며 수진리(現 태평1동)는 60년대까지 도당굿이 행해졌었다.²⁰⁸⁾

(1) 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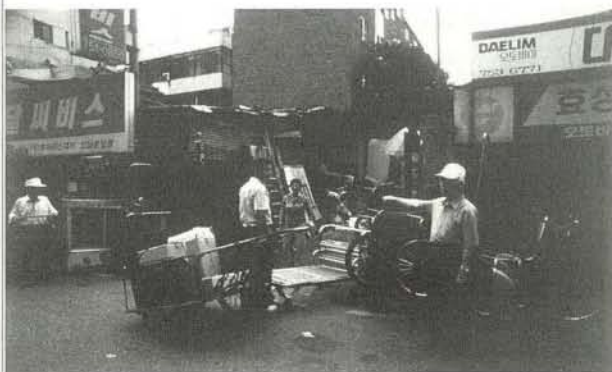
과거 탄리 건너말 입구 쪽에 있던 도당터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태평3동 탄리사거리에서 탄리로를 따라 30여 미터 가면 좌측에 범일약국이 있고 그곳으로 좌회전하여 ‘태삼장터길’을 10여 미터 가면 현재 고물상(인근에는 몇 개의 고물상이 있는데 이곳이 가장 먼저 생긴 고물상임)이 있는데 그곳이 ‘도당터’였다. 그곳에서 30여 미터 더 가면

205) 성남문화원,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2001

206) 김덕목, 「성남의 민간신앙」,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성남문화원, 2001, 191쪽

207) 제보자 : 박인호(남, 1925년생, 성남개발 전 탄리의 이장을 지냈으며 현재도 이곳에 거주), 이 내용은 조사자가 2001년에 조사하여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성남문화원, 2001, 48쪽)에 소개한 바 있으나 2005년 7월 현재 다른 주민들에게 조사한바 애초에 밝힌 내용과 차이가 있어 여기에서는 다소 수정·보완하였다.

208) 복정동과 창곡동은 마을에 동제를 지냈다는 소리를 노인들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마을이 생성될 때부터 동제를 지내지 않았는지 촌로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전에 동제가 단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박인호씨가 저곳이 과거 탄리 도당터였다고
가리키고 있다

1970년대 개발 전에는 방앗간이 있었고 방앗간 30여 미터 앞에는 상여집이 있었다. 도당터에는 돌무더기와 박달나무 10여 그루가 있었는데, 4월 초파일 박달나무를 건너다니면 다리가 좋다고 하여 주민들은 박달나무 사이를 건너 다녔다. 도당곳은 추수 후인 음력 10월 상달 초순쯤에 했으며, 도당곳을 할 때는 도당터에 멍석을 깔고 앞에 상을 차려놓고 굿을 했다(차일은 치지 않았음). 해방 전까지는 도

당곳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도당곳을 하지 않았다. 현재 제보자들도 어렸을 때 보았기 때문에 도당곳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2) 수진리²⁰⁹⁾

수진리의 경우에는 60년대까지 '앞말'에 도당나무가 있었으며 매년 10월에 수진리 전체 가구가 공동으로 도당곳을 했었다. 현재 성남대로 옆에 있는 '장모님설령탕집' 주차장터가 과거 도당나무가 있던 곳으로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였다. 60년대 말 황새가 나무에 똥을 싸면서 나무가 점차 말라 죽었는데 그때부터 도당곳을 하지 않았다. 그 후 1972년에 이 부근이 개발될 때 그 터가 없어졌다. 이 마을이 개발되기 전에는 마을에 '삼신나무'가 있었는데 그곳은 옛날 여자가 목을 매어 죽은 나무다. 그 나무에 빌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사람들이 빌어 '삼신나무'라고 하였다. 과거 도당곳을 할 때는 만신일행이 삼신나무를 비롯하여 마을에서 위하는 몇몇 나무를 돌면서 '비손'한 다음 도당나무로 와서 굿을 했다.

성남이 개발되기 전에는 현재 태평역 3번출구 부근을 '장승백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큰 고목이 있었다. 이 나무에 왼새끼를 두르고 형쥬 등을 매어 놓았었다. 그 옛날 장승이 있었다는 말도 있으나 현재 본토박이 노인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승은 없고 나무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을 장승백이라고 불렀다 한다.

과거 수진리는 정월 초에서 보름까지 '고사반'²¹⁰⁾을 하였는데 고깔과 상모를 쓰고 장

209) 제보자 : 박규녀(여, 71세) 외 토박이 노인들.

210) 이것을 '답교놀이'라고 말하는 주민도 있는데 답교놀이와 고사반이 혼합되었는지 아니면 고사반이 답교놀이와 유사하여 그렇게 부르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인근 송파에서 답교놀이가 성행했던 것으로 볼 때 이곳에서도 답교놀이가 과거에는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 호적, 피리, 풍물을 치면서 중, 색시 등의 옷을 입고 무동을 타고 했는데, 집집마다 돌 때는 마을에서 제법 산다고 하는 부잣집을 중심으로 방문했는데, 그 집에 가면 식사와 술을 대접했다. 수진리의 두레패의 풍물은 대단하여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탄리, 창곡동까지 다니면서 정초에 고사반을 했으나 성남이 개발된 후로는 하지 않았으며 풍물을 치던 사람들은 대다수 작고하였다.



↑ 과거 수진리 도당터가 있던 자리

2. 가신신앙(家神信仰)

경기도 지역의 안택고사는 정월, 칠월, 시월 등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고사, 집을 짓고 상량식을 할 때 지내는 '상량고사', 매년 상량식 한 날을 '집생일'이라고 하여 지내는 '생일고사', 봄철에 파종할 벼씨를 물에 담아 놓고 난 후 지내는 '씨앗고사', 집안에 혼례, 환갑잔치 등이 있을 때 지내는 고사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성남지역에서도 이러한 고사들이 현재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성남지역에서는 정월에 지내는 고사를 '정월고사', 칠월에 지내는 고사를 '칠월고사', 10월에 지내는 고사를 '가을고사', '상달고사', 또는 '가을떡한다'라고 한다. 정월이나 시월고사는 월중에 택일(擇日)하여 지내며 칠월고사는 칠월 칠석에 지낸다. 위에서 나열한 고사들 중 씨앗고사는 현재 지내는 집을 찾아 볼 수 없다(단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고사는 10월 상달에 지내는 '가을고사'이다. 가을고사는 조사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 정월고사와 칠월고사는 지금도 지내는 집이 더러 있기는 하나 몇 집에 불과하다. 상량고사나 혼례, 환갑잔치 때 고사를 지내는 풍습은 지금도 민간신앙을 믿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다.

안택고사는 년 1회, 2회, 또는 3회 이상 지내는 가정도 있는데 년 1회 시월에만 지내는 가정이 가장 많다. 년 2회(정월과 시월)나 년 3회(정월, 칠월, 시월)지내는 가정은 더러 있는 편이다. 예전에는 년 3회 이상 지내던 고사가 점차 축소화되어 현재는 시월에만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아졌다.²¹¹⁾ 금번 조사지역에서도 주로 10월 상달에 지내는 가을고사만 오늘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211) 김덕목, 「성남의 민간신앙」,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성남문화원, 2001, 202쪽

(1) 창곡동

창곡동은 근래에는 가신의 신체를 만들어 놓은 집은 없으나 기독교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박이 주민들은 고사를 지내고 있다. 과거에는 고사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이웃 집에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웃집에서 고사를 지냈는지 서로 알지는 못한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떡 한 접시를 터에 가져다 놓는다.

가. 송희선씨 댁

서울 답십리에서 18세 때 창말리 창말 김해 김씨(金海金氏) 댁으로 시집 온 송희선은 민간신앙에 대해 돈독한 믿음을 가진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다. 시어머니는 1년에 6~7차례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지냈다. 정월에는 정월이라 하고 봄에는 '꽃맞이'로 고사를 지내고, 칠석에는 '칠석'이라고, 10월에는 '단풍맞이', '신곡맞이'로 하고, 간간히 몸이 아프면 또 고사를 지내고, 성주 올린 날(집에 상량대를 올린 날)에는 '집생일'이라고 고사를 지냈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집안에 성주, 터주 등의 가신(家神)의 신체(神體)도 있었는데 송희선은 이것을 시어머니 작고 후 없앴다. 또한 송희선은 시어머니가 작고한 후로 '가을고사'만 현재까지 지내고 있다.²¹²⁾

나. 허옥희씨 댁²¹³⁾

서울 양재동에서 18세 때 창말 경주 이씨(慶州李氏) 댁으로 시집 온 허옥희는 현재 '가을고사'와 '집생일'에만 고사를 지내고 있다. 과거 큰집²¹⁴⁾에서는 집안에 가신의 신체가 두루 있었다. 즉, 대청의 상량대에는 상량한 일시(日時)²¹⁵⁾가 쓰여 있는데 그곳을 성주의 신체로 생각하고 모셨다. 상량대에 종이로 폐백을 올려놓는 집들도 있으나 이런 것 없이 상량대를 성주의 신체로 모시고 받드는 경우도 이 마을에서는 흔하다. 삼신 주머니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안방 구석 위에 쌀을 넣은 주머니를 달아매어 놓고 위에 창호지로 고깔을 접어 씌워놓았다. 집 뒤 장독대 옆에는 터주가리와 업양가리를 두었는데 터주가리는 항아리에 콩을 넣고 위에 짚주저리를 씌워놓은 형태이다. 업양가리는 매우 컸다. 지난 짚주저리를 교체하지 않고 매년 위에 새것을 씌우므로 점점 커졌으며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12) 제보자 : 송희선(여, 73세)

213) 제보자 : 허옥희(여, 76세)

214) 허옥희씨 큰댁은 창말에서 거주하다가 타지로 이사 갔음.

215) 경기도에서는 상량대에 쓰여 있는 일시(日時) 즉, 상량한 날을 '성주생일'이라고 하여 당일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는데 지금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과거 허옥희씨 큰댁은 이렇게 가신의 신체를 모셔놓고 안택고사를 지낼 때는 팔시루(팔가루와 쌀가루를 한 컵씩 교대로 올려 찐다), 손시루(흰무리 즉, 백설기로 하며 고사를 지낼 때는 이것을 삼신주머니 앞에 놓는데 10살 內의 아이들을 위해 한다), 칠성시루(흰무리로 하는데 고사를 지낼 때는 집 뒤곁에 복두칠성 쪽을 보고 한다), 산신시루(흰무리로 찌는데 고사를 지낼 때는 안마당에서 남한산성 쪽 방향을 보고 놓는다), 막걸리를 제물로 사용했다. 이 마을에서는 과거에도 성주단지 같은 것은 없었다.

과거에 큰댁은 이렇게 여러 가지 떡시루를 찌서 했는데 허옥희씨 댁은 작은집이므로 간단하게 팔시루떡만 찌서 고사를 지냈으며 현재도 팔시루떡만 한다. 근래에 허옥희씨 댁에서 고사를 지내는 순서는 대청 상량대 밑에 팔시루와 막걸리를 한 잔 부어 놓고 가족들의 안녕을 비는 비손을 한 후에 떡을 여러 접시에 나누어 방, 부엌, 창고, 화장실, 장독대, 차, 대문 등 집안 곳곳에 둔다. 과거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안택고사를 지낼 때 대문 양쪽에 황토를 두었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부터는 황토를 깔지 않고 간단히 했다. 이 마을에서는 가정에서 굿을 할 때도 전에는 대문에 황토를 깔았다. 대청에서 부어놓은 막걸리는 집안의 대주(家長)에게 마시게 한다.

(2) 복정동

복정동 본토박이 주민들은 현재도 대부분 안택고사를 지내고 있다. 조사자가 ‘안골’에 있는 노인정에 가던 날 할머니 7명을 만났는데 그중 7명 모두 현재 안택고사를 지낸다고 대답하였다. 본토박이 주민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몇 집 외에는 다들 고사를 지내고 있다.

가. 김영기씨 댁²¹⁶⁾

김영기씨는 12살 되던 해 서울에서 복정동 안골마을로 이주하여 후에 이곳에서 같은 마을 사람과 결혼하였다. 과거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격년으로 10월이 되면 송파에 거주하는 만신을 청하여 ‘신곡맞이’로 안택굿을 하였다. 시어머니는 민간신앙에 대한 마음이 돈독하였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집안에 터주가리도 있었으며 상량대(성주)에도 신체(神體)를 만들어 놓았으나 25년 전 시어머니가 작고한 후로는 없었다. 김영기씨는 터주가리 등 가신의 신체를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나 고사를 지내는 것만큼은 지금도 정성이 각별하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돼지고기와 막걸리를 준비하여 고사를 지내고 10월에는 가을고사를 지낸다. 가을고사를 지낼 때는 팔시루떡과 돼지고기, 막걸리를 준비하여 대청에서 비손을 하고 각 방과 대문, 집안 곳곳에도 떡을 작은

216) 제보자 : 김영기(여, 71세)

시루로 여러 개 찢어서 하나씩 놓는다. 과거에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칠석에도 밀전병을 해서 막걸리와 함께 터주가리에 올렸는데 시어머니 사후로는 칠석에는 절에 간다.

(3) 태평동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토박이 주민들은 대부분 안택고사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대개 터주가리 등은 만들어놓지 않았으며 고사만 지내고 있으나 터가리와 성주를 모셔놓은 박○○씨 댁과 같은 경우는 근래에는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조사자가 태평1동 노인정에 가던 날 노인정에 할머니 여덟 분이 화토를 치고 있었다. 그 중 시집와서 이곳에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 토박이 할머니가 7명이었으며 외지에서 이주한 할머니가 1명이었다. 이 중 이주한 할머니 1명을 제외한 토박이 7명은 모두 현재도 안택고사를 지낸다고 대답하였다. 성남이 개발 된 후 외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안택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이 지방에서 살아 온 토박이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살면서도 현재 안택고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임을 알 수 있다.

가. 박○○씨²¹⁷⁾ 댁

탄리 건너말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박씨는 현재도 옛날 집터(건물은 신축)에서 살고 있으며 지금도 칠석과 10월에 가을고사는 매년 빠지지 않고 지내고 있다. 성주는 대청상량대인데 이곳에 종이를 붙여 놓았다. 이 종이는 2~3년에 한 번씩 낡으면 교체해 준다. 집 뒤곁에는 쌀을 담아 놓은 항아리에 함석을 씌워 터주로 모시고 있으며 매년 가을에 고사를 지낼 무렵에 쌀을 갈아준다. 이 마을에서는 터주에 보통 쌀이나 콩을 담아 놓는다. 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짚이 있었기 때문에 짚주저리를 만들어 터주단지 위에 씌웠으나 근래는 이곳이 도시가 되어 짚을 구할 수 없어 함석을 씌워놓았다.

고사를 지낼 때 제물은 팔시루와 막걸리를 사용한다. 고사를 지낼 때 순서는 떡시루와 막걸리를 성주(상량대) 앞에 차려놓고 절을 하고 비손을 한 다음 떡을 여러 접시에 나누어 방, 부엌, 광, 차고 등 집안 곳곳에 둔다. 과거에는 고사를 지낼 때 대문 양쪽에 황토를 가져다 놓았는데 근래에는 황토를 구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고사를 지낼 때 금줄은 치지 않았다.

나. 박규녀씨 댁²¹⁸⁾

강원도 철원군에서 6.25전쟁 직후 수진리 '새탄말'로 피난을 왔다가 23살 때 이곳에서 남편 함씨를 만나 결혼하여 현재까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박규녀씨는 현재도 매년

217) 제보자 : 박○○(남, 78세, 태평3동 거주)

218) 제보자 : 박규녀(여, 71세, 태평1동 거주)

안택고사를 지내고 있다. 보통 10월에 고사를 지내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10월에 지내지 않으면 정월 초사흘에 지낸다. 고사를 지내는 절차와 제물은 위의 박○○씨 덕과 동일하다.

V. 놀이와 여가생활

1. 놀이

민속놀이라 하면 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그네뛰기 등을 떠올릴 수 있으며 이러한 놀이는 전통사회에서 세시풍속의 하나로 명절이나 계절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과거 이 지역 농경사회에서 세시에 따라 놀아졌던 놀이에 대해서는 ‘세시풍속’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외의 놀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해보도록 한다.

일제치하 1920년대를 기점으로 총독부 주도의 이른바 ‘농촌오락 진흥정책’ 속에서 당시의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본의 놀이들은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조사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²¹⁹⁾ 당시 현재의 체육시간과 같은 학과시간에 교사들이 보통학교 학생들에게 놀이를 가르쳤는데 대부분은 일본에서 행해지는 놀이로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놀이들은 1980년대까지 전승되었다. 현재에도 그 중 일부 놀이는 관심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특별활동이나 체육시간에 행하여지고 있다.

이 글은 마을지의 성격에 맞게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각종 놀이들을 기술하고자 하며, 조사지역은 창곡동과 태평동, 북정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조사를 위한 대담자는 해당지역 토박이주민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주민의 제보는 참조하지 않았다.²²⁰⁾ 이 글에서 다룬 놀이들은 조사 당시 확인된 것만을 취하였으며 제보자들이 기억해 내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문헌을 참조²²¹⁾한 후 제보자 및 대상자들에게 재차 확인하였

219) 필자가 현지 조사시 참조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朴銓烈 譯, 『朝鮮의 郷土娛樂』, 집문당, 1992, 57~64쪽에 실린 경기도 광주지역의 여러 놀이들을 질문해 보았으나,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방식은 물론 놀이명조차 생소한 것이 많았다.

220) 토박이주민의 제보와 문헌을 참조하여 해당지역의 놀이에 대한 특색을 찾고자 하였다.

221) 스튜어트 커피, 윤광봉 譯, 『한국의 놀이』, 열화당, 2003

홍양자, 『-빼앗긴정서 빼앗긴 문화- 우리 놀이와 노래를 찾아서』, 다림, 1997

심우성, 『우리나라 민속놀이』, 동문선, 1996

———, 『한국의 민속놀이』, 삼일각, 1976

다. 아래의 내용은 세 마을 통합해 기술하였으며 마을마다 다른 점은 별도로 지명을 언급하였다.

(1) 도시화 전의 남자아이놀이

제보자들 대부분이 연로하여 유년시절의 놀이에 관해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문헌을 참조하여 그들에게 다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을 통해 비교적 자세히 알아낼 수 있었다. 오늘날 어린이들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놀이들도 있으나, 제보자들의 이야기들 위주로 작성해 본다.

가. 찜뽕

‘찜뽕’라고도 불리는 놀이로 주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즐겨하던 놀이로 현재에는 ‘주먹야구’라고 불린다. 지금의 야구와 거의 같은 방식의 놀이로 득점 방식도 똑같다. 야구가 투수가 던지는 것에 반해 찜뽕은 타자가 되는 자신이 직접 고무로 된 테니스공 크기의 고무공을 잡고 주먹으로 힘껏 쳐서 경기를 한다. 인원수에 따라 1, 2, 3루의 수를 조절가능 했다. 사시사철 가능한 놀이였으며, 넓은 마을공터나 학교운동장 또는 추수가 끝난 논바닥 등이 놀이장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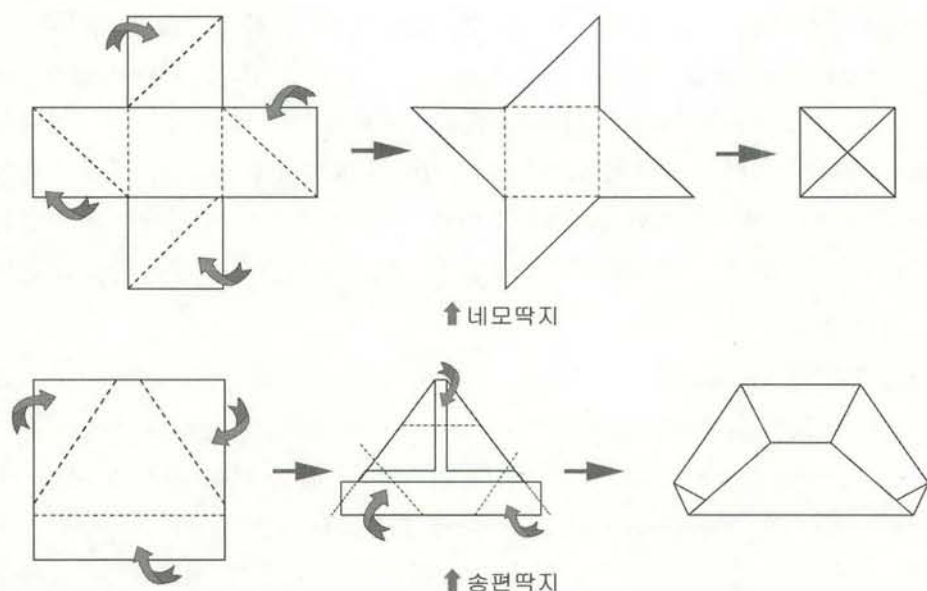
나. 딱지치기

어린이들이 즐겨하던 놀이로, 종이를 접어 만든다. 바닥에 놓인 상대방 딱지를 자신의 것으로 옆 부분을 쳐 뒤집어 지면 따먹는 놀이다. 제보자 이은중(李銀鍾)²²²의 말에 의하면, 종이가 귀하던 일정(日政)시절, 시멘트 자루를 찢어 만들었는데, 아이들에게 딱지는 다른 놀이를 하는데 일종의 화폐 기능도 있었다 한다. 즉, 다른 놀이인 ‘땅따먹기’나 ‘자치기’ 등을 하는데 있어 일정 개수의 딱지를 걸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딱지를 취(取)했다 한다. 태평동 일대에서 즐겨 접던 딱지의 종류는 네모딱지, 양면딱지, 송편딱지가 있다.

‘네모딱지’는 일반인들이 현재에도 알고 있는 모양의 딱지로 한 개의 종이를 길게 늘어뜨린 후 접어나가는 방법과 두 개의 종이를 교차시켜 접는 법 두 가지가 있다. ‘양면딱지’는 네모딱지 두 개를 양면에 포개어 접는다. ‘송편딱지’는 송편모양의 딱지로 네모딱지와 함께 즐겨 사용되던 딱지이다. 이것은 네모딱지보다 잘 뒤집어지는 단점이 있다.

김광언,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 출판부, 1982
최상수, 『한국 전래 어린이 놀이』, 웅진출판, 1989
편해문, 『옛 아이들의 노래와 놀이 읽기』, 박이정, 2002
_____, 『어린이 민속과 놀이문화』, 민속원, 2005

222) 이은중(남, 75세, 태평1동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딱지 접는 방법

다. 제기차기

현재의 제기차기와 같다. 제기를 만드는 재료로는 구멍 뚫린 엽전과 한지나 창호지 또는 시멘트봉지나 마분지 및 습자지 등의 얇고 잘 찢어지는 종이를 사용했다. 놀이 방식으로 '많이 차기'와 '동네제기' 두 방식이 있는데, '많이 차기'는 제기를 적게 찬 사람이 상대방의 발쪽을 향하여 제기를 던지는데, 헛발질을 유도하거나 그 사람이 찬 제기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만 다시 시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방식을 '들이기'라고 한다. 많이 차기 중에는 제기를 차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한발을 땅에 닿지 않게 차는 방식을 이 지역에서는 '헐랭이 차기'라고 했다. 또한 양발을 사용하여 각각 발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가며 차는 '엇갈려 차기' 등이 있다.

'동네제기' 역시 타 지역과 방식이 같은데, 여러 명이 둥글게 서서 한사람씩 제기를 차기가 원하는 방향에 있는 사람 쪽으로 패스하듯이 높게 차올리며 '동네!'라고 외치면 상대방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차며 '제기!'라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동네!', '제기!', '차려!', '가자!'라는 말과 함께 제기를 차서 헛발질을 하거나 제대로 차지 못하면 '들이기'를 한다.

라. 비석차기

전국적으로 널리 행해진 놀이 중 하나로, '비석치기' 또는 '비석까기'라고도 하는데, 주민 조귀현²²³⁾에 의하면 창말 지역에서는 '비석차기'라고 했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의

‘비석차기’ 방식 또한 여느 지역과 비슷한데, 일정 인원 중 짝을 맞추어 두 편으로 갈라 ‘가위 바위보’로 先공격을 정한다. 시작하는 곳과 비석을 세워 두는 곳에 일직선으로 금을 그은 후 최초 발등부터 머리 위까지 차례로 신체의 부위에 비석을 올리거나 끼워서 세워놓은 상대방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리는 방식의 놀이이다. 비석을 몸에 지니고 쓰러뜨리러 가는 도중 떨어뜨리면 ‘죽었다’고 한다. 비석의 재료로는 직사각형 모양의 돌로 땅 바닥에 세울 수 있으며, 자신이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무게의 것을 고른다.

마. 자치기

편가름 놀이도 가능하고 1 : 1 놀이도 가능하며 ‘장치기’라고도 부른다. 긴 자와 작은 자 두 개만 있으면 마당이건 골목이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놀이로 재료는 가시나무, 싸리나무, 소나무 등 나뭇가지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먼저 편을 나누고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 후 적당한 크기로 땅 바닥에 원을 그린 후 원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파는데, 세로로 한자 정도의 직선 형태로 얇게 판다. 그 위에 작은 자를 올려놓은 후 긴 자로 아래에서 위로 떠서 멀리 보내는데, 상대방이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요령이다. 작은 자가 떨어진 그 위치에서 수비측은 원안의 구멍으로 작은 자를 던지고 공격측은 긴 자로 날아오는 작은 자를 후려쳐서 멀리 날려 보내는 방식으로 떨어진 위치를 긴 자로 측정하여 그 자 수만큼 득점 하며, 수를 모두 득점하면 이기는 방식이다.

바. 썰매타기

겨울철 즐겨했던 놀이로 두 종류의 썰매가 있었다. 널빤지 아래 긴 각목을 대고 그 밑에 철사를 달아 얼음판을 꼬챙이로 지치며 달리는 ‘양발 썰매’와 널빤지 정 가운데 부분에 발을 하나만 달아 중심을 잡으며 타는 ‘외발 썰매’가 있다. 주로 물이 나는 ‘고랭이논’²²⁴⁾이나 창말 앞개울과 탄천이 썰매타기 좋은 장소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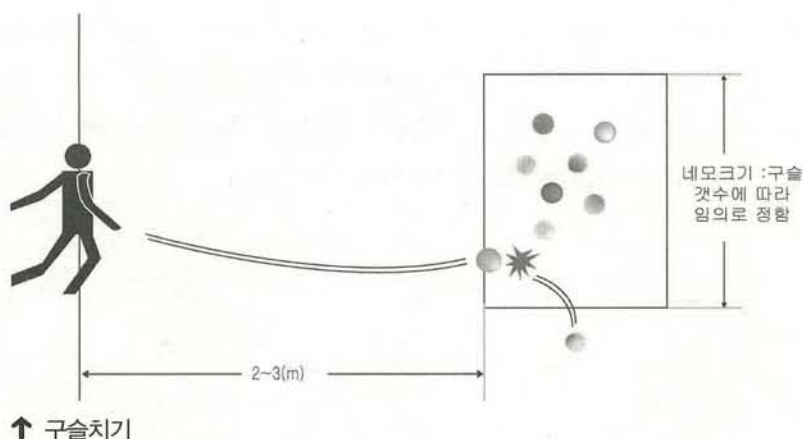
사. 구슬치기

조사지역의 제보자 모두가 구슬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제보자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구슬치기를 했다. 제보자들이 유년시절 즐겨 했던 구슬치기 방식은 일정거리를 두고 구슬을 굴릴 시작점과 대상 구슬들을 놓을 곳에 네모나 동그라미를 구슬 숫자에 맞추어 적당히 그린다. 개인별로 똑같은 수의 구슬을 목적지인 네모나 동그라미 안에 넣어둔 후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거나 목적지의 끝선에서 시작선에 구슬을 던져 선과 가까운 구슬을 던진 사람부터 우선권을 갖도록 정하기도 하였다 한다.²²⁵⁾

223) 1920년생으로 창곡동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224) 논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논을 ‘고랭이논’이라 부른다(제보자 : 김OO, 73세, 태평동 거주)

225) 앞 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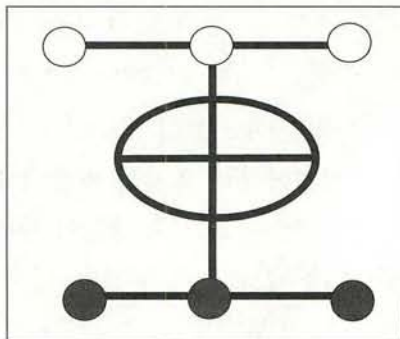


아. 팽이치기

창곡동에서는 겨울철 아이들이 썰매타기와 함께 즐겨했던 놀이라고 한다. 팽이는 주로 소나무 가지를 잘라서 아랫부분을 둥근 원뿔 형태로 깎아서 만들고 그 꼭지점에 쇠구슬을 박아 잘 돌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해방 전 일정(日政)시대에는 쇠구슬을 구하기 힘들어 주로 못 머리가 둥근 무두못을 박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팽이채는 주로 싸리나무로 만들었으며, 주변의 산에 닥나무가 많지 않아서, 팽이채의 줄은 광목을 잘라 사용했다.

자. 고누

‘고니’라고 부른다.²²⁶⁾ 어린아이에서 청년들까지 행한 놀이었다. 놀이 방식은 ‘호박고누’로 알려진 방식을 많이 했다 한다. 그러나 제보자에 의하면 ‘호박고누’라는 말은 기억이 나지 않고 ‘십자고누’라고 불렀다 한다. 놀이 방식은 현재의 방식과 같이 상대편 말의 갈 길이 없으면 이기는 방식이다. 고누의 말은 나뭇가지나 바둑돌, 길가의 작은 돌맹이 등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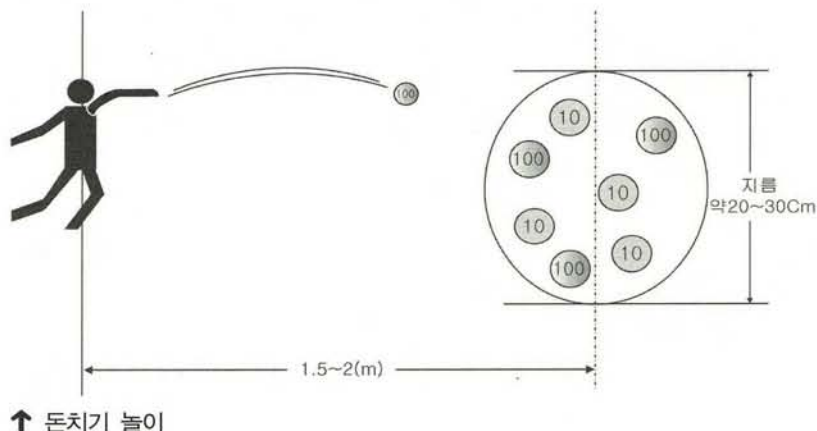
차. 돈치기

일정(日政)시절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²²⁷⁾, ‘신뽕’라고 불렀으며 정확한 시작연대는 알 수가 없다. 편을 가르지 않고 모두 개인전 방식으로 하는데, 일종의 도박이라

226) 제보자 : 조귀현(남, 1920년생, 창곡동 거주)

227) 앞 제보자

고 할 수 있다. 시작점에 일직선으로 금을 그은 후 일정한 간격을 띄워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미리 정한 액수의 동전을 놓는다.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 다음 원 안의 동전을 시작 선에 서서 던져 맞추면서 상대방의 동전을 따먹는 놀이이다. 금에 걸리면 그 동전은 원 안에 넣고 다음 순번의 사람에게 넘어간다.



카. 버들피리 불기

양력 4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버드나무에 물이 잔뜩 오르면 아이들은 근처 개울가에 자라고 있는 버드나무의 가지를 꺾어 버들피리를 만들어 분다. 창곡동 주민들은 뒷산과 마을 옆을 지나는 개울가에 있던 버드나무를 이용하였다고 하고, 태평동 주민들은 탄천 주변의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만들었다 한다. 만드는 법은 버드나무가지를 10~15Cm 정도 자른 후 양쪽 끝의 버드나무 껍질을 도려내 버린 다음, 가운데 부분에 남겨진 껍질 부분을 살짝 비틀어 떼어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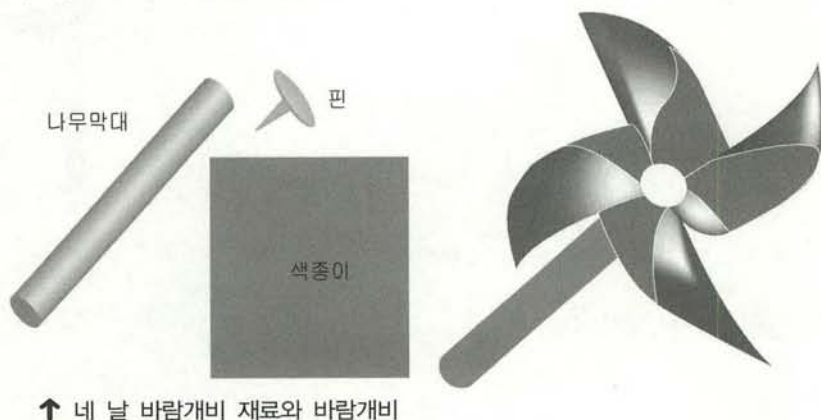
타. 바람개비놀이

조사지역에서 즐겨한 바람개비놀이는 '팔랑개비'라고도 불렀다 한다. 주로 어린이들이 부모나 형 또는 누나들이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뛰어다니며 놀았다. 바람개비놀이에는 네 날 바람개비와 두 날 바람개비가 있다.

네 날 바람개비는 색종이나 신문지 등 각종 종이가 가능한데, 아래와 같이 정사각형의 네모난 종이나 막대, 핀을 가지고 만든다. 먼저 색종이의 네 각을 접어 접힌 자리의 끝에서부터 중심점까지 약 3/5 정도를 칼이나 가위로 자른다. 8개의 조각이 생기면 한 개씩 건너 네 개의 끝을 종이의 중심점에 모아 핀으로 나무 손잡이에 관통시켜 고정한다. 이때 종이의 네 각을 둥글게 접어야 바람을 많이 받아 잘 돈다.

두 날 바람개비는 '쌍날 바람개비'라고도 한다. 수수깥이나 나무젓가락 또는 얇은 나

무막대기에 깎은 나무의 양옆에 서로 대칭 되게 조금 뿔뿔한 종이를 $5 \times 6\text{cm}$ 정도 크기로 두 개를 붙인다. 이때 한쪽은 오른쪽에, 다른 쪽은 왼쪽에 붙인 다음, 나무막대기의 중심축에 연결하면 된다. 종이가 평면이면 바람을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나뭇가지로 감았다가 놓으면 잘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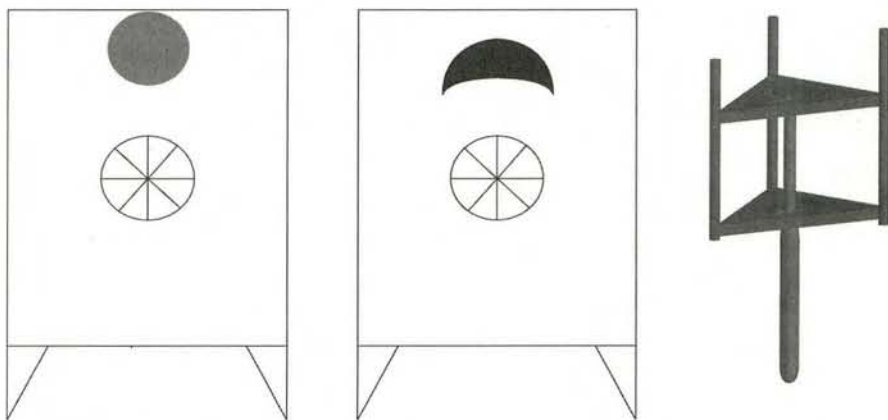


↑ 네 날 바람개비 재료와 바람개비

파. 연날리기

추수가 끝난 후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논밭이나 높은 언덕 위에서 어린 아이들이 날렸다. 창곡동은 해방 전까지 현재의 '가오리연' 보다는 '방패연'만을 날리다시피 했다 한다.²²⁸⁾ 나머지 지역은 방패연과 가오리연을 모두 날렸다. 연싸움은 연을 날리면서 서로 연줄을 맞닿게 하여 연줄을 끊는 방식이다. 연줄은 대개 명주실을 이용했으며, 상대방의 연줄을 잘 끊기 위해서 열레에 실을 감을 때 연줄에 사기그릇 조각을 뺏아서 아교나 밥풀을 으깨어 섞어서 연줄에 먹이는 방법을 썼다. 사기조각이 없을 경우 유리가루나 깨진 남포등 갓을 뺏아서 사용했다 한다. 제보자들의 유년시절 창곡동과 태평동일대에서 주로 사용된 연의 문양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방패연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주로 태양과 반달문양을 그렸으며, 방이연과 같이 아래쪽 양 끝부분에 작은 꼬리를 달았다. 열레는 사각열레나 육모열레를 사용했는데, 삼각열레를 사용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한다. 열레는 밤나무로 만들었으며 손잡이 부분은 싸리나무나 가시나무를 끼워 만들었다 한다. 연의 크기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잘 날수 있는 크기로 만들었다.

228) 제보자 : 조귀현, 이은종



↑ 조사지역에서 사용된 연의 문양과 삼각알레

(2) 도시화 전의 여자아이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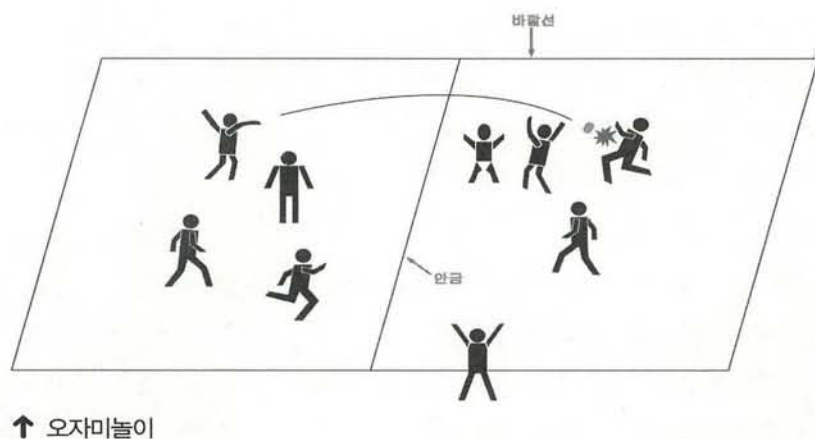
가. 봉사놀이

여자나 어린아이들이 놀던 놀이로 장소는 실내·외 모두 가능하다.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하는데, 술래는 '오니'라고 부른다. 술래가 된 사람은 수건이나 형겔 등으로 아무 것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린 후 나머지 인원들이 술래를 약 올리는데 박수를 치거나 각종 희롱하는 말을 하기도 하며 술래의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치는 등의 행위로 놀린다. 술래는 소리 나는 쪽을 가늠하여 상대방 중 아무나 손으로 잡으면 그 사람과 술래를 바꾸며 노는 방식이다. 술래의 눈을 가려 장님을 만든다 하여 '봉사놀이'라 부른다 한다.

나. 오자미놀이

'오자미' 혹은 '오재미'라고도 불리며 초등학교생들이 주로 교사의 지도아래 행해지던 놀이이다. '오자미'를 가지고 양편으로 나누어 상대편을 맞추면 이기는 놀이이다. 오자미는 대략 10×10Cm ~ 15×15Cm의 네모난 형태의 형겔을 펴고 그 안에 모래나 팔, 콩²²⁹⁾ 등을 넣고 실로 단단히 꿰매서 네모나게 만든다. 한 팀의 구성은 총인원을 반으로 나누어 짝을 맞추고, 오자미를 가지고 있는 팀 중 한명이 상대편을 맞추면 그 대상자는 손으로 받아야 한다. 받지 못한 자는 죽는다고 말하는데, 죽은 자는 선 밖으로 나간다. 1990년대 초까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성행하였으며 현재도 행하여지고 있다.

229) 오자미가 몸에 맞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모래나 콩, 팔 등을 넣었다고 한다.



다. 공기놀이

개인전뿐만 아니라 여럿이서 한 팀을 이루는 편가름 놀이로 즐길 수 있다. 현재 알려진 공기놀이의 방식과 같은데, 재료로는 손으로 집기에 알맞은 돌맹이 5개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 주로 여자아이들이 즐겨 했으며, 방법은 처음 5개의 돌을 바닥에 집기 쉽게 뿌린 후 한 알씩 집는 '한알잡기' 두알씩 집는 '두알잡기' 세알씩고 나머지 한 알 집는 '세알잡기' 하나의 공기알을 위로 올린 후 나머지 네 개의 공기알을 바닥에 놓고 먼저 위로 던진 공기알을 떨어지기 전에 잡으면서 켜켜게 바닥의 나머지 네 개의 공기알을 잡아 올리는 '막' 또는 '네알잡기'의 순서를 모두 통과한 후 손등에 올려진 공기알을 빠뜨리지 않고 잡아채서 그 공기알 수만큼 득점을 한다. 미리 약속한 점수를 득점한 팀이나 사람이 이긴다.

(3) 도시화 전의 어른놀이

한국의 농경에서 삶과 놀이, 일과 놀이는 미분화상태로 있었다. 삶이 놀이이며, 일이 놀이였던 것이다. 힘겨운 일을 놀이로서 하였다. 즉, 노동요를 부르고, 풍물을 치면서 그렇게 들판에서 일을 하였고, 장례식도 상여놀이, 회단이 등을 통해 놀이로 승화시켰으며, 집을 지을 때도 지정단이기를 하면서 놀이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놀이로 승화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삶 자체가 놀이이며 언제나 신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겨울철 농한기나 명절 또는 절기에 따라 짬이 나는 휴식기간에는 유희를 목적으로 한 놀이도 있었다. 이러한 놀이들은 세시풍속 부분에서 소개되었다. 과거 가정의 생업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 유희 자체를 위한 놀이는 많지 않았다. 그저 노동이나 의례와 결부된 놀이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농한기라 하더라도 추수가 끝난 겨울에는 연탄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을 근처 산에서 땔감을 준비하거나 새끼줄을 꼬거나 지붕을 이을 이엉을 엮거나 가마니를 짜거나 하는 등 각종일로 여가가 많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조사지역에서 과거에 행한 몇 개의 놀이를 간단히 소개해 본다.

가. 기싸움

정초에 행한 놀이로 각 마을의 상징인 농기에도 형님기와 아우기가 있는데, 마을의 두레패가 풍물을 치며 길을 가다가 인근마을의 두레패와 마주치면 위아래를 따져 '기세배'를 한다. 그러나 형님기를 보고 아우기가 세배를 하지 않는 경우 각기의 맨 꼭대기 부분에 달린 썰장목을 먼저 뽑아 채는 마을의 기가 '형님기'가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기싸움'이라고 불렀다 한다.²³⁰⁾

나. 물장고놀이

여자와 남자의 놀이가 별도로 구분된 것이 많지 않았으며, 아이들 놀이의 경우 대부분 혼성으로 놀이를 즐겼다. 창곡동 주민 손희선²³¹⁾에 따르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심하던 당시(해방직후~1950년대)까지만 해도 농한기인 정월은 시집살이하는 부녀자들에 게는 꿀맛 같은 휴식기였다고 한다. 설을 보낸 후 대보름까지의 10여 일간은 낮에 집안 일을 해 놓은 후 동네 부녀자들끼리 방에 모여 바가지에 물을 담아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바가지를 쳐가며 장단을 맞추어 민요를 부르며 놀았다 한다. 당시 대표적으로 불렀던 민요는 방아타령, 매화타령, 창부타령, 강강수월래 등이 있다. 특히 강강수월래는 한사람이 먼저 노래를 하면²³²⁾ 나머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 합창을 한다. 조사자는 2005년 7월 창말 노인정에 갔을 때 손희선이 부르는 유창한 민요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가사 일부를 아래에서 소개해 본다.

종구나 매화로다 에아데야~ 에헤야 에헤히이 여허라 사랑도 매화로다
앞방 거른방 다르다지만 옥화새김에 왕자님이란다 종구나 매화로구나
어야 디야 에헤야 이히여허라 사랑도 매화로다~!(매화타령)

에헤에 방아로구나 난다 난실 이난실랴요. 방아 방아 노세 노자 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 병이들면 못노나니 에헤 에 헤이야 어허 우겨라 방아로구나
난다 난실 이난실랴요

230) 앞 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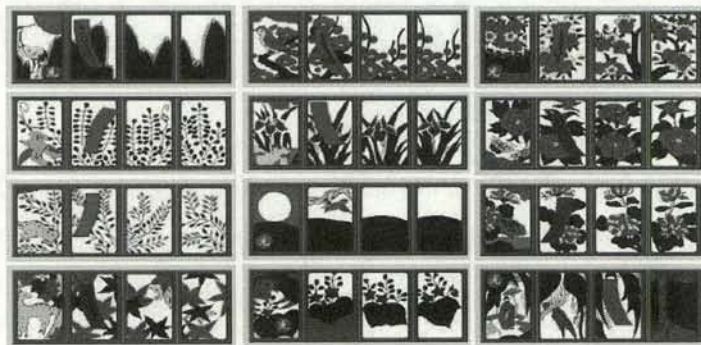
231) 제보자 : 송희선(여, 1933년생, 서울 답십리태생, 18세 때 창말로 시집와 현재까지 거주)

232) '선소리'를 먹인다고 한다.

방아 방아 노세~! 달아달아 이태백이나 노던 달아.
 에헤 에헤이야, 어허 우겨라 방아로구나 난다 난실 이난실랴요
 방아 방아 노세 해가지고 저문 달에 옥화서하고서 어대를 가나
 에헤 에헤이야 어허 우겨라 방아로구나 난다 난실 이난실랴요
 방아 방아 노세~(방아타령)

다. 화투

이것은 현재도 즐겨하는 것으로 근래 행해지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성인에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즐겨 하는 것이 화투이나 오늘날 성인들은 명절이나 장례식장에서 밤을 썰 때, 친구들과 야유회를 갔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 주로 하지만 노인들은 여가 시간이 많아 노인정에서 평소에도 즐겨한다. 근래 노인들은 주로 십 원짜리 동전을 놓고 1점에 십 원씩 주기로 하고 노는 경우가 많다. 놀이 방식으로는 ‘짓고땡’, ‘섯따’, ‘고스톱’, ‘민화토’ 등이 있는데, 90%이상이 고스톱을 즐겨한다. ‘고스톱’은 대개 3명에서 5명이 친다. 화투는 각 4장씩 1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²³³⁾하는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3명이 칠 때는 먼저 48장의 화투에 상표가 그려진 2~3장의 화투²³⁴⁾를 더하여 잘 섞은 후 개인당 7장씩을 나눠 주고 나머지 패를 가지런히 정리하여 가운데 놓는다. 필요인원은 3명이므로 만약 참여 인원이 5명이면 처음 화투를 모두에게 돌린 후 두 사람은 쉬어야 한다. 패를 돌린 선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나머지 2명은 ‘광팔기’를 한다. 이 때 쉬는 사람 중 광이 든 사람은 ‘광값’을 받고 판이 끝날 때까지 쉰다.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3점을 먼저 취득하면 ‘고’를 할 것인지 ‘스톱’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스톱’을 함으로써 그 판은 끝이 나고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경기 방식이다.



↑ 화투

233) 권현주, 「화철(花札)의 “전통 문화 기호”와 화투(花鬪)의 “놀이 문화 기호” 고찰」, 한국일본어문학회, 2004

234) 복정동의 노인정에서는 이 패들을 ‘쫓카’라고 부른다.

2. 현대의 여가생활

현대인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과거 농경사회의 경우에는 여가생활을 주로 농업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보내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개인화되어 있으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유형이 제각각이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TV를 시청하고 휴일이면 간혹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보거나 등산, 여행을 하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 독서 등 각종 취미활동을 하기도 한다. 과거 농업공동체 사회에서의 놀이는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세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일과 의례와 결부된 형태 등 다양했으며 놀이의 종류도 많았다. 특히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아동들의 놀이는 매우 종류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생활은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전통사회의 놀이들이 단절되고 새로운 자본주의 상업문화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노는 것도 주민 스스로 창출하여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상업문화가 만들어놓은 놀이에 수동적으로 참여해서 돈을 지급한다. 이제는 아이나 어른도 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최근의 놀이 및 여가활동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컴퓨터를 마주하며 정보도 얻고 게임도 하는 등 또 다른 신편경이 만들어졌다. 아이들과 청소년의 경우 학업과 다양한 종류의 과외 교육으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을 즐기는 형태가 TV를 보거나 인터넷 게임을 하는 등 단조로워졌다. 과거에는 많은 놀이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놀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이렇다 할 놀이가 드물며 주로 혼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성화되지 않은 자본주의 상업문화의 획일화된 놀이에 안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가생활을 금번 조사지역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세대별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 및 청소년

아이들의 일상적 일은 공부하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받는 것 외에도 방과 후 과외나 학원교육 등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간간히 짜투리 시간을 통해 놀지 않으면 노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아이들은 여가시간에 TV를 시청하거나 독서, 또래들과 놀기도 한다. 청소년의 경우 과거에는 동네에 있는 오락실을 찾아가 놀기도 했으나 수년 전부터 확산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한다. 학교에 다녀온 후 컴퓨터에 앉아 게임에 열중하여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는 경우도 흔하다. 인터넷이 확산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오락실에서 장

시간 시간을 보내어 부모에게 야단맞던 시절과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요즘에는 오락실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그 자리를 PC방이 대신하고 있다.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오락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태평동의 PC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과거 논밭을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놀던 아이들의 놀이터가 도시화되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 특히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골목길에서 수시로 차가 다녔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좁은 어린이놀이터로 한정되었다. 오늘날 아파트나 주택가의 놀이터나 초등학교의 운동장, 각종 유아시설 내부의 놀이기구 등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다. 어린이놀이터는 4살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

근래 인터넷의 보급으로 동전을 넣고 하는 전자오락실이 사라진 후, 문방구 앞에 조그만 오락기계만 남았는데 그곳에서 동전을 넣고 대결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 요즘은 한판에 100원을 넣고 자신이 고른 인물(캐릭터)이 지면 경기가 끝나는 방식이다. 이것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한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보급으로 청소년에게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일상적인 놀이가 되었다.

수십 년 전부터 아이들이 혼자서 놀 수 있는 놀이 중에 '비누거품 날리기'가 있다. 이 놀이를 소개하면서 아동들의 놀이에 대한 부분을 맺도록 한다. 삼푸나 식기용 세제 또는 세탁비누 따위를 물에 풀어서 빨대나 철사 등을 이용하여 거품을 문혀 입으로 불어 방울을 만들어 날리는 놀이이다. 더 큰 방울을 만들어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 대결 방식도 있으나, 보통 혼자서 비누방울을 날리며 노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 베란다 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날리거나 공원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겨울철 외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2) 성인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직업이 다양하고 일하는 시간대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주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야간에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의 생활이 개인화 되어 여가시간을 보내는 유형도 제각각이다. 현대인의 여가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것은 TV일 것이다. 직장인들은 퇴근한 후 집에 돌아와 TV를 보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하거나 가정에서 비디오를 빌려보는 경우도 많다. 태평동의 경우 한 비디오가게 주인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불경기가 계속되다보니 실업자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이 만화와 비디오를 빌려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태평동 골목에는 곳곳에 비디오를 대여해 주는 가게가 있다. 2005년 현재 1일 대여비로 신프로는

1500원, 구프로(제작된 지 오래된 것)는 500원을 받고 있다. PC방을 가서 온라인 게임을 사람도 많다.

휴일에는 영화를 보거나 등산, 여행, 독서 등 사람에 따라 각종 취미활동을 하기도 한다. 미혼남녀들은 주말이나 휴일에 애인과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기도 하며,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휴양지 및 관광지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주말이면 계곡이나 유원지 등지에 사람들이 몰리며 도로는 나들이 차량으로 붐비기도 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를 찾는 경우가 많아 삼복더위의 신평경을 연출하고 있다.

수정으로 주변에는 노래방, 단란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주점, 식당 등 유흥가가 있어 일과를 끝낸 후 사람들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놀기도 한다. 수년 전부터 찜질방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장시간 쉬었다 오기도 한다.

(3) 노인

노인들은 여가시간이 많은 편이다. 농촌의 경우에는 노인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농한기가 아니면 노인정을 찾지 않으나 도회지는 사시사철 노인들이 노인정에 온다. 오늘날 등마다 노인정이 있어 도회지에 사는 노인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창말의 경우에는 70세를 넘긴 노인들이 노인정에 오는데 그곳에서 점心和 저녁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혼자 살거나 집에서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 불편한 점도 있어 노인들은 아침 외에는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창말의 노인들은 주로 점심 무렵에 와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노인정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때는 가족들이 모여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만 사는 집의 경우 이때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마을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거나, 손자 봐주기 등의 가정의 소일거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정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화투를 치는 경우도 있고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생활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복정동 주민자치센터의 2005년 '노인복지프로그램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²³⁵⁾.

235) 복정동사무소에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의 향상과 여가생활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학기마다 개설하고 있다.

월요일	요가D(초급) 09:00~10:00 컴퓨터기초 09:30~10:30	요가A(중급) 11:00~12:00	요가B(중급) 13:00~14:00	노래교실 14:00~15:30		요가(저녁반) 18:20~19:30
화요일	에어로빅 09:00~10:00	요가C (초급) 11:00~12:00	스포츠댄스 (초급) 13:00~14:00	스포츠댄스 (중급) 14:00~15:00	사물놀이 15:30~16:30	
수요일	컴퓨터기초 09:00~10:00	리본공예 10:00~12:00 요가A(중급) 11:00~12:00	요가B(중급) 13:00~14:00			요가(저녁반) 18:20~19:30
목요일	에어로빅 09:30~10:30 컴퓨터 (인터넷) 09:30~10:30	요가C (초급) 11:00~12:00 종이공예 10:00~12:00 게이트볼 10:00~12:00	스포츠댄스 (초급) 13:00~14:00	스포츠댄스 (중급) 14:00~15:30		
금요일	요가D(초급) 09:00~10:00 컴퓨터기초 09:30~10:30	요가A(중급) 11:00~12:00 비즈공예 10:00~12:00	요가B(중급) 13:00~14:00		사물놀이	

↑ <북정동 주민자치센터의 2005년 노인복지 프로그램>

3. 마을잔치와 आयु회²³⁶⁾

(1) 척사대회

과거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것으로 설날에 마을의 공터에서 윷놀이를 한다. 마을 운영회에서 각 단체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기금조성을 한 후 '청년회'에서 주관하며, 금년 2005년부터는 마을 전체의 모든 사람과 조직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고향친목회를 비롯한 노인회, 부녀회 등이 참여한다. 척사대회를 할 때 노인잔치를 겸하여 음식을 잘 차려서 노인들에게 대접한다.

(2) 노래자랑

마을 청년회가 주관하여 매년 추석에 마을잔치로 열린다. 노래자랑은 이를 동안 열리는데 추석 전날 예선전을 하고 추석날 본선을 한다. 비용은 청년회의 기금으로 한다. 노래자랑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 2005년에는 예산부족으로 하지 않았다.

236) 여기에서는 창곡동 창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3) 노인잔치

마을 청년회에서 연 2회를 실시하는데, 주로 명절(설날 척사대회를 할 때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과 복날에 열린다.



↑ 참말 마을공터에서 행해진 노인잔치(1960년대 중반)



↑ 1989년에 참말 노인정에서 행해진 노인잔치 때의 모습

(4) 야유회

노인회 자금과 각 통별로 모금된 자금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유회’가 있다. 노인회의 야유회는 1년에 2회 정도 가는데 2005년에는 5월 10일과 10월 10일에 다녀왔다. 보통 야유회는 당일로 갔다 오는데 정부에서 노인정 관리비로 나오는 난방비 등을 절약하여 생긴 돈과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가끔 기부하는 기부금 등이 노인

회 자금으로 구성되어 야유회 때 사용된다. 월 2000원씩 노인회 회비가 있으나 그 돈은 노인정에서 점심과 저녁으로 먹는 식사비용으로 충당된다.

부녀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야유회를 가는데 5월경에 당일치기로 다녀온다. 가끔 마을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여행사가 주관하는 것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다녀온다.



↑ 주민 야유회를 갔을 때의 모습(1984년 서귀포 천지연폭포)



↑ 주민 야유회를 갔을 때의 모습(1975)



↑ 주민 야유회를 갔을 때의 모습(1970년대)



↑ 주민들의 해외여행 때의 모습(1990년대 중반 프랑스)

편 집 후 기

성남의 역사와 문화는 1970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전환을 맞았다. 조용한 농촌에 나무가 베어지고 산 중턱까지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부터는 분당이 개발되면서 또 한 차례 도시의 팽창이 있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판교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여 또 들판과 자연마을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아파트가 대신하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개발된 성남 구시가지는 재개발을 통해 수년 후면 또 다른 얼굴로 변모할 것이다.

급변속에서 성남의 전통문화는 변모되거나 단절의 역사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적 단절을 극복하고 과거의 문화를 상기하며 그 연속성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맞이하는 길을 모색할 때다. 다행히 성남문화원에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마을지'를 작성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이 현재는 물론 후일 성남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고자 한 의도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에 본인이 연구책임을 맡고 보니 책무가 막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보다 충실한 마을지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 책 목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을의 자연·인문환경, 역사, 문화유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상 등의 조사항목을 정하고 적합한 집필진을 구성하였다. 충실하고 상세한 마을지 조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지역을 자주 왕래하며 꼼꼼하게 조사해야 한다. 학계에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라 하여 집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하다. 따라서 집필진에 있어서는 현지조사에 능하고 충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집필진이 구성된 후에는 각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서로 조언을 해주었으며 1차 조사가 완료된 후에 조사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미비점은 재조사를 통해 보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있었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에 비해 조사지역이 넓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팀장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부탁에 집필진 모두 고생이 많았으며 무더위 속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조사했다. 지면을 통해 한동역, 천은복, 박지윤, 이상규, 이상균, 양미경, 홍순철, 주영선, 이재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향토문화연구소 조유전소장님의 지도와 가르침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소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

린다.

마을지에 대한 문화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있었다. 성남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남문화발전에 노력하시는 남선우 문화원장님과 한춘섭 부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작은 책이 성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잇는 성남문화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면 집필진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일 것이다.

2005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김 덕 목

자문위원 : 조유전(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연구책임 : 김덕목(한국민속기록보존소장)

조사 및 집필 : 한동익(성남문화원이사)

천은복(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상규(세명대 강사)

박지윤(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홍순철(한국학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이상균(한국학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양미경(한국학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주영선(한국학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이재철(사진작가)

편집 및 교정 : 한국민속기록보존소

- 성남향토문화 총서 ⑤ -

복정 · 태평마을지

발행일 : 2005년 12월 20일

발행처 : 성남문화원

주소 :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26번지

전화 : (031) 756-1082, 1028

팩스 : (031) 756-1056

홈페이지 : <http://www.seongnamculture.or.kr>

E-mail : culture1082@hanmail.net

제작 : 예나루

이 책은 성남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북정·태평 마을지